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00.txt

제목: 선택  
날짜: 20140522  
기자: 김현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2100000031  
본문: 인상에 남는 영화 속 장례식이 두 개 있다. 하나는 1959년 작 엔딩 장면, 흑인 가정부의 성대한 장례식이다. 말이 이끌고 가스펠성가대와 브라스밴드가 따르며 꽃으로 덮인 영구차가 천천히 거리를 행진한다. 언뜻 가정부와 성대함이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이는 그녀가 평생 준비해온 염원이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혼혈인 딸이 뒤늦게 군중을 비집고 나타나 엄마의 관 위에 엎어져 오열한다.<br/>　또 하나는 1997년 작 . 에이즈로 죽어가던 남자가 문병 온 절친에게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라고 충고한다. 또한 자신의 장례식은 슬픔의 애도식이 아니라 신나는 파티였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긴다. 그가 죽고 조문객들은 생전에 고인이 애호하던 댄스음악을 틀어놓고 한바탕 춤추고 마신다.<br/>　지난주 외신에선 열아홉살 어느 영국인 청년의 죽음을 보도했다. 그는 자신도 환자이면서 청소년 암환자를 위해 모금운동을 펼쳐온 스티븐 서턴이다. 그는 열다섯살에 말기암 진단을 받고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마흔여섯 가지 소원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만든다. 소원 1번이 청소년 암환자를 위한 자선기금 1만파운드 모금하기였다. 결국 300만파운드가 넘게 모금해냈으니 목표액의 300배 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또한 자선모금을 위한 스카이다이빙 하기, 번지점프 하기, 친구들을 위한 파티 열기, 나보다 큰 동물 안아보기(실제 코끼리를 안아봄), 암과 관련된 농담과 우스운 일화를 모아 ‘종양 유머’라는 책 발행하기(암에 걸린 사람들이 인생의 밝은 쪽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신 새기기, 저글링 배우기, 청중 앞에서 드럼 연주하기 등등 소원을 하나씩 실천해 간다.<br/>　“<span class='quot0'>내가 암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암이 나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span>” 암을 조기에 진단해내지 못한 의사들을 원망하느냐는 인터뷰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싱긋 웃는다. “<span class='quot0'>암은 별로지만 인생은 굉장해요.</span>” 스티븐 서턴의 앳되고 서툰 말을 듣다 보면 고개가 숙여진다.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배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연민하느라 허송세월하지도 않는다.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을 뿐이다.<br/>　오래전 의과대학 병리 시간에 작은 토론이 있었다. ‘만일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병으로 죽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의대생들의 선택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심장마비고 다른 하나는 암이다. 심장마비를 택한 학생들의 논리는 죽는 날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다는 것이었고, 암을 택한 학생들의 논리는 미리 주위를 정리할 시간을 갖고서 죽음을 맞고 싶다는 것이었다. 즉 죽음의 인지와 실제 죽음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허락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병을 택한 것이다.<br/>　시한부 삶이 꼭 비극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긍정과 감사를 배우게 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좀더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불치병 판정을 받은 어느 60대 여인은 남은 몇달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의지를 깨닫는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으러 여행을 떠나고 자전거를 배워 섬진강 종주를 한다. 남은 시간 절망 속에서 보낼 것이냐, 혹은 멋진 피날레를 만들어 갈 것이냐,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들 자신의 몫이다. 삶 자체가 덤이고 보너스인데 무엇을 서러워하랴.<br/>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01.txt

제목: 몸과 마음 망치는 ‘식탐’ 벗어나려면?  
날짜: 2014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1100000136  
본문: 생로병사의 비밀(한국방송1 밤 10시) ‘먹고 또 먹고, 식탐의 경고’ 편. 자신도 모르게 음식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식탐을 의심해봐야 한다. 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나는 식탐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식탐은 비만, 고혈압, 당뇨는 물론 각종 암까지 불러일으킨다. 단순히 살이 찌는 차원을 넘어 몸과 마음을 망치는 위험한 질병이다. 세끼 식사 외에 간식, 야식 등이 주원인이다. 이 때문에 폭식과 과식을 반복하면서 위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소화장애가 일어난다. 비만이 되고 성인병과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다. 식탐은 뇌 중심에 위치한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겨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가 불균형해져 생긴다. 정신적인 문제도 있다. 각종 스트레스로 끊임없이 먹고, 살이 안 쪘는데도 쪘다고 생각해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섭식장애도 원인이다. 제작진은 식탐이 많은 사례자와 일반 사례자의 유전체 검사를 통해 식탐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본다. 음식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양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병연 교수는 섬유소, 단백질 위주의 식습관과 운동을 권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02.txt

제목: [세상 읽기] 선택 / 김현정  
날짜: 2014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110014317931  
본문: 인상에 남는 영화 속 장례식이 두 개 있다. 하나는 1959년 작 <슬픔은 그대 가슴에> 엔딩 장면, 흑인 가정부의 성대한 장례식이다. 말이 이끌고 가스펠성가대와 브라스밴드가 따르며 꽃으로 덮인 영구차가 천천히 거리를 행진한다. 언뜻 가정부와 성대함이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이는 그녀가 평생 준비해온 염원이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혼혈인 딸이 뒤늦게 군중을 비집고 나타나 엄마의 관 위에 엎어져 오열한다.<br/><br/> 또 하나는 1997년 작 <원 나잇 스탠드>. 에이즈로 죽어가던 남자가 문병 온 절친에게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라고 충고한다. 또한 자신의 장례식은 슬픔의 애도식이 아니라 신나는 파티였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긴다. 그가 죽고 조문객들은 생전에 고인이 애호하던 댄스음악을 틀어놓고 한바탕 춤추고 마신다.<br/><br/> 지난주 외신에선 열아홉살 어느 영국인 청년의 죽음을 보도했다. 그는 자신도 환자이면서 청소년 암환자를 위해 모금운동을 펼쳐온 스티븐 서턴이다. 그는 열다섯살에 말기암 진단을 받고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마흔여섯 가지 소원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만든다. 소원 1번이 청소년 암환자를 위한 자선기금 1만파운드 모금하기였다. 결국 300만파운드가 넘게 모금해냈으니 목표액의 300배 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또한 자선모금을 위한 스카이다이빙 하기, 번지점프 하기, 친구들을 위한 파티 열기, 나보다 큰 동물 안아보기(실제 코끼리를 안아봄), 암과 관련된 농담과 우스운 일화를 모아 ‘종양 유머’라는 책 발행하기(암에 걸린 사람들이 인생의 밝은 쪽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신 새기기, 저글링 배우기, 청중 앞에서 드럼 연주하기 등등 소원을 하나씩 실천해 간다.<br/><br/> “<span class='quot0'>내가 암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암이 나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span>” 암을 조기에 진단해내지 못한 의사들을 원망하느냐는 인터뷰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싱긋 웃는다. “<span class='quot0'>암은 별로지만 인생은 굉장해요.</span>” 스티븐 서턴의 앳되고 서툰 말을 듣다 보면 고개가 숙여진다.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배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연민하느라 허송세월하지도 않는다. 다만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을 뿐이다.<br/><br/> 오래전 의과대학 병리 시간에 작은 토론이 있었다. ‘만일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병으로 죽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의대생들의 선택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심장마비고 다른 하나는 암이다. 심장마비를 택한 학생들의 논리는 죽는 날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다는 것이었고, 암을 택한 학생들의 논리는 미리 주위를 정리할 시간을 갖고서 죽음을 맞고 싶다는 것이었다. 즉 죽음의 인지와 실제 죽음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허락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병을 택한 것이다.<br/><br/> 시한부 삶이 꼭 비극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긍정과 감사를 배우게 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좀더 적극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불치병 판정을 받은 어느 60대 여인은 남은 몇달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의지를 깨닫는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으러 여행을 떠나고 자전거를 배워 섬진강 종주를 한다. 남은 시간 절망 속에서 보낼 것이냐, 혹은 멋진 피날레를 만들어 갈 것이냐,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들 자신의 몫이다. 삶 자체가 덤이고 보너스인데 무엇을 서러워하랴. <br/><br/>김현정 서울시립병원 정형외과전문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03.txt

제목: 가리왕산  
날짜: 20140521  
기자: 김선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1100000132  
본문: 아름다운 동강 옆에 말할 수 없이 신비한 가리왕산이 있다. 500년 이상 된 남한 최고의 원시림인 가리왕산은 식물 유전자 보존을 위해 국가가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해 온 곳이다. ‘죽어 천년, 살아 천년’이라는 주목이 어린 개체부터 수백년 된 노거수까지 세대별로 출현하는 유일한 곳이고, 1970년대부터 주목의 도벌을 막기 위해 나무마다 일련번호를 달아 관리해온 산이다. 그런 곳에 평창겨울올림픽 스키장이 지어진다고 한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암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하더니 단 일주일 만에 그동안 보호림 파괴 문제로 보류되어 온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이 결정나 버렸다. 이 경기장의 건설로 훼손될 나무는 약 5만8000그루. 보름간의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그중 단 3일간의 경기장 사용을 위해서 말이다.<br/>　그간 활강경기장을 가리왕산에 지어야 한다는 근거는 국제스키연맹의 규정인 표고차 800m를 충족시키는 곳이 가리왕산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들이 확인한 국제스키연맹의 규약집에는 개최국의 지형 여건상 표고차 800m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350~450m 표고차의 슬로프에서 두 번에 걸쳐 순위를 매긴다는 규칙이 포함돼 있다. 강원도 내 기존 스키장에서 충분히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계속 가리왕산 공사를 밀어붙일 텐가. 누구를 위해서? 또 그놈의 건설기업을 위해서?<br/>김선우/시인·소설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04.txt

제목: ‘낙하산’ 꽂으며 ‘관피아’ 잡을 수 있나  
날짜: 201405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1100000041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를 밝혔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연결고리로 관피아를 찍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관피아를 양산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래서는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br/>　박 대통령은 관피아 문제 해결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의 강화를 제시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대폭 늘리고, 퇴직 후 취업 이력 공시제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관피아가 발붙일 수 있는 곳의 입구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검찰은 21일 김진태 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관피아가 연루된 민관유착의 비리 유형을 나눈 뒤 유형별 범죄 정보 수집과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br/>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로 떠올랐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 출신의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관례는 관리감독의 부실을 야기했고, 결국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 되었다. 또다른 참사를 예방하려면 관피아를 척결해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br/>　그러나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공직사회 개혁은 관피아 척결로만 안 된다. 공공기관의 관료 낙하산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정치권의 낙하산이다. 선거에서 탈락한 여당 출신 정치인이나 권력 실세의 측근, 또는 그 언저리에서 맴돌던 인사들이 보상 차원에서 공공기관 주요 보직을 꿰차고 앉은 경우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바로 이런 낙하산들이 공공기관에 즐비하다.<br/>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가운데 낙하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가 75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관료 출신이 전체의 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당이나 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 출신도 15.6%나 된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span class='quot0'>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span>”이라고 장담했으나 헛말이 된 셈이다.<br/>　어느 정부에서든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은 힘든 과제다. 특히 국정 최고책임자가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면 더 힘들어진다. 국민의 분노만 쌓일 뿐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05.txt

제목: 5월 21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010014306153  
본문: 몸과 마음 망치는 ‘식탐’ 벗어나려면?<br/><br/>생로병사의 비밀(한국방송1 밤 10시) ‘먹고 또 먹고, 식탐의 경고’ 편. 자신도 모르게 음식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식탐을 의심해봐야 한다. <한국방송>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나는 식탐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식탐은 비만, 고혈압, 당뇨는 물론 각종 암까지 불러일으킨다. 단순히 살이 찌는 차원을 넘어 몸과 마음을 망치는 위험한 질병이다. 세 끼 식사 외에 간식, 야식 등이 주원인이다. 이 때문에 폭식과 과식을 반복하면서 위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소화 장애가 일어난다. 비만이 되고 성인병과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된다. 식탐은 뇌 중심에 위치한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겨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가 불균형해져 생긴다. 정신적인 문제도 있다. 각종 스트레스로 끊임없이 먹고, 살이 안 쪘는데도 쪘다고 생각해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섭식장애도 원인이다. 제작진은 식탐이 많은 사례자와 일반 사례자의 유전체 검사를 통해 식탐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본다.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양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병연 교수는 섬유소, 단백질 위주의 식습관과 운동을 권한다.<br/><br/>타이 무에타이 선수들 ‘혹독훈련’　<br/><br/>극한직업(교육방송 밤 10시45분) 3일 타이 방콕에서 열리는 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한창인 타이의 무에타이 선수들을 만난다. 무에타이는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타이의 국민 스포츠. 선수들은 자부심 하나로 혹독한 훈련을 견딘다. 신체 중 가장 약한 부위라는 정강이와 팔꿈치, 복부 단련이 중요한데, 보호 장비 없이 하루 14시간 훈련을 거듭한다. 머리 부상과 팔, 다리 골절은 숙명이다. 체중 조절을 해야 해 우유와 달걀 두개로 버틴다. 20대 중반이면 은퇴를 해야 할 정도로 선수 생명도 길지 않지만, 그들은 무에타이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한다.<br/><br/>MBC 라디오 진행자들 입담 대결<br/><br/>황금어장-라디오스타(문화방송 밤 11시15분) <문화방송>을 대표하는 라디오 진행자인 배철수, 김현철, 박준형, 윤하가 나온다. 각각 <배철수의 음악캠프><오후의 발견, 김현철입니다><박준형·정경미의 2시 만세><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고 있다. 배철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벌써 24년이 됐다. <문화방송>에서 살다시피 해 라디오국에 가면 늘 그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배철수는 <배철수의 음악캠프>에 대한 애틋함과 오랫동안 라디오를 한 소감 등을 말한다. 윤하와 김현철, 박준형은 진행 초반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 등을 이야기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06.txt

제목: “술 그만 마시라”하던 딸, 때리고 밥 안 준 김씨 부부 구속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010014305248  
본문: 부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20일 키우고 있던 딸을 일삼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부 김아무개(54)씨를 구속했다.<br/><br/>또 딸한테 밥을 챙겨주지 않고 계부 김씨의 폭행을 방관한 계모 김아무개(5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br/><br/>계부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북구에 있는 주택에서 계모 김씨의 전 남편의 딸인 ㄱ(10)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ㄱ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br/><br/>경찰 조사 결과, ㄱ양의 친아버지는 친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계모 김씨와 2006년 결혼을 했다. 하지만 ㄱ양의 친아버지는 2008년 암으로 숨졌고, 계모 김씨는 친어머니를 대신해 ㄱ양을 키웠다. ㄱ양이 계부와 계모한테서 학대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2년 계모 김씨가 계부 김씨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술을 자주 마셨던 계부 김씨가 ㄱ양이 “술을 그만 마셔라”고 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ㄱ양을 때린 것이다. 이후 계부 김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차례나 ㄱ양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계부 김씨는 경찰에서 “<span class='quot0'>ㄱ양이 거짓말을 하고 계부인 나의 험담을 하기 때문에 몇차례 때렸다</span>”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경찰은 가정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아침도 먹지 못한 채 등교하는 아이가 있다는 학교 폭력 담당교사의 말을 듣고 수사에 착수해 계부 김씨와 계모 김씨를 붙잡았다. ㄱ양은 현재 임시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져 병원진료와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br/><br/>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07.txt

제목: [김선우의 빨강] 가리왕산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010014305941  
본문: 아름다운 동강 옆에 말할 수 없이 신비한 가리왕산이 있다. 500년 이상 된 남한 최고의 원시림인 가리왕산은 식물 유전자 보존을 위해 국가가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해 온 곳이다. ‘죽어 천년, 살아 천년’이라는 주목이 어린 개체부터 수백년 된 노거수까지 세대별로 출현하는 유일한 곳이고, 1970년대부터 주목의 도벌을 막기 위해 나무마다 일련번호를 달아 관리해온 산이다. 그런 곳에 평창겨울올림픽 스키장이 지어진다고 한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암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하더니 단 일주일 만에 그동안 보호림 파괴 문제로 보류되어 온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이 결정나 버렸다. 이 경기장의 건설로 훼손될 나무는 약 5만8000그루. 보름간의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그중 단 3일간의 경기장 사용을 위해서 말이다.<br/><br/> 그간 활강경기장을 가리왕산에 지어야 한다는 근거는 국제스키연맹의 규정인 표고차 800m를 충족시키는 곳이 가리왕산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들이 확인한 국제스키연맹의 규약집에는 개최국의 지형 여건상 표고차 800m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350~450m 표고차의 슬로프에서 두 번에 걸쳐 순위를 매긴다는 규칙이 포함돼 있다. 강원도 내 기존 스키장에서 충분히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계속 가리왕산 공사를 밀어붙일 텐가. 누구를 위해서? 또 그놈의 건설기업을 위해서? <br/><br/>김선우 시인·소설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08.txt

제목: [사설] ‘낙하산’ 꽂으며 ‘관피아’ 잡을 수 있나  
날짜: 2014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2010014305934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를 밝혔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연결고리로 관피아를 찍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관피아를 양산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래서는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br/><br/> 박 대통령은 관피아 문제 해결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의 강화를 제시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대폭 늘리고, 퇴직 후 취업 이력 공시제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관피아가 발붙일 수 있는 곳의 입구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검찰은 21일 김진태 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관피아가 연루된 민관유착의 비리 유형을 나눈 뒤 유형별 범죄 정보 수집과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br/><br/>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로 떠올랐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 출신의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관례는 관리감독의 부실을 야기했고, 결국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 되었다. 또다른 참사를 예방하려면 관피아를 척결해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br/><br/> 그러나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공직사회 개혁은 관피아 척결로만 안 된다. 공공기관의 관료 낙하산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정치권의 낙하산이다. 선거에서 탈락한 여당 출신 정치인이나 권력 실세의 측근, 또는 그 언저리에서 맴돌던 인사들이 보상 차원에서 공공기관 주요 보직을 꿰차고 앉은 경우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바로 이런 낙하산들이 공공기관에 즐비하다.<br/><br/>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가운데 낙하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가 75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관료 출신이 전체의 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당이나 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 출신도 15.6%나 된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span class='quot0'>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span>”이라고 장담했으나 헛말이 된 셈이다.<br/><br/> 어느 정부에서든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은 힘든 과제다. 특히 국정 최고책임자가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면 더 힘들어진다. 국민의 분노만 쌓일 뿐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09.txt

제목: 목판에 새긴 삶의 흔적 /이상국 판화 유작 전시회  
날짜: 20140516  
기자: 노형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16100000072  
본문: 뼈처럼 깔깔한 선으로 가지를 펼치며 홀로 선 겨울나무. 목판에 새긴 일필휘지의 칼맛으로 삶의 기운을 이어갔던 작가 이상국(1949~2014)에게 봄과 겨울의 나무는 마음 친근한 작업 대상이자 재료였다. <br/> 3월 세상을 떠난 고인의 유작 전시가 열리고 있는 서울 관훈동 나무화랑에 글씨 쓰듯 강단있게 새기고 그린 고인의 나무 판화들이 내걸렸다. 추상과 구상, 현실과 이상, 글씨와 그림 등 대비되는 요소들의 경계 사이에서, ‘무당이 칼 타듯’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그만의 판화 세계를 모색했던 흔적들이다. <br/>　작가는 80년대 참여미술운동에 가담해 ‘맹인부부 가수’, ‘어머니’ 등의 수작을 만들었고, 작고할 때까지 수십년간 자신이 살아온 서울 서북부 서민들 풍경을 담은 판화와 그림들을 그려왔다. 전시장에는 2007년 암 판정을 받은 작가가 병마와 싸우며 그린 ‘봄나무’(2014) 등의 나무 판화들과 소품 ‘공장지대’(1979) 등 12점이 나왔다. 20일까지. (02)722-7760. 노형석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10.txt

제목: 10대 암환자에 55억 남기고 간 영국 청년  
날짜: 20140516  
기자: 김창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16100000011  
본문: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뒤 4년의 여생을 불꽃처럼 살다 간 청년 스티븐 서턴(19·사진)의 죽음에 영국이 애도하고 있다.<br/>　(BBC) 방송은 암과 싸우면서도 10대 암환자들을 위한 기금 활동으로 320만파운드(55억원)를 모금한 서턴이 스태퍼드셔 번트우드의 한 병원에서 14일(현지시각) 눈을 감았다고 보도했다. 어머니 제인 서턴은 페이스북에 이날 올린 글에서 “아들이 오늘 편안하게 숨을 거뒀다. 용기있고, 이타적이며, 힘을 주던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터질 듯하면서도 고통스러움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br/>　서턴은 15살이던 2010년 대장암에 걸렸고 2년 뒤 치유 불능 선고를 받자 당장 이루고 싶은 크고 작은 소원 50개를 적은 ‘버킷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는 실제로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지난해에는 런던 웸블리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 수많은 관중 앞에서 드럼 연주도 했다. 마지막 삶의 정점은 또래 10대 암환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페이스북에서 시작한 ‘저스트 기빙’ 캠페인이었다. ‘10대 암재단’을 위한 모금 활동에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참여하면서 애초 목표한 1만파운드보다 수백배 많이 모였다.<br/> 김창금 기자 kimck@hani.co.kr, 사진 페이스북 갈무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11.txt

제목: 목판에 새긴 삶의 흔적…이상국 판화 유작전시회  
날짜: 201405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1510014266429  
본문: 뼈처럼 깔깔한 선으로 가지를 펼치며 홀로 선 겨울 나무. 목판에 새긴 일필휘지의 칼맛으로 삶의 기운을 이어갔던 작가 이상국(1949~2014)에게 봄과 겨울의 나무는 마음 친근한 작업 대상이자 재료였다.<br/><br/> 3월 세상을 떠난 고인의 유작 전시가 열리고 있는 서울 관훈동 나무화랑에 글씨 쓰듯 강단있게 새기고 그린 고인의 나무 판화들이 내걸렸다. 추상과 구상, 현실과 이상, 글씨와 그림 등 대비되는 요소들의 경계 사이에서, ‘무당이 칼 타듯’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그만의 판화 세계를 모색했던 흔적들이다. <br/><br/> 작가는 80년대 참여미술운동에 가담해 ‘맹인부부가수’, ‘어머니’ 등의 수작을 만들었고, 작고할 때까지 수십여년간 자신이 살아온 서울 서북부 서민들 풍경을 담은 판화와 그림들을 그려왔다. 전시장에는 2007년 암 판정을 받은 작가가 병마와 싸우며 그린 ‘봄나무(2014)’ 등의 나무 판화들과 소품 ‘공장지대(1979)’ 등 12점이 나왔다. 20일까지. (02)722-7760. <br/><br/>노형석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12.txt

제목: 흡연 피해 소송 /흡연은 단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일 뿐인가요  
날짜: 20140513  
기자: 김영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13100000140  
본문: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가끔 숨이 턱! 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 내뿜은 담배 연기 때문입니다. 잠시 한쪽 구석에 서서 피우면 좋으련만 갈 길이 바쁜가 봅니다. 흔히 담배는 백해무익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성 강한 담배를 끊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담배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흡연은 본인의 선택이므로 자신이 떠안아야 할 문제인지, 담배를 만들고 판 회사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따지는 일은 오래된 공방입니다.<br/> 지난 4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제조사인 케이티앤지(KT&G)뿐만 아니라 외국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등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흡연과 직접 관련된 질병 치료에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한마디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책임을 담배회사에 물은 것입니다. <b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교수(역학 전공) 연구팀은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의 질병정보를 2011년 말까지 추적 조사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6.5배로 높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당은 2011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 뇌혈관 등 35개 질환의 추가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br/>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80년 79.3%에서 2006년 44.1%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2007년 반등해 2011년 47.3%로 최근 5년간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br/> 그러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프랑스 담배 연구 전문가인 리디아 페르낭데즈와 프랑수아 르투르미가 쓴 책 를 보면 왜 담배를 지속적으로 계속 피우는지 설명합니다. 저자는 “<span class='quot0'>보통 청소년기 흡연은 독립과 자율의 상징</span>”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방식이나 또래 집단에 대한 인식 내지 소속의 표시, 금지된 것을 오히려 위반하며 짜릿한 기분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br/> 대부분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해 만성 흡연이 지속되면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그 자체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니코틴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담배 성분에 의한 작용뿐 아니라 습관의 압력이 크다는 겁니다. 흡연을 하면 할수록 흡연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지며, 니코틴 의존성 때문에 “나는 아무리 해도 담배를 끊기 어렵다”는 생각이 흡연자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잡게 됩니다. 금연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br/> 지난 4월10일 국내에서 흡연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1999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담배가 해롭고 폐암 발병과의 연관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고 개인의 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흡연의 본질이 건강에 유해한 니코틴과 타르를 흡입하는 일이므로 담배회사의 제조물 설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배의 고유한 특성 자체를 제거 하지 않는 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물의 설계상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흡연 피해 소송에 패한 이들은 “대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보건권을 무시하고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담배회사는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담배 중독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담배의 해로움은 감추고 있다”고 얘기합니다.<br/> 담배 소송에서 원고인 흡연 피해자들이 이기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각종 질병이 다른 요인과 상관없이 ‘오직 담배 때문에’ 발병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담배협회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폐암이나 후두암 등이 흡연 관련 질환이라고 주장했으나, 판결 내용을 보면 흡연자의 생활 습관, 직업, 식사 습관,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질병 발생이 달라지는 등 인과관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br/> 하지만 국내와 달리 국외는 거액의 배상금 합의 또는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시시피 주정부가 199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정부가 지출한 의료비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뒤 49개 주정부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46개 주정부가 1998년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로부터 2060억달러(약 213조원)를 배상받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도 지난해 5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달러짜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br/> 흡연 피해의 책임을 여전히 흡연자들에게 묻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2003년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 피우다 폐암에 걸려 숨진 흡연자 가족이 담배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일본도 2006년 최고재판소가 6명의 폐암 환자가 일본담배산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r/> 한편, 우리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흡연율을 낮추려는 것은 정부에서도 담배의 해악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담배가 진짜 나쁘고 담배를 규제하려면 판매를 아예 금지해야 하는데 담뱃값을 조금씩 올리면서 세수만 확보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담배보다 중독성 약한 대마초는 아예 팔지도 못하게 해야 하는데 담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을까요.<br/><br/>책으로 확장하기 ① 개인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할까<br/> 마이클 샌델이 쓴 에는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 보호, 평화를 유지하는 것 외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현대국가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온정주의적 법에 관해서도 비판합니다. 가령,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에게 헬멧 착용을 강요하거나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만 개인의 자유선택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입니다.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그만한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실업·의료보험, 연금 등에 의무가입하게 하는 것도 개인이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br/>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헬멧을 쓰지 않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를 단속합니다. 각종 사회보장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합니다. 이를 흡연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흡연은 건강에 나쁜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행동이라고 그냥 놔두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한번 따져볼 문제입니다. <br/><br/>책으로 확장하기 ② 간접흡연자의 피해도 구제해 달라<br/> 2011년 강준만 교수가 쓴 를 보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 5월 지병인 천식이 악화해 급성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들이 “<span class='quot1'>고객의 흡연으로 지병이 악화해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span>”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br/> 소송을 맡은 배금자 변호사는 “배우자가 흡연하는 사람은 폐암 발생률이 30%, 심장병 발생률이 40%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흡연자들이 주장하는 ‘애연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돼야 한다. 비흡연가의 ‘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권’도 중요한 헌법상 권리라는 것을 흡연자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br/>더 알아보기 | 흡연권과 혐연권<br/>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권과 대립되는 말이 혐연권입니다. 혐연권은 한마디로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뜻합니다. 혐연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흡연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나 공유 생활공간에서 흡연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br/> 하지만 간접흡연의 피해가 증명된 실내와 달리, 거리나 공원 등 실외에 흡연 시설을 두지 않고 금연 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을 흡연권에 우선해 인정하면서도, 흡연권 역시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연세대 교수(법학)는 이에 대해 “<span class='quot2'>필요한 경우 흡연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span>”고 풀이했습니다. 김영우 기자 kyw@hanedui.com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13.txt

제목: 91. 민중의 입이 되고자한 ‘말’지  
날짜: 20140513  
기자: 강태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13100000120  
본문: 1985년 6월15일 창간호 표지 맨 위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는 ‘민주 민족 민중언론의 디딤돌’ 표어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 회원들이 추구해온 언론관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족자주에 대해서야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민중언론에는 이 사회현상과 사건을 대할 때 “늘 민중의 눈으로 보고, 민중의 귀로 듣고, 민중의 입이 되라”는 명령어가 담겨 있었다.<br/>　그런데 왜 ‘디딤돌’인가? “<span class='quot0'>지금은 민언협에서 잡지에만 도전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민중신문, 민중방송도 만들어내겠다</span>”는 각오가 깃든 표어였다. 그래서 우리는 창간호부터 을 회원들에게만 무료 배포하는 기관지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월간지로 만들었던 것이다.<br/>　고 송건호 민언협 의장은 창간사에서 “말다운 말의 회복, 이 명제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다수의 민중들에게 절실한 염원이다. 오늘의 우리 말은 본래의 건강성을 오염시키는 무리들에 의해 있어야 할 자리를 올바로 찾지 못한 채 심각히 표류하고 있다. 거짓과 회의, 유언비어가 마치 이 시대를 대변하는 언어인 양 또 하나의 폭력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본다”, “월간 은 어느 누구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며 오직 민족과 국가의 역사적 발전적 시각을 대변하는, 문자 그대로 공공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br/>　내가 사무국장을 맡은 그해 말까지 4호(12월20일)를 발간했는데, 기존의 모든 제도언론들에 비해 취재 대상과 주제를 달리했다. 기사 제목만 봐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새로운 언론기관의 창설을 제안한다’, ‘출판탄압, 현대판 분서갱유’, ‘언론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창간호), ‘창작과비평사 폐쇄의 교훈과 과제’, ‘교회, 여성, 청년단체들의 텔레비전(TV) 시청료 거부운동 추진’, ‘제도언론, 대학생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는 주제는 당시 어떤 제도언론도 다루지 못하던 주제였다.<br/>　민족 자주의 문제는 어떠했는가? 제도언론들이 대학생들의 ‘미 문화원 점거농성’(5월23~26일)을 일제히 ‘반미’로 몰아갈 때 ‘말’은 창간호에서 “미 문화원 농성이 의미하는 것-광주의 비극은 누구 책임인가?” 기사와 “광주사태에 미국은 책임없다?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국대사 책임회피 발언”을 실었다.<br/>　은 민중생존권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었다. “경제성장인가, 외채성장인가”, “<span class='quot0'>대학 출신 노동자는 불순세력인가</span>”, “노동현장이 격동하고 있다”, “<span class='quot0'>대우자동차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span>”, “<span class='quot0'>외국 농축산물에 침몰하는 농촌</span>”,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인가”, “<span class='quot0'>어느 목동 아줌마의 서울 행적</span>”(창간호), “<span class='quot0'>대우어패럴 동맹파업 왜 일어났나?</span>”, “<span class='quot0'>소 값 폭락 항의시위 전국으로 확산</span>”, “<span class='quot0'>농민은 선진조국의 머슴인가?</span>”(2호·8월15일), “<span class='quot0'>외자도입 수출주도 성장정책, 정치적 폭압으로 귀착</span>”, “<span class='quot0'>우리가 일군 간척지 왜 빼앗으려 하나-서산 홍성 간척 농민들 불하 요구</span>”, “<span class='quot0'>소작농이 크게 늘고 있다, 비농민 부재지주 소유가 60%나</span>”(제3호·10월15일) 등의 기사가 그것이었다.<br/>　인권문제로는 ‘민청련’의 고 김근태와 이을호 고문사건을 계기로 “<span class='quot1'>고문 용공조작 저지운동 적극 전개</span>”와 “인류문명의 암, 고문”(제4호)을 통해 정면으로 비판했다.<br/>　‘민중교육 사건’에 연루된 민주화운동 교사들과 지지 학생들도 은 놓치지 않았다. “<span class='quot0'>선생님, 우리 선생님- 관련 교사들에 보내온 제자들의 편지</span>”와 “, 무엇을 말했나?”(제3호), “<span class='quot0'>법정에 선 교육- 사건 재판 참관기</span>”(제4호)를 실어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렸다.<br/>　당시의 모든 언론이 묵살하던 여성 조기퇴직 관행도 간과하지 않았다. 창간호에서는 “여성, 26살=결혼=퇴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제3호에서는 “2천만 여성의 힘을 모읍시다-25살 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대토론회”를 상세히 보도했다.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창간호에서 신홍범 실행위원은 고 문익환 민통련 의장 인터뷰를 통해 “민주와 통일은 하나입니다”라는 장문의 대담을 실었다.<br/>　 발행인인 송건호 당시 의장은 편집인만 구류를 살게 하는 당국의 처사를 안타까워하면서 호마다 편집인 등재를 교대로 하게 했다. 그래서 2호 발행 때는 신홍범 위원이, 3호 때는 최장학 공동대표가, 4호 때는 다시 내가 구류를 살고 나왔다.<br/>　내 후임으로 제2대 사무국장은 고 김태홍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의장이 맡았다. 그는 86년 한해 동안 5호부터 9호까지를 발행했는데, 그해 9월25일치 특집호 필화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87년 3월과 5월의 10·11호는 정상모 사무국장 대행이 펴냈다. 그리고 마침내 87년 ‘6월항쟁’이 일어났다.<br/> 　필자/성유보 정리도움/강태영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14.txt

제목: ③ 잠수함 충돌? 어뢰 격침? 암초에 좌초? /선박 증축·과적·고박 불량 등 원인  
날짜: 20140513  
기자: 최우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13100000114  
본문: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루머가 떠돌기 마련이다. 어떤 것은 여론의 ‘자정작용’을 통해 사라지지만, 또 어떤 것은 오히려 언론과 여론에 편승해 확대되기도 한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신, 정부의 입만 바라보는 언론, 진영 논리에 갇힌 일방적 주장들이 뒤섞이면서 의혹은 ‘사실’로 굳어진다. 사실(팩트)이 아닌 것을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이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까먹고 불신을 확대재생산한다. 세월호 사고를 둘러싼 대표적 루머들을 ‘팩트 체크’ 해봤다.<br/><br/>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던 사고 초기에는 ‘암초 충돌설’도 제기됐다. 평소에 다니지 않던 진도 맹골수도 항로에 들어선 세월호가 암초를 타고 넘다 침몰했다는 것이다. 생존자들 가운데 일부가 배가 기울기 전에 ‘쾅’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이런 주장을 받쳐주는 근거가 됐다. 일부 전문가들도 ‘암초설’에 힘을 실었다. 세월호 정도 크기의 배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침몰하려면 선체에 큰 구멍이 뚫려야 하는데, 내부에서 구멍이 저절로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었다.<br/>　그러나 수십년간 진도 근처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지역 주민들은 사고 해역은 암초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사고 당일 단원고 학생들을 직접 구조한 서거차도 허학무(60) 이장은 “이 지역에 암초는 없다. 1만t 이상의 큰 배가 다녀도 암초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br/>　암초설이 수그러들자 ‘외부 충격설’의 또다른 버전이 등장했다. 북한 어뢰에 피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세월호 침몰 전날인 4월15일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일부에서는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적 침몰’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나돌았다.<br/>　이 와중에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까지 제기됐다. 사고 당일인 4월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비준되도록 하려던 ‘준비된 사건’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이었다. 침몰 시기가 한-미 해군 연합훈련 기간이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당시 해당 지역에서 작전이나 훈련은 없었다. 게다가 사고 해역은 수심이 얕아 잠수함이 활동할 수 없는 곳”이라고 했다. 실제로 사고 해역의 최대 수심은 47m에 불과하다.<br/>　경찰은 포털사이트에 ‘세월호 침몰이 한-미 해군훈련에 참가한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다’, ‘한-미 해군 합동군사훈련 때문에 세월호가 사고 난 항로를 이용했다’는 등의 글을 퍼뜨린 이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기 바라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br/>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복합적이다. △선박 증축에 따른 복원성 부족 △최대 적재량의 2~3배에 이르는 화물 과적 △화물 고박(고정 결박) 불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덜 채우는 대신 그 무게만큼 화물을 더 싣고, 물살이 유난히 빠른 맹골수도에서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까지 한 상황들이 겹치고 겹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15.txt

제목: 흡연은 단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일 뿐인가요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1210014231179  
본문: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가끔 숨이 턱! 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 내뿜은 담배 연기 때문입니다. 잠시 한쪽 구석에 서서 피우면 좋으련만 갈 길이 바쁜가 봅니다. 흔히 담배는 백해무익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성 강한 담배를 끊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담배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흡연은 본인의 선택이므로 자신이 떠안아야 할 문제인지, 담배를 만들고 판 회사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따지는 일은 오래된 공방입니다.<br/><br/> 지난 4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제조사인 케이티앤지(KT&G)뿐만 아니라 외국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등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흡연과 직접 관련된 질병 치료에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한마디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책임을 담배회사에 물은 것입니다. <br/><b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 지선하 교수(역학 전공) 연구팀은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의 질병정보를 2011년 말까지 추적 조사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6.5배로 높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당은 2011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 뇌혈관 등 35개 질환의 추가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br/><br/>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80년 79.3%에서 2006년 44.1%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2007년 반등해 2011년 47.3%로 최근 5년간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br/><br/> 그러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프랑스 담배 연구 전문가인 리디아 페르낭데즈와 프랑수아 르투르미가 쓴 책 <흡연 심리>를 보면 왜 담배를 지속적으로 계속 피우는지 설명합니다. 저자는 “<span class='quot0'>보통 청소년기 흡연은 독립과 자율의 상징</span>”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방식이나 또래 집단에 대한 인식 내지 소속의 표시, 금지된 것을 오히려 위반하며 짜릿한 기분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br/><br/> 대부분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해 만성 흡연이 지속되면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그 자체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니코틴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담배 성분에 의한 작용뿐 아니라 습관의 압력이 크다는 겁니다. 흡연을 하면 할수록 흡연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지며, 니코틴 의존성 때문에 “나는 아무리 해도 담배를 끊기 어렵다”는 생각이 흡연자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잡게 됩니다. 금연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br/><br/>흡연자들이 낸 국내 첫 소송에서 <br/>대법원이 원고 패소 확정했습니다 <br/>흡연은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고 <br/>암 발병과의 직접 인과관계는 <br/>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br/>하지만 해외선 원고 승소나 <br/>배상금 합의 사례가 잇따릅니다 <br/><br/>지난 4월10일 국내에서 흡연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1999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담배가 해롭고 폐암 발병과의 연관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고 개인의 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흡연의 본질이 건강에 유해한 니코틴과 타르를 흡입하는 일이므로 담배회사의 제조물 설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배의 고유한 특성 자체를 제거 하지 않는 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물의 설계상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흡연 피해 소송에 패한 이들은 “대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보건권을 무시하고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담배회사는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담배 중독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담배의 해로움은 감추고 있다”고 얘기합니다.<br/><br/> 담배 소송에서 원고인 흡연 피해자들이 이기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각종 질병이 다른 요인과 상관없이 ‘오직 담배 때문에’ 발병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담배협회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폐암이나 후두암 등이 흡연 관련 질환이라고 주장했으나, 판결 내용을 보면 흡연자의 생활 습관, 직업, 식사 습관,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질병 발생이 달라지는 등 인과관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br/><br/> 하지만 국내와 달리 국외는 거액의 배상금 합의 또는 승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시시피 주정부가 199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정부가 지출한 의료비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뒤 49개 주정부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46개 주정부가 1998년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로부터 2060억달러(약 213조원)를 배상받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도 지난해 5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달러짜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br/><br/> 흡연 피해의 책임을 여전히 흡연자들에게 묻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2003년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 피우다 폐암에 걸려 숨진 흡연자 가족이 담배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일본도 2006년 최고재판소가 6명의 폐암 환자가 일본담배산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r/><br/> 한편, 우리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흡연율을 낮추려는 것은 정부에서도 담배의 해악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담배가 진짜 나쁘고 담배를 규제하려면 판매를 아예 금지해야 하는데 담뱃값을 조금씩 올리면서 세수만 확보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담배보다 중독성 약한 대마초는 아예 팔지도 못하게 해야 하는데 담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을까요.<br/><br/><br/><br/>책으로 확장하기 ➊ 개인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할까 <br/><br/>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 보호, 평화를 유지하는 것 외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현대국가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온정주의적 법에 관해서도 비판합니다. 가령,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에게 헬멧 착용을 강요하거나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만 개인의 자유선택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입니다.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그만한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실업·의료보험, 연금 등에 의무가입하게 하는 것도 개인이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br/><br/>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헬멧을 쓰지 않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를 단속합니다. 각종 사회보장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합니다. 이를 흡연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흡연은 건강에 나쁜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행동이라고 그냥 놔두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한번 따져볼 문제입니다. <br/><br/><br/><br/>책으로 확장하기 ➋ 간접흡연자의 피해도 구제해 달라 <br/><br/>2011년 강준만 교수가 쓴 <담배의 사회문화사>를 보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 5월 지병인 천식이 악화해 급성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들이 “<span class='quot1'>고객의 흡연으로 지병이 악화해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span>”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br/><br/> 소송을 맡은 배금자 변호사는 “배우자가 흡연하는 사람은 폐암 발생률이 30%, 심장병 발생률이 40%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흡연자들이 주장하는 ‘애연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돼야 한다. 비흡연가의 ‘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권’도 중요한 헌법상 권리라는 것을 흡연자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br/><br/><br/>더 알아보기 | 흡연권과 혐연권<br/><br/>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권과 대립되는 말이 혐연권입니다. 혐연권은 한마디로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뜻합니다. 혐연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비흡연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나 공유 생활공간에서 흡연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br/><br/> 하지만 간접흡연의 피해가 증명된 실내와 달리, 거리나 공원 등 실외에 흡연 시설을 두지 않고 금연 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을 흡연권에 우선해 인정하면서도, 흡연권 역시 인권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 연세대 교수(법학)는 이에 대해 “<span class='quot2'>필요한 경우 흡연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span>”고 풀이했습니다. 김영우 기자 kyw@hanedui.com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16.txt

제목: [길을 찾아서] 민중의 입이 되고자한 ‘말’지 / 이룰태림  
날짜: 2014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1210014231085  
본문: 1985년 6월15일 <말> 창간호 표지 맨 위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는 ‘민주 민족 민중언론의 디딤돌’ 표어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 회원들이 추구해온 언론관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족자주에 대해서야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민중언론에는 <말>이 사회현상과 사건을 대할 때 “늘 민중의 눈으로 보고, 민중의 귀로 듣고, 민중의 입이 되라”는 명령어가 담겨 있었다.<br/><br/> 그런데 왜 ‘디딤돌’인가? “<span class='quot0'>지금은 민언협에서 잡지에만 도전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민중신문, 민중방송도 만들어내겠다</span>”는 각오가 깃든 표어였다. 그래서 우리는 창간호부터 <말>을 회원들에게만 무료 배포하는 기관지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월간지로 만들었던 것이다.<br/><br/> 고 송건호 민언협 의장은 창간사에서 “말다운 말의 회복, 이 명제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다수의 민중들에게 절실한 염원이다. 오늘의 우리 말은 본래의 건강성을 오염시키는 무리들에 의해 있어야 할 자리를 올바로 찾지 못한 채 심각히 표류하고 있다. 거짓과 회의, 유언비어가 마치 이 시대를 대변하는 언어인 양 또 하나의 폭력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본다”, “월간 <말>은 어느 누구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며 오직 민족과 국가의 역사적 발전적 시각을 대변하는, 문자 그대로 공공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br/><br/> 내가 사무국장을 맡은 그해 말까지 <말> 4호(12월20일)를 발간했는데, 기존의 모든 제도언론들에 비해 취재 대상과 주제를 달리했다. 기사 제목만 봐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새로운 언론기관의 창설을 제안한다’, ‘출판탄압, 현대판 분서갱유’, 언론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창간호), ‘창작과비평사 폐쇄의 교훈과 과제’, ‘교회, 여성, 청년단체들의 텔레비전(TV) 시청료 거부운동 추진’, ‘제도언론, 대학생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는 주제는 당시 어떤 제도언론도 다루지 못하던 주제였다.<br/><br/> 민족 자주의 문제는 어떠했는가? 제도언론들이 대학생들의 ‘미 문화원 점거농성’(5월23~26일)을 일제히 ‘반미’로 몰아갈 때 ‘말’은 창간호에서 “미 문화원 농성이 의미하는 것-광주의 비극은 누구 책임인가?” 기사와 “광주사태에 미국은 책임없다?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국대사 책임회피 발언”을 실었다.<br/><br/> <말>은 민중생존권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었다. “경제성장인가, 외채성장인가”, “<span class='quot0'>대학 출신 노동자는 불순세력인가</span>”, “노동현장이 격동하고 있다”, “<span class='quot0'>대우자동차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span>”, “<span class='quot0'>외국 농축산물에 침몰하는 농촌</span>”,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인가”, “<span class='quot0'>어느 목동 아줌마의 서울 행적</span>”(창간호), “<span class='quot0'>대우어패럴 동맹파업 왜 일어났나?</span>”, “<span class='quot0'>소 값 폭락 항의시위 전국으로 확산</span>”, “<span class='quot0'>농민은 선진조국의 머슴인가?</span>”(2호·8월15일), “<span class='quot0'>외자도입 수출주도 성장정책, 정치적 폭압으로 귀착</span>”, “<span class='quot0'>우리가 일군 간척지 왜 빼앗으려 하나-서산 홍성 간척 농민들 불하 요구</span>”, “<span class='quot0'>소작농이 크게 늘고 있다, 비농민 부재지주 소유가 60%나</span>”(제3호·10월15일) 등의 기사가 그것이었다.<br/><br/> 인권문제로는 ‘민청련’의 고 김근태와 이을호 고문사건을 계기로 “<span class='quot1'>고문 용공조작 저지운동 적극 전개</span>”와 “인류문명의 암, 고문”(제4호)을 통해 정면으로 비판했다.<br/><br/> ‘민중교육 사건’에 연루된 민주화운동 교사들과 지지 학생들도 <말>은 놓치지 않았다. “<span class='quot0'>선생님, 우리 선생님-<민중교육> 관련 교사들에 보내온 제자들의 편지</span>”와 “<span class='quot0'><민중교육>, 무엇을 말했나?</span>”(제3호), “<span class='quot0'>법정에 선 교육-<민중교육> 사건 재판 참관기</span>”(제4호)를 실어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렸다.<br/><br/> 당시의 모든 언론이 묵살하던 여성 조기퇴직 관행도 간과하지 않았다. 창간호에서는 “여성, 26살=결혼=퇴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제3호에서는 “2천만 여성의 힘을 모읍시다-25살 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대토론회”를 상세히 보도했다.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창간호에서 신홍범 실행위원은 고 문익환 민통련 의장 인터뷰를 통해 “민주와 통일은 하나입니다”라는 장문의 대담을 실었다.<br/><br/> <말> 발행인인 송건호 당시 의장은 편집인만 구류를 살게 하는 당국의 처사를 안타까워하면서 호마다 편집인 등재를 교대로 하게 했다. 그래서 2호 발행 때는 신홍범 위원이, 3호 때는 최장학 공동대표가, 4호 때는 다시 내가 구류를 살고 나왔다.<br/><br/> 내 후임으로 제2대 사무국장은 고 김태홍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의장이 맡았다. 그는 86년 한해 동안 <말> 5호부터 9호까지를 발행했는데, 그해 9월25일치 <말> 특집호 필화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87년 3월과 5월의 10·11호는 정상모 사무국장 대행이 펴냈다. 그리고 마침내 87년 ‘6월항쟁’이 일어났다.<br/><br/>성유보(필명 이룰태림·71) 희망래일 이사장<br/><br/>정리도움 강태영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17.txt

제목: 남종화 거장 조방원 선생  
날짜: 201405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10100000070  
본문: 남종화의 마지막 거장으로 불리는 아산 조방원 선생이 9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8.<br/>　고인은 수묵산수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남도의 정서에 맞는 수묵화의 경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남종화의 큰 산으로 꼽힌다. 전남 신안 출신으로, 1997년 전남 곡성군에 도립 전라남도 옥과미술관을 여는 데 산파 노릇을 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유화순씨, 아들 철(사업)·암(옥과미술관 근무)씨, 딸 영·경씨, 사위 김상기(로얄팩 대표)·최춘호(옥과미술관장)씨가 있다. <br/>　빈소는 광주 광주역장례식장이며, 발인은 11일 오전 9시다. (062)264-4444.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18.txt

제목: 빅3 생보사, 장애인 보험 ‘냉대’  
날짜: 20140508  
기자: 방준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08100000092  
본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소위 빅3 생명보험사가 2001년께 출시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인 ‘곰두리보험’의 보장내용을 꾸준히 줄여온 것이 드러났다. 이들 3대 생명보험사는 금융위원회와 몇몇 중소형사들이 추진해 온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상품은 내놓지도 않았다. 장애인단체들은 사회공헌 이미지를 홍보해 온 대형 생보사가 정작 장애인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br/>　7일 보험사들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들을 보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곰두리보험 암보장형 상품에서는 암 수술비가 보장내용에서 사라졌다. 한화생명은 일반암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지급하던 300만원(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가입계약 후 1년 이상)을 지난달 18일 새로 개정된 곰두리보험 약관에서 제외했다. 교보생명은 2011년 3월 500만원(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씩 주던 암수술보장금을 2011년 3월부터 없앴다. 삼성생명만 곰두리보험의 암 수술급여금 항목을 유지하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비갱신형 상품의 경우 암 수술비를 보장내용에서 제외해 왔다. 곰두리보험 역시 비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암 수술비를 약관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br/>　암으로 확진된 경우 지급하던 암진단급여는 세 회사 모두에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 절반만 주는 방식으로 약관이 변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30일 새로 바뀐 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90일) 이후부터 바로 보험가입액의 200%씩 주기로 했던 암진단급여를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100%만 주는 것으로 바꿨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암 초기진단이 확산되면서 손실 위험이 늘어났다. 장애인 암보험의 공익적 특성 때문에 항목을 고치지 않다가 뒤늦게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암진단급여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100%만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내용을 바꿨다.<br/>　곰두리보험의 소득보장형상품은 아예 상품 자체가 사라지기도 했다. 현재 곰두리보험은 암보장형과 사망보장형 두 종류만 나온다. 소득보장형상품은 가입금액이 2000만원으로 1000만원 또는 500만원인 다른 두 유형보다 높은 대신 소득보전 개념으로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다. 재해로 인해 새로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소득보장형 상품이 사라지며 장애인들의 보험상품 선택권은 그만큼 줄어들었다.<br/>　곰두리보험은 2012년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8000여명 정도에 그칠 만큼 판매율이 미미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보장내용이 다양하지 못한데다 홍보도 부족했기 때문에 외면받은 측면이 크다</span>”고 말했다. 업계 스스로도 적은 보장내용 탓에 장애인들에게 매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줄여온 셈이다. <br/>　이들 3사는 최근 케이디비(KDB)생명과 엔에이치(NH)농협생명 등 중소형사가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보험 출시에서도 발을 뺐다. 장애인연금보험은 장애인 수명 통계를 사용해 일반 연금보험보다 10~25%가량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나서서 적극적인 도입을 권장했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장애인관련 통계 등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측정할 수가 없어 추이를 살펴보는 중</span>”이라고 말했다. 2, 3위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장애인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며 아직 어떤 확답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pan class='quot2'>회사에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공공성을 감안해 장애인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span>”(조재홍 케이디비 사장)는 케이디비생명이나 “<span class='quot2'>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span>”(엔에이치농협생명 홍보팀 관계자)는 엔에이치농협생명 등 중소형사와 비교되는 부분이다.<br/>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맹인안내견, 장애시설 봉사활동 등 때만 되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대형 보험사들이 정작 장애인보험상품에는 인색하다. 가뜩이나 보험에 대한 선택폭이 넓지 않은 장애인에게 정작 중요한 전용 상품 출시나 보장성 강화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 씁쓸하다”고 말했다.<br/>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19.txt

제목: 더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  
날짜: 20140508  
기자: 김중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08100000108  
본문: “<span class='quot0'>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span>”<br/>　박근혜 대통령이 초파일에 법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대통령은 아직도 모른다. 경제 살리기를 앞세우며 반드시 필요한 규제마저 암 덩어리로 치부하는 것이나 이미 10년 전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바로 물욕이라는 것을. 노동자와 국민이 아니라 기업과 권력이 우선인 정치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바로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br/>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나 국가권력과 손잡은 자본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4·3 항쟁,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유신정권, 광주민중항쟁,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용산 남일당 참사로 인한 죽음, 쌍용자동차, 삼성반도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죽음,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로 인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4대강, 아라뱃길, 명품도시 건설 따위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대통령과 시장들도 처벌받지 않는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운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도 처벌받을 리 없다.<br/>　희생자들은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었고 그들이 받은 상처는 제대로 치유된 적이 없다. 결국 우리는 각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세상에 눈감고, 권리가 침해당해도 견뎌내며 은근슬쩍 타인의 손을 놓고, 목소리를 낮추며 살아왔다. 정치는 있는 놈들의 것이라고 체념하고 냉소하면서 살아왔다.<br/>　지난 주말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추모집회에 갔다. 공동체 아이들과 함께 간 터라 일부러 청소년 집회 시간에 맞췄다. 청소년들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흥분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추모집회에 오는데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지, 왜 어른들은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침묵하라고 강요하는지, 왜 언론은 거짓을 일삼는지. 자신들에게 미래는 있는지 묻고 또 물었다. 아무도 답해주지 않는 질문을 던지며 청소년들이 울먹이며 다짐했다. “침묵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br/>　그 다음날 정미홍씨가 자신의 에스엔에스에다 청소년들이 일당 6만원을 받고 시위에 나섰다는 유언비어를 올렸다. 저들의 궤변과 억지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조바심과 안간힘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들의 선동이 먹히질 않는다. 그동안 이타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조차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종북좌파의 선동으로 호도하면 움츠러들던 사람들이 달라졌다.<br/>　3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딛고서야 우리는 다시 깨닫는다. 나의 생존은 우리가 모두 생존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분노를, 두려움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해내야 한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내팽개쳤던 가치와 방식을 되찾아야 한다.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힘없는 이들끼리 손을 잡고 함께 위기에 대처할 힘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아이들에게 더는 부끄럽고 미안하지 않게 가해자들과 그 뒷배를 찾아내어 죄를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진짜 안전해지는 길은 그렇게 함께 맞서는 것뿐이다.<br/>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누군가는 카네이션을 달아줄 아들딸들을, 누군가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부모를 잃었다. 멀쩡히 살아남은 자식을 둔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2014년 4월16일 아침을 잊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끼리 손을 놓지 않는 것이다.<br/>김중미 작가·기차길옆작은학교 상근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20.txt

제목: ‘빅 3’ 생명보험사, 장애인 보험 ‘냉대’  
날짜: 201405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0710014191414  
본문: \* 빅3 생보사 :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br/><br/>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소위 빅3 생명보험사가 2001년께 출시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인 ‘곰두리보험’의 보장내용을 꾸준히 줄여온 것이 드러났다. 이들 3대 생명보험사는 금융위원회와 몇몇 중소형사들이 추진해 온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상품은 내놓지도 않았다. 장애인단체들은 사회공헌 이미지를 홍보해 온 대형 생보사가 정작 장애인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br/><br/> 7일 보험사들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들을 보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곰두리보험 암보장형 상품에서는 암 수술비가 보장내용에서 사라졌다. 한화생명은 일반암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지급하던 300만원(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가입계약 후 1년 이상)을 지난달 18일 새로 개정된 곰두리보험 약관에서 제외했다. 교보생명은 2011년 3월 500만원(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씩 주던 암수술보장금을 2011년 3월부터 없앴다. 삼성생명만 곰두리보험의 암 수술급여금 항목을 유지하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비갱신형 상품의 경우 암 수술비를 보장내용에서 제외해 왔다. 곰두리보험 역시 비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암 수술비를 약관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br/><br/> 암으로 확진된 경우 지급하던 암진단급여는 세개 회사 모두에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 절반만 주는 방식으로 약관이 변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30일 새로 바뀐 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90일) 이후부터 바로 보험가입액의 200％씩 주기로 했던 암진단급여를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100％만 주는 것으로 바꿨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암 초기진단이 확산되면서 손실 위험이 늘어났다. 장애인 암보험의 공익적 특성 때문에 항목을 고치지 않다가 뒤늦게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암진단급여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100％만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내용을 바꿨다.<br/><br/> 곰두리보험의 소득보장형상품은 아예 상품 자체가 사라지기도 했다. 현재 곰두리보험은 암보장형과 사망보장형 두 종류만 나온다. 소득보장형상품은 가입금액이 2000만원으로 1000만원 또는 500만원인 다른 두 유형보다 높은 대신 소득보전 개념으로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다. 재해로 인해 새로 장해를 얻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소득보장형 상품이 사라지며 장애인들의 보험상품 선택권은 그만큼 줄어들었다.<br/><br/> 곰두리보험은 2012년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8000여명 정도에 그칠만큼 판매율이 미미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보장내용이 다양하지 못한데다 홍보도 부족했기 때문에 외면받은 측면이 크다</span>”고 말했다. 업계 스스로도 적은 보장내용 탓에 장애인들에게 매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줄여온 셈이다. <br/><br/> 이들 3사는 최근 케이디비(KDB)생명과 엔에이치(NH)농협생명 등 중소형사가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에서도 발을 뺐다. 장애인연금보험은 장애인 수명 통계를 사용해 일반 연금보험보다 10∼25％가량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나서서 적극적인 도입을 권장했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장애인관련 통계 등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측정할 수가 없어 추이를 살펴보는 중</span>”이라고 말했다. 2, 3위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장애인연금보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아직 어떤 확답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pan class='quot2'>회사에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공공성을 감안해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조재홍 케이디비 사장)</span>”는 케이디비생명이나 “<span class='quot2'>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엔에이치농협생명 홍보팀 관계자)</span>”는 엔에이치농협생명 등 중소형사와 비교되는 부분이다.<br/><br/>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맹인안내견, 장애시설 봉사활동 등 때만 되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대형보험사들이 정작 장애인보험상품에는 인색하다. 가뜩이나 보험에 대한 선택폭이 넓지 않은 장애인에게 정작 중요한 전용 상품 출시나 보장성 강화에는 관심이 없어보여 씁쓸하다”고 말했다.<br/><br/>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21.txt

제목: 사랑의 힘…다시 희망을 그린다  
날짜: 20140507  
기자: 남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07100000053  
본문: 2006년 시즌1부터 (문화방송)을 연출해온 유해진 피디. 그는 2일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힘들어서 한때 (이 프로그램을) 안 하려고 했다”고 했다. 은 장애, 시한부 등 삶의 특별한 순간에 직면한 이들이 사랑으로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매년 4편씩 소개했다. ‘너는 내 운명’ 등을 보며 시청자들은 사랑과 희망을 곱씹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예기치 않은 결말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듯했다.<br/>　“2007년 ‘안녕 아빠’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가장이 가족과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찍었어요. 임종을 지키던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라며 울부짖던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피디들이 편집 과정에서 필름을 여러번 돌려보다 보면 느낌이 줄어드는데, 이 장면만은 몇 번을 봐도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느낌만큼 후유증도 있어요.” 위암 말기에도 아이들을 위해 풀빵 장사를 하던 ‘풀빵 엄마’(2009년)의 주인공이 방송 이후 2개월여 만에 세상을 떠난 뒤 그도 2009년 프로그램을 놓았다. 그러나 2013년 돌아와 ‘해나의 기적’을 연출했다. 그는 “사랑의 힘,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의 행복을 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br/>　그 사랑의 울림이 올해도 울려 퍼진다. 시즌9가 6일 시작됐다. 예년과 달리 모두 아이들의 사랑에 초점을 맞췄다. 6일 1부 ‘꽃보다 듬직이’에 이어, 12일 밤 11시15분에는 뇌종양 환자인 6살 연지의 이야기(2부 ‘날아라 연지’)를 내보낸다. 연지는 한살 때 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 석달을 못 버틴다고 했지만 가족들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랐다. 제작진은 기적과도 같은 하루를 보내며 오늘에 감사하고 서로를 보듬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한다. 3부 ‘수현아 컵짜이 나’(19일 밤 11시15분)는 희귀백혈병 진단을 받은 4살 수현을, 4부 ‘말괄량이 샴쌍둥이’(6월2일 밤 11시15분)는 캐나다에서 사는 샴쌍둥이 자매의 일상을 그린다. <br/>　은 촬영 중 뜻하지 않게 주인공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염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등 떠난 자와 남겨진 자의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시청자들은 암으로 변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슴 아프면서도 때론 불편해했다.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진 듯 시즌을 거듭하며 입양 등 행복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의 비중을 늘려갔다. 그럴수록 시청률은 떨어졌다. <br/>　유해진 피디는 “시청률을 신경쓰기보다는 반향에 주목한다”고 했다. 실제로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보는 데 그치지 않았다. 2013년 아이 9명을 입양해 친부모보다 더한 사랑을 보여준 ‘붕어빵 가족’이 방영된 이후엔 이 프로그램에 자극받아 젊은 부부 시청자들이 직접 아이를 입양하기도 했다. 나면서부터 기도가 없어 튜브로 호흡했던 세살배기 해나의 이야기가 나간 뒤에는 해나를 돕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해나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모임은 계속되고 있다. 해나처럼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모현 피디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을 만드는 이유”라고 말했다. <br/>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br/> 사진 문화방송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22.txt

제목: [세상 읽기] 더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 / 김중미  
날짜: 201405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0710014190969  
본문: “<span class='quot0'>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span>”<br/><br/> 박근혜 대통령이 초파일에 법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대통령은 아직도 모른다. 경제 살리기를 앞세우며 반드시 필요한 규제마저 암 덩어리로 치부하는 것이나 이미 10년 전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바로 물욕이라는 것을. 노동자와 국민이 아니라 기업과 권력이 우선인 정치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바로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br/><br/>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나 국가권력과 손잡은 자본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4·3 항쟁,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유신정권, 광주민중항쟁,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용산 남일당 참사로 인한 죽음, 쌍용자동차, 삼성반도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죽음,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로 인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4대강, 아라뱃길, 명품도시 건설 따위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대통령과 시장들도 처벌받지 않는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운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도 처벌받을 리 없다.<br/><br/> 희생자들은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었고 그들이 받은 상처는 제대로 치유된 적이 없다. 결국 우리는 각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세상에 눈감고, 권리가 침해당해도 견뎌내며 은근슬쩍 타인의 손을 놓고, 목소리를 낮추며 살아왔다. 정치는 있는 놈들의 것이라고 체념하고 냉소하면서 살아왔다.<br/><br/> 지난 주말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추모집회에 갔다. 공동체 아이들과 함께 간 터라 일부러 청소년 집회 시간에 맞췄다. 청소년들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흥분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추모집회에 오는데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지, 왜 어른들은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침묵하라고 강요하는지, 왜 언론은 거짓을 일삼는지. 자신들에게 미래는 있는지 묻고 또 물었다. 아무도 답해주지 않는 질문을 던지며 청소년들이 울먹이며 다짐했다. “침묵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br/><br/> 그 다음날 정미홍씨가 자신의 에스엔에스에다 청소년들이 일당 6만원을 받고 시위에 나섰다는 유언비어를 올렸다. 저들의 궤변과 억지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조바심과 안간힘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들의 선동이 먹히질 않는다. 그동안 이타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조차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종북좌파의 선동으로 호도하면 움츠러들던 사람들이 달라졌다.<br/><br/> 3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딛고서야 우리는 다시 깨닫는다. 나의 생존은 우리가 모두 생존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분노를, 두려움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해내야 한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내팽개쳤던 가치와 방식을 되찾아야 한다.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힘없는 이들끼리 손을 잡고 함께 위기에 대처할 힘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아이들에게 더는 부끄럽고 미안하지 않게 가해자들과 그 뒷배를 찾아내어 죄를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진짜 안전해지는 길은 그렇게 함께 맞서는 것뿐이다.<br/><br/>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누군가는 카네이션을 달아줄 아들딸들을, 누군가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부모를 잃었다. 멀쩡히 살아남은 자식을 둔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2014년 4월16일 아침을 잊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끼리 손을 놓지 않는 것이다. <br/><br/>김중미 작가·기차길옆작은학교 상근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23.txt

제목: 사랑의 힘…다시 희망을 그린다  
날짜: 201405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0610014180264  
본문: 2006년 시즌1부터 <휴먼다큐 사랑>(문화방송)을 연출해온 유해진 피디. 그는 2일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힘들어서 한때 (이 프로그램을) 안 하려고 했다”고 했다. <휴먼다큐 사랑>은 장애, 시한부 등 삶의 특별한 순간에 직면한 이들이 사랑으로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매년 4편씩 소개했다. ‘너는 내 운명’ 등을 보며 시청자들은 사랑과 희망을 곱씹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예기치 않은 결말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듯했다.<br/><br/> “2007년 ‘안녕 아빠’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가장이 가족과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찍었어요. 임종을 지키던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라며 울부짖던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피디들이 편집 과정에서 필름을 여러번 돌려보다 보면 느낌이 줄어드는데, 이 장면만은 몇 번을 봐도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느낌만큼 후유증도 있어요.” 위암 말기에도 아이들을 위해 풀빵 장사를 하던 ‘풀빵 엄마’(2009년)의 주인공이 방송 이후 2개월여 만에 세상을 떠난 뒤 그도 2009년 프로그램을 놓았다. 그러나 2013년 돌아와 ‘해나의 기적’을 연출했다. 그는 “사랑의 힘,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의 행복을 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br/><br/> 그 사랑의 울림이 올해도 울려 퍼진다. <휴먼다큐 사랑> 시즌9가 6일 시작됐다. 예년과 달리 모두 아이들의 사랑에 초점을 맞췄다. 6일 1부 ‘꽃보다 듬직이’에 이어, 12일 밤 11시15분에는 뇌종양 환자인 6살 연지의 이야기(2부 ‘날아라 연지’)를 내보낸다. 연지는 한살 때 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 석달을 못 버틴다고 했지만 가족들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랐다. 제작진은 기적과도 같은 하루를 보내며 오늘에 감사하고 서로를 보듬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한다. 3부 ‘수현아 컵짜이 나’(19일 밤 11시15분)는 희귀백혈병 진단을 받은 4살 수현을, 4부 ‘말괄량이 샴쌍둥이’(6월2일 밤 11시15분)는 캐나다에서 사는 샴쌍둥이 자매의 일상을 그린다. <br/><br/> <휴먼다큐 사랑>은 촬영 중 뜻하지 않게 주인공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염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등 떠난 자와 남겨진 자의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시청자들은 암으로 변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슴 아프면서도 때론 불편해했다.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진 듯 시즌을 거듭하며 입양 등 행복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의 비중을 늘려갔다. 그럴수록 시청률은 떨어졌다. <br/><br/> 유해진 피디는 “시청률을 신경쓰기보다는 반향에 주목한다”고 했다. 실제로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을 보는 데 그치지 않았다. 2013년 아이 9명을 입양해 친부모보다 더한 사랑을 보여준 ‘붕어빵 가족’이 방영된 이후엔 이 프로그램에 자극받아 젊은 부부 시청자들이 직접 아이를 입양하기도 했다. 나면서부터 기도가 없어 튜브로 호흡했던 세살배기 해나의 이야기가 나간 뒤에는 해나를 돕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해나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모임은 계속되고 있다. 해나처럼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모현 피디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게 <휴먼다큐 사랑>을 만드는 이유”라고 말했다. <br/><br/>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사진 문화방송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24.txt

제목: 장애인 보험문턱 낮아질까  
날짜: 20140502  
기자: 방준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02100000092  
본문: 장애인에 대한 민간보험상품 문턱이 낮아질까? <br/>　지난 1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장애인학교인 서울 경운학교를 방문해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에게 유리한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외면받아온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손질할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은 민간보험상품 시장에서 소외돼왔다.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 통계를 보면, 민간보험 가입 계약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53.7%였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박태성 장애인부모회 회장은 “민간보험 가입이 너무 힘들어 애를 먹었다. 특히 민간연금보험의 경우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이를 위해 들어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손해율이나 통계를 이유로 가입이 쉽지 않아 답답했다. 금융위원회 방침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br/>　■ 수급액 높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예정 5월께부터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케이디비(KDB)생명, 엔에이치(NH)생명 등에서 장애인 연금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상품이 출시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br/>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인에게 특화된 연금상품으로 통계상 낮은 장애인 수명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통계를 적용하면 평균 연금 수령기간이 짧아져 일반 연금보험보다 10~25% 높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수급이 시작되는 나이도 20살, 30살, 40살 등 다양화했다. 부모님의 은퇴 등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약해지는 시점이 다양할 수 있어서다. 되도록 장기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에 포함된 선취사업비를 없앴다. 대신 가입기간 동안 사업비를 나눠 내는 후취형 사업비체계로 운영한다. 배당형 상품으로 출시돼 보험료 운영 수익을 환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연금인 만큼 등록 장애인이면 특별한 심사 없이 누구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br/>　애초 4월 말까지 출시할 계획이었던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은 위험률이 높고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업계의 반발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를 앞둔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나서지 않고 중소형사들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 공적보험을 보완해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막상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워 출시일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의 조율도 마무리 단계다. 5월 초부터는 단계적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br/>　■ 외면받아 온 보장성 보험도 손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뿐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도 장애인들은 보험료의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2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일반 보험의 경우 100만원까지만 보험료 세액이 공제됐다.<br/>　2001년께 출시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보장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외면받아왔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운영해 온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인 곰두리보험은 암보장형과 사망보장형 두 종류뿐이다. 특약 역시 암으로 인한 사망 정도에 그친다. 낮은 수익률 탓에 홍보도 부족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홍보 부족은 인정한다. 보험가입자가 먼저 장애인이라고 밝히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경증장애인의 경우 우리도 장애인 전용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가입자 수도 2012년 기준 8000여명에 그쳤다.<br/>　금융위가 세제당국과 논의를 거쳐 공제혜택을 늘리게 되면 장애인은 굳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도 똑같은 세금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br/>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25.txt

제목: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날짜: 20140501  
기자: 이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01100000070  
본문: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간다. 비유법이 아니다. ‘창백한 푸른 별’의 식구로 태어나 죽어가며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은 삶의 다른 얼굴이다. 그러니 삶이 존귀해야 하는 것처럼, 죽음도 존귀해야 한다.<br/>　한국에서 죽음은 존귀하지 않다. 선장과 선원의 ‘1호 탈출’, 안전과 안보를 입에 달고 사는 박근혜 정부의 우왕좌왕 구조 실패로 생때같은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세월호 승객들. 우리가 텔레비전 생중계를 보는 동안 그들이 서서히 죽어갔다. 그 ‘죽음의 방식’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한다.<br/>　다른 얼굴을 한 세월호 참사가 우리 옆에 있다. 한국에선 날마다 732명이 죽는다.(이하 2012년 기준, 통계청 자료) 이 가운데 39명이 ‘자살’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13명의 세배다. 공식 통계로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6명이다. 은폐된 산재 사망자는 더 많다. 누군가한테 살해되는 이도 3명이다. 암(201명)·심장질환(72명)·뇌혈관질환(71명) 따위로 죽는 이까지 더하면, 한국의 죽음 가운데 자연사는 절반도 안 된다.<br/>　이 죽음의 숫자가 뜻하는 건 뭔가?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자살은 10~30대 사망 원인 1위이자 40~50대 사망 원인 2위다. 무한 입시·취업·생존 경쟁이 숱한 생명을 ‘죽음의 맷돌’에 밀어넣은 결과다. 한국의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 불러야 하는 이유다. ‘산재 사망자’라는 건조한 개념 밑에는 철판에 깔려 죽고 추락해 죽고 불에 타죽은 누군가의 어미·아비·딸·아들이 있다. 그들의 다수가 하청 노동자다.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조건에도 식구를 먹여살리려던 생명이 스러지면, 그들의 가족도 파괴된다. 사람의 목숨과 안전보다 돈을 앞세운 기업 논리 탓이다. 산재 사망률도 자살률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위다.<br/>　세월호 참사는 ‘임계사고’의 전형이다. 수많은 사고 원인이 켜켜이 쌓이다 맹골수도에서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 돈과 직결된 원인만 한두가지 짚어보자.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빌미로 해운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준다며 선령 제한을 완화했다. 덕분에 일본에서 18년을 운항해 폐선해야 할 나미노우에호가 ‘고철값’에 한국의 최대 규모 여객선 세월호로 둔갑했다.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 25명 중 19명이 계약기간 1년 이하의 비정규직이다.<br/>　한국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다. 10대 대기업(70개 상장 계열사)의 내부 유보금이 444조2000억원이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둘 다 사상 최대 규모다. 대기업은 배터지고, 가계는 배곯는다. 더 많은 이윤 추구가 창조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깝다. 양극화라는 바이러스가 무한 증식하며 생명을 옥죈다. 돈을 좇는 기업과 관료·정치인의 비리·야합이 세상을 어떻게 지옥으로 만드는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웅변한다. 이 사업이 생명의 어머니인 강을 죽이고 숱한 노동자와 뭇 생명을 수장했다. 한국은 오래된 ‘비리 위험사회’다. 비리와 야합의 연쇄고리를 끊지 못하면 또 다른 세월호 참사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죽음이 존귀하지 않은데 삶이 어찌 두렵지 않겠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당연한 결과다.<br/>　그래도 넋 놓고 있진 말자. 죽음이 삶의 다른 얼굴이듯, 절망은 희망의 다른 얼굴이다. 겨울을 이겨낸 나목이 꽃을 피우듯, 우리의 삶도 비리와 야합의 지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 서로 보듬으며 힘을 내자. 초기 불교 경전 의 한 구절을 읊조린다. “<span class='quot0'>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span>” <br/> 이제훈 사회정책부장 nomad@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26.txt

제목: 장애인 보험문턱 낮아질까  
날짜: 2014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50110014162372  
본문: 장애인에 대한 민간보험상품 문턱이 낮아질까?<br/><br/> 지난 1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장애인학교인 서울 경운학교를 방문해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에게 유리한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외면받아온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손질할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은 민간보험상품 시장에서 소외돼왔다.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 통계를 보면, 민간보험 가입 계약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53.7%였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박태성 장애인부모회 회장은 “민간보험 가입이 너무 힘들어 애를 먹었다. 특히 민간연금보험의 경우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이를 위해 들어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손해율이나 통계를 이유로 가입이 쉽지 않아 답답했다. 금융위원회 방침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br/><br/> ■ 수급액 높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예정 5월께부터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케이디비(KDB)생명, 엔에이치(NH)생명 등에서 장애인 연금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상품이 출시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br/><br/>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인에게 특화된 연금상품으로 통계상 낮은 장애인 수명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통계를 적용하면 평균 연금 수령기간이 짧아져 일반 연금보험보다 10~25% 높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수급이 시작되는 나이도 20살, 30살, 40살 등 다양화했다. 부모님의 은퇴 등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약해지는 시점이 다양할 수 있어서다. 되도록 장기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에 포함된 선취사업비를 없앴다. 대신 가입기간 동안 사업비를 나눠 내는 후취형 사업비체계로 운영한다. 배당형 상품으로 출시돼 보험료 운영 수익을 환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연금인 만큼 등록 장애인이면 특별한 심사 없이 누구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br/><br/> 애초 4월 말까지 출시할 계획이었던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은 위험률이 높고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업계의 반발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를 앞둔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나서지 않고 중소형사들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 공적보험을 보완해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막상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워 출시일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의 조율도 마무리 단계다. 5월 초부터는 단계적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br/><br/> ■ 외면받아 온 보장성 보험도 손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뿐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도 장애인들은 보험료의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2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일반 보험의 경우 100만원까지만 보험료 세액이 공제됐다.<br/><br/> 2001년께 출시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보장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외면받아왔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운영해 온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인 곰두리보험은 암보장형과 사망보장형 두 종류뿐이다. 특약 역시 암으로 인한 사망 정도에 그친다. 낮은 수익률 탓에 홍보도 부족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홍보 부족은 인정한다. 보험가입자가 먼저 장애인이라고 밝히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경증장애인의 경우 우리도 장애인 전용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가입자 수도 2012년 기준 8000여명에 그쳤다.<br/><br/> 금융위가 세제당국과 논의를 거쳐 공제혜택을 늘리게 되면 장애인은 굳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도 똑같은 세금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br/><br/>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27.txt

제목: [편집국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 이제훈  
날짜: 2014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3010014152175  
본문: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간다. 비유법이 아니다. ‘창백한 푸른 별’의 식구로 태어나 죽어가며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은 삶의 다른 얼굴이다. 그러니 삶이 존귀해야 하는 것처럼, 죽음도 존귀해야 한다.<br/><br/> 한국에서 죽음은 존귀하지 않다. 선장과 선원의 ‘1호 탈출’, 안전과 안보를 입에 달고 사는 박근혜 정부의 우왕좌왕 구조 실패로 생때같은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세월호 승객들. 우리가 텔레비전 생중계를 보는 동안 그들이 서서히 죽어갔다. 그 ‘죽음의 방식’을 오래도록 기억해야 한다.<br/><br/> 다른 얼굴을 한 세월호 참사가 우리 옆에 있다. 한국에선 날마다 732명이 죽는다.(이하 2012년 기준, 통계청 자료) 이 가운데 39명이 ‘자살’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13명의 세배다. 공식 통계로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6명이다. 은폐된 산재 사망자는 더 많다. 누군가한테 살해되는 이도 3명이다. 암(201명)·심장질환(72명)·뇌혈관질환(71명) 따위로 죽는 이까지 더하면, 한국의 죽음 가운데 자연사는 절반도 안 된다.<br/><br/> 이 죽음의 숫자가 뜻하는 건 뭔가?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자살은 10~30대 사망 원인 1위이자 40~50대 사망 원인 2위다. 무한 입시·취업·생존 경쟁이 숱한 생명을 ‘죽음의 맷돌’에 밀어넣은 결과다. 한국의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 불러야 하는 이유다. ‘산재 사망자’라는 건조한 개념 밑에는 철판에 깔려 죽고 추락해 죽고 불에 타죽은 누군가의 어미·아비·딸·아들이 있다. 그들의 다수가 하청 노동자다.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조건에도 식구를 먹여살리려던 생명이 스러지면, 그들의 가족도 파괴된다. 사람의 목숨과 안전보다 돈을 앞세운 기업 논리 탓이다. 산재 사망률도 자살률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위다.<br/><br/> 세월호 참사는 ‘임계사고’의 전형이다. 수많은 사고 원인이 켜켜이 쌓이다 맹골수도에서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 돈과 직결된 원인만 한두가지 짚어보자.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빌미로 해운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준다며 선령 제한을 완화했다. 덕분에 일본에서 18년을 운항해 폐선해야 할 나미노우에호가 ‘고철값’에 한국의 최대 규모 여객선 세월호로 둔갑했다.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 25명 중 19명이 계약기간 1년 이하의 비정규직이다.<br/><br/> 한국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다. 10대 대기업(70개 상장 계열사)의 내부 유보금이 444조2000억원이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둘 다 사상 최대 규모다. 대기업은 배터지고, 가계는 배곯는다. 더 많은 이윤 추구가 창조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가깝다. 양극화라는 바이러스가 무한 증식하며 생명을 옥죈다. 돈을 좇는 기업과 관료·정치인의 비리·야합이 세상을 어떻게 지옥으로 만드는지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웅변한다. 이 사업이 생명의 어머니인 강을 죽이고 숱한 노동자와 뭇 생명을 수장했다. 한국은 오래된 ‘비리 위험사회’다. 비리와 야합의 연쇄고리를 끊지 못하면 또 다른 세월호 참사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죽음이 존귀하지 않은데 삶이 어찌 두렵지 않겠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당연한 결과다.<br/><br/> 그래도 넋 놓고 있진 말자. 죽음이 삶의 다른 얼굴이듯, 절망은 희망의 다른 얼굴이다. 겨울을 이겨낸 나목이 꽃을 피우듯, 우리의 삶도 비리와 야합의 지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 서로 보듬으며 힘을 내자. 초기 불교 경전 <숫타니파타>의 한 구절을 읊조린다. “<span class='quot0'>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span>” <br/><br/>이제훈 사회정책부장<br/><br/>nomad@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28.txt

제목: 하얀기타는 /애달프게 /흐느꼈다  
날짜: 20140429  
기자: 서정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9100000058  
본문: 제프 벡(70)은 검은 옷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다. 에릭 클랩턴, 지미 페이지와 함께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야드버즈가 낳은 3명의 거장 기타리스트 중 하나로 명성이 높은 그다. 27일 저녁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내한공연을 했다. 2010년 첫 내한공연 이후 두번째다.<br/>　“비극적인 참사가 낳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 음악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남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br/>　제프 벡이 나오자마자 아무 말 없이 네 곡을 잇따라 연주한 뒤 무대에서 한 첫 멘트였다. 그러고는 함께 무대에 오른 기타리스트 니콜라스 마이어와 ‘피플 겟 레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미국 가스펠 그룹 임프레션스의 발표곡으로, 제프 벡은 자신의 앨범에서 로드 스튜어트(보컬)와 함께 리메이크했다. 이날 무대에선 보컬 없이 두 대의 기타만으로 연주했지만, 어떤 노래보다도 깊은 울림과 위안이 담겨 있었다.<br/>　그는 아일랜드 민요 ‘대니 보이’처럼 잔잔하고 애절한 곡뿐 아니라, 일흔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곡도 연주했다. 거의 매 곡 기타를 바꿔가며 조금씩 다른 톤의 기타 소리를 들려줬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유명 기타제조사인 펜더의 흰색 일렉트릭 기타라는 점. 특히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하얀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즐겨 쳤다.<br/>　제프 벡은 연주자들이 보통 사용하는 피크 대신 엄지손가락으로 줄을 튕겼다. 나머지 손가락으로 기타 몸체에 달린, 음정을 조정하는 트레몰로 암과 음량을 조절하는 볼륨 노브를 만지며 미세한 음의 변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그는 기타의 여러 부위를 마치 입안의 혀처럼 능수능란하게 다루며 특유의 몽환적인 소리를 만들어냈다.<br/>　‘에인절’을 연주할 때는 왼손 중지에 유리관(보틀넥)을 끼고 지판 위를 미끄러지는 슬라이드 주법을 주로 썼다. 그러다 갑자기 유리관을 오른손으로 집어 기타 줄을 튕기는 부위에 붙어 있는 기폭장치(픽업) 부근 줄을 건드리니 맑고 투명한 고음이 터져나왔다. 왼손으로 지판을 짚지 않았는데도 줄을 건드리는 유리관의 움직임에 따라 음이 계속 변했다. 그런 방식의 연주법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관객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br/>　앙코르 무대 마지막을 장식한 곡은 한국인이 특히 사랑하는 ‘코즈 위브 엔디드 애즈 러버스’였다. 스티비 원더가 한때 부인이었던 가수 시리타에게 만들어준 곡을 제프 벡이 연주곡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흐느끼는 듯한 기타 소리가 흐르자 사람들은 탄성을 내뱉었다. 그러고는 숨죽인 채 애달픈 연주에 몰입했다. 맨 처음처럼 다시 흐느끼는 듯한 기타 소리로 마무리되는 순간, 공연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했다. 관객들은 각자 속으로 흐느끼고 있는 듯했다. 세월호의 아픔은 그렇게 표출되고 보듬어지고 있었다. 서정민 기자, 사진 프라이빗커브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29.txt

제목: “안전·소비자보호·공정거래 ‘규제’ 안푼다”  
날짜: 20140429  
기자: 류이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9100000046  
본문: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고를 낳은 주원인으로 지목되자,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던 정부가 안전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br/>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차관은 “<span class='quot0'>요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규제 이야기를 일정 부분 금기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소비자보호나 환경, 안전, 공정거래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span>”고 말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기업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자 했던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런 부문의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span>”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것은 맞지만,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규제를 풀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규제를 ‘암덩어리’에 비유하며 강력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던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난 모습이다.<br/>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도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추 차관은 “<span class='quot0'>앞으로 경기에 부담이 될 변수는 민간소비인데, 세월호 사고의 여파와 통신사 영업규제 등 특이 요인이 가세해 민간소비 둔화세가 커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다양한 속보성 지표를 통해 (민간소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여파가 얼마나 지속되고 어느 크기로 나타날지 면밀히 점검한 뒤 추가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해볼 생각</span>”이라고 덧붙였다.<br/>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세월호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가 그것이다”라며 “실무진이 어떻게 될지 짚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한은이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수정되거나 기준금리 결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br/>　 류이근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30.txt

제목: 하얀기타는 애달프게 흐느꼈다  
날짜: 2014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810014106580  
본문: 제프 벡(70)은 검은 옷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다. 에릭 클랩턴, 지미 페이지와 함께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야드버즈가 낳은 3명의 거장 기타리스트 중 하나로 명성이 높은 그다. 27일 저녁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내한공연을 했다. 2010년 첫 내한공연 이후 두번째다.<br/><br/> “비극적인 참사가 낳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 음악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남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br/><br/> 제프 벡이 나오자마자 아무 말 없이 네 곡을 잇따라 연주한 뒤 무대에서 한 첫 멘트였다. 그러고는 함께 무대에 오른 기타리스트 니콜라스 마이어와 ‘피플 겟 레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미국 가스펠 그룹 임프레션스의 발표곡으로, 제프 벡은 자신의 앨범에서 로드 스튜어트(보컬)와 함께 리메이크했다. 이날 무대에선 보컬 없이 두 대의 기타만으로 연주했지만, 어떤 노래보다도 깊은 울림과 위안이 담겨 있었다.<br/><br/> 그는 아일랜드 민요 ‘대니 보이’처럼 잔잔하고 애절한 곡뿐 아니라, 일흔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곡도 연주했다. 거의 매 곡 기타를 바꿔가며 조금씩 다른 톤의 기타 소리를 들려줬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유명 기타제조사인 펜더의 흰색 일렉트릭 기타라는 점. 특히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하얀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즐겨 쳤다.<br/><br/> 제프 벡은 연주자들이 보통 사용하는 피크 대신 엄지손가락으로 줄을 튕겼다. 나머지 손가락으로 기타 몸체에 달린, 음정을 조정하는 트레몰로 암과 음량을 조절하는 볼륨 노브를 만지며 미세한 음의 변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그는 기타의 여러 부위를 마치 입안의 혀처럼 능수능란하게 다루며 특유의 몽환적인 소리를 만들어냈다.<br/><br/> ‘에인절’을 연주할 때는 왼손 중지에 유리관(보틀넥)을 끼고 지판 위를 미끄러지는 슬라이드 주법을 주로 썼다. 그러다 갑자기 유리관을 오른손으로 집어 기타 줄을 튕기는 부위에 붙어 있는 기폭장치(픽업) 부근 줄을 건드리니 맑고 투명한 고음이 터져나왔다. 왼손으로 지판을 짚지 않았는데도 줄을 건드리는 유리관의 움직임에 따라 음이 계속 변했다. 그런 방식의 연주법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관객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br/><br/> 앙코르 무대 마지막을 장식한 곡은 한국인이 특히 사랑하는 ‘코즈 위브 엔디드 애즈 러버스’였다. 스티비 원더가 한때 부인이었던 가수 시리타에게 만들어준 곡을 제프 벡이 연주곡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흐느끼는 듯한 기타 소리가 흐르자 사람들은 탄성을 내뱉었다. 그러고는 숨죽인 채 애달픈 연주에 몰입했다. 맨 처음처럼 다시 흐느끼는 듯한 기타 소리로 마무리되는 순간, 공연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했다. 관객들은 각자 속으로 흐느끼고 있는 듯했다. 세월호의 아픔은 그렇게 표출되고 보듬어지고 있었다. <br/><br/>서정민 기자, 사진 프라이빗커브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31.txt

제목: “안전·소비자보호·공정거래 ‘규제’ 안푼다”  
날짜: 2014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810014107174  
본문: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고를 낳은 주원인으로 지목되자,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던 정부가 안전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br/><br/>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차관은 “<span class='quot0'>요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규제 이야기를 일정 부분 금기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소비자보호나 환경, 안전, 공정거래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span>”고 말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기업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자 했던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런 부문의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span>”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것은 맞지만,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규제를 풀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규제를 ‘암덩어리’에 비유하며 강력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던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난 모습이다.<br/><br/>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도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추 차관은 “<span class='quot0'>앞으로 경기에 부담이 될 변수는 민간소비인데, 세월호 사고의 여파와 통신사 영업규제 등 특이 요인이 가세해 민간소비 둔화세가 커지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다양한 속보성 지표를 통해 (민간소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여파가 얼마나 지속되고 어느 크기로 나타날지 면밀히 점검한 뒤 추가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해볼 생각</span>”이라고 덧붙였다.<br/><br/>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세월호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가 그것이다”라며 “실무진이 어떻게 될지 짚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한은이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수정되거나 기준금리 결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br/><br/>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32.txt

제목: “해운사·선장 처벌로 끝나면 국민 상처 치유 못해”  
날짜: 20140426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6100000038  
본문: “고등학생 아이를 둔 아빠로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며 사망자 수가 자꾸 느는데 하루 종일 우울했다가 분노했다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이러다 미치겠어요.”(최아무개씨, 51살·서울 방학동) “아직 발달이 덜 된 나라에서나 일어날 만한 사고가 생긴 것도 문제인데, 구조도 전혀 못하고…. 꼭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친한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네요.”(이아무개씨, 28·서울 연건동) <br/>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25일로 열흘째인데,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은 뒤 생존 구조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사망·실종자 302명, 시간이 흐르며 사망자 수만 늘고 있다. 실종자가 모두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많은 시민들이 분노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들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은 듯한 분위기다.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마치 우리 국민 모두가 희생자의 가족이 된 것처럼 분노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 이는 세월호 선장이나 승무원, 해운사 관계자 등 몇몇을 처벌해서 풀어질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온 국민의 분노와 우울에 공감하고 위안을 줘야 하는 시기다. 아울러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조속히 내놔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차차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br/>■ 공감 아직 피지도 못한 꽃인 고등학생들을 포함해 한꺼번에 수백명이 생때같은 목숨을 잃은 대참사 앞에서 슬퍼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사고 공화국’이라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은 마당에, 또다른 대형사고가 날까봐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br/>　김아무개(53·서울 대림동)씨는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20여년 전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발전이 덜 돼서’라는 구차한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다. 지난 20년간 경제성장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게 뭔가? 사람 생명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자괴감이 든다. 희생자 가족들한테는 못 미치겠지만 책임을 통감한다. 너무도 슬프다.” 김씨는 마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바로잡지 못한 것에 책임감은 물론 죄책감까지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말에 경기도 안산에 조문을 다녀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br/>　숱한 시민들이 김씨 같은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두고 허찬희 하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짚었다. “배우자의 사망이 정신적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들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바로 자녀의 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사고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자책하며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br/>　이런 우울과 불안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다는 게 중론이다. “정신과를 찾아 치료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온 국민이 슬픔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고 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평소 정신질환이 있어 진료를 받는 이들도 이번 세월호 사고로 상처를 받아 우울감이나 불안이 더 심해졌다. 아울러 이 사고 이전에 가족이 사망하는 등 정신적인 상처를 받은 이들도 상처가 덧나는 것 같다.” 이소영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br/> ■ 분노 암 등 중병이 진단되면 환자는 처음에는 이를 부정한다. 그러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느냐’며 분노한다. 세월호 침몰 초기 정부가 나서 실종자들을 무사히 구출하리라 믿고 바란 국민들도 시간이 흐르자 희망을 잃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있다. <br/>　허찬희 전문의는 이렇게 짚었다. “중병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신 상태가 아니더라도, 숱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 사고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번에 분노가 더 큰 건 세월호 침몰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생명을 구할 기회가 몇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결국 세월호 선장이나 승무원은 물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 전체에 분노하게 된 것이다.” <br/>　국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정부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선장 등 선박회사한테 돌리려 애쓰는 듯한 행태가 분노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참사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다. 아울러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상처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선박회사 등 일부한테만 분노의 화살을 돌리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희생자 및 그 가족의 상처가 오히려 더 커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영국의 이나 미국 등) 여러 외국 언론이 지적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며 재발 방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 치유 아직 주검조차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가 100명이 넘고 대형 참사의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을 비롯해 국민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문제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신적) 상처가 깊어지고 오래도록 남으리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 많다. <br/>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암과 같은 중병에 시달리는 환자도 분노를 느끼고 우울해하다가 이를 수용하고 치료하려고 삶을 바꾸는 것처럼, 국가적 재난이나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도 정신적인 치유의 길을 찾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재난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이 불안감이 다시 분노를 키워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 중병을 예방하는 각종 조처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생각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 환자 가운데도 암을 겪은 뒤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방치하지 말고 오히려 상처를 딛고 ‘성장’하게 되는 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조언이다. <br/>　우종민 인제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권고했다. “(정부나 언론이) 몇몇의 잘못을 문제 삼아 관련자들을 처벌했으니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나 안심하라는 식으로 국민을 몰아가려 해서는 곤란하다. 참사의 직접적인 희생자를 비롯해 어떤 국민들이 더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지, 회복 속도는 어떻게 다른지 따위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이번 기회에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33.txt

제목: 블로그 미팅 /현학적이고 심오한 그녀 /글만 그럴싸했단 말이냐  
날짜: 201404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6100000085  
본문: ▶ 다들 즐겨찾기 해놓은 블로그가 한두 군데쯤은 있을 겁니다. 혹시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 상상해본 적은 없나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저는 그녀가 올리는 글의 향기에 취해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댓글만 주고받으며 소통하다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죠.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br/>‘2 대 8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상위 20% 부자가 부의 80% 이익을 가져간다는 법칙은 경제학을 넘어 어느 분야에든 적용된다. <br/>　이 마성의 법칙을 비틀어 응용하면 블로그 세계에서도 얼추 들어맞는다. 우리들 대다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다른 누리꾼들과 어울리지만, 가상 세계를 빠져나와 현실 세계에서까지 믿음직한 술친구나 연인으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한 블로거의 비율은 전체의 20%를 밑돌 것이다. 나 역시 인터넷에 입문한 이래로 한결같이 80%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처럼.<br/>　내 블로그는 영화나 미술 전시, 책에 관한 인상비평을 쓰는 공간이다.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올리다 보니 나에게도 열혈 독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주로 문화와 예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20대 중후반의 여성들이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치듯 소수의 열혈 독자들은 내 블로그를 수시로 기웃거렸다. 쪽지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만남을 제시하는 애독자도 더러 있었다. 나는 자판을 두들기던 손으로 그들과 악수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당시 어떤 미스터리한 여성 블로거와 아슬아슬한 온라인 밀당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다.<br/>　그녀의 블로그는 꾸준히 글이 올라오긴 하지만 방문객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조용한 곳이었다. 그녀가 내 블로그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리라. 그녀의 글들은 문학작품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인용 구절 밑으로 그녀 자신의 문장들이 채워졌다. 그 둘 사이에 유기적인 연관성은 딱히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문장을 읽는 것은 나의 큰 기쁨이었다. 한두번 읽어서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모호한 문장들이 블로그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인용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낯선 이름이었다. 내가 모르는 작가의 책, 현학성 짙은 문장들. 고급스러운 취향이 묻어나는 그녀의 사생활. 위대한 작가들의 문장을 자신의 일상 속으로 품는 그녀의 삶이란 대단히 심오하고 멋진 것이리라 생각하니, 날로 커져가던 그녀에 대한 궁금증을 주체할 수 없었다. 실시간 채팅을 하듯 댓글에 댓글을 다는 ‘댓글놀이’로 며칠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며 그녀에 대한 환상을 키워갔다. <br/>　그해 6월 초, 우리는 만났다. 실제로 본 그녀의 모습은 블로그에서 어렴풋이 봤던 사진 속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자주 만났다. 자주 보는 만큼 각자의 블로그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방치됐다. 그녀에 대한 환상은 현상 유지 상태였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괴리감이 그녀를 대할 때마다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괴리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기까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br/>　데이트 내내 그녀는 입을 쉬지 않고 놀렸다. 지나가는 강아지부터 처음 본 자동차와 새로 생긴 가게까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신기해하며 들뜬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이 차다며 온갖 짜증을 부리는가 하면 소화가 안되는 사소한 신체 변화에도 각종 희귀 질병과 암까지 입에 올리며 지나치게 불안해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줄 몰랐다. 전형적으로 자기 얘기 하길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부류에 속하는 캐릭터였다. 이야기의 8할은 ‘예쁘다’ 아니면 ‘갖고 싶다’로 끝났으며 나머지 2할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자신의 건강 상태,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외모 지적이 전부였다. 그렇다. 그녀는 어른의 탈을 쓴 아이였다.<br/>　어린아이와 긴 시간을 놀아준다는 것은 웬만한 성인에겐 지치는 일이다. 나는 난처해졌다. 서른이 넘은 남녀 사이의 교제에서 이런 것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자체가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br/>　그녀에게 그간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예상대로 그녀는 자신의 그런 면들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정말로 본인의 문제를 모르느냐 되물었더니 “과거에 교제했던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말을 몇 번 듣기는 했다”며 해맑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만 이내 이성을 간신히 되찾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과 만나는 시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다고.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만날 정도로 당신이 내 삶에 필요하지는 않다고. 한두 달 사귀어서 사람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마는 이 경우는 좀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라는 게 그간 나의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br/>　두 달 남짓한 그녀와의 만남에 종지부를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혼란스러움은 가시지 않았다. 삶에 대한 통찰로 범벅된 블로그의 그럴싸한 글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서가에 빽빽하게 들어선 책과 음반, 외국 작가의 도록. 그것들은 여태껏 살벌한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그녀를 지켜준 명품 외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난 외투 속을 들여다봤다. 거기엔 지적 허영심에 가득한, 부끄러움을 모른 채 발가벗고 있는 한 아이가 있을 뿐이었다.<br/>　내 블로그는 무기한 휴업 상태에 들어갔지만 그녀의 블로그를 종종 방문하곤 한다. 이유는 불분명하다. 그녀만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긴 힘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젠체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인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성적인 문체를 지닌 어떤 한 블로거가 꾸준히 그녀 글에 댓글을 달고 있었다.<br/> 31살 반포 개츠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34.txt

제목: ‘세월호 트라우마’ 빠진 국민들…전문가들이 말하는 ‘치유법’  
날짜: 2014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510014091613  
본문: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25일로 열흘째인데,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은 뒤 생존 구조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사망·실종자 302명, 시간이 흐르며 사망자 숫자만 늘고 있다. 실종자가 모두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많은 시민들이 분노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들 ‘희망’이라는 단어를 잊은 듯한 분위기다.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마치 우리 국민 모두가 희생자의 가족이 된 것처럼 분노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 이는 세월호 선장이나 승무원, 해운사 관계자 등 몇몇을 처벌해서 풀어질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온 국민의 분노와 우울에 공감하고 위안을 줘야 하는 시기다. 아울러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조속히 내놔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차차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br/><br/> ■ 공감 아직 피지도 못한 꽃인 고등학생들을 포함해 한꺼번에 수백명이 생때같은 목숨을 잃은 대참사 앞에서 슬퍼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사고 공화국’이라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은 마당에, 또 다른 대형사고가 날까봐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br/><br/> 김아무개(53ㆍ서울 대림동)씨는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20여년 전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발전이 덜 돼서’라는 구차한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다. 지난 20년간 경제성장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게 뭔가? 사람 생명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자괴감이 든다. 희생자 가족들한테는 못 미치겠지만 책임을 통감한다. 너무도 슬프다.” 김씨는 마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바로잡지 못한 것에 책임감은 물론 죄책감까지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말에 안산에 조문을 다녀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br/><br/> 숱한 시민들이 김씨 같은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두고 허찬희 하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짚었다. “배우자의 사망이 정신적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들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바로 자녀의 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사고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자책하며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br/><br/> 이런 우울과 불안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다는 게 중론이다. “정신과를 찾아 치료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온 국민이 슬픔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고 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평소 정신질환이 있어 진료를 받는 이들도 이번 세월호 사고로 상처를 받아 우울감이나 불안이 더 심해졌다. 아울러 이 사고 이전에 가족이 사망하는 등 정신적인 상처를 받은 이들도 상처가 덧나는 것 같다.” 이소영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br/><br/><br/><br/><br/>“<span class='quot0'>내 친한 누군가 죽은 것처럼…</span>” <br/>슬픔 함께 느끼며 우울·불안 <br/>“또 사고 날까” 걱정도 늘어 <br/> <br/>정부 책임 회피하려는 태도에 <br/>국민들 분노 더 커졌다는 지적도 <br/> <br/>전문가들 “안전한 삶 신뢰 회복 위한 <br/>근본적 해결책 조속히 마련해야” <br/>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제안도 <br/><br/><br/><br/><br/> ■ 분노 암 등 중병이 진단되면 환자는 처음에는 이를 부정한다. 그러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냐’며 분노한다. 세월호 침몰 초기 정부가 나서 실종자들을 무사히 구출하리라 믿고 바란 국민들도 시간이 흐르자 희망을 잃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있다. <br/><br/> 허찬희 전문의는 이렇게 짚었다. “중병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신 상태가 아니더라도, 숱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 사고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번에 분노가 더 큰 건 세월호 침몰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생명을 구할 기회가 몇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결국 세월호 선장이나 승무원은 물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 전체에 분노하게 된 것이다.” <br/><br/> 국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정부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선장 등 선박회사한테 돌리려 애쓰는 듯한 행태가 분노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참사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다. 아울러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상처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선박회사 등 일부한테만 분노의 화살을 돌리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희생자 및 그 가족의 상처가 오히려 더 커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span class='quot0'>(영국의 <가디언>이나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여러 외국 언론이 지적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며 재발 방지 조처를 취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 ■ 치유 아직 주검조차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가 100명이 넘고 대형 참사의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을 비롯해 국민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문제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신적) 상처가 깊어지고 오래도록 남으리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 많다. <br/><br/>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 교수는 “<span class='quot1'>암과 같은 중병에 시달리는 환자도 분노를 느끼고 우울해하다가 이를 수용하고 치료하려고 삶을 바꾸는 것처럼, 국가적 재난이나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도 정신적인 치유의 길을 찾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윤 교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재난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이 불안감이 다시 분노를 키워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 중병을 예방하는 각종 조처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생각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 환자 가운데도 암을 겪은 뒤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방치하지 말고 오히려 상처를 딛고 ‘성장’하게 되는 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조언이다. <br/><br/> 우종민 인제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권고했다. “(정부나 언론이) 몇몇의 잘못을 문제삼아 관련자들을 처벌했으니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나 안심하라는 식으로 국민을 몰아가려 해서는 곤란하다. 참사의 직접적인 희생자를 비롯해 어떤 국민들이 더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지, 회복 속도는 어떻게 다른지 따위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이번 기회에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br/><br/> <br/><br/>[한겨레TV] 김어준의 KFC #6 진도VTS와 이종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35.txt

제목: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날짜: 20140425  
기자: 홍세화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5100000103  
본문: 비통하고 참담하다. 이웃의 고통과 불행에 무감해진 사회라 하지만 이 가혹한 시간을 별일 없이 감당하는 동시대인은 어떤 인간인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자꾸만 눈물이 나려 한다. 탑승자 476명, 구조자 174명. 실종자와 사망자 302명.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었을 뿐.<br/>　본디 실종자라는 말은 올바른 정명(正名)이 아니었다. 공자님은 논어에서 “명칭과 실질은 일치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모두 배 안에 갇혀 있었다. 실종자는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뜻한다. 국민 모두 알고 있었다. 생사는 알 수 없지만 종적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을. 실종자보다 긴급구출 대상자라고 불러야 마땅했다. 정부 당국은 연일 함정 수백척, 항공기 수십대, 잠수요원 수백명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나만 그랬을까, 그 숫자들이 공허하게 다가왔다. 하물며 생때같은 자식을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사지에 둔 채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른 부모들에게 그 숫자는 무엇이었을까. “<span class='quot0'>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span>”는 헌법 34조에 값하는 것이었던가. 그 숫자들은 긴급구출이 요청되는 국민을 실종자로 규정한 뒤 ‘실종자 수색’ 교범에 따른 군사행정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br/>　실상 긴급이란 말도 부족했다. 순간순간이 경각과 같았다. 바로 눈앞에, 코앞에, 300에 이르는 국민이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국가라면, 국가다운 국가라면 국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뻗는 일에 총력을 집중해야 했다. 군, 관, 민의 구분이 있을 수 없었다. 모든 역량과 모든 지혜를 모아야 했다. 그런데 의 보도에 따르면, 침몰 첫날 실제로 잠수한 요원은 단 16명, 그 이튿날도 38명뿐이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다. 유속이 빠르고 시계(視界)가 좁아 잠수 자체가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대천명’(待天命) 이전에 ‘진인사’(盡人事)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늘을 탓하기 전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았다. 가족들의 분노와 절망은 무엇보다 이 점에 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단 일초가 여삼추인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에 마음으로 공감할 줄 아는 정부 당국자를 찾을 수 없었다. 마음이 없거나 부족한데 행동이 따를 리 없었다.<br/>　무릇 못난 자일수록 자신의 무능을 탓하기에 앞서 남 탓을 한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에게 그에 맞는 능력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낱같은 희망조차 절망으로 바뀌어가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지목해 “살인과 같은 행태”라고 말했다. 의 비판적 지적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살인’이나 ‘암’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특히 나 같은 사람에게 살인이라는 말은 살인정권을 떠오르게 하고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되돌아보게 한다.<br/>　나도 물론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옹호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들은 비난받아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계속되는 중에 자신들만 아는 통로를 이용하여 탈출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나는 동시대를 사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누구처럼 행동했겠는가? 승객들을 사지에 놔둔 채 도생한 선장이나 선박직 선원들처럼 행동했겠는가, 아니면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건네주면서 살아 나오도록 도와준 뒤 목숨을 잃은 박지영씨처럼 행동했겠는가.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저울질하는 이른바 언론인에게, 바다가 세월호를 완전히 삼킨 날 기념사진을 찍은 분에게, “<span class='quot1'>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사령탑이 아니</span>”라면서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청와대 인사에게 정말로 묻고 싶다. 그대가 그 선장과 선원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워낙 높은 분들이어서 그런 하찮은 자리에 있을 일은 결코 없다고 답할 것인가. 같은 물음을 나 자신에게 던졌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자신 있게 박지영씨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답하지 못했다.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배를 벗어나도록 도와준 뒤 자신도 일단 살아남았지만 참담한 상황을 목격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선생처럼 행동할 수 있었겠는가? 이 물음에도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다.<br/>　이어서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나 선원의 자리에 있었다면?’ 하고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먼저와 달랐다. 단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구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다가 마침내 두 동강 나 심해 속으로 빠져 들어간 타이타닉호와 함께 장렬하게 수장되는 길을 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20세기 초 타이타닉호의 선장과 선원 같은 선장과 선원을 21세기 한국에선 찾을 수 없기 때문인가. 세월호 선장은 1년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이다. 다른 선원들도 다수가 비정규직이다. 그들에게 배는 다만 밥벌이를 해주는 임시적 일자리에 지나지 않았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움켜쥐었던 키는 타이타닉호와 자신이 운명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그것은 직업으로서의 소명의식과 함께 자존감, 그리고 어떤 고결함까지 형성케 했을 것이다. 한국의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그런 상징물이 없다.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일체감도 애착도 기대할 수 없고 선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사불란함도 없다. 그들에게 자신이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선체 고장이 자주 일어났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대충 넘어가진 않았을 것이다.<br/>　자본의 이윤 추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줄푸세’의 핵심논리다. 이명박 정권은 경비 절감을 이유로 20년으로 제한된 여객선 선령을 30년으로 연장해주었다. 돈벌이에, 자본의 이윤 추구에 사람의 안전은 고려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온통 탐욕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차라리 뻔뻔함이 성공의 열쇠가 된 사회다. 중고 배를 수입해 증축해도 안전검사를 쉽게 통과하고, 컨테이너를 결박하지 않은 채 과적하여 운항해도 통제되지 않는다. 이런 게 세월호만의 일이겠는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자리 잡힌 경향이고 흐름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아래 자본과 국가기관은 탈규제에 있어서 한통속이었다. 모든 규제를 암이라고 규정한 박근혜 정권의 시대에는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br/>　탑승자와 구조자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엄단하겠다고 윽박지른다. 유언비어가 신뢰 없는 사회의 반영물이라는 점을 돌아볼 때 정부가 그 진원지임을 모르는 것인가. 책임의식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에겐 이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정부”인 것이다. 돈과 자본 앞에 사회가 오래전에 무너졌듯이, 대학과 언론이 무너졌듯이,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다.<br/>　지금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넉넉지 못한 살림에 쌈짓돈을 모아 보낸 자식들은 영영 부모 곁으로 되돌아오지 못한다. 희생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동시대를 사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고 또 송구할 뿐이다. 이 잘못된 사회의 흐름을 막지 못한 무능함도 큰 죄일 터, 망자들에게 명복을 빈다고 말하기에도 면목이 없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br/>홍세화 공동발행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36.txt

제목: 그녀는 어른의 탈을 쓴 아이였다  
날짜: 2014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510014091550  
본문: ▶ 다들 즐겨찾기 해놓은 블로그가 한두 군데쯤은 있을 겁니다. 혹시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 상상해 본 적은 없나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저는 그녀가 올리는 글의 향기에 취해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덧글만 주고받으며 소통하다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죠.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br/><br/><br/><br/>‘2 대 8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상위 20% 부자가 부의 80% 이익을 가져간다는 법칙은 경제학을 넘어 어느 분야에든 적용된다. <br/><br/> 이 마성의 법칙을 비틀어 응용하면 블로그 세계에서도 얼추 들어맞는다. 우리들 대다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다른 누리꾼들과 어울리지만, 가상 세계를 빠져나와 현실 세계에서까지 믿음직한 술친구나 연인으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한 블로거의 비율은 전체의 20%를 밑돌 것이다. 나 역시 인터넷에 입문한 이래로 한결같이 80%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처럼.<br/><br/> 내 블로그는 영화나 미술 전시, 책에 관한 인상비평을 쓰는 공간이다.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올리다 보니 나에게도 열혈 독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은 주로 문화와 예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20대 중후반의 여성들이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치듯 소수의 열혈 독자들은 내 블로그를 수시로 기웃거렸다. 쪽지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만남을 제시하는 애독자도 더러 있었다. 나는 자판을 두들기던 손으로 그들과 악수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당시 어떤 미스터리한 여성 블로거와 아슬아슬한 온라인 밀당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다.<br/><br/> 그녀의 블로그는 꾸준히 글이 올라오긴 하지만 방문객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조용한 곳이었다. 그녀가 내 블로그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리라. 그녀의 글들은 문학작품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인용 구절 밑으로 그녀 자신의 문장들이 채워졌다. 그 둘 사이에 유기적인 연관성은 딱히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문장을 읽는 것은 나의 큰 기쁨이었다. 한두번 읽어서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모호한 문장들이 블로그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인용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낯선 이름이었다. 내가 모르는 작가의 책, 현학성 짙은 문장들. 고급스러운 취향이 묻어나는 그녀의 사생활. 위대한 작가들의 문장을 자신의 일상 속으로 품는 그녀의 삶이란 대단히 심오하고 멋진 것이리라 생각하니, 날로 커져가던 그녀에 대한 궁금증을 주체할 수 없었다. 실시간 채팅을 하듯 댓글에 댓글을 다는 ‘댓글놀이’로 며칠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며 그녀에 대한 환상을 키워갔다. <br/><br/><br/><br/><br/>위대한 작가들의 문장을 품는 <br/>그녀의 삶이 멋질 것 같았다 <br/>궁금증을 주체할 수 없었다 <br/>밤새우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br/><br/><br/><br/><br/> 그해 6월 초, 우리는 만났다. 실제로 본 그녀의 모습은 블로그에서 어렴풋이 봤던 사진 속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자주 만났다. 자주 보는 만큼 각자의 블로그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방치됐다. 그녀에 대한 환상은 현상 유지 상태였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괴리감이 그녀를 대할 때마다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괴리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기까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br/><br/> 데이트 내내 그녀는 입을 쉬지 않고 놀렸다. 지나가는 강아지부터 처음 본 자동차와 새로 생긴 가게까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신기해하며 들뜬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이 차다며 온갖 짜증을 부리는가 하면 소화가 안되는 사소한 신체 변화에도 각종 희귀 질병과 암까지 입에 올리며 지나치게 불안해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줄 몰랐다. 전형적으로 자기 얘기 하길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부류에 속하는 캐릭터였다. 이야기의 8할은 ‘예쁘다’ 아니면 ‘갖고 싶다’로 끝났으며 나머지 2할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자신의 건강 상태,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외모 지적이 전부였다. 그렇다. 그녀는 어른의 탈을 쓴 아이였다.<br/><br/> 어린아이와 긴 시간을 놀아준다는 것은 웬만한 성인에겐 지치는 일이다. 나는 난처해졌다. 서른이 넘은 남녀 사이의 교제에서 이런 것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자체가 민망스러울 정도였다. <br/><br/> 그녀에게 그간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예상대로 그녀는 자신의 그런 면들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정말로 본인의 문제를 모르느냐 되물었더니 “과거에 교제했던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말을 몇 번 듣기는 했다”며 해맑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만 이내 이성을 간신히 되찾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과 만나는 시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다고.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만날 정도로 당신이 내 삶에 필요하지는 않다고. 한두 달 사귀어서 사람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마는 이 경우는 좀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라는 게 그간 나의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br/><br/> 두 달 남짓한 그녀와의 만남에 종지부를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혼란스러움은 가시지 않았다. 삶에 대한 통찰로 범벅된 블로그의 그럴싸한 글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서가에 빽빽하게 들어선 책과 음반, 외국 작가의 도록. 그것들은 여태껏 살벌한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그녀를 지켜준 명품 외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난 외투 속을 들여다봤다. 거기엔 지적 허영심에 가득한, 부끄러움을 모른 채 발가벗고 있는 한 아이가 있을 뿐이었다.<br/><br/> 내 블로그는 무기한 휴업 상태에 들어갔지만 그녀의 블로그를 종종 방문하곤 한다. 이유는 불분명하다. 그녀만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긴 힘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젠체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문학작품들을 인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성적인 문체를 지닌 어떤 한 블로거가 꾸준히 그녀 글에 댓글을 달고 있었다.<br/><br/>31살 반포 개츠비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37.txt

제목: [특별기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 홍세화  
날짜: 2014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410014083617  
본문: 비통하고 참담하다. 이웃의 고통과 불행에 무감해진 사회라 하지만 이 가혹한 시간을 별일 없이 감당하는 동시대인은 어떤 인간인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자꾸만 눈물이 나려 한다. 탑승자 476명, 구조자 174명. 실종자와 사망자 302명.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실종자가 사망자로 바뀌었을 뿐.<br/><br/> 본디 실종자라는 말은 올바른 정명(正名)이 아니었다. 공자님은 논어에서 “명칭과 실질은 일치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모두 배 안에 갇혀 있었다. 실종자는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뜻한다. 국민 모두 알고 있었다. 생사는 알 수 없지만 종적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을. 실종자보다 긴급구출 대상자라고 불러야 마땅했다. 정부 당국은 연일 함정 수백척, 항공기 수십대, 잠수요원 수백명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나만 그랬을까, 그 숫자들이 공허하게 다가왔다. 하물며 생때같은 자식을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사지에 둔 채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른 부모들에게 그 숫자는 무엇이었을까. “<span class='quot0'>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span>”는 헌법 34조에 값하는 것이었던가. 그 숫자들은 긴급구출이 요청되는 국민을 실종자로 규정한 뒤 ‘실종자 수색’ 교범에 따른 군사행정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br/><br/> 실상 긴급이란 말도 부족했다. 순간순간이 경각과 같았다. 바로 눈앞에, 코앞에, 300에 이르는 국민이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국가라면, 국가다운 국가라면 국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뻗는 일에 총력을 집중해야 했다. 군, 관, 민의 구분이 있을 수 없었다. 모든 역량과 모든 지혜를 모아야 했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침몰 첫날 실제로 잠수한 요원은 단 16명, 그 이튿날도 38명뿐이었다. 절체절명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다. 유속이 빠르고 시계(視界)가 좁아 잠수 자체가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대천명’(待天命) 이전에 ‘진인사’(盡人事)가 없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늘을 탓하기 전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았다. 가족들의 분노와 절망은 무엇보다 이 점에 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단 일초가 여삼추인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에 마음으로 공감할 줄 아는 정부 당국자를 찾을 수 없었다. 마음이 없거나 부족한데 행동이 따를 리 없었다.<br/><br/> 무릇 못난 자일수록 자신의 무능을 탓하기에 앞서 남 탓을 한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에게 그에 맞는 능력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낱같은 희망조차 절망으로 바뀌어가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지목해 “살인과 같은 행태”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판적 지적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살인’이나 ‘암’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특히 나 같은 사람에게 살인이라는 말은 살인정권을 떠오르게 하고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되돌아보게 한다.<br/><br/> 나도 물론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옹호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들은 비난받아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계속되는 중에 자신들만 아는 통로를 이용하여 탈출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나는 동시대를 사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누구처럼 행동했겠는가? 승객들을 사지에 놔둔 채 도생한 선장이나 선박직 선원들처럼 행동했겠는가, 아니면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건네주면서 살아 나오도록 도와준 뒤 목숨을 잃은 박지영씨처럼 행동했겠는가.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저울질하는 이른바 언론인에게, 바다가 세월호를 완전히 삼킨 날 기념사진을 찍은 분에게, “<span class='quot1'>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사령탑이 아니</span>”라면서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청와대 인사에게 정말로 묻고 싶다. 그대가 그 선장과 선원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워낙 높은 분들이어서 그런 하찮은 자리에 있을 일은 결코 없다고 답할 것인가. 같은 물음을 나 자신에게 던졌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자신 있게 박지영씨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답하지 못했다.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배를 벗어나도록 도와준 뒤 자신도 일단 살아남았지만 참담한 상황을 목격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선생처럼 행동할 수 있었겠는가? 이 물음에도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다.<br/><br/> 이어서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나 선원의 자리에 있었다면?’ 하고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먼저와 달랐다. 단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구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다가 마침내 두 동강 나 심해 속으로 빠져 들어간 타이타닉호와 함께 장렬하게 수장되는 길을 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20세기 초 타이타닉호의 선장과 선원 같은 선장과 선원을 21세기 한국에선 찾을 수 없기 때문인가. 세월호 선장은 1년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이다. 다른 선원들도 다수가 비정규직이다. 그들에게 배는 다만 밥벌이를 해주는 임시적 일자리에 지나지 않았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움켜쥐었던 키는 타이타닉호와 자신이 운명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그것은 직업으로서의 소명의식과 함께 자존감, 그리고 어떤 고결함까지 형성케 했을 것이다. 한국의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그런 상징물이 없다.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일체감도 애착도 기대할 수 없고 선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사불란함도 없다. 그들에게 자신이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선체 고장이 자주 일어났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대충 넘어가진 않았을 것이다.<br/><br/> 자본의 이윤 추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줄푸세’의 핵심논리다. 이명박 정권은 경비 절감을 이유로 20년으로 제한된 여객선 선령을 30년으로 연장해주었다. 돈벌이에, 자본의 이윤 추구에 사람의 안전은 고려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온통 탐욕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차라리 뻔뻔함이 성공의 열쇠가 된 사회다. 중고 배를 수입해 증축해도 안전검사를 쉽게 통과하고, 컨테이너를 결박하지 않은 채 과적하여 운항해도 통제되지 않는다. 이런 게 세월호만의 일이겠는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자리 잡힌 경향이고 흐름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아래 자본과 국가기관은 탈규제에 있어서 한통속이었다. 모든 규제를 암이라고 규정한 박근혜 정권의 시대에는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br/><br/> 탑승자와 구조자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엄단하겠다고 윽박지른다. 유언비어가 신뢰 없는 사회의 반영물이라는 점을 돌아볼 때 정부가 그 진원지임을 모르는 것인가. 책임의식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에겐 이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정부”인 것이다. 돈과 자본 앞에 사회가 오래전에 무너졌듯이, 대학과 언론이 무너졌듯이,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다.<br/><br/> 지금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넉넉지 못한 살림에 쌈짓돈을 모아 보낸 자식들은 영영 부모 곁으로 되돌아오지 못한다. 희생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동시대를 사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고 또 송구할 뿐이다. 이 잘못된 사회의 흐름을 막지 못한 무능함도 큰 죄일 터, 망자들에게 명복을 빈다고 말하기에도 면목이 없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br/><br/>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38.txt

제목: 백양사 방장 지선스님 인터뷰 /“농사짓는 마음으로 공생의 운동을 펼쳐야”  
날짜: 20140423  
기자: 조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3100000071  
본문: 1980~90년대 민주화운동의 불교계 대부인 지선 스님(68)이 천년 고찰 백양사(전남 장성) 방장에 추대됐다. 방장은 대가람의 정신적 지주다.<br/>　추대식(20일)이 열리기 전인 지난 16일 광주 무등산 증심사길에 있는 문빈정사에 머문 그를 찾아갔다. 그는 20년 전 혈기 왕성한 모습이 아니었다. 당시 78㎏이었던 몸무게가 지금은 57㎏밖에 안 나간다. 그가 재야에서 활동한 지도 어언 20년이 훨씬 넘었다. 경내 조그만 토담집의 방도 단순소박하기 그지없다. ‘운동가’라는 인상과 달리 자동차 운전도, 스마트폰도, 카메라 조작도 못하는 옛날 촌 스님인 것이 놀랍다.<br/>　“조실과 방장은 살활검(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검)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십명 개개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 정도 안목도 없는 이가 조실·방장을 하면 그 절은 망한다. 남이 뜯기는 모기 하나 막아줄 힘이 없으니 모기장 구실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방장을 한다는 말인가.”<br/>　문중에서 방장 추대 움직임이 일자 그는 “자기 문중에 사람이 없으면 다른 문중에서라도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우리의 아름다운 옛 전통”이라며 “밖에서 모셔오라”고 했고, 문중 스님들은 그에게 “어떻게 산중(절)이 비었는데, 개인 생각만 앞세우느냐”고 승강이를 벌이다 6개월 이상을 흘려보냈다. 곡절 많은 그의 삶만큼이나 순탄치 않은 추대였다.<br/>　산골 소년인 그는 15살에 집을 나와 백양사로 출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절로 꼽혔던 백양사는 수학여행 온 학생들에게 쌀 한되를 받아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시락까지 싸주는 밥장사로 연명해가는 절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새벽예불과 참선 뒤 아침 짓고, 강원에서 공부하고 점심 짓고, 나무하고 빨래하고 저녁 짓는 고된 삶을 견뎌냈다.<br/>　이어 백양사가 운영한 정광고를 나와 서울에 올라갔다. 성북동 청련암에서 동국대 이사장인 기산 임석진 스님을 시봉하며 경기대 국문과를 다녔다. 창동쓰레기장에서 하루 100원씩 받고 쓰레기 분류 작업을 했다. 코피를 쏟던 고학 중에 군대에 갔다 병으로 중도 제대한 뒤론 백양사에서 일찍부터 교무, 총무 소임을 맡아야 했다. 그가 천년 고찰인 전남 영광 불갑사 주지를 맡은 게 불과 26살 때였다. 칡넝쿨이 온 전각을 뒤엎을 만큼 방치돼 폐사가 되기 직전인 1972년 불갑사를 맡은 그는 산골 사찰에 연실보타원이란, 요즈음의 대안학교를 만들어 극빈자와 장애인들을 교육시켰다. 연실보타원은 당시 새마을운동 최우수 사례로 연일 방송을 타기도 했다. <br/>　그가 제주교구 본사인 관음사 주지로 간 게 30살 때였다. 최연소 교구장이었다. 절 외에 세상을 몰랐던 그가 전두환 신군부의 폭력을 직접 체험한 곳이었다. 신군부가 전국 사찰을 유린한 ‘10·27 법난’으로 인해 보안사로 끌려가 주지직을 사임한 뒤 그는 이곳 문빈정사에 왔다. 그때 5·18 직후 등산객들이 사찰 문을 발로 차곤 했다. 저명 승려들이 전두환 초청법회를 연 데 분노한 시민들이었다. “불교계 전체의 뜻이 아니다”라고 겨우 달래 보내면 다음날엔 다른 등산객이 오줌을 갈기고 가기도 했다. 그들의 울분을 달래면서 그는 중생들의 아픔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br/>　그러면서도 그는 천생 출가자였다. 6·10 항쟁 때 공동의장을 맡았다가 내란음모죄로 서대문형무소에 갇혔다.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운동시간이니 나오라는 교도관의 종용도 무시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선을 했다. 너무도 절박했기 때문이었을까. 아침에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저녁이 되곤 했다. 감옥이야말로 진정한 선방이었다. 다시 1989년 조선대 학생 이철규씨 변사 사건 때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다가 6개월간 광주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화두를 들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 둥둥 떠다니고, 아름다운 색들이 천변만화를 일으키고,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중국 베이징 시내가 보이는 등 경전 속에서만 봤던 ‘경계’인 ‘식광’(識光)이 발동하곤 했다.<br/>　백양사 주지로서, 서옹 스님을 모시고 ‘참사람운동’을 전개한 그는 1999년 총무원장 선거에 나섰다가 석패했다. 설상가상 위암에 걸려 수술까지 받았다. 안거(3개월 집중 참선 수행)는 무리라는 의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양사 선방 운문선원으로 들어갔다. 도반들은 암수술 직후임에도 불굴의 정진력을 보이자 “지독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 뒤 첫 암수술이 잘못돼 재수술을 받았지만, 그는 16년간 단 한 차례의 안거도 빠지지 않고 정진해왔다. 마치 재야의 그는 전생사였던 양 정진하는 사이 켜켜이 쌓인 앞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경계가 트였다. <br/>　그는 “<span class='quot0'>세간이 없다면 불세간의 종교와 수행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span>”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위한 운동에도 조급증은 금물’이라고 했다.<br/>　“운동도 농사짓듯 해야 한다. 뭐든 속히 뭔가를 얻어내려는 조급함과 성과주의, 소영웅주의가 일을 망친다. 증오심과 원한으로 하는 운동은 반드시 실패한다. 운동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게 아니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것이다.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불교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깨어 있으면 급진보도 수구도 되지 않고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 진보가 되는 것이다.”<br/> 무등산/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39.txt

제목: 세월호 참사에 ‘무분별 규제완화’ 제동걸렸다  
날짜: 201404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310014074674  
본문: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규제완화’ 기조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형국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노후선박 관련 규제완화가 지목되며 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역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br/><br/>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안전, 환경, 의료, 교육, 노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도 드러나듯 다수 국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사회 전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23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요구에 맞는 규제를 풀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강조했던 ‘엠비’(이명박)정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이나 삶의 질에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br/><br/>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속도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6월로 예정됐던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월 회의는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 누구도 회의에서 검토될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 무게를 둬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규제개혁’을 내세워 대기업들 ‘민원’을 해결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br/><br/>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span class='quot0'>이번 기회에 안전의식을 철저히 개혁하는 대책과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 관행과 제도, 규정을 전수 조사·발굴해 목록화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span>”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런 분위기에선 안전 관련 규제 완화가 계속되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아예 빼겠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대대적인 규제완화의 칼을 뽑아 들고, 지난 3월 말 ‘규제개혁 끝장토론’ 생중계를 주도하면서 여론을 달군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분위기다. <br/><br/> 박 교수는 “규제완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속도전이나 일방주의로 가면 굉장히 위험하고 성공한 사례도 없다.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br/><br/>김소연 김경락 기자 dandy@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40.txt

제목: 남성 중심 스포츠문화가 비만 원인  
날짜: 201404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2100000070  
본문: 뉴스포츠의 세계(교육방송 낮 12시10분) 대한민국도 더 이상 비만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됐다. 비만율은 24.5%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특히 운동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국민 1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에는 그동안 남성 중심적이었던 스포츠 문화가 배경에 깔려 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것이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뉴스포츠’를 24일까지 3부에 걸쳐 모색해 본다. 1부에선 일탈 행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암환자 등의 사례를 통해 뉴스포츠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소개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41.txt

제목: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기획 ‘한국 사회 좌표, 독일서 찾다’ /“독일선 돈 없어 치료 못받는 일 없어요”  
날짜: 20140422  
기자: 최영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2100000003  
본문: 지난 2월 생활고에 짓눌려 스스로 세상을 등졌던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십수년 전 아버지의 암 투병에서 시작됐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진 빚은 이들 모녀의 삶을 옭아맸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던 큰딸도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우리 모두에게 세 모녀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병들면 가난해지고, 죽지 않더라도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br/> “<span class='quot0'>이곳에서는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요.</span>” 1966년 독일에 온 1세대 파독 간호사 최영숙(70)씨의 말이다. 지난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최씨는 50여년간 독일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또 간호사로서 일했던 경험으로 독일의 의료복지 환경과 병원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풀어놨다. 그는 1981년까지 15년 동안 독일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다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방문간호사 개념인 ‘재가 간호사’로서 일했다.<br/> ■ 환자는 ‘상품’이 아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드는 건 알고 있어요. 독일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최씨가 꼽는 독일과 한국 의료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방’, 그리고 예방을 위해 드는 ‘비용’이다. <br/>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보험이 예방에서 치료까지 모든 것을 부담해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동네 프락시스(개인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좀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기계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내는 의료비는 1유로도 없어요.” <br/> 최씨는 십여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 지금까지 석달에 한번씩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 일할 때 들어간 의료보험과 현재 받고 있는 연금에서 공제되는 보험 덕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는 돈을 내지 않는다. 독일도 물론 자기부담금이 있기는 하다. 입원하는 경우, 그리고 약값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도 자기 소득의 2%(장기 질병의 경우 1%)를 넘지 못한다. “월급이나 연금에서 의료보험료를 많이 떼는데 결국엔 이게 큰 도움이 돼요. 병원에 가면서 돈을 들고 가는 모습 자체가 낯설어요.”<br/>　다만 가끔 긴 대기시간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개인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정밀검사를 받으러 갈 때 길게는 한달을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지만, 보통 여러 곳을 소개받아 대기 기간이 짧은 곳으로 가요. 또 기본적으로 ‘예방’을 위한 진료가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시급을 다투는 검사가 아닙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당연히 응급실에서 바로 처치를 받을 수 있어요.”<br/> 꼭 필요한 처치가 아니면 환자에게 추가검사를 권유하거나 보조적인 처방도 하지 않는다. 과잉진료는커녕 ‘섭섭할 정도’로 간단히 처방하기도 한다. “한번은 지인이 탈수 증상이 있어서 같이 응급실에 가 수액을 처방받았는데, 성분이 뭐냐고 물으니 물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포도당 수액도 좀 맞혔으면 좋겠는데, 병원에선 물만 있으면 된다고 딱 자르던데요.” <br/> 다만 의사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모가 큰 병원에 환자를 보내 검사를 의뢰하는 구조다. 이런 의료서비스의 주된 재원은 개인 월 소득의 15.5%(고용자 7.3%, 피고용자 8.2%)에 이르는 의료보험료다. 당장은 부담일 수 있지만, 평생 나라에서 건강관리를 받기 위한 ‘투자’로 판단한다는 것이 최씨의 설명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빈곤층은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다.<br/> ■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핀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받는 의료서비스 이외에 의료인으로서 일했던 경험도 한국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2012년 조사를 보면, 한국의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이 하루에 간호사와 대면하는 시간은 환자의 42.1%가 10~30분, 29.8%가 10분 이하에 그쳤다. 간호사인 최씨의 눈으로 본 한국 병원은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많은 책임을 지우는 곳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원실에 보호자용 침대가 있는 것도 생소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br/> “독일에선 환자를 씻기는 것부터 침대 정리까지 간호사가 일상적인 관리를 다 합니다. 간호사도 자기가 돌보는 환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서로 웃으면서 일해요. 한국에서 입원을 하면 환자들은 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간병 부담까지 들잖아요. 결국 환자들도 이중 부담으로 마음이 더 무거운 거죠.”<br/> 한국 병원의 삭막한 현실은 의료인 인력난에서 기인한 부분도 크다. 독일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9.9명인 데 반해 한국은 4.2명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여기에 과도한 잡무까지 더해져 한국의 간호사들은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필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독일 의료시스템은 환자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가 지난해까지 일했던 ‘재가 간호사’ 시스템은 독일에서는 일상적인 의료문화다. 의사들이 위탁한 환자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필요한 처치를 해주는 제도인데,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의사에게 전하고 병원 입퇴원 여부도 판단하고 건의한다. “환자가 아픈 것은 심리적 요인도 많아요. 그런 심리적 부담을 제거하려면 자기 집에 머물면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재가 간호사는) 그런 ‘전인간호’의 취지로 독일에서 많이 생겨난 제도입니다.”<br/>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통일 이후 새롭게 도입된 간병보험과 함께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이 5대 기둥을 이루고 있다. 이런 복지사회에서 50여년간 살아온 최씨에게 한국은 어느새 낯선 곳이 됐다. “그래도 저의 모국어는 한국어고, 늘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압축성장하면서, 그 속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놓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도 겉모습보다는 사람과 복지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br/> 베를린/글·사진 이유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br/> 객원연구원 heyday1127@gmail.com<br/><br/> >>> 최영숙씨는 누구<br/>최영숙씨는 1966년 경북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전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해 10월 독일로 건너갔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동생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다 독일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해져 독일행을 결정했다. 1981년까지 베를린의 병원에서 근무했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독일 정부가 한국 간호사에게 체류 연장을 해주지 않고 한국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서명운동을 통해 권리를 찾으며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깨쳤다고 한다. 이후 1978년 재독한국여성모임 창립회원을 시작으로 여성운동 등 사회활동을 꾸준히 했다. 2000년부터는 다시 전공을 살려 지난해까지 방문간호사(재가 간호사)로 일했다. 현재 유럽 내 동포 모임인 ‘한민족 유럽연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연대하는 사회를 위한 분배’ 재단 여성분과위원회에서 활동중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42.txt

제목: 4월 22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4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110014054009  
본문: ‘누드’로 이야기하는 프랑스예술가 그자비에 베양<br/><br/>더 이너뷰 ‘프랑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 그자비에 베양’(아리랑TV 오전 9시) “<span class='quot0'>누드를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싶다</span>”는 미술가 겸 종합예술가 그자비에 베양(자비에 베이앙)을 <아리랑TV>의 간판 인터뷰 프로그램인 ‘이너뷰’에서 만난다. 베양은 프랑스 리옹 출신으로 2000년 이후 퐁피두센터, 베르사유궁전 등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프랑스의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한국서 열리는 첫 개인전에선 세계적인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모습을 조각한 ‘모빌’ 시리즈와 ‘누드 신작’으로 구성된 그의 작품이 소개된다. 그가 누드에 주목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우리가 몸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누드는 특정한 시대와 떼어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그가 주변에 알고 지내는 지인들을 주로 모델로 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베양은 최첨단 기법을 동원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쓰리디(3D) 기법을 통해 작품을 설계한 뒤 레이저로 조각하는 그의 최근 기법은 기하학적인 느낌과 동시에 기계적인 느낌을 자아내면서 단순하지만 현대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br/>파푸아뉴기니 최고봉 빌헬름 절경<br/><br/>세계테마기행 ‘남태평양의 파라다이스 파푸아뉴기니’(교육방송 밤 8시50분) 2부 ‘원주민의 영혼, 빌헬름 산을 가다’ 편. 파푸아뉴기니의 최고봉이자, 남태평양의 최고봉인 빌헬름 산의 절경을 보여준다.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빌헬름 산에 가기 위해선 원주민들에겐 생명줄이나 다름 없는 파푸아뉴기니의 유일한 도로인 하일랜드 하이웨이를 거쳐야 한다. 그 길을 달려가며 만난 고산지역 사람들의 삶과 자연의 모습을 담는다. 특히 고산지대로 오르면서 만나는 파누아뉴기니 최대의 인공호수인 용키 호수와 피운데·아운데 호수는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br/><br/>남성 중심 스포츠문화가 비만 원인<br/><br/>뉴스포츠의 세계(교육방송 낮 12시10분) 대한민국도 더 이상 비만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됐다. 비만율은 24.5%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특히 운동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국민 1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에는 그동안 남성 중심적이었던 스포츠 문화가 배경에 깔려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것이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뉴스포츠’를 24일까지 3부에 걸쳐 모색해 본다. 1부에선 일탈 행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암환자 등의 사례를 통해 뉴스포츠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소개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43.txt

제목: “독일선 돈 없어 치료 못받는 일 없어요”  
날짜: 2014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2110014053845  
본문: 독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정당명부식 투표제와 대타협으로 대표되는 독일 정치, 탄탄한 중소기업과 건강한 노사관계로 훌륭한 경제성적표를 이뤄온 독일 경제, 대학등록금·사교육·학교폭력이 없는 ‘3무’의 교육체계 등 각 분야에서 독일 시스템과 가치관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분단 경험과 인구, 수출주도형 경제모델 등 우리와 비슷한 배경을 지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에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는 독일 시스템을 직접 겪었거나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들을 베를린 등 현지에서 만나 이들의 증언을 통해 독일 사회를 조망하는 ‘한국 사회 좌표, 독일서 찾다’ 기획을 온·오프라인에 걸쳐 10여차례 연재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28일부터 7월5일까지 독일의 복지·노사관계·통일의 현장을 체험하고 토론하는 ‘2014 베를린 사회포럼’도 진행한다.<br/><br/><br/><br/>파독간호사 최영숙씨가 본 의료체계 <br/>가장 큰 차이는 예방…검사비 없어 <br/>자기 소득서 보험료 많이 내는 대신 <br/>본인 부담금은 소득의 2% 안 넘어<br/><br/>간호사가 환자 씻기고 침대 정리도 <br/>인구대비 간호사 수 2배 이상 많아 <br/>간호사는 환자 집 정기방문해 처치<br/><br/>지난 2월 생활고에 짓눌려 스스로 세상을 등졌던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십수년 전 아버지의 암 투병에서 시작됐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진 빚은 이들 모녀의 삶을 옭아맸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던 큰딸도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우리 모두에게 세 모녀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병들면 가난해지고, 죽지 않더라도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span class='quot0'>이곳에서는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요.</span>” 1966년 독일에 온 1세대 파독 간호사 최영숙(70)씨의 말이다. 지난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최씨는 50여년간 독일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또 간호사로서 일했던 경험으로 독일의 의료복지 환경과 병원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풀어놨다. 그는 1981년까지 15년 동안 독일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다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방문간호사 개념인 ‘재가 간호사’로서 일했다.<br/><br/>■ 환자는 ‘상품’이 아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드는 건 알고 있어요. 독일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최씨가 꼽는 독일과 한국 의료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방’, 그리고 예방을 위해 드는 ‘비용’이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보험이 예방에서 치료까지 모든 것을 부담해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동네 프락시스(개인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좀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기계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내는 의료비는 1유로도 없어요.” 최씨는 십여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 지금까지 석달에 한번씩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 일할 때 들어간 의료보험과 현재 받고 있는 연금에서 공제되는 보험 덕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는 돈을 내지 않는다. 독일도 물론 자기부담금이 있기는 하다. 입원하는 경우, 그리고 약값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도 자기 소득의 2%(장기 질병의 경우 1%)를 넘지 못한다. “월급이나 연금에서 의료보험료를 많이 떼는데 결국엔 이게 큰 도움이 돼요. 병원에 가면서 돈을 들고 가는 모습 자체가 낯설어요.”<br/><br/> 다만 가끔 긴 대기시간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개인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정밀검사를 받으러 갈 때 길게는 한달을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지만, 보통 여러 곳을 소개받아 대기 기간이 짧은 곳으로 가요. 또 기본적으로 ‘예방’을 위한 진료가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시급을 다투는 검사가 아닙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당연히 응급실에서 바로 처치를 받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처치가 아니면 환자에게 추가검사를 권유하거나 보조적인 처방도 하지 않는다. 과잉진료는커녕 ‘섭섭할 정도’로 간단히 처방하기도 한다. “한번은 지인이 탈수 증상이 있어서 같이 응급실에 가 수액을 처방받았는데, 성분이 뭐냐고 물으니 물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포도당 수액도 좀 맞혔으면 좋겠는데, 병원에선 물만 있으면 된다고 딱 자르던데요.” 다만 의사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규모가 큰 병원에 환자를 보내 검사를 의뢰하는 구조다. 이런 의료서비스의 주된 재원은 개인 월 소득의 15.5%(고용자 7.3%, 피고용자 8.2%)에 이르는 의료보험료다. 당장은 부담일 수 있지만, 평생 나라에서 건강관리를 받기 위한 ‘투자’로 판단한다는 것이 최씨의 설명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빈곤층은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다.<br/><br/><br/><br/>■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핀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받는 의료서비스 이외에 의료인으로서 일했던 경험도 한국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2012년 조사를 보면, 한국의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이 하루에 간호사와 대면하는 시간은 환자의 42.1%가 10~30분, 29.8%가 10분 이하에 그쳤다. 간호사인 최씨의 눈으로 본 한국 병원은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많은 책임을 지우는 곳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원실에 보호자용 침대가 있는 것도 생소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독일에선 환자를 씻기는 것부터 침대 정리까지 간호사가 일상적인 관리를 다 합니다. 간호사도 자기가 돌보는 환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서로 웃으면서 일해요. 한국에서 입원을 하면 환자들은 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간병 부담까지 들잖아요. 결국 환자들도 이중 부담으로 마음이 더 무거운 거죠.”<br/><br/> 한국 병원의 삭막한 현실은 의료인 인력난에서 기인한 부분도 크다. 독일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9.9명인 데 반해 한국은 4.2명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여기에 과도한 잡무까지 더해져 한국의 간호사들은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필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독일 의료시스템은 환자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가 지난해까지 일했던 ‘재가 간호사’ 시스템은 독일에서는 일상적인 의료문화다. 의사들이 위탁한 환자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필요한 처치를 해주는 제도인데,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의사에게 전하고 병원 입퇴원 여부도 판단하고 건의한다. “환자가 아픈 것은 심리적 요인도 많아요. 그런 심리적 부담을 제거하려면 자기 집에 머물면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재가 간호사는) 그런 ‘전인간호’의 취지로 독일에서 많이 생겨난 제도입니다.”<br/><br/>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통일 이후 새롭게 도입된 간병보험과 함께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이 5대 기둥을 이루고 있다. 이런 복지사회에서 50여년간 살아온 최씨에게 한국은 어느새 낯선 곳이 됐다. “그래도 저의 모국어는 한국어고, 늘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압축성장하면서, 그 속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놓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도 겉모습보다는 사람과 복지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br/><br/>베를린/글·사진 이유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heyday1127@gmail.com<br/><br/> <br/><br/>최영숙씨는 누구<br/><br/>최영숙씨는 1966년 경북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전 수도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해 10월 독일로 건너갔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동생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다 독일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해져 독일행을 결정했다. 1981년까지 베를린의 병원에서 근무했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독일 정부가 한국 간호사에게 체류 연장을 해주지 않고 한국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서명운동을 통해 권리를 찾으며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깨쳤다고 한다. 이후 1978년 재독한국여성모임 창립회원을 시작으로 여성운동 등 사회활동을 꾸준히 했다. 2000년부터는 다시 전공을 살려 지난해까지 방문간호사(재가 간호사)로 일했다. 현재 유럽 내 동포 모임인 ‘한민족 유럽연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연대하는 사회를 위한 분배’ 재단 여성분과위원회에서 활동중이다. <br/><br/>이유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44.txt

제목: [세상 읽기] 가만히 있으라 / 이계삼  
날짜: 2014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1710014031169  
본문: 1986년 4월26일 오전 1시23분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화재가 났고,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대기로 치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새벽 5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폭발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학술위원 알렉산드로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다. 원자로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거대한 사모바르(러시아식 주전자)를 붉은 광장에 세워 놓은 것과 같다’는 답을 받았다. 그날, 정상치보다 60만배나 높은, 나흘 뒤면 치사량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방사능이 넘실거리는 체르노빌 인근 도시 프리피야트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30시간이 지나서야 대피할 수 있었다. 수많은 아이들이 암에 걸렸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죽었다.<br/><br/> 바람의 방향이 체르노빌 인근 벨라루스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도 대피령이 내려졌다. 농장의 책임자가 자동차 두 대에 가족과 세간을 모두 싣고 떠나려 했다. 초급 당 위원장이 차 한 대만이라도 양보하라고 했다. 탁아소의 아이들이 며칠째 대피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장 대표는 답했다. “<span class='quot0'>집 안에 있는 물건에다 잼과 절임이 든 3리터짜리 유리병까지 다 싣고 가려면 차 두 대로도 모자란다</span>”고 했고, 그는 유유히 떠났다. 벨라루스의 다큐 작가 세르게이 구린의 증언이다.<br/><br/> 세월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침수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구조 요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오전 9시에 조난 신호가 갔고, 10시30분에 배가 침몰했는데, 잠수지원 장비를 갖춘 구난함이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는다. 구명정 46개 가운데 2개만 작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꺼져 내리는 것 같다.<br/><br/> 믿을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가 사라져버렸다.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한 몸뚱어리로 엉켜 문드러져 버림으로 인하여 믿음 그 자체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저들도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하나의 행동윤리만이 존재했을 것이다. “<span class='quot0'>나서지 않을 것, 개인이 져야 할 책임이라면 굳이 지지 않을 것, 인간의 고통보다 상부의 진노를 두려워할 것, 끝내 내 자리를 지킬 것.</span>” 그리하여, 우리는 ‘대충’ 살게 되었다. 다만, 나와 내 가족만이라도 이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만을 기도하면서. 그러나 때때로 재앙은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실상으로 우리 앞을 찾아오곤 했다.<br/><br/> 수백명을 태운 배가 기울어 가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한다. 언제나 그러했다. ‘가만히 있으라, 기다려 달라.’ 우리는 가만히 있도록 교육받았고, 끝내 기다려야 했다. 목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br/><br/> 나는 지금 며칠 동안 산속 움막에서 잠을 자고 있다. 밀양 송전탑 싸움의 마지막 남은 농성 움막 네 곳에 대한 철거 계고는 지금 시시각각 어르신들을 옥죄어오고 있다. 지난 10년 정부와 한국전력은 그 세월 내내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믿어 달라! 가만히 있어 달라’고. 그리고 지난 2~3년 이래 전국적으로 알려진 어르신들의 격렬한 투쟁은 이 기다림과 신뢰의 언설에 대한 폭발이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고, 싸움은 나날이 기울어져 목에는 물이 차오른다.<br/><br/> 그럴 것이다. 이 나라에도, 우리들 삶에도, 사회적 정의와 공평에도, 공적 준칙과 신뢰의 가치에도 물이 목까지 차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호의 승무원들은 언제나처럼 ‘가만히 있으라’고만 한다. 구명정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리고 여차하면 세월호의 그 누구들처럼 가장 먼저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br/><br/>이계삼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45.txt

제목: [한겨레 프리즘] 찾지 않아도 되는 병 / 김양중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1510014009912  
본문: 암 등 중증질환자가 매일 먹는 약을 챙겨 먹지 못하는 이유는? 쉽게 꼽는 것이 ‘약 부작용’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된 이유는 ‘약 먹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2011년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같이 암 등 중증질환자 365명 중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12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설문조사했다. ‘약 먹기를 잊어버려서’가 44%로 나와 ‘약 부작용이 심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인 21.2%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 많은 환자들은 약을 먹고도 기억을 못 하거나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반대로 기억해 제 일정에 맞춰 약을 먹지 못했다. 매일같이 약 먹기를 챙겨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br/><br/> 갑상선암을 발견해 수술을 받은 많은 환자들은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한다.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려고 약을 먹는다. 이들도 약 먹기를 챙겨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갑상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수술을 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수술 때 나타날 수 있는 감염이나 출혈 등 각종 부작용이나 수술비는 둘째 치고 이후 남은 고통이 만만치 않다는 말이다.<br/><br/> 지난달 18일 몇몇 의사들이 모인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는 2011년 기준 국내의 갑상선암 발생률(혹은 발견율)은 세계 평균의 10배나 된다며 이는 의학사적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해다. 또 치료할 필요가 없는 순한 갑상선암마저 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갑상선암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과다진단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에게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은 유방암도 마찬가지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br/><br/> 수술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의사 강구정과 김현정은 각각 <수술 마지막 선택>,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라는 책을 펴내 수술이 만능이 아니며,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수술을 선택할 때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하물며 수술하지 않고 관찰만 해도 되는 갑상선암마저 찾아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br/><br/> 이웃 일본에서는 최근 고혈압, 비만, 당뇨 등에 해당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그만큼 이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줄어든다. 외신을 종합하면 일본의 건강검진학회는 2011년 건강검진을 받은 약 150만명 중 아무런 질병이 없는 건강한 남녀 1만여명의 검사치로 새 정상 기준치를 만들었다. 고혈압은 높은 쪽(수축기) 혈압이 기존의 129㎜Hg 이하에서 147㎜Hg 이하로, 낮은 쪽(이완기) 혈압은 84㎜Hg 이하에서 94㎜Hg로 높였다.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도는 25㎏/㎡ 미만에서 남성은 27.7㎏/㎡ 미만, 여성은 26.1㎏/㎡ 미만으로 변경했다. 흔히 고지혈증의 지표가 되는 각종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원래 기준보다 정상치를 높게 잡았다. 이 학회는 추적 조사를 더 해 공식적인 기준치를 내놓고, 이를 검진기관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br/><br/> 비만 기준에 대해서는 2011년 유근영 서울대 의대 교수팀이 아시아 7개국 114만명을 평균 9.2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특히 한국·중국·일본 사람들은 체질량지수가 22.6~27.5㎏/㎡이면 비만과 관련된 각종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 25㎏/㎡보다 다소 높아도 건강하다는 말이다.<br/><br/> 현미경에서 보이는 암세포나 몇몇 수치로 사람의 건강을 완벽하게 재단하지 못한다. 인류가 만든 기준(신)에 우리의 건강(발)을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46.txt

제목: “30년 전, 조미료 머리 좋게 한다 선전…지금 상상이나 하겠어요?”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1510014001430  
본문: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가슴이 뛰었고 거기에 맞춰서 몸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건 ‘운명’이라고 느낍니다.”<br/><br/> 누구도 선택하기 힘든 길이었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외치던 시대, 소비자는 ‘봉’이었다. 치명적인 농약이 묻어 있는 외국산 농산물에 한국 소비자의 입은 길들여졌고, 외국에선 폐기된 의약품이 한국의 환자들에게 구세주처럼 받아들여졌다. 체르노빌 방사능 낙진으로 쓰레기 처리된 건포도가 한국인의 간식거리로 환영을 받았고, ‘모유보다 좋다’는 광고를 앞세워 분유가 갓난아이들의 최고 식량이 됐다. 그렇게 부도덕한 기업인들이, 간교한 전문가 집단이 자신의 이익만을 갈구할 때 그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보았다.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을 찾는 일을 시작했다. 기업들은 그를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불순분자’로 몰려 했다. 그렇게 그는 40여년을 싸웠다.<br/><br/> 한국 소비자운동의 선구자이자 대모인 송보경(68) <소비자 리포트> 대표는 어느덧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1970년 한국소비자연맹 설립 때 실무간사로 활동을 시작해 83년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 대표로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기업들의 ‘횡포’를 질타해온 그는 여전히 한국 사회와 소비자를 걱정하고 있다. 최근 송 대표는 평생의 활동을 정리했다. 한국 소비자운동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장을 바꿔야 생명이 산다>는 책을 발간했다. 송 대표와 함께 소비자운동을 일궈온 ‘평생 동지’ 김재옥 국제소비자기구 부회장과 대담 형식으로 꾸몄다. 무방비 상태로 세계시장에 편입된 취약한 한국시장에서 속고, 손해 보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지난한 투쟁의 기록이다. 소비자운동이 단순히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꾸고, 시장을 바꿔야 생명이 산다는 명제를 던진 것이다.<br/><br/> 유관순 열사의 모교인 이화학당의 후배로 현재 이화여고 동문회장도 맡고 있는 송 대표를 지난 11일 이화여고 교정에서 만났다. 화사한 봄 햇살이 눈부신 교정에서 송 대표는 지난 세월을 차분하면서도 격정적으로 되돌아보았다. 아직 그의 정열은 식지 않았다.<br/><br/><br/><br/>-평소 현대인들은 ‘착한 소비’가 아닌 ‘이기적인 착한 소비’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뜻이죠?<br/><br/> “소비자는 시장에서 손해 보지 않는 소비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더 깊숙이 들어가면 윤리적인 소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윤리적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심이 확장돼야 합니다. 그것은 생산자와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이기적인 소비가 됩니다. 착한 소비는 농민의 건강이나 경제활동까지 생각하는 소비입니다. 하지만 농민의 건강보다는 너무 소비자의 안전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유기농을 찾을 게 아니라, 농약에서 해방된 농민들의 건강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 유기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중간 유통업자들보다 농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가도록 소비자들이 노력해야 합니다.”<br/><br/> -지난 40여년의 소비자운동에서 가장 의미있었던 일을 꼽는다면?<br/><br/> “모든 소비자운동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있게 한국 소비자운동의 기념비적인 사건이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순간 송 대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인다.) 이 얘기를 하려면 눈물도 나고 울화도 치밀어요. 1984년의 일이죠. 외국에서 안전성이 검증 안 돼 버리는 의약품을 한국에서 버젓이 팔았어요. 유명 제약회사가 쓰레기 처리된 약품을 헐값에 수입해 온 것이었죠. 얼마나 끔찍해요. 결국 ‘소시모’(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고발로 보건사회부에서 의약품 원료 18종(150개 회사의 450개 약품)을 하루아침에 판매금지시켰어요.”<br/><br/> -어떻게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입수해 파고들어갈 수 있었죠?<br/><br/> “방콕에서 열린 국제소비자기구 총회에 참석했을 때 안와르 파잘 당시 회장이 유엔에서 발간한 자료를 넘겨주었어요. 각국에서 금지·회수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위해한 화학물질·의약품성분·농약성분을 정리해놓은 자료였죠. 그래서 외국에서 암을 발생시키고 기형아를 탄생시킬 수 있어서 금지한 34종의 화학원료가 한국에선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어요.”<br/><br/> -어떻게 그런 위해한 약품을 한국에 팔 수 있었을까요?<br/><br/>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였던 거죠. 일종의 ‘한통속 이기심’의 결과물로 봅니다. 의사와 약사, 공무원들이 한통속이 돼 국민의 건강을 제물로 돈을 번 거죠. 의료서비스도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86년 ‘환자의 권리 선언’을 발표했죠.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의사가 무슨 처방을 하는지도 모르고, 진료비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 약값부터 내야 했어요. 하루 종일 대기해서 겨우 3분 진료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엑스레이부터 다시 찍어야 했어요. 수많은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심지어 ‘아들을 의대 못 보내 열등의식으로 분풀이하냐’고 욕을 해댔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김재옥 대표에겐 ‘네 자식들이 누군인지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고요.”<br/><br/> -요즘 의료서비스 실태는 나아진 셈인가요?<br/><br/> “우리나라는 의약품 임상실험 시장의 ‘블루오션’입니다. 아직도 인권과 생명 존중 의식이 부족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안전성도 입증 안 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해선 안 됩니다. 의료인들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맹신이 너무 강합니다. 돈 중심의 사회가 아닌 사람 중심의, 안전성 중심의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br/><br/> -소비자를 볼모로 저지르는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또 꼽는다면?<br/><br/> “한때 분유회사들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접근해 ‘분유가 모유와 똑같다’는 식의 홍보를 했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분유를 받아서 산모에게 제공했어요. 심지어 분유가 모유보다 더 좋은 것이라 말하고, 분유를 먹이는 것이 현대화·문명화된 것이라고 선전했어요. 당시 분유회사는 어린이날에 우량아 선발대회를 열어서 우량아로 뽑힌 아기 사진을 분유통에 붙였어요. 그래서 81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분유회사에 대한 과대·과장광고를 규제하는 ‘마케팅 규약’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했어요. 118개 나라에서 찬성했고, 세계 최대 낙농국인 미국만 반대했어요. 3개국은 기권을 했는데, 한국·일본·아르헨티나였죠. 당시 북한은 찬성했어요.”<br/><br/> -왜 한국은 기권을 했나요?<br/><br/> “당시 세계보건기구 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공무원에게 항의했더니, 수행했던 장관이 급한 일로 귀국하는 바람에 의전에 힘쓰느라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둘러대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결국 그 공무원은 사전에 분명한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을 받았다고 실토하더군요. 그들에겐 우리 아이들의 건강조차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br/><br/> -지금은 당연시하는 ‘농약 잔류 기준’을 만들 때도 저항이 만만찮았겠죠?<br/><br/> “83년 소시모 활동을 시작할 때는 농약 잔류 기준이 아예 없었어요. 레몬·오렌지·바나나에 있는 잔류 농약 문제를 처음 제기했어요. 베트남전에 사용된 고엽제에 함유됐던 농약들이 수입 과일에서 나타났거든요. 결국 88년 보건사회부가 처음으로 농약 잔류 기준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들여온 밀에서도 말라티온 같은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어요. 부산의 항구에 가서 수입 밀의 반입을 저지했어요. 화학조미료 먹지 말자는 운동도 했어요.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 조미료 회사들은 ‘화학조미료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광고를 했어요.”<br/><br/> -전문가 집단과 맞서는 일이 쉽지 않았죠?<br/><br/> “전문가들은 배우고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올바르고 분명히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수입 립스틱의 원가가 공개됐어요. 소시모는 20년 전부터 수입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주장해왔어요. 당시 기업의 전문가들은 수입원가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고나왔어요. 소비자의 알 권리보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거죠. 그런 논리가 당시엔 먹혔어요. 더 황당한 것은 수입원가 공개로 ‘폭리’ 논란이 생기니까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에서 아예 수입원가 표기 의무제를 없애버렸어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정부가 기업 편을 들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br/><br/> -그럼에도 지금껏 소비자운동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나요?<br/><br/> “소비자운동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기도 해요. 생명 존중 사상의 실천입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학습한 봉사정신 덕분일 겁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용돈을 받아도 십일조를 냈으니까요. 김재옥 대표도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컸어요. 나누는 것이 학습화된 거죠. 김 대표와 저는 당시 대학을 다닌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특혜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의기투합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평생토록 노력했어요. 대학교육이 경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br/><br/> -지금의 소비자운동도 그렇게 치열한가?<br/><br/>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작심한 듯 답을 했다.) 창피하지만 지금 소비자운동 단체들은 대부분 ‘프로젝트’라는 ‘미끼’에 물려 있어요.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주는 프로젝트를 받으려고 애써요. 매년 연초에 소비자운동 단체들이 조용한 이유는 바로 그 프로젝트를 쓰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해서예요. 부당한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싸우려 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요.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법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br/><br/> 송 대표의 별명은 ‘유관순’이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험한 일만 골라 한다고 단짝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의 단짝 친구인 김재옥은 ‘물귀신’ ‘불도저’라고 불린다. 그런 ‘살아있는 유관순’은 아직 두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는 것이고, 하나는 아파트값을 내려 서민들이 제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2004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운동을 시작한 그는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 또 사교육비의 사슬에 얽매여 학부모들이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도 고치고 싶다.<br/><br/> “현실을 넘어서려는 낭만적인 꿈이 없었다면 소비자운동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 인생에 김재옥처럼 든든한 동지를 만난 것도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해서 세상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더욱 큰 축복이지요.”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47.txt

제목: 건보공단 ‘537억 담배 소송’ 불붙였다  
날짜: 2014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1410013999852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앤지(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 4곳을 상대로 ‘흡연과 직접 관련된 질병 치료에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14일 공식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8월 흡연 피해 소송 방침을 밝힌 지 8개월 만이다. 한국에서 개인 흡연 피해자들이 1999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15년 만에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 나선 사례가 됐다.<br/><br/> 앞서 10일 대법원이 방아무개(65)씨 등 개인 흡연 피해자 30여명이 케이티앤지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지 나흘 만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미국에서도 흡연 피해자 개인보다는 주정부 등이 나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성과를 거둔 사실을 환기하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자신했다.<br/><br/>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앤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및 제조사㈜ 등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소송 대리는 개인 흡연 피해자들의 ‘담배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남산이 맡았다.<br/><br/> 공단이 정한 소송액 537억원은, 흡연과 관련성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3가지 암(폐암 중 소세포암이나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들 가운데 ‘흡연 기간이 30년이 넘고, 그중 20년 이상은 하루 한갑 넘게 피운’ 환자의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액수다. 이 3가지 암에 걸린 환자들 가운데에서도 흡연량과 흡연 기간이 긴 이들의 진료비를 우선 청구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공단은 이후 다른 환자들의 진료비로도 소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br/><br/>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는 “<span class='quot0'>흡연 피해자 개인의 소송에서는 피고인 케이티앤지가 회사 내부자료 공개를 꺼려 입증 자료가 없어 패소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피해자들의 진료 기록 등 의학·역학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미국 등 국외 담배소송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공개한 필립모리스나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가 (소송 상대에) 들어 있어 미국 등에서 자기들이 시인한 위법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span>”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단의 일원인 안선영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span class='quot1'>환자들의 일반검진 자료와 암환자 등록 자료 등을 종합분석해 흡연의 폐해를 연구한 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을 토대로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담배회사에서 일한 이들의 내부고발로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흡연은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들한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소송 등을 통해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맡아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br/><br/> 한편, 이날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제기와 관련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각각 찬반 의견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놨다.<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박수지 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48.txt

제목: 서울시, 베이비부머 ‘인생 2막’ 돕는다  
날짜: 2014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1410014000626  
본문: 은퇴 뒤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빚만 안게 되는 경우처럼 ‘준비 안 된 인생 2막’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50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br/><br/> 서울시는 현재 1곳뿐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2020년까지 20곳으로 늘리는 등 교육과 일자리 발굴에 초점을 맞춘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에 태어난 이들로, 서울의 베이비부머는 146만명에 이른다.<br/><br/> 서울시는 우선 마땅히 갈 곳이 없는 50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전용 교육공간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2020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1개씩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평구 1곳뿐인데, 5월 종로구에서 개관하는 등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2020년까지 5개 권역별로 ‘50+캠퍼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자치구 단위의 교육 기능과 지역 특화 정보 제공에 주력한다면, ‘50+캠퍼스’는 베이비부머 정책의 권역별 사령탑 구실을 맡는다. 내년에 마포구 산업인력공단 별관동에 첫선을 보이고, 2017년에는 구로구 오류동 천왕2지구 사회시설 터에 짓기로 했다.<br/><br/> 일자리 확충 정책으로는 ‘베이비부머 직업교육센터’와 ‘베이비부머 창업센터’ 신설, 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귀농 교육 확대,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 매년 개최 등을 내놓았다. 55살을 대상으로 암 검진 본인 부담금(총 검진비의 10%)을 전액 지원하고, 우울증 선별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br/><br/>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듯 노년층도 인생 후반전을 뛰려면 제2의 교육이 필수적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년층을 위한 ‘제2학제’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서울시가 교육과 일자리 발굴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베이비부머 지원단’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50대를 겨냥한 이런 정책은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50대 표심 잡기’로도 풀이된다. <br/><br/>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49.txt

제목: 4월 15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4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1410013999626  
본문: 소아비만 영민이, 살 뺄 수 있을까<br/><br/>청개구리 길들이기(교육방송 오전 9시40분) 자녀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부모교육 전문가가 맞춤형 해법을 제공하는 ‘부모 코칭’ 프로그램. 네살 터울 여동생과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형준(8) 때문에 늘 목청을 높이는 엄마 김정순(39)씨. 아빠는 늘 다툼을 피한다. 전문가는 힘의 균형이 깨진 부부 사이를 형준이의 문제행동 원인으로 진단한다. 한편 소아비만 전문가에게 ‘다이어트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은 영민(7). 다이어트의 첫걸음은 영민이와 엄마가 간식의 종류를 정하고, 그 양은 엄마가 제한하는 일이다. 모자의 다이어트 프로젝트는 성공할까. <br/><br/>핵폐기물 12년뒤엔 버릴 곳 없는데…<br/><br/>시사기획 창 ‘핵폐기물, 우리의 선택은?’(한국방송1 밤 10시) 원자력발전의 연료는 우라늄 핵연료.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나면 ‘사용 후 핵연료’로 불리는 핵폐기물이 남는다. 이는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뿜어내며, 암·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우리나라 원전 23기에 차곡차곡 쌓아온 핵폐기물이,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2026년에 이르면 포화 상태를 맞는다.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50.txt

제목: 소비자운동은 생명 지키는 일…목숨 걸고 해왔다  
날짜: 2014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1410013999576  
본문: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가슴이 뛰었고 거기에 맞춰서 몸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건 ‘운명’이라고 느낍니다.”<br/><br/>누구도 선택하기 힘든 길이었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외치던 시대, 소비자는 ‘봉’이었다. 치명적인 농약이 묻어 있는 외국산 농산물에 한국 소비자의 입은 길들여졌고, 외국에선 폐기된 의약품이 한국의 환자들에게 구세주처럼 받아들여졌다. 체르노빌 방사능 낙진으로 쓰레기 처리된 건포도가 한국인의 간식거리로 환영을 받았고, ‘모유보다 좋다’는 광고를 앞세워 분유가 갓난아이들의 최고 식량이 됐다. 그렇게 부도덕한 기업인들이, 간교한 전문가 집단이 자신의 이익만을 갈구할 때 그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보았다.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을 찾는 일을 시작했다. 기업들은 그를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불순분자’로 몰려 했다. 그렇게 그는 40여년을 싸웠다.<br/><br/>한국 소비자운동의 선구자이자 대모인 송보경(68) <소비자 리포트> 대표는 어느덧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1970년 한국소비자연맹 설립 때 실무간사로 활동을 시작해 83년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 대표로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기업들의 ‘횡포’를 질타해온 그는 여전히 한국 사회와 소비자를 걱정하고 있다.<br/><br/>최근 송 대표는 평생의 활동을 정리했다. 한국 소비자운동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장을 바꿔야 생명이 산다>는 책을 발간했다. 송 대표와 함께 소비자운동을 일궈온 ‘평생 동지’ 김재옥 국제소비자기구 부회장과 대담 형식으로 꾸몄다. 무방비 상태로 세계시장에 편입된 취약한 한국시장에서 속고, 손해 보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지난한 투쟁의 기록이다. 소비자운동이 단순히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꾸고, 시장을 바꿔야 생명이 산다는 명제를 던진 것이다.<br/><br/>유관순 열사의 모교인 이화학당의 후배로 현재 이화여고 동문회장도 맡고 있는 송 대표를 지난 11일 이화여고 교정에서 만났다. 화사한 봄 햇살이 눈부신 교정에서 송 대표는 지난 세월을 차분하면서도 격정적으로 되돌아보았다. 아직 그의 정열은 식지 않았다.<br/><br/>글·사진 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br/><br/><br/><br/> -평소 현대인들은 ‘착한 소비’가 아닌 ‘이기적인 착한 소비’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뜻이죠?<br/><br/> “소비자는 시장에서 손해 보지 않는 소비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더 깊숙이 들어가면 윤리적인 소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윤리적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심이 확장돼야 합니다. 그것은 생산자와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이기적인 소비가 됩니다. 착한 소비는 농민의 건강이나 경제활동까지 생각하는 소비입니다. 하지만 농민의 건강보다는 너무 소비자의 안전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유기농을 찾을 게 아니라, 농약에서 해방된 농민들의 건강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 유기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중간 유통업자들보다 농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가도록 소비자들이 노력해야 합니다.”<br/><br/> -지난 40여년의 소비자운동에서 가장 의미있었던 일을 꼽는다면?<br/><br/> “모든 소비자운동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있게 한국 소비자운동의 기념비적인 사건이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순간 송 대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인다.) 이 얘기를 하려면 눈물도 나고 울화도 치밀어요. 1984년의 일이죠. 외국에서 안전성이 검증 안 돼 버리는 의약품을 한국에서 버젓이 팔았어요. 유명 제약회사가 쓰레기 처리된 약품을 헐값에 수입해 온 것이었죠. 얼마나 끔찍해요. 결국 ‘소시모’(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고발로 보건사회부에서 의약품 원료 18종(150개 회사의 450개 약품)을 하루아침에 판매금지시켰어요.”<br/><br/> -어떻게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를 입수해 파고들어갈 수 있었죠?<br/><br/> “방콕에서 열린 국제소비자기구 총회에 참석했을 때 안와르 파잘 당시 회장이 유엔에서 발간한 자료를 넘겨주었어요. 각국에서 금지·회수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위해한 화학물질·의약품성분·농약성분을 정리해놓은 자료였죠. 그래서 외국에서 암을 발생시키고 기형아를 탄생시킬 수 있어서 금지한 34종의 화학원료가 한국에선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어요.”<br/><br/> -어떻게 그런 위해한 약품을 한국에 팔 수 있었을까요?<br/><br/>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였던 거죠. 일종의 ‘한통속 이기심’의 결과물로 봅니다. 의사와 약사, 공무원들이 한통속이 돼 국민의 건강을 제물로 돈을 번 거죠. 의료서비스도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86년 ‘환자의 권리 선언’을 발표했죠.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의사가 무슨 처방을 하는지도 모르고, 진료비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 약값부터 내야 했어요. 하루 종일 대기해서 겨우 3분 진료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엑스레이부터 다시 찍어야 했어요. 수많은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심지어 ‘아들을 의대 못 보내 열등의식으로 분풀이하냐’고 욕을 해댔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김재옥 대표에겐 ‘네 자식들이 누군인지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고요.”<br/><br/>84년 외국선 금지 약품 한국 유통 <br/>‘야만의 카르텔’ 고발 판매 막아 <br/>환자 권리·잔류 농약 첫 제기<br/><br/>소비자단체 운영난에 정부 눈치 <br/>사교육 잡고 아파트값 내리고파 <br/>현실 넘으려는 낭만적 꿈 아직도…<br/><br/> -요즘 의료서비스 실태는 나아진 셈인가요?<br/><br/> “우리나라는 의약품 임상실험 시장의 ‘블루오션’입니다. 아직도 인권과 생명 존중 의식이 부족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안전성도 입증 안 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해선 안 됩니다. 의료인들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맹신이 너무 강합니다. 돈 중심의 사회가 아닌 사람 중심의, 안전성 중심의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br/><br/> -소비자를 볼모로 저지르는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또 꼽는다면?<br/><br/> “한때 분유회사들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접근해 ‘분유가 모유와 똑같다’는 식의 홍보를 했어요. 산부인과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분유를 받아서 산모에게 제공했어요. 심지어 분유가 모유보다 더 좋은 것이라 말하고, 분유를 먹이는 것이 현대화·문명화된 것이라고 선전했어요. 당시 분유회사는 어린이날에 우량아 선발대회를 열어서 우량아로 뽑힌 아기 사진을 분유통에 붙였어요. 그래서 81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분유회사에 대한 과대·과장광고를 규제하는 ‘마케팅 규약’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했어요. 118개 나라에서 찬성했고, 세계 최대 낙농국인 미국만 반대했어요. 3개국은 기권을 했는데, 한국·일본·아르헨티나였죠. 당시 북한은 찬성했어요.”<br/><br/> -왜 한국은 기권을 했나요?<br/><br/> “당시 세계보건기구 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공무원에게 항의했더니, 수행했던 장관이 급한 일로 귀국하는 바람에 의전에 힘쓰느라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둘러대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br/><br/> -지금은 당연시하는 ‘농약 잔류 기준’을 만들 때도 저항이 만만찮았겠죠?<br/><br/> “83년 소시모 활동을 시작할 때는 농약 잔류 기준이 아예 없었어요. 레몬·오렌지·바나나에 있는 잔류 농약 문제를 처음 제기했어요. 베트남전에 사용된 고엽제에 함유됐던 농약들이 수입 과일에서 나타났거든요. 결국 88년 보건사회부가 처음으로 농약 잔류 기준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들여온 밀에서도 말라티온 같은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어요. 부산의 항구에 가서 수입 밀의 반입을 저지했어요. 화학조미료 먹지 말자는 운동도 했어요.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 조미료 회사들은 ‘화학조미료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광고를 했어요.”<br/><br/> -전문가 집단과 맞서는 일이 쉽지 않았죠?<br/><br/> “전문가들은 배우고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올바르고 분명히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수입 립스틱의 원가가 공개됐어요. 소시모는 20년 전부터 수입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주장해왔어요. 당시 기업의 전문가들은 수입원가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고나왔어요. 소비자의 알 권리보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거죠. 그런 논리가 당시엔 먹혔어요. 더 황당한 것은 수입원가 공개로 ‘폭리’ 논란이 생기니까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에서 아예 수입원가 표기 의무제를 없애버렸어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정부가 기업 편을 들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br/><br/> -그럼에도 지금껏 소비자운동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나요?<br/><br/> “소비자운동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기도 해요. 생명 존중 사상의 실천입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학습한 봉사정신 덕분일 겁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용돈을 받아도 십일조를 냈으니까요. 김재옥 대표도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컸어요. 나누는 것이 학습화된 거죠. 김 대표와 저는 당시 대학을 다닌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특혜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의기투합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평생토록 노력했어요. 대학교육이 경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br/><br/> -지금의 소비자운동도 그렇게 치열한가?<br/><br/>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작심한 듯 답을 했다.) 창피하지만 지금 소비자운동 단체들은 대부분 ‘프로젝트’라는 ‘미끼’에 물려 있어요.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주는 프로젝트를 받으려고 애써요. 매년 연초에 소비자운동 단체들이 조용한 이유는 바로 그 프로젝트를 쓰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해서예요. 부당한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싸우려 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요.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법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br/><br/> 송 대표의 별명은 ‘유관순’이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험한 일만 골라 한다고 단짝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의 단짝 친구인 김재옥은 ‘물귀신’ ‘불도저’라고 불린다. 그런 ‘살아있는 유관순’은 아직 두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는 것이고, 하나는 아파트값을 내려 서민들이 제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2004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운동을 시작한 그는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 또 사교육비의 사슬에 얽매여 학부모들이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도 고치고 싶다.<br/><br/> “현실을 넘어서려는 낭만적인 꿈이 없었다면 소비자운동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 인생에 김재옥처럼 든든한 동지를 만난 것도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해서 세상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더욱 큰 축복이지요.”<br/><br/>인터뷰 글·사진 이길우 선임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51.txt

제목: [길을 찾아서] 79년말 풀려나 찾아뵌 고향 아버지는… / 이룰태림  
날짜: 2014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1310013989675  
본문: 1979년 10월26일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사라지자, 정치범 처리 문제가 초미의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구속자 석방을 두고 갈팡질팡했다.<br/><br/> 동아투위 위원 구속자 10명은 그해 말께 모두 석방되었지만, 출소 시기는 뒤죽박죽이었다. 가장 늦게 구속되어 ‘10·26’ 당시 2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윤활식 위원장 대리와 이기중 총무가 뜻밖에도 11월8일 먼저 풀려났다. 구속 만기가 된 고 홍종민 위원과 장윤환 위원장 대리는 각각 11월4일과 11월19일 출소했지만,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나머지 6명을 보면, 박종만 위원 11월21일, 정연주 위원 12월2일, 고 안종필 위원장 12월4일, 고 안성열 위원 12월10일, 김종철 위원이 가장 마지막으로 12월24일 나왔다.<br/><br/> 나는 12월7일 저녁 갑작스레 풀려났다. 송좌빈·김용훈·김상복과 함께 영등포구치소 문밖을 나서니 아는 얼굴이 전혀 없었다. 가족들에게도 미처 석방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온 뒤에야 최규하 대통령이 당선 뒤 첫 국무회의에서 국회 건의안을 받아들여 ‘긴급조치 9호’를 8일 0시를 기해 해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br/><br/> 가족들 대신 우리를 멈춰 세운 남자가 있었다. <한국일보> 기자라고 소개한 그는 4명을 함께 불러 모아 일단 출소 장면부터 찍었다. 그는 바로 박래부(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새언론포럼 회장) 기자였다. 박 기자는 그길로 우리집까지 동행해 가족과 재회하는 사진까지 곁들여 이튿날 사회면 머리기사로 소개했다. ‘닫힌 문 열리며 자유의 포옹-긴급조치 관련 구속자 석방되던 날’이란 제목이었다.<br/><br/> “시간으로는 7일 하오 7시45분. 서울 영등포구치소 앞은 분명히 한밤중이었으나, 수감자들이 하나씩 둘씩 풀려나오면서부터는 이미 새벽이었다. 맨 먼저 회색 바지와 흰 저고리의 김상복(25·중앙신학대 3년)군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다. 소아마비로 약간 불편한 모습인 김군을 멀리서 가장 먼저 발견한 김군의 누이동생이 ‘오빠야’ 하고 큰 소리를 냈다. 다음 순서는 흰 저고리·검은 바지 차림의 성유보(37·전 동아일보 기자)씨. 그 다음 순서는 송좌빈(56·충남 대덕군 동면)씨 그리고 그 다음은 김용훈(30·충남 논산시 논산읍)씨. 세 사람은 모두 갑작스런 석방 소식이 가족에게 전해지지 않아 마중 나온 가족이 없었다. 삼인은 잠시 허탈한 듯 하다가 근처 대폿집으로 가서 막걸리 2되를 게눈 감추듯이 들이켰다. 안주는 돼지볶음.” “성씨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10평 아파트 집에 밤 9시55분쯤 도착했다. 그 시간 부인은 남편이 다음날 새벽에나 나올 줄 알고 머리를 감고 있었다. 두 아들 덕무(7살)와 영무(3살)군과 극적인 만남은 그렇게 감격스럽게 이뤄졌다.” “한밤중 갑자기 안겨든 자유. 한밤중 갑자기 겪는 만남. 전국 곳곳의 교도소와 구치소 문 앞은 다시 결합하는 혈육들의 기쁨으로 밤새 출렁댔다. 속옷 입은 아들을 부둥켜안은 어버이는 수염이 따가운 아들의 볼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쏟았고, ‘외국에 출장 가셨다’던 아빠를 마중한 일곱 살 아들은 ‘아빠, 선물은 어딨어?’ 소리쳐 어른들을 울렸다. 긴급조치 9회가 해제되던 한밤중은 겨울밤답지 않게 짧고 또 짧았다.”<br/><br/> 그는 <1975-유신독재에 도전한 언론인들 이야기>(인카운터, 2013)에 당시의 취재기를 회상하는 글까지 기고해 주었다. ‘민권일지 사건’으로 갇혔던 동아투위 10명 가운데 하필 나만 ‘긴조 9호’가 해제되던 날 풀려나 유별난 취재 대상이 된 것도 참으로 공교롭다. 어쨌든 아직까지 박 기자에게 술 한잔 산 적이 없으니 나라는 사람은 참으로 무심하다 하겠다.<br/><br/> 나는 석방되자마자 경산으로 내려가 부모님을 뵈었다. 그런데 아버님이 야윌 대로 야위어 계셨다. 게다가 알코올중독이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1년 전부터 하루 종일 식사 대신 막걸리만 드신다고 하셨다. 나 때문이라는 자책이 들었다. 술은 기쁠 때, 즐거울 때 마셔야 제맛이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판검사쯤 되어 집안을 일으켜 세울 녀석”이라고 잔뜩 기대를 걸었던 둘째 아들이 두차례나 감옥에 갔으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는가? 물론 두 번의 옥살이는 전혀 창피하지 않았지만, 아버님을 뵈었을 때만은 송구스러워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br/><br/> 해가 바뀌어 80년 설 때 뵈니 아버님은 더욱 야위어 계셨다. 우리 형제들은 의논 끝에 당시 대구에서 군무원 생활을 하던 막내 동생이 직장을 접고 아버님을 모시면서 정미소를 맡도록 결정했다. 동생에게 아버님 건강진단도 받게 하도록 했다. 아니나 다를까, 위암이었다. 우리는 감히 아버님에게 암을 알리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님 자신도 짐작하셨으리라. 결국 80년 4월말 나는 아버님을 서울로 모시고 와 경북고 동기 도종웅(정형외과 과장)이 있는 국립의료원에 입원시켰다. 5월12일 아버님은 수술을 받았다.<br/><br/> 나는 아버님 간병을 하느라 석방 이후 6개월간 시국 상황과 단절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전두환 정권은 ‘5·17 쿠데타’ 직후 나를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려놓았다. <br/><br/>성유보(필명 이룰태림·71) 희망래일 이사장 <br/><br/>정리도움 강태영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52.txt

제목: 제1당  
날짜: 2014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1110013983874  
본문: 지구상 인구가 70억명이라면 70억개의 당파성이 있지만, 대개 사람들은 객관성으로 간주되는 강자의 당파성과 동일시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개인 특히 사회적 약자가 당파성을 드러내는 일은 뒷감당의 용기가 필요하다. 민망함, 책임감, 공부…. 실천으로 자기 생각을 증거해야 하기에 삶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건 내가 이민 가고 싶은 이유 중 하나인데, 우리 문화는 입장이 분명한 사람을 싫어한다.<br/><br/> 자기 입장이 분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여성, 동성애자, 장애인(운동가)- “<span class='quot0'>나는 당신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 차이는 당신들이 만든 정치적 문제다</span>”라고 주장한다. 당파적일 것 같지만 의외로 일부 좌파 집단은 예외다. 한국의 좌파는 정치경제적 이해 경합 세력이라기보다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지식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들(남성)은 좌파든 우파든,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하지만 가시화되지 않은 권력인 남성연대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 통치 세력이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들은 좌파라기보다 민중들이다.(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 강정 마을 투쟁…)<br/><br/> <행복하려면, 녹색>은 내가 이 지면에 연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저자가 현실 정치인이자 지인(서형원·하승수)인 책이다. 아니, 이름만 안다. 다른 정치인의 저서처럼 ‘살아온 길’, ‘한반도 비전’, 자기 자랑은 없다.<br/><br/> 책은 환경 연구 입문서에 가깝다. 불편한 진실, 즉 좋은 정보로 빼곡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빈부 격차 2위국이다.(1위는 멕시코, 113쪽) 덴마크의 2011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81.83%였는데 2012년 한국은 54.3%였다.(42쪽)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다!(73쪽) 아직도 “성장=고용” 논리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수출이 10억원 늘어서 창출되는 고용은 2005년 10.8명에서 2011년에는 7.3명으로 줄었다.(108쪽)<br/><br/> 나도 환경 관련 현실은 알고 싶지가 않다. 진실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면을 가져온다. 하지만 진실 때문에 잠 못 드는 이들이 세력화되어야 이런 세상이나마 지속가능할 것이다.<br/><br/> 나는 “무관심한 당신께. 우리나라 제1당원께”라는 글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정치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는 최대 ‘정당’인 부동층에게 투표를 권하는 내용이다.(231쪽)<br/><br/> 다 아는 이야기지만 새삼 흥미로웠다. 현재 원내 제1당은 새누리당이다. 반면 원외 제1당은 ‘무관심당’이다. 민주주의가 대의제에 기반해 있고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공자님 말씀’처럼 들린다. 지금은 엔지오들(NGOs)도 시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br/><br/> 물론, 무관심은 강력한 당파다. “선호 정당이 없다”는 논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 우주의 진공 상태라도 그런 상황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지지 정당이 있다/없다가 아니라 무관심의 효과다.<br/><br/> 며칠 전 투표하지 않겠다는 친구와 언쟁을 벌였는데 내가 이겼다(?). 그녀의 논리는 “보이콧도 존중해 달라. 그것도 선택이고 실천이다.” 나는 이렇게 반박했다. “동의한다. 그렇다면 가만있지 말고 보이콧 운동을 조직하라. 선거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현실 정치를 하라.” 기권은 선택이 아니다. 배우 유아인의 지적대로, 개인이 기본적 권리마저 두려워하게 만든 권력의 승리다.<br/><br/> 기성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은 일종의 집단 우울증 현상이다. 암의 증상이 암 자체가 아닌 것처럼,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우울이라기보다는 기운 없음과 인간 혐오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약물과 사랑이라는 ‘영적인 치료(상담요법)’를 병행한다. 사람에 대한 신뢰 회복이 몸을 낫게 하는 것이다.<br/><br/> 나도 좌절을 거듭하다 보니 희망이라는 말에 냉소를 넘어 분노하는 인간이 되었다. 시대의 반영이라고 변명해 보지만 이 책을 읽고 부끄러웠다. 저자들이 부럽기도 했다. 나는 오랜만에 스스로 신나 하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념이 보편의 탈을 쓰고 이데올로기가 될 때 인간을 소외시키지만, 꿈과 고뇌는 우리를 연결시킨다. 녹색당의 당비는 월 3000원부터다. <br/><br/>정희진 여성학 강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53.txt

제목: [크리틱] 누가 ‘창조’를 명령하는가 / 문강형준  
날짜: 2014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1110013983516  
본문: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창조’는 하나의 덕목이자 명령이 되었다. 규제라는 “암 덩어리”를 없애면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대통령, 인문학을 통해 창조적 인재가 되라고 역설하는 신세계 그룹, 개인의 창조성으로 서바이벌 경쟁을 펼치는 <아트 스타 코리아>는 한국 사회에서 ‘창조’가 응용되는 대표적 사례다. 이제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창조’라는 명령을 피해갈 수 없다.<br/><br/> 근본적 이유는 자본이 창조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정보, 금융상품 등 정동과 지식, 숫자에서 이윤을 뽑아내는 금융자본주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습을 바꾸며 자신을 계발하고 경영하는 ‘유연한 주체’를 요구한다. 경계나 규제는 제거될 ‘암 덩어리’로 변하고, 자유로운 개인의 ‘아이디어’가 강조된다. 노동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다. 이제 그것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조적 활동, 즉 ‘예술’이 된다.<br/><br/> 원래 ‘창조’는 독창적인 창작활동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특이성을 가진 생산 말이다. 이런 창조적 활동은 따라서 예술이나 문학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낭만주의의 ‘천재’ 개념이 그렇듯, 창조하는 이는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이고, 따라서 신적인 존재가 된다. 오늘날 정부와 자본이 강조하는 ‘창조’는 그 부드러운 외양과는 반대로 이런 케케묵은 낭만주의 천재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 시대 ‘창조’의 아이콘으로 동원되는 잡스, 게이츠, 저커버그가 될 수 있는 이들, 곧 아이디어를 상품과 결합시켜 성공을 거두는 이들은 언제나 극소수다.<br/><br/> ‘창조’의 문제점은 여기서 나온다. ‘당신도 가능하다’며 극소수의 능력과 행운을 노동자 전체의 의무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창조’가 생존 요건이 되자 이제 다수는 ‘창조’를 ‘배운다’. 자기계발서를 연구하고, 강의를 듣고, 고전을 읽으며 창조의 모범답안을 암기한다.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니 수능평가 방식을 연구하고, 논술이 추가되니 논술을 암기하고, 봉사점수가 있다니 봉사를 배우는, 한국 사회의 생존 방식이 이제 인문학과 예술로까지 확대된다.<br/><br/> ‘창조’란 천재들의 전유물도, 상품으로 변환되는 아이디어도 아니다.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좋아서 하는 놀이가 깊어져 어떤 수준을 넘어설 때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아이도, 노동자도, 아저씨도, 할머니도 삶에서 작은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이창동의 영화 <시>는 할머니가 쓰는 초라한 시 속에 들어 있는 삶과 윤리의 깊이를 보여준다. 문제는 누구나의 창조적 능력을 천재만의 것으로, 상품으로, 채용기준으로 만들어 특화하고 대상화하는 정부와 자본의 좁고 천박한 상상력이다.<br/><br/> ‘창조경제’, ‘청년영웅’, ‘인문학’을 외치며 국민 전체에게 ‘창조’의 압박을 강요하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는 사실 다른 곳에 있다. 이윤을 남기는 창조가 가능한 소수(즉 ‘인재’)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다수는 배제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정지작업 말이다. 모두에게 잡스나 저커버그가 되라고 명령하면서 다수의 노동, 학업, 삶은 더욱 여유 없고 팍팍하게 만드는 일, 그래서 실패한 이가 자기 탓을 하며 조용히 사라지게 만드는 일. 좋은 사회란 뭘까? 모두가 수준급 예술가가 되진 못해도 모두가 예술을 즐길 수 있고, 자기 삶 속에서 소박한 창조적 놀이를 펼칠 교양과 여유를 가지는 사회일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에 ‘창조’를 덧씌움으로써 실제로는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후퇴시킬 뿐 아니라, ‘창조’를 평가와 경쟁으로 상품화하며, 삶 속의 작은 창조와 놀이를 위한 여유마저도 빼앗는 중이다. 결국 창조, 예술, 인문학의 제스처는 넘쳐나면서도, 사람들의 삶은 더더욱 메말라가는 슬픈 역설이 만개하는 것이다. <br/><br/>문강형준 문화평론가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54.txt

제목: 담배는 ‘무죄’, 흡연은 ‘유죄’…사실상 흡연자 ‘책임’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1010013974713  
본문: ‘담배는 무죄.’<br/><br/> 10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장장 15년에 걸친 국내 첫 ‘담배 소송’은 국가와 케이티앤지(KT&G)의 승리로 돌아갔다. 흡연인구가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에서 이번 소송 결과는 초미의 관심을 끌었지만 결과는 일방적이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분쟁에서 이긴 케이티앤지는 “<span class='quot0'>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span>”한다며 반색한 반면, 원고 쪽은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내놨다.<br/><br/> 대법원은 담배는 해롭고, 폐암 발병과의 연관성도 인정된다는 전제를 깔았다. 하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고, 개인의 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흡연의 본질이 건강에 유해한 니코틴과 타르를 흡입하는 일이므로 담배회사의 제조물 설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span class='quot1'>소비자는 니코틴의 약리 효과를 의도해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span>”는 것이다. 담배의 특성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 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제조물의 설계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br/><br/> 재판부는 흡연자의 자유의사도 강조했다. 담배회사가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원고 쪽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2'>담배는 1600년대에 (한국에) 전래된 무렵부터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효능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span>”며 “<span class='quot2'>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span>”라고 밝혔다. 이어 “(담배 말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도 발암물질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br/><br/> 여기에 개인의 암 발병과 흡연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적 판단이 보태졌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2'>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span>”라는 표현으로 흡연과 폐암 발병이 연관돼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담배를 피운 원고들이 폐암과 후두암에 걸렸지만, 가족력이나 다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도 있다는 입장이다.<br/><br/> 앞서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4명의 폐암 발병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4명의 발병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암 발병과 흡연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한 셈이어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으려는 쪽에서 보면 항소심보다 후퇴한 판결이 됐다. 또 재판부는 폐암과 후두암 가운데 흡연과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등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아예 부정했다.<br/><br/> 1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준비하는 거액의 담배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000억원이 넘는다며 케이티앤지뿐 아니라 외국 제조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낼 계획이다. 비록 대법원이 담배와 폐암·후두암의 일반적 연관성은 인정했지만,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이 소송의 전망도 밝지 않다.<br/><br/> 결국 판례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담배회사에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피해자들은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br/><br/>노현웅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golok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55.txt

제목: ‘담배소송 15년’ 폐암환자쪽 패소 확정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1010013974655  
본문: 15년 동안 진행돼온 ‘담배 소송’이 제조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br/><br/>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방아무개(65)씨 등 30명이 ‘오랜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케이티앤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4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금껏 제기된 담배 소송은 모두 4건이며, 이날 선고는 1999년 가장 먼저 제기된 2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다. 두 소송의 원고는 암 환자 7명과 그 가족들로, 환자 7명 가운데 6명은 재판 과정에서 숨졌다. <br/><br/> 재판부는 “<span class='quot0'>케이티앤지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span>”고 밝혔다. 또 흡연과 폐암의 일반적 연관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흡연자가 담배를 피웠고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둘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0'>케이티앤지가 고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첨가제 투여나 니코틴 함량 조작으로 의존증 유지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span>”고 덧붙였다.<br/><br/> 앞서 항소심은 원고들 중 4명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니코틴 의존을 질환으로 인정하더라도 흡연은 흡연자가 선택한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br/><br/> 원고 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 변호사는 “흡연 사망 인구가 1년에 5만8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성명을 내어 “<span class='quot1'>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담배의 중독성과 해악성이 입증돼 거액의 배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과 보건권을 무시하고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준 시대 역행적이고 부당한 판결</span>”이라고 주장했다. <br/><br/>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56.txt

제목: “흡연과 폐암 개별적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담배 소송’ 원고 패소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1010013969434  
본문: 15년 동안 진행된 ‘담배 소송’이 제조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br/><br/>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오랜 흡연자로 후두암과 폐암에 걸린 김아무개씨 등 30명이 케이티엔지(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오늘은 1999년 가장 먼저 제기된 2건에 대해 선고한 것이다. 두 소송의 원고는 애초 36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 암으로 숨지는 이들이 생겨 30명으로 줄었다.<br/><br/> 재판부는 “<span class='quot0'>케이티앤지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흡연자가 담배를 피웠고 또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둘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span>”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pan class='quot0'>담배와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거나 이로 인해 건강상 위해 또는 의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호품인 담배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힘들다</span>”며 “<span class='quot0'>제조사가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span>”고 밝혔다. 원심의 판단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담배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1999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이다.<br/><br/> 원고 쪽은 판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 변호사는 “<span class='quot1'>흡연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1년에 5만8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span>”며 “<span class='quot1'>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span>”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span class='quot2'>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보건권을 무시하고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준 시대 역행적이고 부당한 판결</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의 중독성과 해악성이 입증돼, 거액의 배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span>”이라고 밝혔다.<br/><br/> 대법원 판결은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최대 3000억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정보를 분석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증명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국내 제조사인 케이티앤지 뿐만 아니라, 필립모리스·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등 외국 제조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낼 계획이다. 그러나 담배 판매로 인한 세입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건보공단의 상급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담배 소송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서, 이번 판결로 소송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br/><br/> 건보공단은 흡연자의 암 발병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2.9~6.5배 높고,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br/><br/>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었다며,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미국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흡연 피해를 당한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사례는 없었다. 미국도 흡연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방대한 자료를 가진 지방정부 등이 나섰을 때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졌다. 건강보험공단의 흡연 피해 소송은 예정대로 이르면 다음주 초 소장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br/><br/><br/>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57.txt

제목: 건보공단 “담배소송 예정대로…흡연피해 입증할 것”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1010013975448  
본문: 흡연 피해자와 가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이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정대로 담배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대규모 건강검진 및 진료 자료가 있어 흡연 피해 및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br/><br/> 복수의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1일 “<span class='quot0'>공단의 흡연 피해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모집이 마감되면 곧바로 심사를 거쳐 소송 대리인을 선정해 이르면 14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안선영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span class='quot1'>흡연 피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나왔지만, 공단의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br/> 흡연 피해자들이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게 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단 쪽은 이미 예상한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외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흡연 피해자 개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거의 대부분 패소했다. 한국에서도 고등법원까지는 흡연으로 폐암이 발생됐음을 일부 인정했지만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것으로 봤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패소했지만 주정부가 나서면서 담배회사가 배상을 하게 하는 등 사실상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공단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 및 진료 자료와 함께 대규모의 검진자료를 통해 흡연 피해를 입증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소송가액을 검토한 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537억원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537억원은 2001~2010년 흡연과 가장 관련이 큰 폐암이나 후두암을 진단받은 암 환자 가운데 담배를 30년 넘게 피웠다고 답한 3484명의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돈이다.<br/><br/>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공단의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대법원이 일주일 전에 갑자기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일지라도 흡연 피해와 관련해 담배회사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여론을 통해 알려지면 공단의 소송에 김을 빼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58.txt

제목: [왜냐면] 무분별한 갑상선 수술은 이제 그만… / 강연미  
날짜: 201404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0910013963026  
본문: 세상이 온통 갑상선암 문제로 시끄럽다. 연일 방송과 신문에서 갑상선암의 과다진단과 과잉진료에 대해 앞다투어 다루고 있다. 각 방송사의 대표 시사프로그램뿐 아니라 주요 신문의 칼럼에도 계속 갑상선암에 대한 논란의 글이 실리고 있다.<br/><br/> 며칠 전 한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갑상선암에 대한 논란문제가 방송에 나오자 여기저기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왔다.<br/><br/> “방송 잘 봤지? 너 수술한 거 좀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되지 않았니?”<br/><br/> 그럴 때마다 나는 깊은 자책감과 후회가 밀려온다.<br/><br/> 나는 3년 전 갑상선암으로 전절제 수술을 했다. 그 당시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하다가 초음파검사에서 0.6㎝의 종양이 발견된 것이 나의 삶을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갈 줄 누가 알았을까.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과 부작용은 나의 일상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br/><br/> 잔병 하나 없이 건강했던 나는 수술 후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앓게 되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가 되었고 급격한 체력저하와 극심한 불면증, 부정맥, 탈모, 성대통증 등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다. 수술의 고통도 컸지만 그보다 수술 후 부작용과 후유증의 고통이 더 컸다.<br/><br/> 그러나 당시 나의 담당의사는 한번도 작은 갑상선암은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사 말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br/><br/> 그런데 수술 후 주위를 둘러보니 놀랍게도 내 주위에 친구들을 비롯해 갑상선암 수술 환자가 9명이나 있었다. 이들은 모두 나처럼 몸에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에서 조그만 혹이 발견되어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갑상선암 수술 환자의 급격한 증가 현상에 놀란 나는 이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고 곧 사회적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br/><br/>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갑자기 갑상선암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br/><br/>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갑상선암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고 나서자 이에 맞서 갑상선암도 암이니 초기에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반박을 하는 외과의사들이 갑상선암 조기검진의 필요성과 수술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br/><br/> 어떤 현상에 대해 사람마다 서로 의견이나 주장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br/><br/> 그러나 적어도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는 의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 삶의 질이 좌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br/><br/>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의사들의 이런 상반된 주장들을 보고 어느 쪽이 옳은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br/><br/> 이미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많은 환자들은 성급한 수술 결정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br/><br/> 나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그저 평범한 50대의 전업주부이다. 그러나 이미 갑상선암 수술을 한 환자의 입장에서 조기진단과 수술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사들에게 수술을 하기 전에 다른 선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이 기이한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환자들의 목에 서슴없이 칼을 대는 일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싶다.<br/><br/> 진정한 명의는 갑상선암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술한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자제하는 의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br/><br/> 누가 혹시 볼세라 목에 스카프와 목걸이를 하고 평생 갑상선 약을 먹는 환자로 지내야 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수술하지 않았어도 되는 사람들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 갑상선암 왕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br/><br/>강연미 주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59.txt

제목: [세상 읽기] 청맹과니 정부 / 김중미  
날짜: 201404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0910013962970  
본문: 학교는 벌점으로 학생들을 통제한다. 흡연이나 무단지각, 복장 위반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무례한 언행 및 반항, 교사의 정당한 지도 거부도 3점짜리 벌점이다. 동성 이성 간 부적절한 신체접촉(손잡기, 팔짱, 포옹)도 2점짜리 벌점이다. 학교 안은 교칙이라는 이름의 통제와 규제가 학생들을 옥죄는데 대통령은 학교 밖의 규제나 풀라고,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학교 주변의 모텔과 호텔에도 유흥업소만 없으면 된단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대통령에게는 청소년과 어린이는 안중에 없다.<br/><br/>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뒤 정부는 어린이·청소년, 영세한 상인과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까지 암 덩어리로 규정해버렸다. 그런데 정부가 정상화하겠다는 비정상의 대상과 규제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는 대상들이 어째 진짜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것들뿐이다. 정부가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의 하위 규정까지 빠르게 고쳐 합법화를 예고한 푸드트럭도 마찬가지다. 얼핏 보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 같지만 영세 자영업자, 노점상에 대한 고민은 없다. 오죽하면 푸드트럭 합법화를 제안했던 두리원에프엔에프 배영기 사장조차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동 걸자마자 시속 100㎞로 달려가려 한다며 걱정을 했을까?<br/><br/> 중학생, 초등학생을 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는 식당 종업원, 학교식당 조리사로 일을 하다 작년 여름 전세를 빼 식탁 세 개짜리 작은 분식집을 냈다. 분식집을 연 곳은 인천시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재래시장 옆이었다.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오래된 서민지역이 공존하는 그곳에는 고기뷔페, 국밥집, 김밥 체인점, 만두 체인점, 치킨집, 중국집, 프랜차이즈 빵집이 모여 있고 튀김과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도 두 대나 있었다. 혼자 일하는 어머니를 돕느라 아이들이 공부방을 빠지거나 학교에 지각하는 일도 잦았지만, 우리의 우려대로 분식집은 몇 달 가지 못해 월세조차 내기 버거워졌고 결국 지난겨울 문을 닫았다.<br/><br/> 당장 먹고살 길이 막힌 이 세 모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길은 없다. 특별한 병이 없는 40대 엄마는 건강한 근로능력자로 분류되는데다 이혼한 남편은 여전히 두 자녀의 부양 의무자이기 때문이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세 모녀의 죽음 뒤에도, 경제 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져도 정부는 부양 의무제를 없애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식집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그만둔 탓에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한부모 가정을 신청한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은 별로 없다.<br/><br/> 막막할 때 푸드트럭 소식이 전해지자 어머니의 귀가 번쩍 뜨였다. 아파트 앞에 트럭을 세우고 초밥을 만들어 팔다 망한 청년도, 전철역 앞에서 일본식 문어빵을 만들어 팔던 아이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곳이 유원시설이나 놀이시설로 한정된다는 말에 맥이 빠졌다. 기존 유원시설에 푸드트럭이 들어갈 여지는 없었다. 설사 가능했다 해도 고액의 자릿세, 임대료에다 푸드트럭 개조비까지 수천만원을 넘어설 돈을 투자할 만한 청년실업자나 영세자영업자, 노점상들은 별로 없다.<br/><br/>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중에서 80만명 이상이 1년 안에 도산한다. 우리 동네에도 몇 달에 한 번씩 새 치킨집이 생기고 다시 문을 닫는다. 그런데 푸드트럭 합법화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기업을 위한 규제철폐에만 매달리며 서민들의 고통에는 청맹과니가 되는 이 대통령과 정부 아래서는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리 없을 것 같다. <br/><br/>김중미 작가·기차길옆작은학교 상근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60.txt

제목: “40년전 연락끊긴 자식들 상대로 소송 거느니…” 생활고 할머니는 세상 등지려 했다  
날짜: 201404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0610013931999  
본문: “집세가 300만원이나 나와요. 청소부를 45년이나 했는데 지금은 늙어서 일도 못 해요. 나랏돈을 받으려면 아이들과 재판을 하라는데 미안해서 재판을 어떻게 해요. 사는 게 빚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시신은 서울대병원에 기증합니다.”<br/><br/> 김아무개(73) 할머니는 지난달 초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유서를 남겼다. 벌써 4번째 유서였다. 그동안 남의 집 식모살이에, 건설 현장 막노동까지 하며 버텼지만 더이상은 어려웠다. 서울 중랑구 김씨의 집은 시 소유지 위에 있다. 해마다 300여만원을 도로사용료와 토지임대료로 내야 했다. 그나마 은행이나 대기업 청소 일을 할 때는 ‘집세’를 해결했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br/><br/> 2년 전 김씨는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변이 나왔다. 지난해 6월에는 위암 판정까지 받았다. 수입이 없으니 시유지 임대료를 마련할 길이 막막했다. 근처 노인복지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청천벽력 같은 답이 돌아왔다. 40년 전 연락이 끊긴 큰딸과 두 아들이 김씨를 부양하는 가족으로 돼 있었다. ‘있지만 없는 자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없었다.<br/><br/> 김씨를 담당하는 박수화 사회복지사(서울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는 “<span class='quot0'>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의뢰했더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자녀들이 할머니를 방임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span>”고 말했다.<br/><br/> 김씨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6일 ‘임대료 300만원’짜리 누추한 방에서 만난 김씨는 “<span class='quot1'>내가 자식을 키우지 못한 것도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운데 자식들에게 소송을 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span>”고 했다. 남편이 재산을 탕진하자 김씨가 돈벌이에 나섰다. 식모살이로 여기저기를 떠도는 사이 어느새 자식들과 연락이 끊어졌다. 김씨는 “<span class='quot1'>자식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span>”이라고 했다.<br/><br/>위암 판정에 일 그만둬 살길 막막 <br/>자녀 있다고 기초수급도 못받아 <br/>자살 시도했지만 다행히 목숨건져<br/><br/>사회복지사가 인터넷서 모금운동 <br/>“<span class='quot2'>치료비·월세 등 480만원 모였으면</span>” <br/><br/>그런 자식들에게 차마 소송을 걸 수는 없었다. 김씨는 지난달 목숨을 끊으려고 수면제를 한 움큼 입에 털어 넣었다. 다행히 이틀 뒤에 깨어났지만, 김씨는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매달 나오는 기초노령연금 9만4000원이 생활비의 전부다. 이 돈을 쪼개 식비와 교통비에 공과금까지 낸다. 난방은 엄두도 못 낸다. 김씨는 집 안에서도 두툼한 점퍼를 여러 겹 껴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수돗물도 함부로 쓸 수 없어 바가지에 받아 조금씩 쓴다. 김씨는 “<span class='quot1'>이렇게 살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span>”고 했다. 박수화 사회복지사는 “반찬이 없어 맨밥만 드신다”고 전했다.<br/><br/> 김씨는 “편하게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겠냐”는 말이 입에 붙었다. 이 때문에 박 사회복지사는 매일 집으로 찾아가 그의 상태를 살핀다. 지난 1월에도 박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송아무개(65)씨가 암 치료비가 없어 세 차례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송씨는 결국 암으로 숨졌다. 박 사회복지사는 “<span class='quot3'>포털사이트를 통해 치료비 480만원을 모금했는데 결국 돌아가셨다</span>”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김씨가 내야 하는 임대료(도로사용료) 300만원과 생활비 등 480만원을 모금할 준비를 하고 있다. “<span class='quot2'>모금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결연을 맺어서 꾸준히 도와주시는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span>”고 했다.<br/><br/>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2년 139만명 수준이던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135만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본인이 아닌 부양의무자 소득 증가를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2만77명이다. 박 사회복지사는 “<span class='quot3'>김 할머니처럼 연락도 안 되는 가족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더는 없어야 한다</span>”고 했다.<br/><br/> 글 사진 이재욱 기자 u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61.txt

제목: [싱크탱크 시각] 잔디깎기식 규제개혁 유감 / 이현숙  
날짜: 201404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0610013931581  
본문: 규제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뒤 규제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규제가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로까지 규정되면서 후속조처가 이어지고 있다. 옥석 구분 없는 규제개혁 강풍에 ‘필요한 규제’마저 휩쓸려 날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br/><br/>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최근 몇 년간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든 조례들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려는 압력이 있다. 골목상권 보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급식 지원 등 주로 경제민주화, 지역발전 관련 조례와 규칙들이다.<br/><br/> 이 가운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사회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속속 생겨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다. 지자체들도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협력과 협동의 방식으로 만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조례와 규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지자체의 예산 상황과 미흡한 제도 탓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곳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br/><br/> 그런데 이런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조차 철폐의 압력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자치법규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제라고 지목했다. 3월 중순부터 공정위는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폐지할 자치법규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란다.<br/><br/> 공정위는 지자체별로 경쟁제한적 규제 현황표를 제시했다. 통계는 지난해 한국규제학회가 공정위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학회는 2008년 이후 제정·개정된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영향평가 방법론을 적용해 검토했다. 학회는 연구에서 이들 조례나 규칙을 법규 내용으로는 규제가 아니지만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봤다. 적용 과정에서 특정 업체나 대상을 우대해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기도 여주시의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육훈련 지원, 경영 지원, 재정 지원, 시설비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목적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회는 이 조례가 시장경쟁에서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교육훈련 지원을 뺀 나머지는 모두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br/><br/> 규제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의문과 우려가 생긴다. 의문은 분석의 틀로 삼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영향평가 방법론에 예외조항이 없는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규제를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규제를 개혁할 때는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 민주성을 확보해 공익 추구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제에 대한 입장을 볼 때 사회적 목적이 담긴 법규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려는 ‘묻지마’ 식 규제개혁으로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역의 선순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조례들을 중앙정부가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손을 대면 오히려 지역 경쟁력은 더 떨어지게 된다.<br/><br/> 사회적 필요로 만든 규제는 악이 아닌 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지켜야 할 선이다. 규제개혁을 잔디깎기 식으로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무작정 항암치료를 하다 보면 건강한 세포까지 죽여 허약체질이 될 수밖에 없다. 규제개혁을 누구를 위해,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사회적 합의부터 필요하다. <br/><br/>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hs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62.txt

제목: “애 봐주느라 못 살겠어!” 시어머니 핀잔에…  
날짜: 2014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0410013925394  
본문: ▶ 요즘엔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시어머니가 봐주면서 고부간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양육을 맡게 된 시어머니는 손주의 재롱이 즐겁기도 하지만, 내심 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죠. 아이를 맡기는 며느리는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보다 안심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라는 점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시어머니에게 육아를 부탁해도 되냐고요. 여기 한 육아기가 있습니다.<br/><br/><br/><br/>“<span class='quot0'>남은 인생 동안 며느리와 잘 지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span>”<br/><br/> 시어머니가 2년 전 위암 진단을 받은 뒤 나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이 극적인 이유는 그 전까지 고부 사이가 살얼음판을 걸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이유는 육아 때문이었다. 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골칫거리인 육아를 나는 시어머니에게 맡겼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br/><br/> 3년 전 어느 출근길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다음주엔 아이를 좀 데려가라.” 나는 난감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음주엔 해외출장이 있어 힘들어요.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시어머니는 바로 불만을 표출했다. “너처럼 해외출장을 자주 가는 사람이 회사에 또 있냐. 지난번 아이 데리고 서울 간다고 할 때도 출장이라서 오지 말라더니.”<br/><br/>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회사 일을 이해하지 않았다. 해외출장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게 되면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일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을 잘 모른다. 한번은 시어머니의 반대로 회사에서 해외출장을 기피했더니, 직장 상사가 대놓고 빈정거렸다. “어쭈, 많이 컸네. 출장 거부도 하고.” 시어머니는 출장 간다고 핀잔을 주고, 상사는 안 간다고 면박을 줬다. 일하는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불평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다. “<span class='quot0'>아이를 맡겨놓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냐</span>” “<span class='quot0'>우리 아들이 뭐가 못나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고, 애는 내가 키우나</span>” “<span class='quot0'>어차피 그만둘 일 지금 그만둬라</span>” “<span class='quot0'>남편이랑 아이 다 떼놓고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span>” “<span class='quot0'>너가 그러고도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span>” “<span class='quot0'>다른 며느리는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만 잘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span>” 등등. 이 모두 아이를 맡기기 전엔 듣지 못한 말이다. 하지만 아이를 맡겼으니, 감수해야 하는 말이었다. <br/><br/><br/> <br/><br/>“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br/>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냐 <br/>어차피 관둘 일 지금 그만둬라 <br/>그러고도 엄마 자격이 있냐” <br/>비수처럼 꽂힌 말, 말, 말 <br/> <br/>시부모 집에 아이 맡긴 지 3년 <br/>시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았다 <br/>손녀 때문에 고생하셔서 그랬나 <br/>죄책감 때문에 결국 일 그만두고 <br/>나는 남편 있는 서울로 올라왔다 <br/><br/><br/><br/><br/> 아이를 시어머니가 돌봐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며느리인 내가 부탁하면 힘들었겠지만, 금쪽같은 아들이(내 남편이) 육아를 부탁했기에 거절하진 않으셨다. 당시 남편은 서울에서, 나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는 주말부부 신세였다. 남편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나름의 배려를 했다. 시쳇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엄마인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도록 놔두진 않았다. 회사에서 늦게 마치고 주말에도 일하는 회사에 다녔으니, 입주 아줌마를 집에 들이더라도 제대로 아이를 돌보긴 힘들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갔다. 낮에는 시어머니가 육아를 하고, 밤에는 남편이 아이를 재웠다. 시어머니의 심정도 이해한다. 수십년간 고된 시집살이와 육아를 해온 시어머니에게 일하는 며느리가 곱게 보였을 리 없다. 또한 자식 셋을 힘들게 키워서 시집·장가를 다 보냈는데, 나이 들어서 다시 갓난아기를 돌보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거다. 하지만 홀로 지내는 나도 늘 마음이 불편했다. 주중엔 애가 보고 싶어 밤마다 눈물을 흘렸고, 주말엔 고속열차를 타고 아이를 보러 다녔다. 일에 지쳐 몸이 고단한데도 늘 가슴속엔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아이와 남편, 시어머니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br/><br/>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위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이가 시부모의 집에 3년 정도 머물렀을 즈음이었다. 내 딸을 키우느라 고생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죄책감이 들었다. 결국 일을 그만뒀다. 시어머니와 나 사이의 갈등의 근원이었던 ‘일’을 내려놓은 것이다. 나는 남편이 있는 서울로 올라갔다. 우리 세 가족이 3년여 만에 다시 모였다.<br/><br/> 그럼에도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는 화석처럼 마음에 남았다. 똑같은 부분이 끝없이 재생되는 고장 난 테이프처럼, 예전에 들었던 모진 말들이 불쑥불쑥 마음속에서 튀어나왔다. 남편에겐 이제야 그 상처를 얘기하고 있다. 한창 힘들 땐 남편에게 털어놓지 못했으니까. 남편 역시 시댁에 있었으니, 옆에 시부모가 있는 것을 알기에 전화로 하소연할 수 없었다. “그때 나 정말 힘들었어. 지금이라도 당신이 내 마음 좀 알아줘.” 암에 걸린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그에게서 받은 지워지지 않은 상처는 양쪽으로 심장을 할퀴었다.<br/><br/> 결혼 초기, 적어도 나쁜 며느리는 아니었다. 시댁에 생활비를 넉넉히 드렸고, 시부모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아이의 양육을 맡고선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한동안 직장을 그만두지 못했다. 일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였다. 시어머니의 입장도 이해한다. 가까이 살면서 애를 키워준 것이 아니라, 아이와 떨어져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육아를 홀로 책임졌던 부담이 컸을 것이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최근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br/><br/> 딸을 시어머니에게서 데려온 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나에겐 두 개의 숙제가 남았다. 하나는 모진 말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 든 경력단절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 불안이 나를 엄습한다. 하고 싶은 일을 영영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을 다스리는 건 쉽지 않다.<br/><br/> 가족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된 것도 결혼 이후였다. 가족을 감시기구로 규정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미셸 푸코의 견해를 처음 접했을 때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가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학창 시절엔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의 주인공이 지긋지긋한 가족에게서 벗어나려는 장면을 보며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의 나는 그럴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br/><br/> 매일 아침 유치원 승합차에 타는 딸을 보면서도 복잡한 심경이다. 이 아이는 나중에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둘 다 잘할 수 있을까. “딸이 커서 바보가 되면 좋겠어. 이런 세상에서는 예쁘고 귀여운 바보가 되는 게 최고잖아.”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상류사회 여성인 데이지는 딸을 낳고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 대사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 내 딸이 주체적이며 건강한 여성으로 커주길 바라는 것은 과한 욕심일까. <br/><br/><br/><br/>경력단절 며느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63.txt

제목: “과잉진단은 해악이지만 획일적 제재 안돼” 갑상선암 전문의들의 반격  
날짜: 2014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0310013915728  
본문: 갑상선 분야 전문의들 모임인 대한갑상선학회가 3일 최근 갑상선암의 과다진단 논란과 관련한 공식 견해를 내놨다. 앞서 지난달 18일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치료가 불필요한 갑상선암 환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중단하라고 발표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br/><br/> 갑상선학회(이사장 정재훈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의 갑상선암 발생율이 세계 1위라는 기록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갑상선암과 관련한 과잉진단 및 치료는 절대적 해악이지만 이를 빌미로 (갑상선암 검사에)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제재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br/><br/> 학회는 먼저 갑상선암이 급증한 이유를 고화질의 초음파기기가 갑상선에 생긴 암이나 혹의 진단에 사용돼 1㎝ 이하의 작은 암까지 진단하는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외국과 달리 병원을 쉽게 방문해 큰돈을 들이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병원들도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고, 환자들도 암 보험 등에 가입한 덕에 적극적으로 진단을 요구한 것도 원인이라고 밝혔다. <br/><br/> 학회는 갑상선암의 유발 요인인 유전적 소인이나 요오드의 과다 섭취 외에 컴퓨터단층촬영(CT), 양전자단층촬영(PET)과 같은 검사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이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학회의 이런 분석은 저지연대의 견해와 대체로 일치한다. <br/><br/> 그러나 갑상선 초음파 검진의 필요성을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학회는 우선 갑상선에서 0.5㎝ 이하의 혹이 발견됐고 주변으로 전이된 흔적이 없으면 검사를 추가로 하지 말고 관찰하라고 권고했다. 대신 0.6㎝보다 크면 경과 관찰보다는 추가 검사와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br/><br/> 학회는 증상이 나타난 사람만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라는 저지연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고 암이 4~5㎝ 이상으로 커져서 주위 장기를 압박하거나, 크기에 관계없이 주위 조직으로 진행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실제로 1㎝ 이상의 갑상선 종양도 의사의 촉진(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서 진단하는 일)만으로는 절반도 발견할 수 없으며 초음파 검사로 발견되는 갑상선종양의 약 15%만 숙련된 의사가 촉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음파 검사로 상당수 환자가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며 “(검진에)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더 나쁜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br/><br/> 이와 관련해 저지연대 쪽 의사들은 “<span class='quot0'>초음파 검사로 이미 발견된 암마저 치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정부가 불필요한 과다 검진에 뒷짐을 지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span>”라고 반박했다. 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는 “초음파 검사 등 건강검진 영역을 시장 기전에 맡겨 두고 방치하는 정부 정책이 문제다. 갑상선암이 진단됐다면 의사와 상의해 수술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효용이 없는 초음파 검사를 많은 사람이 받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64.txt

제목: 규제풀기 앞장…환경부, 존재이유 잊었나  
날짜: 2014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0310013916872  
본문: 환경부가 3일 규제 감축 목표를 담은 ‘환경 규제 개혁 추진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개혁 방안의 후속 조처다. 정부 부처로서 국무조정실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도 환경부의 이날 발표는 너무 나갔다.<br/><br/> 국무조정실의 계획은 경제 규제의 10%를 올해 감축하고, 등록된 전체 규제의 50%에 대통령 임기 중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일몰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규제 감축 목표를 그대로 받은 데서 한발 더 나아가 ‘50% 일몰제 적용’을 계획보다 3년 이른 올해 말까지 달성하고 2016년까지 75%로 확대하겠다는 ‘통큰 베팅’을 했다.<br/><br/> 산업 진흥 관련 규제와 달리 환경 규제 해제의 부작용은 치유하기 쉽지 않다. 일단 훼손된 환경은 복원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후손한테 짐을 떠넘기게 된다. 환경부의 속도전식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 옥석이 가려질 수 있을까? <br/><br/> 다행히 박 대통령은 이 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이른바 ‘끝장토론’ 머리발언에서 “<span class='quot0'>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공정거래와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한 규제는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span>”고 밝혔다. 그래도 환경부 같은 부처가 오해할까 걱정됐는지 “<span class='quot1'>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 이에 비춰 보면 환경부의 이날 발표에 가장 화를 낼 사람은 박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규제 완화의 광풍에 꼭 필요한 환경 규제까지 휩쓸릴까봐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의 성급한 행보는 규제 완화의 정당성 논란을 증폭시켜 박 대통령이 진짜 목표로 하는 규제 감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br/><br/> 대통령의 발언에 기대 10% 총량 감축에서 예외로 인정받으려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환경부를 기대한 것은 순진한 생각이었을까? 정권은 짧고 환경은 길다. 환경부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허물고 젊은 환경 공무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보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몹시 궁금하다. <br/><br/>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65.txt

제목: ‘민주화운동의 맏언니’ 박문숙씨 별세  
날짜: 2014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0310013916483  
본문: 누구도 그의 지병을 몰랐다. 오직 두 딸만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그래서 돌연한 그의 별세는 모두를 놀라게 했고, 비통하게 만들었다.<br/><br/> ‘민주화 운동의 맏언니’로 불리운 박문숙(사진)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이 지난 2일 오후 6시 50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9.<br/><br/> 고인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여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1980년대부터 생활협동조합운동에 참여했다.<br/><br/> 녹색환경운동 이사장을 맡아온 고인은 1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나 며칠 전까지도 주변에 전혀 알리지 않고 투병해왔다. <br/><br/> 고인의 남편인 고 김병곤씨도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지난 1990년 암으로 숨져 주변인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br/><br/> 고 김병곤씨는 박정희 독재시절인 74년 당시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사형을 언도 받고는 재판정에서 “영광입니다. 유신 치하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길을 빼앗긴 이 민생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던 차에 이 젊은 목숨을 기꺼이 바칠 기회를 주시니 고마운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고 외친 인물이다. 이후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부의장으로 민주화 투쟁의 선두에 섰던 그는 87년 구로구청 부정투표함을 끝까지 사수하다 옥살이를 했고 그 후유증으로 위암을 얻어 38살 짧은 생을 마쳤다.<br/><br/> 장례는 5일 오전 9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민주사회장으로 치른다. <br/><br/> 유족으로는 딸 희진(날리지웍스 근무)·은희(대학원생)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 02-2019-4003.<br/><br/>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66.txt

제목: 암보험 명칭 과장 못한다  
날짜: 20140401  
기자: 황보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401100000127  
본문: 4월부터 암보험 상품의 명칭이 보장 항목이 부풀려보이지 않도록 손질된다. 또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조항도 정비될 예정이다.<br/>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암보험 ‘암입원비’ 특약상품은 암을 직접치료하는 목적의 입원 때만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명칭에 정확하게 반영돼 있지 못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불러왔다. 이에 보험약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암직접치료입원비’로 이름을 바꾸도록 했다. 또 일부 암보험은 암 치료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항암방사선 혹은 약물 치료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계약자가 상품 가입 때 이런 항목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이 바뀔 예정이다.<br/>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보험의 표준약관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약관이 구성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개편된다. 또 그동안은 직업변경 등으로 계약 후 위험률이 증가했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지하는 게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해지하도록 했다.<br/>　아울러 수술보험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하도록 변경된다.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 치료술 등 수술기법이 발달하고 있는 데도 수술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 외과수술로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br/>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를 5~10%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같은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는 데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해야 했다. 이밖에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가입 또는 유지 때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해마다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67.txt

제목: 암보험 명칭 과장 못한다  
날짜: 2014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3110013882094  
본문: 4월부터 암보험 상품의 명칭이 보장 항목이 부풀려보이지 않도록 손질된다. 또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조항도 정비될 예정이다.<br/><br/>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암보험 ‘암입원비’ 특약상품은 암을 직접치료하는 목적의 입원 때만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 명칭에 정확하게 반영돼 있지 못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불러왔다. 이에 보험약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암직접치료입원비’로 이름을 바꾸도록 했다. 또 일부 암보험은 암 치료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항암방사선 혹은 약물 치료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계약자가 상품 가입 때 이런 항목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이 바뀔 예정이다.<br/><br/>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보험의 표준약관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약관이 구성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개편된다. 또 그동안은 직업변경 등으로 계약 후 위험률이 증가했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지하는 게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해지하도록 했다.<br/><br/> 아울러 수술보험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하도록 변경된다.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 치료술 등 수술기법이 발달하고 있는 데도 수술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 외과수술로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br/><br/>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를 5~10%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같은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는 데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해야 했다. 이밖에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가입 또는 유지 때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해마다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68.txt

제목: 상처의 기억을 치유하는 우리네 ‘뒤뜰’  
날짜: 2014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3010013872508  
본문: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 <br/>황선미 지음 <br/>사계절·1만2800원<br/><br/>아버지를 잃고 난 2000년 작가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발표했다. 책 속의 아버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가족을 지키는 지주와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됐다. 첫 작품 <내 푸른 자전거>에서 아버지는 삶에 지친 모습이었다. “<span class='quot0'>이번에는 아버지를 멋지게 기억해내고 싶었나 보다</span>”고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황선미(51) 작가는 말했다.<br/><br/>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의 주인공, 사회적으로 성공해 어린 시절 자신에게 아픔을 준 집을 사서 말년에 그곳으로 돌아온 ‘강 노인’은 그렇게 탄생했다. 2010년에 70장 정도 쓰고는 묵혀두던 원고를 지난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넉 달 동안 머물며 다시 꺼내 완성했다고 한다. 산책길에서 본 빈 의자가 암 투병을 하는 동안 아버지가 앉아 있곤 하던 낡은 의자를 떠오르게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br/><br/>어린시절 아픔을 주었던 집에 <br/>말년에 돌아와 사는 강노인 <br/>함께 사는 뒤뜰의 꿈 풀어놔<br/><br/> 어린 시절에 자신과 동갑내기인 ‘송이 아가씨’를 모시던 아버지, 정원 한켠의 창고 같은 집에서 살았던 아버지, 송이의 생일날 나무에 그네를 설치하다가 떨어져 죽어버린 아버지…. 강 노인은 돈을 벌어 송이 집을 사들였고 뇌종양에 걸려서야 그곳, 버찌마을로 돌아왔다. 넓은 집의 울타리를 단단히 조여가며, 머리 뒤쪽에 난 종양을 견제하며 그는 홀로 그 집에 살기 시작한다.<br/><br/> ‘뒤뜰’은 골칫거리다. 산동네의 한 자락을 다 차지하는 넓은 땅을 사들였건만 관리인에게만 관리를 맡긴 사이 동네 사람들은 울타리에 쪽문을 내어 죄다 드나들고 있었다. 조무래기들이 공놀이를 하질 않나,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텃밭까지 일구질 않나….<br/><br/>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의 종양 ‘덩어리씨’에게만 좋은 일이다. 강 노인의 자기 어릴 적같이 이기적이고 지기 싫어하는 상훈이, 맑은 눈의 유리, 아빠가 흑인인 피엘 등의 아이들을 뒤뜰에서 내쫓으려 동분서주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를 재발견하며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된다. 낡은 창고 안에서 ‘아버지의 의자’와 마주한다.<br/><br/> 뒤뜰은 “시간의 뒤편에 남아 있는 개인적인 기억의 공간”이니, 결국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려면 자기 스스로 과거에 얽혀 있는 것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작가는 ‘함께 사는 뒤뜰’의 꿈도 풀어놓았다. 개발 위기에 직면한 버찌마을. 높은 담을 세우기보다는 울타리를 열어젖혀 함께 공도 차고 꽃도 키워보자는 제안을 한다. 황선미 작가는 4월8일부터 영국에서 열리는 2014 런던 도서전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그는 자신에게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세계인의 관심 속에 그는 끊임없이 두레박줄을 내리고 있다. <br/><br/>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그림 사계절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69.txt

제목: 3월 29·30일 본방사수  
날짜: 2014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2810013866147  
본문: 숲에서 건져올린 ‘시한부 삶’<br/><br/>에스비에스 스페셜 ‘숲으로 간 사람들’(에스비에스 일 밤 11시15분) 1부 ‘새 생명을 얻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숲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이 걸어온 150일간의 기록을 담았다. 신승훈씨는 6년 전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지리산으로 갔다. 매일 50㎞를 걸었다. 백완섭씨는 7년 전 위암 수술을 받고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숲에 들어와 4년째 살고 있다. 전현득씨는 삶을 마무리하려고 온 산에서 다시 살 의지를 갖게 됐다. 이들처럼 숲에서 암을 치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산에 살면서 암세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의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 숲이 지닌 놀라운 치유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아본다. 산골 마을에서 장수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숲과 건강의 관계를 알아본다. <br/><br/><br/><br/>의뢰인에게 자수 종용하는 변호사<br/><br/>드라마 스페셜 ‘괴물’(한국방송2 일 밤 11시55분) 태석(연준석)이 이성을 잃은 표정으로 꽃뱀 민아(김희진)의 목을 조른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다.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석의 아버지 창훈(김종수)이 호텔로 변호사 현수(강성민)를 보낸다. 하지만 태석을 도와야 할 현수는 자수를 종용한다. 사건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이번주 드라마 스페셜은 영화 촬영용 카메라를 써 영화에 못지않은 기법으로 제작했다.<br/><br/><br/><br/>대기업비서·해고노동자로 만난 친구<br/><br/>독립영화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한국방송1 토 밤 1시5분) 2011년 12월 개봉작. 지난해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넷팩상(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을 수상했다. 연락이 끊겼던 중학교 동창생들이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난다. 한명은 대기업 비서이고 다른 한명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당한 노동자다. 둘은 스스럼없이 어울렸던 중학교 때와 너무 다른 처지에 당황한다. 사회가 만들어놓은 장벽이 우정까지 갈라놓을까. 황철민 연출, 성수정·이혜진 출연.<br/><br/><br/><br/>순애의 지극정성에 흔들리는 유진<br/><br/>사랑해서 남 주나(문화방송 일 저녁 8시45분) 마지막회. 홍순애(차화연)는 정현수(박근형)가 입원한 사실을 알고 괴로워한다. 현수의 딸 정유진(유호정)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몰래 병문안을 간다. 정유진은 순애가 아빠를 몇 번이나 찾아와 간호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흔들린다. 아빠의 행복을 위해 둘의 사랑을 허락할까 고민한다. 정유라(한고은)는 가족들에게 김준성(윤박)을 소개한다. <이웃집 웬수>(2010) 최현경 작가가 극본을 맡고 황혼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내세워 관심을 끌었지만 시청률 15% 안팎에 그쳤다. <br/><br/><br/><br/>친구 결혼식서 사랑에 빠진 노총각<br/><br/>일요시네마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교육방송 일 낮 2시15분) 마이크 뉴얼 감독의 1994년 작품. 찰스(휴 그랜트)는 토요일이면 친구들 결혼식 들러리나 서는 노총각이다. 어김없이 친구 결혼식에 지각을 한 찰스는 하객으로 온 매력적인 여인 캐리(앤디 맥도월)에게 첫눈에 반한다. 둘은 하룻밤을 같이 보낸다. 캐리는 다음 날 “<span class='quot0'>밤을 같이 보냈으니 결혼해야 한다</span>”는 농담을 던지고 미국으로 떠난다. 석달 뒤 둘은 다시 마주친다. <br/><br/><br/><br/>살인범 잡은 앵무새 ‘미투’<br/><br/>티브이 동물농장(에스비에스 일 오전 9시25분) 살인 사건을 해결한 앵무새를 소개한다. 인도 아그라의 한 마을에서 여자와 반려견의 주검이 발견됐다. 핏자국 외에는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 사건은 점점 미궁 속에 빠진다. 그런데 깜짝 놀랄 목격자가 나타난다. 살해된 주인이 28년간 보살폈던 앵무새 ‘미투’다. 앵무새는 어떻게 범인의 얼굴을 가려냈을까.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70.txt

제목: 고품격 막장 드라마? 상상 뛰어넘는 ‘어거스트’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2710013856593  
본문: ‘고품격’과 ‘막장’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느껴진다. 특히나 안방극장에서 쏟아지는 막장 드라마에 지친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고품격 막장 드라마’를 내세운 영화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은 잘 짜인 각본에 명배우들이 합세하면 ‘질 높은 막장 드라마’도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br/><br/> 영화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의 여름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서로 소원하게 지냈던 가족들이 모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구강암에 걸린 엄마 바이올렛(메릴 스트립)은 약에 찌든데다 가족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독설가다. 교수인 큰딸 바버라(줄리아 로버츠)는 남편(이완 맥그리거)이 젊은 여자와 바람나 이혼 위기에 몰린데다 반항을 일삼는 14살짜리 딸(애비게일 브레슬린)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둘째 딸 아이비(줄리앤 니컬슨)는 모두가 버린 엄마를 돌보면서 결혼 따윈 생각도 않고 사는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종사촌인 찰스(베네딕트 컴버배치)와 사랑에 빠져 뉴욕으로 도망칠 궁리 중이다. 허영심 많은 셋째 딸 캐런(줄리엣 루이스)이 수많은 남성을 거친 끝에 골라잡은 남자는 어린 조카에게마저 마수를 뻗는 호색한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만만치 않게 복잡한 이모네 가족까지 얹힌다. 이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은커녕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기에 바쁘다. 찌는 듯한 더위가 심해질수록 가족들의 갈등도 절정을 향해 치닫는다.<br/><br/> 가족들의 상처를 후벼 파고 싸움을 유발시키는 중심인물은 바로 엄마다. “<span class='quot0'>네 아버지가 불려놓은 재산은 모두 내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가구들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싸게 넘길 테니 사라</span>”고 요구하거나, 실컷 막말을 퍼부어놓고 “상처받은 건 나”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식이다. 큰딸 바버라는 이런 엄마에게 “(암에 걸린) 엄마가 죽으면 어차피 남은 건 다 우리 것”이라고 일갈하고, 약병을 빼앗기 위해 엄마와 마룻바닥을 뒹구는 격렬한 몸싸움도 불사한다.<br/><br/> 이 영화의 무기는 가족의 숨겨왔던 충격적 비밀이 양파 껍질을 벗기듯 차례차례 드러나는 과정을 설득력 있고 긴장감 넘치게 그려낸다는 점이다. 하나의 비밀이 밝혀져 관객들이 ‘헉’ 하며 충격에 휩싸이면,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른 충격적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막장’을 보여준다. <br/><br/> 하지만 초특급 막장이면서도 이 영화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갈등을 섬세하게 포착해낸다. 아픈 엄마의 부양 문제를 둘러싼 세 딸의 갈등, 이기적이고 독설가인 엄마와 그런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빼닮은 딸 사이의 불화, 동서를 막론하고 골칫덩어리인 ‘중2병’에 걸린 딸과 이런 딸의 훈육 방식에 대한 부부간의 대립, 백수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모의 고통까지…. 막장이긴 하지만 이 영화가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br/><br/> 탄탄한 구성과 예상을 뒤엎는 전개, 터질 듯한 긴장감 사이에서도 폭소를 자아내는 위트 넘치는 대사는 원작의 힘에 기댄 부분이 많다. 원작인 트레이시 레츠의 동명 희곡은 토니상, 퓰리처상, 뉴욕비평가상을 두루 휩쓴 명작이다. <br/><br/>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명배우들의 연기도 빼놓을 수 없다. 메릴 스트립은 악마 같은 독설을 뽐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병마와 약에 찌들어 노쇠해진 엄마 역을 신들린 듯 표현해낸다. 중년에 접어든 줄리아 로버츠 역시 잔주름과 흰머리를 고스란히 드러낸 채 눈부신 연기를 펼친다. 이 두 배우가 올해 골든글로브상과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비록 수상은 못 했지만) 사실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최근 대세로 떠오른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셜록>에서의 이지적인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찌질한 백수 역에 몰입한다. 이런 ‘블록버스터급 캐스팅’ 뒤에는 배우에서 감독을 거쳐 제작자로 변신한 조지 클루니가 있다. 과연 이 막장 가족 드라마의 결말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쏟아낸 뒤의 화해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관계일까. 결말마저도 관객의 상상을 뛰어넘는다.<br/><br/>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71.txt

제목: 건보공단, 담배회사에 ‘최대 2300억’ 소송낸다  
날짜: 2014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2410013821734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내는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30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쪽은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br/><br/>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흡연피해 소송에 대한 최종 안들을 보고했다. 먼저 소송 규모는 흡연과의 관련성에 따라 피해 환자수를 추정한 결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3376억원까지 추정됐다. 공단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가장 강한 환자만 대상으로 하면 피해 규모액이 적은 대신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련성이 덜한 환자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커지되 승소 가능성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봤다. <br/><br/>　건보공단 이사들은 이 안들 가운데 승소 가능성을 크게 낮추지 않으면서 제기할 수 있는 배상액수로 최대 2302억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는 “이사들 가운데 시민단체 쪽은 금연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소송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소송 규모를 줄이더라도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사회에서 법무지원실이 소송 규모액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24~25일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구한 뒤 소송 규모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r/><br/>　소송 대상으로 삼는 담배회사는 매출액이나 분담금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안 변호사는 또 “소송 규모를 확정하면 26일쯤이면 공단 쪽 대리인 모집 공고를 진행할 것이다. 소송 제기 시점은 4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br/><br/>　건강보험공단의 흡연 피해 소송에 앞서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모두 4건의 흡연피해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담배회사의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졌다. 현재 대법원에 2건, 고등법원에 1건이 계류 중이다. 나머지 1건은 원고로 나선 흡연자가 항소를 포기했다.<br/><br/>　하지만 건보공단은 흡연 피해자 개인이 낸 소송과는 달리 흡연과 건강의 관계를 입증할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광범위한 진료자료를 가지고 있어 승소 가능성은 한층 높다. 미국에서도 흡연 피해자 개인의 소송은 이기지 못했지만, 주정부 등 공공기관이 나선 소송에서는 사실상 승소했다. 1994년에는 플로리다주 등 46개 주정부가 연합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998년 11월 담배회사들로부터 2060억달러(약 220조원)를 배상받기로 합의했다. <br/><br/>　건보공단 쪽은 “정부나 건보 통계 자료에서도 2012년 기준 한해 5만8000여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고, 흡연은 각종 암의 발병 가능성을 2.9~6.5배까지 높인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흡연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데 이를 직접 관리하는 공단이 나섰기 때문에 흡연 피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밝혔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72.txt

제목: 암컷 및 어린대게 마구 잡아 유통한 조직 무더기 적발  
날짜: 2014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2410013821514  
본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잡거나 팔지 못하는 암컷 및 어린 대게를 마구 잡아 울산과 경북 포항 등지에 유통시켜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주 등이 잡은 암컷 대게 등을 자루에 넣어 바닷속에 넣어두면 유통책들이 새벽에 바닷속 자루를 끌어올려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br/><br/>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암컷 및 어린 대게 4만500마리(시가 1억원어치)가량을 불법으로 잡아 유통시켜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경북 포항과 울산지역 선주 및 유통책 21명을 붙잡아 김아무개(34)·김아무개(53)·양아무개(26)씨 등 포항 유통책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울산 유통총책 이아무개(44)씨와 소매책 강아무개(33)씨 등 나머지 18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포항지역 선주 서아무개(28)씨 등 2명을 수배했다. <br/><br/>암컷대게(빵게)와 길이 9㎝ 이하의 어린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와 자원증식을 위해 연중 포획 및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br/><br/> 구속된 포항 유통책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배된 선주 서씨 등이 조업을 나가 암컷 대게 등을 잡은 뒤 자루에 넣어 바닷속에 넣어둔 채 입항하면, 서씨 등한테서 그 장소를 전해 듣고 새벽시간에 바닷속 자루를 끌어올려 준비한 차량에 싣고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유통총책 이씨에게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밤중에 야산에서 암컷대게 등을 전달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화훼단지 안에서 비닐하우스 1채를 빌려 비밀수족관을 설치하고 암컷대게 등을 보관하면서 소매책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br/><br/>경찰은 이들의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암컷및 어린 대게 2200여마리를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울산 북구 정자 앞 1㎞ 바다에 풀어줬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 가운데 구속된 포항 유통책 김씨를 비롯한 3~4명이 포항 및 울산지역 폭력조직과 연관됨에 따라 이들 폭력조직이 암컷대게 등의 포획 및 유통에 관여했는지,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흘러 갔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br/><br/>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73.txt

제목: ‘갑상선암 과다검진’ 정부가 따져본다  
날짜: 2014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2310013813437  
본문: 갑상선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병·의원의 과다검진 때문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국가 차원의 검진 지침 마련에 나섰다.(<한겨레> 3월20일치 10면 참조)<br/><br/>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건강 검진을 받을 때 갑상선암을 검사해 진단하는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립암센터에 맡겼다고 밝혔다. 암센터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검진 지침을 만들 계획이며,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검증한 뒤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갑상선암의 증가 폭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현상이어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과다검진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연구 용역에서 확인되면 적절한 검진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통계를 보면, 갑상선암은 1999~2011년 사이 한해 평균 증가율이 23.7%로 암 가운데 가장 높다. 전체 암의 한해 평균 증가율은 3.6%이다. <br/><br/> 이에 문제의식을 지닌 몇몇 의사들이 18일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 출범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에서는 갑상선을 일으킬 만한 심각한 자연재해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등이 없이 갑상선암이 급증했다. 검진에서 초음파 검사 등 과다진단이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74.txt

제목: 암 투병하며 쓴 한 사회주의자의 유언장  
날짜: 2014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2310013812953  
본문: 오래된 희망, 사회주의 <br/>마이클 해링턴 지음, 김경락 옮김 <br/>메디치미디어·2만1000원<br/><br/>미국의 사회주의자 마이클 해링턴은 “암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자 책을 쓰기 시작했다. 1989년 집필을 마쳤고 그해 숨졌다. <오래된 희망, 사회주의>는 그렇게 25년 전 쓰여졌다. 탈냉전 시대의 목전에서 그는 왜 다시 사회주의에 주목해야 하는지 역사적 분석을 통해 입증하려 했다. 그는 20세기 사회주의가 비틀거린 원인부터 톺아봤다. 과거 사회주의자들은 “현대 사회가 가진 특징인 ‘사회화’ 그 자체가 가진 정치 경제적 측면의 모호성” 속에서 혼란을 느꼈고,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흐름인 ‘세계화’에 대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br/><br/> 미래의 사회주의는 어떨까. 그는 우리가 인식 못하는 가운데 새 문명으로 전환되는 “느린 종말의 시기”에 있다고 봤는데, 이때 절실한 게 바로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도덕성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보다 훨씬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사람들이 “출생·인종·종교에 따라 정해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해야 한다. 과거 사회주의 운동은 실패했지만, 자본주의를 조금씩 변화시킨 힘은 그 안에서 나왔다. “<span class='quot0'>연대와 자유, 사회 정의를 이룰 체제</span>”로 사회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게 낡은 일이 아닌 이유다.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25년 전 그의 진단과 대안 모색이 2014년 한국 사회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은 비극이자 희망이다. <br/><br/>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75.txt

제목: [한겨레 프리즘] 문간방 사내의 자존심 / 이재성  
날짜: 2014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2310013812574  
본문: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윤흥길의 소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문간방에 세들어 사는 사내가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서툰 강도로 변신해 주인집 안방을 털려다 실패하는 에피소드로 절정을 이룬다. 사내는 바깥주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수술비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터였다. 이웃의 고통을 모른 체했다간 큰 재앙을 맞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남몰래 속울음 삼키는 이웃이 어디 한둘일까마는, 오늘은 몇백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 한다.<br/><br/> 상계동에 사는 유아무개(57)씨는 2012년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암으로 입원한 아내와 말다툼한 뒤 혼자 홧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게 화근이었다. 가산은 이미 탕진한 상태였고, 대학생인 딸의 등록금도 내야 했다. 그는 벌금 대신 140일의 노역을 택했다. 하루 몸값 5만원, 시급 2000원이다. <br/><br/> 이에 반해 수백억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국외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은 미납 벌금 249억원 대신 49일의 노역을 택했다. 하루 몸값 5억원, 시급 2000만원이다.<br/><br/> 두 사람의 몸값이 1만배나 차이나는 이유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 부과하는 노역의 하루 일당이 형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판사 마음인데, 결과적으로 부자들을 봐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br/><br/> 우리나라에서도 1985년에서 1992년에 걸친 형법 개정 과정에서 ‘일수벌금제’라는 이름의 제도 개혁을 검토한 적이 있다. 벌금 대상자의 경제 상황에 맞는 하루 벌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당시 여론도 찬성 쪽이 더 많았다. 그런데 금융실명제 등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 핀란드가 1921년, 스웨덴이 1931년에 시행한 이 제도를 법무부와 검찰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거부하고 있다.<br/><br/> 일명 ‘환형유치’라고 불리는 강제노역형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역장이 따로 없다. 일반 재소자들과 같은 교도소를 써야 한다. 유씨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당했다. 일반 재소자들은 집에 전화라도 걸 수 있는데 우린 전화도 걸 수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죄가 더 큰 징역형에는 집행유예가 있는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는 것도 모순이다.<br/><br/> 감옥에 갈 만큼 중죄는 아니라서 벌금형에 처하는 것인데,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중죄인 취급을 받는다. 이는 ‘사회 안에서의 교화’라는 벌금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학습 효과’를 높일 뿐이다. 말이 노역이지 일거리가 없어 멍하니 지내는 경우도 많다. 이참에 말뿐인 노역형을 없애고 사회봉사명령이라는 사회내 제재로 전면 대체해야 한다.<br/><br/> 유씨처럼 가난해서 교도소에 갇힌 사람은 2009년 4만3199명 등 한해 평균 4만명가량이나 된다. 이토록 심각한 문제임에도 제도가 바뀌지 않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과소대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별생각 없이, 혹은 모순을 알면서도 환형유치를 시행해온 검사와 판사, 법 개정을 미룬 국회의원들 모두 반성해야 한다.<br/><br/> <아홉 켤레…>의 문간방 사내는 도둑질을 하면서도 “이래 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오”라며 자존심을 세운다. 도둑질에 실패한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자존심의 상징이라도 되는 양, 늘 반질반질하게 닦던 아홉 켤레의 구두만 남겨둔 채…. 어딘가에서 진짜 강도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문간방 사내들의 마지막 자존심만은 짓밟지 말아야 한다. <br/><br/>이재성 사회부 사건데스크 sa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76.txt

제목: 인천시의회 흡연피해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  
날짜: 2014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2010013785058  
본문: 인천시의회는 19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역시의회에서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br/><br/>시의회는 “보험공단이 흡연과 질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흡연자가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 높다”며 “인천에서도 흡연으로 매년 2766억원 이상의 의료비와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시민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br/><br/>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보험공단의 소송 진행을 촉구하는 한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r/><br/>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77.txt

제목: 환경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생략하고 불산누출 처벌 ‘뒷걸음’  
날짜: 2014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2010013794741  
본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파수꾼인 환경 관련 규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암 덩어리”, “원수” 등 규제를 죄악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전부터 이미 무너져내리고 있었다. 경제 관련 규제 완화의 득실은 대개 기업 사이에 나뉘지만, 환경 관련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생태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충분한 토론이 없는 속전속결식 규제 완화를 둘러싼 우려가 높다.<br/><br/>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마지막 날 경유를 연료로 쓰는 택시에도 화물차·버스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2015년 9월부터 지급한다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엘피지 택시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막아온 경유 택시 도입을 허용한 것이다.<br/><br/>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진 택시업계에 정부·여당이 건넨 선심의 대가는 대다수 국민이 치를 수밖에 없다. 학계의 분석 결과를 보면 경유 택시는 엘피지 택시보다 미세먼지를 3.5배, 질소산화물(NOx)을 50배 많이 배출한다. 질소산화물은 화학반응을 일으켜 인체 건강에 특히 유해한 초미세먼지로 변하는 물질이다.<br/><br/>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잇따른 화학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회는 화학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했다. 경영진이 수익 못지않게 안전에 관심을 두도록 하려는 게 입법 의도다. 그런데 산업계와 산업 관련 부처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자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기업이 화학 사고로 업무상 사망자가 발생해도 처음엔 경고만 하고, 해당 업체가 2년 만에 낸 첫 사고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0.8%까지만 내면 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내놨다.<br/><br/>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일컬어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도 거센 규제 완화 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다. 환경부는 13일 사업자가 실시계획 단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실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무제한 내릴 수 있던 환경부의 보완 요구를 2회로 제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br/><br/>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엔 부담금을 물리고 적게 배출하는 차엔 보조금을 지급해 국가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저탄소협력금제는 고수익 중대형차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국내 자동차업계와 산업 관련 부처의 반대로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몰렸다. 산업계에서는 최근 규제 완화 바람에 편승해 시행일이 1년도 남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두고도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이런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 완화로 한국이 2009년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 감축 약속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br/><br/> 특히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 규제 완화는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를 근린상업·준공업지역으로 넓혀 상업시설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막개발에 따른 주민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span class='quot0'>이명박 정부에서 강을 향하던 삽이 박근혜 정부에선 그린벨트 지역과 농지와 백두대간의 산림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span>”고 짚었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7일 기자회견에서 “<span class='quot1'>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은 돈 많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업자가 보고, 막개발과 환경파괴의 피해는 지역 주민과 국민들한테 떠넘겨진다</span>”며 “<span class='quot1'>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 규제 완화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다</span>”고 비판했다. <br/><br/>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78.txt

제목: 한국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 세계 평균의 무려 ‘10배’, 왜?  
날짜: 2014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1910013779227  
본문: “국내에서 30년 만에 갑상선암 발생이 30배나 늘었고, 2011년 기준 국내 갑상선암 발생률은 세계 평균의 10배나 됩니다. 이는 세계 의학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신상원 고려대 의대 교수)<br/><br/>“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갑상선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으로, 이름만 암이지 사실상 암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망률이 낮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를 하면 오히려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큰 갑상선암을 불필요하게 진단해 낸 결과인데, 이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br/><br/>한국의 암 발생 순위를 보면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바로 갑상선암이다. 남성들의 경우에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아주 딴판이다. 갑상선암 발생이 가장 적은 나라인 영국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갑상선암은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갑상선암 발생이 많은 일본과 미국도 각각 9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성은 일본, 미국, 영국 등 3개 나라 모두에서 10위권에 들지 못한다. <br/><br/>2010년 국제암연구소 자료에서는 한국 여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갑상선암 발생률이 59.5명으로 세계 평균인 4.7명에 견줘 10배를 넘는다. 남성의 경우에도 10.9명으로 세계 평균인 1.5명에 견줘 7배가 많다.<br/><br/>왜 한국만 유독 갑상선암 발생이 많은 것일까? 생활습관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br/><br/>관련 전문가들은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 즉 갑상선암에 대한 과다 검진을 주된 이유로 지목한다. 의료기관이 검진센터의 수익을 노리고 불필요한 검진까지 권유한 결과인데,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br/><br/>이를 보다 못한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지난 18일 신상원ㆍ안형식 고려대 의대 교수, 서홍관 국립암센터 의사, 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 등 8명의 의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갑상선암 과다 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의학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치료가 불필요한 갑상선암 환자를 의료계가 만들어내고 있다며, 당장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br/><br/>과학적 근거도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유독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아야 할 까닭이 없다고 설명한다. 방사능 누출 사고나 심각한 자연재해 등과 같은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과다 진단 말고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신상원 고려대 의대 교수는 “미국에서도 갑상선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과다검진이 주된 이유라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미국의 5.5배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는 갑상선암에 대한 과다진단이 미국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은 물론 국공립병원까지 건강검진센터를 모두 만들어,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br/><br/>어쨌건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는 이득이 아닐까? 의사연대 쪽은 갑상선암 등 몇몇 암의 경우 조기 발견의 효과가 의학적으로 없다고 본다. 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갑상선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명 이하여서 사실 암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도 갑상선암 환자 10만명당 사망률이 0.7명으로 매우 낮고, 미국이나 영국은 각각 0.5명, 0.4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한다고 해서 생존율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암 검진 지침은 물론 우리나라 지침에도 갑상선암 조기검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r/><br/>되레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불거진다. 불필요한 진단으로 암 환자가 되면, 암을 포함해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후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물론 수술 중에 목소리에 관련되는 신경을 건드려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의사는 “<span class='quot0'>다른 나라였다면 갑상선암 진단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로 평생을 살면서 공포감과 경제적 손실을 겪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br/>과다검진 저지연대를 만든 의사들은 이제는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낸 성명서에서 “국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중단시키는 대책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79.txt

제목: 전북대병원 ‘무료 건강강좌 들으세요’  
날짜: 2014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1910013782646  
본문: 전북대병원이 환자와 시민에게 다양한 건강강좌를 대부분 무료로 진행한다. 병원에서 여는 건강강좌는 당뇨, 간암, 만성신부전 교실, 암환자를 위한 웰빙교실 및 요가, 재활교실 등이다.<br/><br/> 당뇨교실(유료)은 매주 수요일 본관 지하 1층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열린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뇨병의 원인과 증상, 약물·식사·관리 요법 등 당뇨 예방과 효율적인 치료를 위한 의학정보를 제공한다. 암환자를 위한 웰빙교실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암센터 5층 교육실에서 열린다. 암환자 프로그램의 하나로 요가교실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과 목요일 오후 4시 이뤄진다.<br/><br/> 또한 교양으로 동양고전을 이해하기 위해 인문학 강좌도 무료로 열고 있다. 송명석 전북서예한문학원장이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강좌를 맡는다. 19일에는 공자의 사상을 강의했고, 4월 맹자의 사상, 5월 중용의 이해 등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20일 오후 2시 병원 지하 1층에서 노인의 ‘성기능 장애와 배뇨 장애’를 주제로 강의를 하는 등 노인성질환을 주제로 매달 시민강좌를 연다.<br/><br/> 정성후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지역 거점병원으로서 도민들의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정기적인 강좌뿐만 아니라 유방암과 호흡기 질환,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부정기적으로도 건강강좌를 준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063)250-2258. <br/><br/>박임근 기자 okah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80.txt

제목: [사설] 과잉진료, 갑상선암만의 문제 아니다  
날짜: 2014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1910013782090  
본문: 주변에 왜 이리도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많은지 그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 환자는 지난 30년 동안 30배나 늘었고, 2011년 기준으로 국내 갑상선암 발생률은 세계 평균의 10배나 된다. 세계 의학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8명의 의사가 밝히고 나섰다. 의료기관이 검진센터의 수익을 노리고 치료가 불필요한 갑상선암 환자를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자신의 직업적 이해와 상충하고 병원에서 입지를 줄일 터인데도, 용기있는 발언을 해준 의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br/><br/> 과잉진료가 갑상선암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척추 수술 환자의 경우도 1999년 1만5000명 정도 하던 것이 2010년 10만368명으로 10년 남짓한 사이에 6배 넘게 증가했다. 척추질환이 마치 유행성 독감처럼 번진 것이다. 내성을 키우는 항생제와 주사제 남발은 많이 알려진 얘기다. 제왕절개 분만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단순 타박상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권유하는 것도 다반사다.<br/><br/> 모두 돈벌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병원, 심지어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학병원에서도 ‘매출’을 늘리는 의사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사들로서는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 검사라도 하나 더 받게 하는 게 병원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의 인센티브도 올리는 길이 된다.<br/><br/> 문제는 이들이 돈만 강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갑상선암의 경우 불필요한 진단으로 암 환자가 되면,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후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혈압 강하제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생명을 단축할 위험도 높일 수 있다. 심지어 합성 비타민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는 길목에서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이해관계가 불길한 길항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다.<br/><br/>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 영리화 정책은 돈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투자를 해 환자를 대상으로 무제한의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과잉진료가 더욱 남발될 건 불을 보듯 뻔하다.<br/><br/> 정부는 우선 의료 영리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도를 다시 짜야 한다. 당장 시급한 건 과잉진료를 일삼는 병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다. 명백한 과잉진료 행위를 남발하면서도 개선의 노력이 없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급여 삭감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때로는 병원 인증도 취소해야 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81.txt

제목: [아침 햇발] 규제망국론의 망국적 위험 / 박순빈  
날짜: 2014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1810013770072  
본문: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은 독특하다. 아주 복잡한 의제를 칼로 두부 썰듯 간단하게 정리한다. 표현을 바꿔가며 같은 말을 끈질기게 반복하는 것도 큰 특징이다. 요즘 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규제개혁을 강조한다. ‘원수’, ‘암 덩어리’ 등 거친 표현이 난무하지만,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규제망국론이라 할 수 있다. 요즘 발언만 보면, 규제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른 느낌이다.<br/><br/> 그러나 규제망국론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더구나 박 정부가 규제망국론을 꺼낼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집계로는, 박 정부 출범 뒤 규제완화를 부르짖는 동안에도 등록 규제가 한 달에 평균 100여건씩 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성공 사례로 내세운 ‘규제개혁’을 거꾸로 되돌린 경우도 있다.<br/><br/> 오락가락 규제정책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초래한다. 그런 혼란 가운데 하나가 정부와 출판업계가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며 다투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값 파동이다. 올해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부는 검인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예정가격을 평균 70%가량 올리려고 하자 급하게 제동을 걸었다. 인상 억제를 권고하는 동시에 2월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었다. 그리고 교육부는 올해 교과서값을 예정가보다 50~60% 낮추라는 명령을 예고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은, 박 대통령의 시각으로 보면 규제 혁파가 아니라 복원이다.<br/><br/> 출판사들은 조정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맞설 태세다. 2010년 8월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교과서값 자율화 정책을 도입해 놓고서 이에 역행하는 규제를 만들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출판업계의 주장이다. 겉만 보면 출판업계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교과서값 규제에 관한 정부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정부가 ‘통합규제정보포털’(better.go.kr)에 올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이야기>라는 정책자료집을 보면, 교과서값 자율화의 기대 성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제 출판사는 교과서 개발에 투자를 늘려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발행사 간에 경쟁도 촉진되었다.’<br/><br/> 하지만 규제개혁 차원의 가격자율화는 학부모의 교과서값 부담만 키웠다. 자율화 이후 통계청이 집계한 고등학교 교과서값은 28.7%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6%보다 8배나 높다. 참고서 가격지수는 0.02% 떨어진 것으로 봐서 종이값 등 불가피한 원가변동 요인으로 교과서값 인상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여기에다 또 한꺼번에 70%가량 올리겠다고 하니 교육부의 가격인상 통제는 당연하다.<br/><br/> 규제는 ‘규칙과 제도’의 줄임말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시장 참가자들 간의 상호의존을 조직하는 수단으로 규제는 꼭 필요하다. 규제가 없으면 시장은 야만과 탐욕이 판치는 정글이 될 수밖에 없다. 규제는 총량으로 더 많거나 더 적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져야 할 것은 규제의 목적이 타당한지, 또 규제 설계에서부터 적용까지 공정성이 있는지 여부다. 목적은 공익적이어야 하며, 규제를 없애거나 바꾸는 작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br/><br/>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은 기업 편향적이다. 기업활동을 돕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목소리만 반영하고 있다. 탐욕스런 경제권력에 포획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력은 차라리 규제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규제망국론을 되풀이하는 것이야말로 망국적 위험을 야기한다. <br/><br/>박순빈 논설위원 sbpark@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82.txt

제목: [이상수의 고전중독] 한국 관료의 여우적 본질  
날짜: 2014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1710013758040  
본문: 노나라 군주가 공자를 법무부 장관(大司寇)으로 기용하기 위해, 당시 세 실권자인 삼환과 회의를 앞두고 현인인 좌구명에게 물었다. “<span class='quot0'>과인이 공자에게 정치를 맡기기 위해 삼환과 상의하려 합니다.</span>” 좌구명이 말했다. “공자는 개혁가입니다. 개혁가가 정치를 맡으면 개혁 대상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세도가들과 상의해서 무슨 결론이 나겠습니까?” 군주가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좌구명이 답했다. “주나라에 여우가죽옷과 양고기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여우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여우와 가죽에 대해 상의를 했고, 최고급 양고기 요리를 위해 양과 고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우들은 첩첩산중으로 달아났고, 양들은 깊은 숲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 사람은 5년 동안 양고기 요리를 맛도 못 봤고, 10년 동안 가죽옷을 구경도 못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의 대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임금께서 공자를 기용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개혁 대상인 삼환과 상의하겠다니, 이는 여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여우와 상의하고, 양고기 요리를 만들기 위해 양과 토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군주는 삼환과 상의하지 않고 직접 공자를 불러 장관 자리에 앉혔다. <태평어람>에 실린 이야기다. 공자가 노나라 장관에 기용됐다는 대목은 설화이지만, 개혁 대상과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는 뜻의 ‘여호모피’(與狐謀皮) 혹은 ‘여호모구’(與狐謀裘)란 말은 개혁이 왜 실패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 여우를 호랑이로 바꿔 ‘여호모피’(與虎謀皮)라고 하기도 한다.<br/><br/>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은 이를 익살스럽게 “<span class='quot1'>개혁 인사를 구하면서 기득권 세력에게 묻는 것은, 첩을 들이면서 아내와 상의하는 것과 같다</span>”(求才能問於貴寵, 如納妾而謀於婦也)고 했다. 썩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br/><br/>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 덩어리”이니 “싹 다 들어내”고, “불타는 애국심”으로 경제를 살릴 것을 관료들에게 주문했다. 이 정권의 규제 개혁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조차 회의적이다. 여우와 가죽에 대해 상의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br/><br/>이상수 철학자<br/><br/>blog.naver.com/xuande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83.txt

제목: 3월 17일 출판 새책  
날짜: 2014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1610013747361  
본문: 넥스트 리더십 “독일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치 리더십이다.” 독일에서 정치학과 사회학, 언론학을 공부한 뒤 일간지 기자를 거쳐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에 재직 중인 김택환 교수가 한국의 다음 국가 모델로 지목한 독일의 총리 8명과 한국 대통령 9명의 리더십을 비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메디치·1만5000원. <br/><br/>채식보감 김길우 제인병원 한방진료원장이 <동의보감>에서 찾아낸 128가지 약용식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설파한다. 식물별 효능과 효과적인 섭취 방법, 증상별 적용법까지 설명한다. 먹거리를 통한 체질전환인데,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단다. /책읽는수요일·1만8000원. <br/><br/>암 없는 세상 “암은 일종의 비타민 결핍증이다.” 미국 다큐멘터리 작가 겸 영화감독 에드워드 그리핀이 추적한 항암 비타민 B17, 이를 치료제로 개발한 레이어트릴을 둘러싼 정치학. 레이어트릴로 암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는 지은이가 그걸 막는 제약업계 카르텔과 정치권력의 이면을 파헤친다. 석혜미 옮김/포북·2만8000원. <br/><br/>책으로 행복한 교실 이야기 초등학교 교단생활 33년, 그중 25년간 담임을 맡았던 주영 교사가 체험한 행복한 교실. 교육운동가 이오덕과 함께한 독서와 글쓰기 교육, 삶을 가꾸는 참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 합의성, 일의 위계성, 일관성, 변화성, 독창성 등 그의 학급 운영 원칙도 참고할 만하다. /행복한아침독서·1만3000원. <br/><br/>모험본능을 깨워라 세계적인 아웃도어용품 ‘잔 스포츠’를 만든 히피 출신 사업가 스킵 요웰의 가슴 뛰는 성공 스토리. 야외활동을 즐기며 자아를 발견하자는 취지로 설립한 잔 스포츠. 사촌 머레이와 그의 여자친구 잔, 스킵이 잔 스포츠를 무에서 정상까지 쌓아올린 영감 넘치는 인생 여정. 이채령 옮김/푸르메·1만5000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84.txt

제목: 노엄 촘스키·만화가 강풀·우주인 이소연 등 잇단 참여…‘노란봉투의 기적’은 계속된다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1410013740413  
본문: 지난 5일 노엄 촘스키(왼쪽 사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서울 종로구 옥인동 아름다운재단 사무실에 자신의 저서<메이킹 더 퓨처(Making the Future)>를 보내 왔다.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다며 현금 47달러도 전달했다.<br/><br/> 아름다운재단은 ‘노란봉투 캠페인’이 33일 만에 2차 모금 목표치를 달성해 누적 모금액 9억4000만원을 모았다고 14일 밝혔다. 1만7757명의 시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다. 손글씨 편지와 함께 4만7000원을 보내 화제를 부른 가수 이효리(35)씨에 이어 영화감독 임순례(54)씨와 배우 김부선(53)씨, 만화가 강풀(40·가운데)씨와 주호민(33)씨, 프로레슬러 김남훈(40)씨 등 유명인의 동참도 이어졌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우주인 이소연(36·오른쪽)씨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50달러를 보내왔다.<br/><br/> 시민들의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7개월된 딸이 암으로 투병중이라는 한 시민은 “아이가 완쾌해 살아갈 세상은 더 정의로웠으면 좋겠다”며 모금에 참여했다. 한 6살 어린이는 자신의 전 재산인 2500원을 봉투에 담아 보냈다. 4만7000원어치 우표를 보낸 교도소 수감자도 있었다. <br/><br/>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4월30일까지 3차 모금을 진행한다. 서경원 아름다운재단 캠페인팀장은 “<span class='quot0'>노란봉투가 한 때의 열풍으로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span>”라고 호소했다. 모금은 온라인 펀딩 플랫폼인 ‘개미스폰서’ 누리집(socialants.org)에서 진행 중이다. <br/><br/>서영지 기자 yj@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85.txt

제목: 스타 셰프 전성시대의 빛과 그림자  
날짜: 2014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1310013731066  
본문: 지난해 12월30일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요리사 윤정진씨의 사망 소식이었다. 그의 나이 마흔다섯. 음식문화에 관심 있는 이라면 그의 이름 석자는 낯설지 않다. 한국방송 <6시 내고향>에 출연해 전국의 숨은 우리 먹거리를 소개했고, 한식 보편화에도 힘쓴 요리연구가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또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요리사 ㅈ씨가 보낸 것이었다. 생존율이 높지 않은 희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다. ‘조금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맞서볼 생각입니다.’ 그도 40대다.<br/><br/>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일상이고, 연예인만큼 인기를 끄는 스타 셰프가 탄생하는 세상이다. 두 요리사의 가슴 아픈 소식은 먹거리가 문화로 자리잡은 이 시대, 요리사들의 작업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br/><br/> 호텔이나 일부 고급 레스토랑은 빼자. 외식업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음식점과 레스토랑의 요리사들은 최소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다. 이른 새벽 장을 보고 점심과 저녁 장사를 치러낸 다음, 청소까지 마치면 밤 11시가 훌쩍 넘는다. 하루종일 지지고 볶는 동안 좁은 주방에 가득 찬 연기를 마신다. 제대로 된 환기시설은 매우 중요하다. 부천성모병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김용현 교수는 “<span class='quot0'>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연기를 마시면 기관지 질환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폐암 발병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span>”고 말한다. 역학조사 결과도 있다. 환기가 안되는 주방이나 방 안에서 일한 인도와 중국의 여성들을 조사해보니 비흡연자였는데도 폐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고 한다. 단지 돈을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 행세를 하는 ‘진상’ 손님도 요리사들에겐 적잖은 스트레스다.<br/><br/> 남들이 먹을 때 일하는 이들은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다. 4대 보험이나 산재 처리는 꿈도 못 꾼다. 고용은 늘 불안하다. 그야말로 ‘장사’가 안되면 언제 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른다.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결성은 상상도 못한다. “<span class='quot1'>사각지대도 이런 사각지대는 없을걸요.</span>” 한 요리사는 말했다. 지금 마흔 줄에 들어선 요리사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20~30대를 보냈다. 매년 수백명씩 졸업하는 조리학과 학생들은 한번쯤 스타 셰프를 꿈꾼다. 하지만 누구나 연예인 못잖게 유명한 임정식이나 레오 강처럼 될 수는 없는 법이다.<br/><br/>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국의 유명 셰프를 초청하거나 한식재단을 만들어 화려한 국외 이벤트를 여는 일이 부쩍 늘었다. 그 돈이 다 제대로 쓰였는지 지금 따져묻지는 않겠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만큼, 이제는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요리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맛을 소비하는 데 집착해왔다면 맛을 생산하는 이들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다. 밥 짓는 이가 행복해야 먹는 이도 복을 받는다.<br/><br/> ㅈ씨는 요즘 페이스북에 자신이 먹는 항암밥상을 올리고 있다. 암환자와 가족들이 찾아와 친구가 됐다. 그의 밥상에 달걀이 빠져 있자 질 좋은 단백질이 중요하다며 유정란을 보낸 이도 있었다. 그는 그 유정란으로 음식을 만들어 또 페이스북에 올린다. 4월이면 자신의 블로그에 항암 레시피와 암환자들이 갈 만한 건강식당도 소개할 예정이다. 암과 싸우면서도 그는 천생 요리사다. 얼마 전 그는 문자를 또 보내왔다. ‘좀 괘씸한 병이지만 잘 구슬려야죠. 남은 인생도 맛있게 즐겁게 살고 싶어요.’ <br/><br/>박미향 기자 m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86.txt

제목: 20여년 폐유 부은 ‘검은손’ 4천만달러로 씻길까  
날짜: 2014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1310013730803  
본문: 가난하고 힘없는 아마존 사람들이 세계 2위의 석유 메이저와 싸우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다.<br/><br/> 텍사코는 에콰도르 국영 석유회사(페트로 에콰도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1964~1992년 에콰도르 북동부에 있는 라고아그리오 지역에서 석유를 채굴했다. 시추 과정에서 수천만ℓ의 폐유가 나왔다. 텍사코는 800여개의 웅덩이를 파고 찌꺼기 기름을 버렸다. 20여년 동안 폐유 7100만ℓ가 폐기됐고 원유 6400만ℓ가 유출됐다. 텍사코는 미국 등에선 석유·가스 채굴 때 나오는 유독물질을 걸러내는 기술을 이용했지만 에콰도르에선 그러지 않았다. 텍사코는 1배럴당 3달러를 아끼려고 200만㏊의 밀림에 폐기물을 그냥 버렸다.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에콰도르 원주민 세코야족의 에데르 파야과헤 의장은 텍사코가 길에 석유를 뿌리고 쓰레기를 시냇물에 버리는 모습을 수없이 봤으며 비가 오면 기름이 섞인 물을 버릴 수 있게 펌프를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어머니의 땅’ 곳곳이 오염됐다”며 “내가 만약 날개가 있다면 어디론가 날아가겠지만 현재로선 갈 곳도 떠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암, 피부질환, 백혈병, 기형아 출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br/><br/> 원주민 3만여명은 ‘아마존 보존 연합’을 결성하고 1993년 텍사코 본사가 있는 미국 뉴욕의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미 에콰도르에서 철수한 텍사코지만 환경훼손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텍사코는 1998년 4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내기로 에콰도르 정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새 발의 피’에 불과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br/><br/> 2001년 셰브론은 텍사코를 인수해 세계 2위의 석유회사가 됐다. 원주민들은 더 강대해진 초국적기업과 싸워야 했다. 셰브론은 미국이 아니라 에콰도르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스템이 취약하고 부패가 많은 에콰도르 법원이 더 유리하다는 게 셰브론의 속내라고 원주민들은 생각한다. 원주민들은 2003년 다시 에콰도르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수백만달러의 소송 비용을 동원한 셰브론은 원주민들의 노력을 좌절시킬 만한 ‘법적 지뢰’를 곳곳에 깔았다. 셰브론은 텍사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에콰도르 국영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2011년 2월엔 원주민을 대변해온 미국 변호사 스티븐 돈지거 등이 에콰도르 판사, 환경컨설팅 회사한테 뇌물을 줬다며 고소했다. 셰브론은 돈지거 변호사 등한테 마피아 따위를 다스리는 ‘조직범죄 단속법’(리코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 셰브론이 리코법 소송을 낸 지 며칠 뒤 에콰도르 법원은 환경 복구와 원주민 치료비로 2주 안에 96억달러를 셰브론이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95억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원주민들의 기나긴 투쟁도 마무리되는 듯했다.<br/><br/> 그러나 셰브론이 깔았놓은 지뢰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지난 4일 미국 뉴욕지방법원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돈지거 등이 에콰도르 소송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에콰도르 법원의 배상 판결을 집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찌꺼기 기름으로 더럽혀진 아마존의 검은 물에 원주민들의 피눈물이 흐른다. <br/><br/>이유주현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87.txt

제목: 두 갈래 송전선 지나는데 또 송전탑…‘송주법 보상’은 안돼  
날짜: 2014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1210013719130  
본문: 탁 트인 들녘은 바다를 품고 있었다. 충남 당진 사람들은 이 들판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다. 국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쌀 생산량이 이들의 자랑이다. 그러나 당진시 신평면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시름에 빠졌다. 그 살진 땅에 이미 500여기의 송전탑이 심어져 있는데도 한국전력공사와 정부는 고압 송전탑을 더 놓겠다고 했다. ‘북당진~신탕정 변전소 간 송전선로 설치 사업’에 따라 신평면 등 일대에 345㎸ 송전탑 40여개가 내년까지 설치된다. 현재 한전은 송전선 경로를 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 역시 경남 밀양에서처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대한 걱정이 컸다. <br/><br/><br/><br/><br/>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 주민들 <br/>“밀양보다 심각한 상황” 하소연 <br/> <br/>신평면에 송전탑 설치 소문 <br/>주택 거래 뚝, 땅값도 40% 하락 <br/>전자파탓 무인헬기 방제도 못해 <br/>“늙어서 농사 못 지으면 땅 담보로 <br/>연금 받아 생활하려 했는데 막막” <br/><br/><br/><br/><br/> 최근 <한겨레>가 찾아간 신평면 주민들은 송주법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드러냈다. 신평면 한정리에 사는 최춘호(53)씨는 집과 땅이 예정된 송전선로로부터 30m가량 떨어져 있다. 345㎸ 송전선로 좌우 60m는 송주법에 따라 ‘주택매수 청구 지역’이고, 한전과 협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축사·농지 등 ‘재산적 보상 지역’은 13m 이내다. 최씨는 송주법에 따라 집(대지 포함 661㎡)은 보상받게 되지만, 5289㎡의 땅은 제외된다. 최씨는 “집을 뺀 나머지 땅은 대책이 없다. 버리는 땅”이라고 한탄했다. “<span class='quot0'>나이가 더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금융권에서 땅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span>”<br/><br/>예정 선로에서 250m가량 떨어져 보상 범위에서 벗어난 신평면 도성리의 ㅅ연립주택 주민들도 고민이다. 10개동(상가 포함)으로 이뤄진 ㅅ주택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270가구가 모여산다. 주민 이미숙(57)씨는 “이곳이 면내보다 주거비가 훨씬 싸서 빈곤·고령층이 주로 산다. 건강이 걱정되더라도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br/><br/> 주택과 재산에 대한 보상이 충분치 않을 공산이 큰데다 이미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평면의 ㄷ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은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돈 뒤로 매매 문의 자체가 사라지고, 거래량이 40~50% 줄었다. 땅값도 40% 가까이 떨어졌다”고 말했다.<br/><br/> 주택과 재산 외에 송전탑 전자파 피해에 대한 보상은 송주법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도 크다. 쌀 농사를 위해 임대한 논과 송전탑 사이의 거리가 200m인 안동일(50)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1'>일하는 동안 전자파에 많이 노출될 텐데 이에 대한 구제책이 법에는 없어 걱정</span>”이라고 말했다. <br/><br/> 전자파 영향으로 무인헬기 항공방제가 어려워질 우려도 크다. 신평면 신당리 이장 김천래(56)씨는 “전파에 예민한 헬기가 장애를 일으켜 떨어질 수 있다. 1대당 2억원짜리에다 한 번 떨어지면 최소 수리비가 700만원인데 어떻게 쓰겠나. 직접 논에 약을 치는 건 노인들에게 무리다. 생산량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br/> 송전탑이 끼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불안은, 지역 주민들의 경험에서 비롯한다. 지난해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는 전국의 기존 송전선로 건설지역 답사를 바탕으로 주민 재산·건강 피해 증언을 공개했다. 자료집을 보면,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이후 소·돼지 등 가축이 유산을 하거나 기형으로 태어나고, 곡식 수확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진술했다. 땅 매매가 끊기고 금융기관에서도 땅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지역의 농협조합장은 “765㎸ 송전선로 인근 300m까지는 땅을 담보로 대출해주지 않는다. ‘재산상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와 팔봉면, 전남 여수 봉두마을 등 암 환자가 많은 송전탑 지역(<한겨레> 2013년 10월15일치 1·8면 참조)의 소식은 다른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br/><br/> 게다가 송주법 공포일(2014년 1월29일) 2년 이전에 송전탑이 들어선 곳과 154㎸ 송전선 지역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석문면 이장단의 임관택(55) 전 협의회장은 “재원 문제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을 텐데 정부가 무능력·무책임한 것 같다. 송주법 제정 취지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석문면 교로2리에서 3㎞ 떨어진 당진화력발전소는 8기의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여기에서 시작한 765㎸·154㎸의 두 갈래 송전선은 브이(V)자로 이 마을을 지난다. <br/><br/> 교로2리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보면 765㎸ 선로까지의 거리는 약 300m, 154㎸ 선로까지는 약 400m다. 그러나 거리 기준을 떠나서 765㎸는 1999년 들어선 탓에 송주법 적용이 안되고, 154㎸는 아예 보상 규정이 없다. 게다가 내년까지 345㎸ 송전선마저 들어서게 된다. 임관택 이장은 “우리 마을은 밀양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송전탑을 추가로 세운다는 건 사실상 주민들은 다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br/><br/> 결국 당진에서는 기존 송전선로 지역 주민들과 새로 송전선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각 주민대책위들의 주도로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에는 당진 지역의 시민·사회·환경·여성·농업인단체 110여개도 참여한다. 이들이 이달 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주최한 범시민대회에는 500여명이 참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이미 당진시에는 송전탑 521기가 있어 전국 2위다. 그런데도 국가의 송배전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수백개가 더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br/><br/>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충남에는 평야지대가 많아 송전선로가 논밭과 마을 바로 곁을 지날 수밖에 없어 건강·재산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또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부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주민들이 환경정의에 어긋난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r/><br/>당진/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88.txt

제목: 병 주고 약 주는…뗄 수 없는 삶의 동반자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1110013707131  
본문: 지금은 훤칠한 우리 아들 유진이가 어렸을 적엔 꽤 통통한 편이어서 내가 가끔 “어이, 호빵맨~” 하고 짓궂게 놀릴 때면, 아들은 미생물 연구자인 내게 “아빠는 세균맨이야!” 하며 반격하곤 했다.<br/><br/> 우리는 세균 또는 박테리아 하면 병원균의 나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세균, 고균, 원생생물, 곰팡이처럼 우리 몸과 지구의 여러 환경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미생물은 건강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이고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해로운 미생물은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br/><br/> 노벨상 수상자 조슈아 레더버그는 2000년에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기고한 글에서 ‘인간은 선이고, 미생물은 악’이라는 편견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인체의 특정 서식처에 사는 미생물들과 그 유전체 전체를 통틀어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미생물체)이라고 부르며 기주(숙주)와 미생물을 합쳐 ‘슈퍼유기체’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왜 그런지는 최근 생명과학 연구를 통해 점차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br/><br/> <br/><br/> 인체 속의 미생물 ‘소우주’ <br/><br/>우리 몸에는 수백, 수천 종의 미생물이 몸을 이루는 세포 수보다 열 배나 많게 터 잡아 살며, 무게로 1㎏ 남짓이나 된다. 인간 유전체의 수백 배에 이르는 유전정보를 지닌 우리 몸속의 미생물 세상은 그야말로 ‘소우주’라 할 수 있다.<br/><br/> 거의 무균 상태로 태어나는 인체에 공생하는 미생물은 삶의 동반자이다. 유전적 요인과 함께 생리와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의 대부분은 인간과 함께 진화해온 미생물에 의한 것이다. 피부, 눈, 입, 소화기, 호흡기, 비뇨생식기 등에 사는 미생물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 특히 장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사실상의 장기’라 불릴 만큼 소화뿐 아니라 몸의 대사와 면역 시스템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br/><br/> 미생물은 건강뿐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따르면, 초파리는 같은 종류의 미생물이 든 먹이를 먹은 초파리와 교미하기를 선호해 종 분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고, 프로바이오틱 세균을 섭취한 생쥐는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은데 장내 미생물 정보가 부교감신경 중 가장 큰 미주신경을 통해 뇌에 전해져 심리 상태가 바뀐 탓이라고 한다.<br/><br/> 평시에는 내 삶의 반려자이자 협력자이다가 내가 약해지면 나를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 내 몸의 미생물이다. 우리 몸과 미생물 간의 미묘한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 병이 나타나는 것이다. 미생물이 일으키는 흔한 질병으로는 당장에 충치, 풍치, 여드름, 종기, 패혈증 등을 떠올릴 수 있고, 배리 마셜 박사가 헬리코박터균을 스스로 마셔 이 균이 위염을 일으킬 수 있음을 증명한 유명한 일화도 떠오른다.<br/><br/> 세포보다 10배 많고 무게는 1kg <br/>몸 대사·면역 책임지는 ‘제2 장기’ <br/>질병은 몸과 미생물 균형 깨진 것<br/><br/>대변 속 미생물은 장염 치료 특효 <br/>여러 암, 비만, 정신질환에도 관여 <br/>발효식품은 이로운 미생물 천국 <br/>‘미생물유전체 프로젝트’ 기대 커 <br/><br/>대변요법, 똥을 약으로 쓴다? <br/><br/>반면에 장내 미생물은 질병 치료에도 쓰일 수 있다. 몸의 여러 안식처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세력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살아가지만 가끔 그 질서가 흐트러질 때도 있다. 예컨대 감기에 걸리거나 피부에 종기가 나서 항생제를 복용하면 장내에 사는 많은 미생물도 대량학살을 당하고 그들 간의 균형이 무너지기도 한다. <br/><br/> 이때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 같은 특정 세균이 자칫 장내 미생물 세계를 군림할 정도로 과다 증식하면 환자는 심한 장염을 앓게 되는데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br/><br/> 그런데 최근 북미와 유럽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환자의 장에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 ‘추출물’을 넣어주면 항생제를 투여할 때보다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도 잘 듣지 않는 속수무책에 대변 미생물은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br/><br/>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똥은 병을 치유하는 약물일까, 몸이 배출한 장 점막세포 등 조직의 일부일까? 때마침 흥미로운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지난해 ‘사람 대변을 약물로 간주해 규제하겠다’고 밝혀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곧 입장을 바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즉 ‘대변 미생물 이식’을 통해 미생물로 다른 질환도 치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품질과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혼합물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불러일으키고 있다.<br/><br/> 현대 과학·의학은 염증성 장질환, 당뇨, 류머티스 관절염, 아토피, 천식 같은 면역질환뿐 아니라 여러 암과 비만, 그리고 자폐증,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서도 미생물을 공범으로 지목하기 시작했으니, 여러 미생물 요법이 의료에 널리 쓰일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br/><br/><br/><br/> 부분과 전체: 나무와 숲을 함께 보기 <br/><br/>인간처럼 동물의 몸도 수많은 미생물의 보금자리이다. 소 같은 초식동물은 식물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미생물 덕분에 풀만 뜯어 먹고도 살 수 있다. 한편에선 미생물이 먹이를 분해하면 온실가스인 메탄이 만들어져 방귀나 트림으로 배출되는데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양서류를 위협하는 항아리곰팡이병이 창궐해 지구촌의 개구리가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다.<br/><br/> 식물도 뿌리, 잎 또는 체내에서 여러 미생물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식물을 괴롭히는 병원성 곰팡이와 난균이 있는가 하면, 식물 생장촉진 세균은 공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정하고, 인 같은 미네랄을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식물 호르몬을 생산하고, 길항물질을 만들어 병원균 생육을 억제하며, 병해충 면역력이 증대되도록 돕는다. <br/><br/> 또다른 곳의 미생물은 어떤가? 우리가 즐겨먹는 김치와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을 비롯해 이로운 미생물이 많다.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김치가 익는 과정에 어떤 미생물이 관여하고 어떤 유전자와 발효산물에 의해 김치의 맛이 결정되며 우리 몸에는 어떻게 좋은지에 관한 비밀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토양과 개펄은 가장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어우러진 생명자원의 보고이다. 한 줌 흙에는 수만 종 미생물이 수백억 마리나 살고 있어 바이오산업에 쓰일 만한 유전자원이 무진장 숨어 있다.<br/><br/> 몇 년 전부터 미생물 연구 분야에서는 ‘제2의 인간 유전체’로 불리는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 전체를 분석하는 ‘인체 미생물체 프로젝트’(HMP) 등이 수행되었고, 다양한 환경과 생태계에서 새로운 미생물을 찾아내려는 연구도 여럿 이뤄져 왔다. 이런 연구는 갈수록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유전체 염기서열 해독·분석 기술,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생물정보학과 시스템생물학 등과 더불어 급속히 전진하고 있다.<br/><br/> 우리나라에서도 ‘21세기 프론티어 미생물 유전체 활용기술 개발사업’에 이어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생물 유전체 프로젝트가 출범할 예정이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 공동의 연구사업으로 기주-미생물 상호작용 연구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연구들에서 어떤 놀라운 발견과 발명이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br/><br/>김지현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교수<br/><br/>※ 과학웹진 사이언스온에 실린 글을 필자가 줄이고 다듬어 다시 썼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89.txt

제목: 3라인 언니 10년 불임, 난 유방암, 숙영이는 백혈병…  
날짜: 2014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0710013677348  
본문: ▶ <탐욕의 제국> 홍리경 감독은 두 해 전 겨울 한 병원에서 ‘민숙 언니’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다.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인터뷰하는 게 잘하는 행동인지 늘 고민한다.” 홍 감독의 두려움을 날려준 건 박민숙씨의 유쾌함이었습니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크게 웃는 박민숙씨는 서울 종로구 인디스페이스 등 전국 영화관 20곳에서 상영중인 <탐욕의 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br/><br/><br/><br/>박민숙(41)씨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7년은 가장 ‘찬란한 시기’였다. 박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91년 6월4일 기흥공장에 입사했다. 전라남도 보성에서 농사짓는 부모 밑에 태어난 ‘시골 소녀’는 직장인이 된 뒤부터 돈을 벌고, 태어나 처음 스케이트를 타고, 여수·경주·설악산 등 전국으로 여행을 다녔다. 행복한 순간은 기억으로만 남지 않았다. 필름카메라며 폴라로이드카메라로 사진도 부지런히 찍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씨는 그 시절의 사진들을 보여줬다. <br/><br/> “이 언니한테 <또 하나의 약속> 개봉했으니 보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최근 위암이 전이돼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 언니도 바로 옆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불임이었다가 10년 만에 임신을 했고요. 아, 이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숙영이랑 찍은 사진이네요. 일 잘해서 내가 조장일 때 고과를 잘 줬는데….”<br/><br/> 찬란한 시절이 담긴 사진 속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씨의 행복했던 과거는 사진으로만 남았다. 지금 그는 과거보다 아픈 현실을 곱씹고 있다. 박씨는 6일 개봉한 다큐멘터리영화 <탐욕의 제국>의 주인공 중 한 명이다. 지난달 개봉한 <또 하나의 약속>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씨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면, <탐욕의 제국>은 삼성반도체 등에서 일하다 병을 얻어 숨진 황유미, 이윤정, 황민웅씨의 유족과 아직 투병중인 한혜경, 박민숙씨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담은 다큐멘터리다. 1991년부터 7년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퇴사 뒤 유방암에 걸린 박씨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인물인 셈이다.<br/><br/> <br/><br/> ‘삼성’ 메리트 보고 고3 때 입사<br/><br/> －<또 하나의 약속>에 이어 <탐욕의 제국>이 개봉된다. 두 작품을 보고 난 뒤 소감이 남달랐을 것 같다.<br/><br/> “<또 하나의 약속>은 황유미씨 가족의 고통을 공감하기 쉽게 잘 풀어낸 것 같다. 연기자들의 열연도 만족스러웠다. <탐욕의 제국>은 홍리경(감독)씨가 우리 같은 피해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진정성 있게 찍어줬다. 제작 당시 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온몸의 털이란 털이 다 빠졌다. 힘들 때였는데 ‘언니 한마디만 해요’ 하면서 편하게 말을 걸어줘 마음속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을 수 있었다. <탐욕의 제국>을 보면 삼성 본관 앞으로 나아가려는 고 이윤정씨 운구차를 경찰과 삼성 쪽 사람들이 막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운구차는 본관 앞에서 좌회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황상기 아버님이 급히 운구차 쪽으로 뛰어가서 절대 좌회전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달려가는 안타까운 발걸음이 너무 가슴 아팠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할 때 처음 본 아버님은 날 대신해 싸워준 든든한 분이었다.”<br/><br/> －두 영화는 주제만이 아니라 제작, 개봉 과정까지 닮았다. 제작비는 소셜펀딩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기부를 받았다. 두 작품 모두 개봉은 했지만 접근성이 높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에는 걸리지 못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상영관 수가 줄었고, <탐욕의 제국>은 서울의 한 씨지브이(CGV)에서 열기로 했던 언론시사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br/><br/> “영화가 나오고 개봉한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다. 지난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탐욕의 제국> 시사회가 열렸다. 그때만 해도 극장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우리 이야기를 보러 올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 관객이 적으면 수익도 안 날 테니 영화관 상영도 어렵다고 봤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 개봉 뒤 상영관 축소 배정이 문제가 되자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이 나서서 도와주고 영화를 보러 와줬다. 보러 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대단했고, 이제야 세상이 긴 잠에서 깨어나는가 싶다.”<br/><br/>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는 언제 입사했나?<br/><br/> “벌교상업고등학교 정보과 3학년 때 학교에서 삼성반도체 생산직 원서 낼 사람을 찾았다. 생산직이라는 말이 마음엔 걸렸지만 ‘삼성’이란 메리트가 있으니까 손을 들었다. 시골에서 벗어나고 싶고, 빨리 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싶었던 나를 위한 선물이란 생각에 덥석 잡았다. 1991년 6월4일이 입사일인데 이 날짜는 영원히 못 잊는다. 우리에게는 입사일이 생일 다음으로 중요한 날이었다. 입사 1년, 2년 때마다 ‘고생했다’면서 생일만큼 서로 축하하고 선물 줄 정도였으니까.” <br/><br/> －기흥공장에서 한 일을 설명해달라.<br/><br/> “3개 조가 새벽 6시~오후 2시, 오후 2시~밤 10시, 밤 10시~새벽 6시까지 8시간씩 3교대로 일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이다. 처음 3년은 한 달에 하루 쉬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쉬는 날에는 잠만 잤다. 공장에서 일할 땐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 들어간다. 나는 6인치 웨이퍼를 만드는 3라인에서 일했다. 이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겨 넣으면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웨이퍼 가공 공정을 팹(FAB·Fabrication)이라고 부른다. 내가 일한 3라인 2층은 엔드팹(End-FAB) 공정인데, 1층에서 반도체를 만든 과정을 한 번 더 약식으로 반복한다. 1~16베이로 나눠진 2층에서 나는 주로 4베이 에칭(etching)을 맡았다. 에칭은 웨이퍼를 코팅한 뒤 표면을 가스나 용액으로 깎아내는 과정이다. 코팅된 웨이퍼를 기계에 넣고, 에칭이 끝난 웨이퍼를 꺼내는 일을 모두 수동으로 진행했다.”<br/><br/> 3라인은 2011년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반도체 노동자 중 처음 산재를 인정한 고 황유미·이숙영씨도 근무한 곳이다. 1988년 건설된 3라인은 기흥공장에서 가장 오래된 라인이다. 삼성전자 쪽은 ‘안전보건공단에서 3라인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백혈병 유발요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span class='quot0'>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하거나 그 발병이 촉진됐다고 볼 수 있다</span>”며 삼성이 주장한 역학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r/><br/><br/><br/><br/>1991년 입사해 7년 동안 <br/>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근무 <br/>퇴사 뒤 불임 고통에 유방암 발병 <br/>그가 일한 3라인은 백혈병으로 <br/>숨진 황유미씨도 일한 곳이었다 <br/> <br/>“우리 이야기를 보러 극장에 <br/>올 사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br/>영화가 나오고 개봉된 건 기적 <br/>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아니라 <br/>사람이 먼저인 회사가 됐으면” <br/><br/><br/> <br/><br/> 기적같이 생긴 아이가 염색체 이상<br/><br/> －1998년 6월4일 퇴사한 이유는?<br/><br/>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가 오면서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았다. 1998년 5월께 내가 조장이었는데 과장이 일 잘하는 사람부터 못하는 사람까지 순서대로 명단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 그 명단의 일부가 잘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내가 뭐라고 쟤들 인생을 좌지우지하나. 그럴 수가 없어서 못 버티고 퇴사를 했다. 입사 이후로 계속 여기 아니면 먹고살 데 없다고 생각하며 삼성에 애정을 쏟았는데 막상 나간다니까 아무도 잡지 않았다.”<br/><br/> －회사 다니거나 그만둔 직후 몸에 이상은 없었나?<br/><br/> “일할 때는 생리통이 심했다. 다른 동료도 그랬다. 생리불순인 사람도 많았다. 결혼한 뒤엔 4년간 피임을 안 하는데도 애가 안 생겼다. 불임클리닉도 다녔는데 검사를 해도 남편도 나도 이상은 없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 인공수정을 한 번 했는데 기대가 너무 큰 나머지 실패했고 좌절이 어마어마했다. 시험관 아기 하는 사람들 보니 너무 힘든 것 같아서 한방 치료를 받던 중 기적같이 아이가 생겼다. 그런데 그 아이가 18번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 11주에 자연유산이 됐다. 이해가 안 됐다. 친언니들 애도 잘만 낳고 가족 중에 유전병 경력이 없었는데. 애가 안 생겨서 상처와 아픔이 컸다. 애 낳아 기르는 친구들 보면 힘들어서 친구들도 잘 안 만날 정도였다.”<br/><br/> －그래도 지금은 세 아이의 엄마가 됐다.<br/><br/> “첫애를 그렇게 보내고 큰애를 가졌는데, 임신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첫애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양수검사를 받았고 그래도 애가 나올 때까지 손이며 발이 제대로 붙어 있을지 걱정했다. 둘째도 피검사에서 다운증후군 수치가 높게 나와서 태어날 때까지 마음을 못 놓았다. 세 아이 모두 남편 말고는 낳을 때까지 임신한 줄 몰랐다.”<br/><br/> －유방암은 언제 알았나?<br/><br/> “친언니가 암 종양이 1㎝ 미만인 초기 유방암이었다. 그때 충격 때문에 항상 자가진단을 했는데, 2011년에 좁쌀 같은 게 만져졌다. 의사가 처음엔 괜찮다고 해서 3개월 뒤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0.3㎝였던 종양이 1.2㎝로 커지고 하나가 더 생겼다. 2012년 2월13일 병원에서 1기 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7일 오른쪽 가슴을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청천벽력 같았다. 아직 30대 후반이고 이제 막 4학년, 2학년 된 아들 둘에 늦둥이가 겨우 돌 지났는데 앞이 캄캄했다.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못 보고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이 땅으로 푹 꺼지는 것 같았다. 제발 아이들 커가는 모습만 지켜보게 해달라고 많이 울며 기도했다.”<br/><br/> －불임·유방암이 반도체 공장 근무 경력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br/><br/> “둘째 두돌 무렵에 삼성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다. 같이 일하던 숙영이가 백혈병에 걸려 죽었다고. 태어나서 나보다 어린 사람이 죽은 것도 처음이고, 1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두고 어떻게 죽었을지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힘들었다. 그런데 그 후배가 ‘같이 일했던 애도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더라’고 했다. 그 아이가 유미였다. 그래도 산 사람은 계속 살아지면서 잊고 있었는데, 아프기 한 해 전에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유미와 숙영이가 나왔다. 방송을 보고 알아보니 같이 일했던 과장님도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주변을 수소문해 보니 내가 일한 3라인 2층에 1베이 친구도 7년 불임, 2베이 언니도 10년 불임, 같은 베이에 있던 사람은 뇌종양, 9베이 숙영이는 백혈병, 11베이 친구는 갑상선암이었다더라.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것과 죽음이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불임도 그 때문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제보는 많이 아파야만 가능한 줄 알았다.”<br/><br/> <br/><br/> 유방암 산재 인정 소식이 준 희망<br/><br/>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에 연락한 게 2012년 유방암 발병 뒤였다.<br/><br/> “처음에 유방암 걸리고 언니도 유방암이 있었으니까 병원에서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했다. 그런데 언니도 나도 안젤리나 졸리가 갖고 있었다는 브래커(BRC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추적 60분>에서 본 이종란 노무사에게 연락을 했다. 이 노무사가 ‘유전이 아니라 15년 전 일한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백혈병도 해결이 안 되는데 암이 어떻게 될까 싶어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년 말에 다시 연락이 왔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한 뒤 유방암에 걸려 숨진 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이 됐다면서.”<br/><br/> 2012년 12월15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 반도체에서 4년9개월간 근무하고 유방암에 걸려 숨진 김아무개(당시 36살)씨의 산재를 승인했다.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한 첫 결정이었다. 박씨도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span class='quot1'>벤젠 등 발암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고 발암요인이 되는 야간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를 했다</span>”며 산재를 신청했다. <br/><br/> 반도체산업 여성 노동자의 생식·보건 문제는 심각하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 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08~2012년 진료비 청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20대 여성 노동자는 같은 나이대의 일하지 않는 여성에 견줘 자연유산이 약 57%, 생리불순이 약 54%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도체산업과 노동자의 생식·보건 문제의 관련성은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다. <br/><br/> 박씨는 자신과 동료가 겪은 생식·보건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 건강권 모임’에 참여해 근무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반올림으로 제보해 온 비슷한 아픔을 가진 전 삼성 반도체 노동자한테 “네 잘못이 아니다.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라”라며 힘을 주는 것도 박씨의 역할이다.<br/><br/> －삼성과 우리 사회에 무엇을 바라는가?<br/><br/> “우리가 원하는 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거다. 회사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밝히고 사과해도 늦지 않았다. 피해자들인 우리가 증거 아닌가. 우리의 알 권리를 존중해 투명하게 알렸다면, 안전한 보호구와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줬더라면 이렇게 상처가 얼룩지지 않았을 텐데. 열심히 일한 대가가 병이었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회사와 세상이 되길 바란다.”<br/><br/> 반올림에 직업병 피해자라며 제보해온 삼성전자 계열사 직원은 193명. 그 가운데 73명이 숨졌다. 그러나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산재가 인정된 것은 황유미·이숙영씨의 죽음이 산재라고 본 2011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3명의 산재가 인정됐고, 3명이 1심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일과 병의 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산재제도 아래에서 박씨의 바람은 아직 먼 이야기일지 모른다. <br/><br/>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90.txt

제목: 3월 7일 인사  
날짜: 2014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0610013666250  
본문: ⊙ 중소기업청 <전보> △생산기술국장 최철안 <승진> ◇과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박선국<br/><br/>⊙ 한국감정원 <전보> △기획조정실장 홍성훈 △경영관리˝ 정찬윤 △부동산공시처장 이희원 △부동산통계˝ 김양수 △의정부지점장 임명수 △천안˝ 이성영<br/><br/>⊙ 재외동포재단 △위원장 박관용 ◇위원 △강봉석 곽채기 구성진 권병하 권순범 김수정 남부원 석균쇠 유혁수 이선민 이진영 장소원 장철균 한경희 <br/><br/>⊙ 한국경제신문 △상무이사 논설실장 정규재 △기획조정실 전략기획국 부국장대우 기획부장 겸 디지털전략부장 김수찬 <편집국> △부국장 겸 오피니언부장 심재문 △부국장 유근석 △부국장대우 기사심사부장 홍성호 △건설부동산부장 김철수 △생활경제부장 윤성민 △지식사회부장 이재창 △증권부장 조주현 △국제부장 박성완 △편집부장 공상익 △편집부 부장대우 전장석 △선임기자 박기호 최승욱 △건설부동산부 부동산전문기자 박영신 △문화부 엔터테인먼트전문기자 유재혁 <광고국> △광고기획부장(파견) 이건호 △광고마케팅3부 부장대우(파견) 김태철<br/><br/>⊙ 토요경제신문 △편집국장 김태혁 △광고˝ 박동화<br/><br/>⊙ 한국국제대 △학사부총장 강인언 △대외부˝ 이우상 ◇처장 △기획 강태경 △교무 강영구 △학생 김영환 △입학홍보 이수익 △사무 이강두 △입학홍보부 박정배 △사무부 김현희 △평생교육원장 전은우 △산학협력단장 손은일 <br/><br/>⊙ 온종합병원 △암센터장 최경현 △진료협력˝ 이성용 △홍보실장 정상렬 △QI˝ 공창봉 <br/><br/>⊙ 외환은행 △해외사업그룹 전무 권오훈 △기획관리그룹 ˝ 주재중<br/><br/>⊙ 신영자산운용 <승진> △자산운용본부장 허남권 ◇이사 △자산운용본부 김대환 △마케팅본부 김송우<br/><br/>⊙ LG디스플레이 △사내이사 김상돈 <br/><br/>⊙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최병태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91.txt

제목: ‘침묵의 살인자’ 석면 위험성 온몸으로 알리고…  
날짜: 2014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0610013666916  
본문: “내가 석면암이라니….” 청천벽력이었다.<br/><br/> 2008년 6월 가슴이 답답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그에게 내려진 최종 진단명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85~95%가 석면먼지 노출에 의해 발병해 흔히 ‘석면암’으로 불리는 희귀병이면서 현대 의학으로 손을 쓸 수 없는 불치병이다.<br/><br/> 최형식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당시 13년째 아파트 경비일을 하고 있었다. 석면 공장 근처에는 가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는 자신에게 석면암이 찾아온 것을 이해할 수 없던 그는 인터넷을 뒤져 석면 전문가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찾았다. 백 교수 소개로 당시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그의 주거 이력을 조사한 결과 유력한 원인이 드러났다. 그가 살던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서 1980~1990년대 대규모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석면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먼지였다.<br/><br/> 재개발 사업 현장 근처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석면암에 걸린 그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직업병만이 아닌 환경병 유발원으로서의 석면에 더욱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한겨레> 2008년 10월13일치 14면) 병든 그의 몸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환경성 석면 피해’의 살아 있는 증거였다. 그는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br/><br/> 그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문을 두드려 석면 추방 운동에 뛰어들었다. 석면을 주제로 한 토론회 때마다 온 몸으로 석면의 위험성을 증언했고, 석면 피해 현장이면 어디든 찾아가 피해자들의 조직화에 힘을 쏟았다. 2009년 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서는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이끌었다. 이런 노력은 2010년 환경성 석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는 이듬해 이 법에 의해 구제 혜택을 받은 첫 번째 환경성 석면 피해자가 됐다.<br/><br/> 시민사회단체들은 그의 이런 노력을 기려 지난해 12월 환경피해자대회에서 감사패를 수여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상을 받으러 올 수 없었다. 악성중피종이 복막에서 흉막으로 전이되면서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중피종암 환우들이 대신 받아온 감사패를 전달받은 지 76일 만인 지난 3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먼지는 그의 마지막 호흡을 거뒀다. 향년 72.<br/><br/> 최 대표와 함께 활동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악성중피종 환자는 통상 1년 안에 숨지는데, 선생은 5년 넘게 버티면서 많은 일을 하셨다. 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중피종 피해자를 돌봐줄 모임이 잘돼야 한다’며 걱정했다”고 애도했다. 그는 5일 경기 광명시 광명밀레니엄파크에 안치됐다.<br/><br/>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92.txt

제목: 석면추방네트워크 최형식 대표 사망‘침묵의 살인자’ 위험성 알린 ‘혼신의 5년’  
날짜: 2014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0610013666914  
본문: “내가 석면암이라니….” 청천벽력이었다.<br/><br/> 2008년 6월 가슴이 답답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그에게 내려진 최종 진단명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85~95%가 석면먼지 노출에 의해 발병해 흔히 ‘석면암’으로 불리는 희귀병이면서 현대 의학으로 손을 쓸 수 없는 불치병이다.<br/><br/> 최형식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당시 13년째 아파트 경비일을 하고 있었다. 석면 공장 근처에는 가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는 자신에게 석면암이 찾아온 것을 이해할 수 없던 그는 인터넷을 뒤져 석면 전문가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찾았다. 백 교수 소개로 당시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그의 주거 이력을 조사한 결과 유력한 원인이 드러났다. 그가 살던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서 1980~1990년대 대규모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석면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먼지였다.<br/><br/> 재개발 사업 현장 근처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석면암에 걸린 그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직업병만이 아닌 환경병 유발원으로서의 석면에 더욱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한겨레> 2008년 10월13일치 14면) 병든 그의 몸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환경성 석면 피해’의 살아 있는 증거였다. 그는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br/><br/> 그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문을 두드려 석면 추방 운동에 뛰어들었다. 석면을 주제로 한 토론회 때마다 온 몸으로 석면의 위험성을 증언했고, 석면 피해 현장이면 어디든 찾아가 피해자들의 조직화에 힘을 쏟았다. 2009년 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서는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이끌었다. 이런 노력은 2010년 환경성 석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는 이듬해 이 법에 의해 구제 혜택을 받은 첫 번째 환경성 석면 피해자가 됐다.<br/><br/> 시민사회단체들은 그의 이런 노력을 기려 지난해 12월 환경피해자대회에서 감사패를 수여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상을 받으러 올 수 없었다. 악성중피종이 복막에서 흉막으로 전이되면서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중피종암 환우들이 대신 받아온 감사패를 전달받은 지 76일 만인 지난 3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먼지는 그의 마지막 호흡을 거뒀다. 향년 72.<br/><br/> 최 대표와 함께 활동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악성중피종 환자는 통상 1년 안에 숨지는데, 선생은 5년 넘게 버티면서 많은 일을 하셨다. 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중피종 피해자를 돌봐줄 모임이 잘돼야 한다’며 걱정했다”고 애도했다. 그는 5일 경기 광명시 광명밀레니엄파크에 안치됐다.<br/><br/>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93.txt

제목: ‘아마존의 검은 손’ 끝내 심판 못하나  
날짜: 2014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0510013654518  
본문: 아마존의 ‘검은 눈물’은 언제 멈출까.<br/><br/> 아마존 환경오염 책임을 물으며 미국 석유 메이저 셰브론에 맞서온 에콰도르 원주민의 20년 법정투쟁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원주민의 변호인단이 에콰도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와 판사들한테 뇌물을 줬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에콰도르 법원은 셰브론의 유전 개발로 아마존 열대우림이 오염됐다며 2011~2013년 진행된 1~3심 재판에서 각각 86억달러, 190억달러, 95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br/><br/>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4일(현지시각) 아마존 원주민 변호인단이 뇌물을 써 에콰도르 법원에서 승소했다며 이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셰브론이 제기한 소송에서 셰브론의 손을 들어줬다고 영국 <비비시>(BBC)가 보도했다. 원주민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br/><br/> 루이스 캐플런 뉴욕 연방지법 판사는 “<span class='quot0'>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span>”며 원주민 변호인단이 재판을 위해 30만달러를 불법 동원했다고 판결했다. 캐플런 판사는 지난 2011년 에콰도르 1심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셰브론이 에콰도르 영토 밖에서 배상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셰브런 편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미국 항소법원과 대법원은 미국이 에콰도르의 법 집행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캐플런의 판결을 뒤집었다. <br/><br/> 이번에 셰브론이 이긴 소송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에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변호인단의 ‘도덕성’을 겨눈 것이다. 셰브론은 에콰도르 1심 판결이 나오기 직전인 2011년 2월 뉴욕 법원에 ‘조직범죄 단속법’(리코법)을 적용해 원주민 변호인단을 처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셰브론은 환경오염 정도를 조사한 환경컨설팅회사 직원들, 원주민 재판 진행을 위한 모금 후원자, 이 사건을 맡았던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변호인단이 피해 규모를 부풀리고 자금 모금 과정에서 사기와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리코법은 범죄 혐의자 강제 소환, 재산 몰수 등 초강경 규정을 담은 범죄조직 소탕법이다. 이 때문에 셰브론이 피해자를 되레 조직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으로 몰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br/><br/> 2001년 셰브론에 합병된 텍사코는 1964~1992년 에콰도르 북동부의 라고아그리오 지역에서 원유 채굴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유독성 폐수 680억ℓ를 그냥 버렸고, 1700만갤런의 원유를 유출했다. 환경단체인 ‘아마존 워치’는 오염된 강물과 토양 탓에 이 지역 원주민들이 암 발병, 기형아 출산, 피부·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린다고 보고했으나 셰브론은 이미 오염물질을 제거했다고 버텼다. 5개 부족으로 구성된 3만여명의 원주민은 1993년 텍사코가 있는 뉴욕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10년 동안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됐다. 2002년 뉴욕법원이 에콰도르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결정해 주민들이 2003년 에콰도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br/><br/> 아마존 워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에콰도르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선 전혀 관련이 없다”며 “오늘의 판결은 셰브론이 에콰도르인들과 그 지지자들을 녹초로 만들기 위해 60개의 법률회사와 수천여명의 법률 전문가들을 이용해 어떻게 횡포를 부리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br/><br/>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94.txt

제목: 75살이상 임플란트 비용, 건보서 50% 지원  
날짜: 2014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0510013655005  
본문: 오는 7월부터 75살 이상 노인들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진료비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된다. 임플란트의 경우 한 개 시술하는 데 평균 140만원가량이 들어 환자가 내야 할 돈은 여전히 70만원가량에 이르는 탓에 경제적 여력이 되는 노인들만 이번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65살 노인부터 적용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br/><br/> 보건복지부는 5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5살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플란트의 경우 전체 진료비에서 환자가 내야 할 돈의 비율을 50%로 결정했으나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나 치아 부위 등은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5월에 결정하기로 했다. <br/><br/> 복지부 관계자는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먼저 하는 것이며, 환자 부담률은 틀니처럼 50%로 하기로 했다. 또 적용 대상은 75살부터 시작해 2015년 70살, 2016년에는 65살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65살 이상 노인부터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재정 등의 문제로 올해에는 75살 이상만 적용하기로 했다.<br/><br/> 이에 대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span class='quot0'>임플란트의 경우 비용이 매우 고가인데 환자가 내야 할 돈이 진료비의 절반이나 된다면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 노인들은 오히려 차별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또한 혜택 대상이 65살 이상에서 75살 이상으로 크게 축소되는 것이어서 공약 후퇴</span>”라고 말했다. <br/><br/> 이날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대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는 약값의 5%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의 경우 한 달 약값이 기존 약 450만원에서 23만원으로, 레블리미드캡슐은 6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게 됐다.<br/><br/>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후두암이나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치료인 인공성대 삽입술과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도 각각 올해 2분기와 4분기부터 보험 적용을 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들이 내야 할 돈은 전체 진료비의 50~80%가 될 전망이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95.txt

제목: [왜냐면] 유성 희망버스는 복수노조법 개정의 시작입니다 / 장하나  
날짜: 2014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0510013656008  
본문: 2011년 7월1일, 수많은 기대와 우려를 안고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민주노조 운동의 오랜 주장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노동3권 중 하나인 단결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복수노조법은 오히려 사용자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의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동시다발로 직장폐쇄-경비용역 투입-조합원 개별복귀-친기업 노조 설립-민주노조 와해라는 순서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작동했습니다. 게다가 민주노조가 소수노조가 된 이후에는 친기업 노조와 온갖 차별을 일삼으며 민주노조를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한 위법적 행위(부당노동행위)들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던 복수노조법은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법으로 전락했습니다.<br/><br/> 현대기아차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유성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9년 유성기업 노사는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암연구소에서도 2급 발암 물질로 인정한 심야노동 없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를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사합의를 유성기업 사용자는 지키지 않았고 2011년 5월18일, 주간연속 2교제 시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완성차업체인 현대기아차의 지원을 받은 유성기업 사용자가 노조파괴를 시도했습니다. 공격적인 직장폐쇄, 경찰병력 및 경비용역 투입, 친기업 노조 설립 등으로 이어지는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어김없이 작동되었습니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절차에도 어긋난 부당한 징계를 당했고 심지어 경비용역들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크게 다쳤지만 경찰은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지원을 받은 친기업 노조가 설립되어 교섭권을 빼앗겼으며 이후로도 사용자는 노조 간 차별로 민주노조를 탈퇴하라는 강요 및 협박을 일삼았습니다.<br/><br/> 하지만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온몸을 던진 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지켜냈습니다. 도합 280일이 넘는 홍종인 아산지회장의 고공농성, 그리고 1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정훈 영동지회장의 옥천 광고탑 농성과 더불어 수많은 투쟁들은 3년 가까이 계속되었고 친기업 노조로 넘어갔던 조합원들이 다시 민주노조에 가입하면서 소수노조가 되어 빼앗겼던 교섭권을 결국 되찾아왔습니다.<br/><br/> 이렇게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파괴 과정과 사용자의 횡포로 인한 노조 간 차별, 친기업 노조 설립 뒤 노동자 사이의 갈등, 그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현행 복수노조 폐해의 백화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15일 유성으로 가는 희망버스가 다른 많은 과제와 함께 유성기업 사태의 본질적 문제 중 핵심인 복수노조법을 개정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용자에 의한 노조파괴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복수노조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br/><br/> 그러려면 3월15일 희망버스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야 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 역할을 맡기 전부터 희망버스의 단골 승객이었습니다. 부산 한진중공업 앞에서, 제주도 강정에서, 경남 밀양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배우려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날이 이정훈 영동지회장님의 고공농성이 154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유성 희망버스가 우리 사회의 170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조금은 더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꿈을 키우는 아름다운 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성에서 뵙겠습니다.<br/><br/>장하나/민주당 국회의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96.txt

제목: [단독] “황우석 논문 조작, 10살 소년 살리려 제보했다”  
날짜: 2014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0510013646352  
본문: 2005년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인간 배아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처음 제보한 류영준(42·사진) 강원대 의대 교수(당시 원자력병원 전공의)가 8년 만에 자신을 공개했다. 그는 “당시 10살 소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때 황우석 박사의 제자였던 그는 “지금도 황우석에게서 연구자로서의 진실성이나 호기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br/><br/>류 교수는 한겨레신문사가 발행하는 월간 <나·들>과 최근 인터뷰를 하고 제보 시기를 전후한 ‘황우석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인터뷰 전문은 <나·들> 3월호 참조) 류 교수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사이언스>에 게재된 인간 체세포 배아줄기 복제 1차 논문의 제2저자인 그는 논문 조작 제보 당사자로 지목돼 한때 직장을 잃고 숨어 지내다가 지난해 강원대 의대 병리학 교수로 임용됐다.<br/><br/>류 교수는 2004년 논문의 근거가 된 ‘NT-1’ 세포와 관련해 “<span class='quot0'>복제 검증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줄기세포라고 확신할 수 없어서 이런 내용을 논문에 넣자고 했으나 황우석 교수가 거절해 논문 초록 끝에 그 가능성을 한 줄 언급하는 것으로 타협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내가 논문 초안을 작성해 <사이언스>에 보낸 뒤 그의 지시로 데이터가 사후 조작된 것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게 됐다</span>”고 밝혔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6년 1월 이 세포가 복제가 아닌 자가생식의 산물이라고 결론지었다.<br/><br/>류 교수는 제보를 결심한 계기에 대해 “<span class='quot0'>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10살 소년을 지키기 위해서</span>”였다고 밝혔다. 자신이 맡았던 프로젝트가 끝나고 논문 게재 승인이 이뤄진 뒤 실험실을 떠난 그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발표되기 한 달 전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11개의 복제줄기세포를 만들어 임상실험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핵심 인력이 모두 떠난 상태였기에 발표 내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데다 임상실험 대상이 2003년 자신이 직접 체세포를 떼어낸 전신마비 10살 소년이었다.<br/><br/>류 교수는 “황우석 박사가 소년에게 줄기세포를 넣어 신경을 살린다는 계획이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아무런 검증이 안 된 상태였다. 면역반응이 나타나거나 암에 걸릴 수도 있었다”며 “황우석 박사 주변 인물들에게 이런 위험성을 알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황우석 박사가 논문 조작을 일삼고 주로 언론을 통해 연구 성과를 드러낸 이유에 대해 “노벨상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 제보로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 흐름이 꺾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류 교수는 “<span class='quot1'>지금까지 한국이 줄기세포 강국이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언론이 키워온 거품이 대중의 상실감을 키운 것일 뿐</span>”이라고 평가했다. <br/><br/>류 교수는 “황우석 사건은 과거 한국이 정치·경제·사회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생존과 발전’이라는 절대목표에 복종하면서 벌어진 비윤리적 행태였다. 젊은 과학자들은 기성세대의 잘못을 더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br/><br/>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인천시의 지원 아래 바이오센터 건립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는 등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br/><br/>글 이재명 <이코노미 인사이트> 기자 miso@hani.co.kr <br/><br/>사진 박승화 <나·들> 기자 eyeshoo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97.txt

제목: [야! 한국사회] 입증 책임과 복지사회 / 백영경  
날짜: 201403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0510013653915  
본문: “택시운전기사를 하다 보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리는 손님이 있어요. 그런데 손님 쫓아가서 택시비 내라고 하면 손님은 자기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삼성 백혈병 피해 노동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서 극 중의 아버지는 마지막 변론에서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한다.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병을 얻은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충분히 공정의 유해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죽은 딸의 산업재해 여부를 피해자 쪽에서 입증하라니 억울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br/><br/> 애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신이라는 것이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넓게 인정하여 신속하게 보상하는 대신 고용주에게는 고의와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 아니었던가? 더구나 미국 아이비엠(IBM)의 사례에서 보듯 이미 외국에서는 백혈병을 비롯한 희귀암들이 반도체 산업 관련 산재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작업장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틀어쥔 회사가 아닌 개개의 피해자들이 입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야말로 불공정한 게임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것이 영화 속의 노무사가 삼성뿐 아니라 산재보상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는 이유일 것이다.<br/><br/>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고 그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한 고통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상은 비단 산재 문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현상이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세상사라는 것이 증거가 확실한데도 힘에 밀려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지만, 증거를 대기 어려운 시비일수록 입증해야 하는 쪽이 불리한 법이 아닌가. 따라서 사안마다 입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과연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br/><br/> 최근 세상을 등진 세 모녀의 죽음을 놓고 수급권만 신청했으면 되었을 텐데 안타깝다, 아니다, 신청했어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논란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그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서류와 심사를 통해서 입증을 했어야 하리라는 점이다. 노숙자에게도 지원을 위해서 주소지를 요구한다고 하니 실제 형편이 어떻든 서류로 입증하고 관료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복지혜택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삼성 백혈병의 경우에도 근무하는 도중에 얻은 병도 산재 입증이 어려운데 한때 근무했던 하청노동자는 병을 얻은들 어디에서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br/><br/> 혹자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족한 공무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늘린들 복잡한 입증 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심사하고 자격을 감시하는 일에 투입된다면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혜택이 긴급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벽이 높아지고, 제도의 허점을 고의로 노리는 사람은 막아내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반발과 납세자들의 반감만 키울 가능성도 크다.<br/><br/> 그러니 어려운 싸움 끝에 산재 인정을 받아낸 아버지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고, 길에서 넘어진 끝에 세상까지 버리게 된 세 모녀의 사연에 가슴 아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입증책임의 변경이나 복지의 확대 수준에서 논의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종일 일을 해도 생계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일터에서는 끝없이 환자가 생겨나는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복지사회를 이룬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사실 애초에 입증책임의 문제 자체가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때, 이를 두고 절차만 개선하고자 한다면 실제 그조차도 이루어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삼성 백혈병을 둘러싼 지루한 법정 공방이 바로 그 사례가 아니겠는가.<br/><br/>백영경 방송통신대 교수·문화인류학 <br/><br/> ‘가족’이라 부르지 못한 <또 하나의 약속> [잉여싸롱#19]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98.txt

제목: “헌법 어긋난 무노조가 경영방침일 수 있나”  
날짜: 2014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0310013628454  
본문: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대안을 짚어보는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br/><br/>사회의 선택’ 종합토론이 최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렸다. 이번 종합토론은 지난해 12월13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격주 간격으로 6차례 열린 ‘삼성 토론회’을 총정리하는 성격이다.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병천 강원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곽정수 한겨레신문 경제부 선임기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 이종란 노무사가 참여했다. 6차례에 걸쳐 열린 ‘다시, 삼성을 묻는다’ 토론회 내용은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br/><br/><br/><br/> 종합토론은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삼성과 부딪혀 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이종란 노무사와 곽정수 <한겨레> 경제부 선임기자부터 문제를 제기했다.<br/><br/> 백혈병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삼성과 7년째 싸우고 있는 이종란 노무사는 “<span class='quot0'>삼성은 아주 단단한 벽 같다</span>”고 심경을 토로했다.<br/><br/> 그는 “<span class='quot0'>7년 전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백혈병 피해자가 6명이나 되는데 왜 이게 직업병이 아니냐고 항의하며 시작된 싸움이 언론에 알려질 때마다 거짓말처럼 피해자들이 잇따라 제보를 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암이나 백혈병에 걸렸다고 제보한 노동자가 180~190여명이고, 이 가운데 70여명이 숨졌다</span>”고 말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삼성이 급속도로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제2대 수출 상품인 반도체와 휴대폰 산업을 통해서였다</span>”며 “<span class='quot0'>단시간에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 노동자들은 안전장치를 풀고 엄청난 노동 강도 속에서 일했다</span>”고 강조했다.<br/><br/> 이 노무사는 삼성 노동자 백혈병 문제를 다룬 영화 <또 하나의 약속>과 관련해 “<span class='quot0'>상영관 문제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심지어 영화관 쪽에서 예약했던 사람들을 취소시키고 다른 영화를 보여준 일도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개봉 전 영화 <변호인>과 맞먹는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흥행 가능성이 높았던 영화인데 극장주들이 알아서 왜 수입을 포기하는지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하다</span>”고 주장했다. 삼성 등 대기업을 주로 취재해 온 곽정수 선임기자는 “<span class='quot1'>거대 자본 삼성은 국가 경제보다 총수의 이익에 복무하고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1'>시장 경제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도 위협하는 것이 ‘삼성공화국’의 본질</span>”이라고 규정했다. 곽 선임기자는 또 “<span class='quot1'>삼성이 재계 1위이고 워낙 나머지 기업과의 격차가 크다 보니 삼성이 마치 재계의 스탠더드가 됐다</span>”며 “<span class='quot1'>다른 재벌들은 ‘삼성도 하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는 식이 돼버렸다</span>”고 말했다.<br/><br/> 삼성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해 온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삼성을 ‘이익 독식 비용 사회화’란 표현으로 함축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이익을 삼성이 독식하고 그 비용은 사회가 짊어지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삼성이 이익을 독식하면서도 삼성그룹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총수 일가의 배만 채운다. 또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한국에 고용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공장 굴뚝이 더 올라간다”고 꼬집었다.<br/><br/>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는 “<span class='quot2'>이건희 회장이 지배권을 둘러싸고 형제들과 소유권 분쟁을 하는 것을 보며 굉장히 야만적이라는 생각이 든다</span>”며 “<span class='quot2'>야만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안에 뭔가 작동되어진 권력 집단이 형성돼 있다</span>”고 주장했다.<br/><br/>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span class='quot2'>영화 속 실제 주인공인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의 ‘삼성전자에 노동조합만 있었더라도 내 딸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말하는데, 노동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한다.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게 어떻게 경영 방침이 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br/><br/> 그는 이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이건희 회장보다 더 친노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몽구 회장은 현실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을 최소한 실천한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삼성이 노사 관계를 푸는 방식을 보면 마치 80년 전 일제시대 양조장 할 때와 똑같다”고 비판했다.<br/><br/>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span class='quot3'>세계 15위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 기업에 의해 좌우될 만큼 혹은 장악될 만큼 대단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삼성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괴물이 됐다</span>”고 규정했다.<br/><br/> 박 의원은 삼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7년간 백혈병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삼성과 맞서온 ‘반올림’을 예로 들며 “<span class='quot3'>괴물이 돼버린 이 거대한 정치사회적 권력, 경제 권력과의 싸움에서 둔탁하면 안 되고 훨씬 더 예리해야 한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3'>더 많은 피해자와 구체적인 문제로 연대하고, 구체적인 주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삼성공화국’ 문제를 돌파하고 삼성의 변화를 강제하는 해법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3'>삼성은 사회적으로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이런 파열음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좀더 근복적인 개혁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축적하고 대응해야 한다</span>”고 했다. 또 “삼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해 간다면 삼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저변에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 이날 종합토론에 앞서 열린 6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span class='quot4'>‘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AMRC)’에서 발간한 책을 보면, 인도네시아 브카시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4명이 숨졌다</span>”고 주장한 데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span class='quot4'>브카시 지역에는 반도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곳에서 사망한 직원도 있을 수 없다</span>”고 반박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한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는 인도네이사 브카시 지역에 1991년 8월부터 22년 동안 공장을 운영해 왔고, 삼성전자 스스로 이 공장의 주요 사업 내용을 ‘전자제품 생산’으로 기재했다. 또 사망자 4명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 삼성의 주요 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노동 운동가와 진보적 학자들이 저술해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가 지난해 출판한 보고서에는 “<span class='quot5'>삼성전자는 위험 물질의 침투를 막는 특수 보호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됐다</span>”며 “<span class='quot5'>이 공정의 노동자들은 현기증과 메스꺼움,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해 왔는데, 2010년과 2012년 사이 폐질환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span>”고 나와 있다. 또 “2011년에는 콘테이너 충돌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br/><br/> 한편 이번 토론회 주관 단체인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공동주최자인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등은 삼성 쪽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이번 종합토론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 쪽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br/><br/>김동훈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cano@hani.co.kr<br/><br/>‘가족’이라 부르지 못한 <또 하나의 약속> [잉여싸롱#19]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099.txt

제목: 민예총 민족예술상에 고 정공철씨  
날짜: 2014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30210013616966  
본문: 제주도 386세대 문화운동가인 고 정공철(1960~2013)씨 등 4명이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의 ‘제18회 민족예술상’ 수상자로 뽑혔다. ‘민족예술상-큰상’ 수상자로 선정된 고 정공철씨는 제주도 신화를 바탕으로 민족굿을 민족예술로 창조 계승하는 교량 구실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 출신 386세대 문화운동가인 그는 마당극 배우, 평화활동가로 일했으며 전통문화 계승에도 노력했으나, 지난해 암으로 타계했다. 문화활동가인 김인섭·박재열·신유아씨는 ‘고진감래 민족예술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8일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렸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00.txt

제목: 3월 1·2일 인사  
날짜: 2014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2810013611149  
본문: ⊙ 문화체육관광부 <전보> ◇국장급 △체육국장 우상일<br/><br/>⊙ 산업정책연구원 △공동원장 하수경 원장 <br/><br/>⊙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장 윤운기 <br/><br/>⊙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김준기 <br/><br/>⊙ 충주MBC △보도제작국 보도부장 이승준 △경영사업국 전략사업부장 임용순 <br/><br/>⊙ 대구예술대 ◇처장 △입학기획 백진우 △교무 임채경 △학생 겸 산학협력 최기득<br/><br/>⊙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과장급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강백원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장 한상배 △식품영양안전국 영양안전정책〃 권오상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 강대진 △〃 축산물위생안전〃 이성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 이동희 △〃 의약품정보평가T/F팀장 이수정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김성곤 △〃 의료기기품질〃 박정훈 △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추진단 통합추진팀장 김일 △유해물질저감화추진단T/F 법령제도부장 김경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장 김은정 △〃 〃 소화계약품〃 박인숙 △〃 독성평가연구부 약리연구〃 이윤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수입식품분석팀장 이창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 최선옥 △〃 〃 수입식품분석〃 박건상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김명호 △〃 유해물질분석〃 이종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 김영림 <승진> ◇4급 △서기관 주선태 △기술〃 신형수 안영진 <br/><br/>⊙ 한국인터넷진흥원 <승진> △사이버사기대응팀장 이상헌<br/><br/>⊙ 한국식품연구원 △기획부장 홍승혁 △행정〃 박성채　 <br/><b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부장 및 실장급 <본부장> △기획조정 임창만 △대덕연구개발특구 윤병한 △대구〃 배용국 △광주〃 이선제 ◇실장 △감사 김인신 △경영관리 조용철 △미래전략 서준석 ◇팀장 △기획조정본부 기획예산 김용욱 △〃 사업총괄 이강준 △〃과학벨트 홍순규 △〃 홍보 최재윤 △경영관리실 인재개발 임민수 △〃 운영지원 오정수 △미래전략실 국제협력 김영숙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 서동경 △〃 창업벤처 박은일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관리 손병태 △부산〃 〃 손민구<br/><br/>⊙ 한국물가협회 ◇이사 △상무 박예환 △기획관리 김창빈 △비상임 장명웅 김성호 이해춘 김수용 황철 이태영 △감사 전상구<br/><br/>⊙ 생명보험협회 <승진> ◇임원 △시장업무지원본부장 상무보 이재용 <전보> ◇부장 △계약관리 박배철 △시장자율관리 박경미 △소비자제도 장승록 △호남지역본부장 이우승 △중부지역〃 김종후 △원주지부장 김진섭 <br/><b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전보> △사무총장 겸 공제회추진단장 백복순 △정치활동특보 강병구 ◇실장 △기획조정 겸 정책기획특보 박충서 △홍보 겸 홍보기획〃 정동섭 △대외협력 겸 국제활동〃 김재철 △조직본부장 겸 인성교육추진특보 김항원 △세종〃 겸 대변인 김동석 △종합교육연수원장 이종각 △교원119추진단장 박범덕 △정보화전략〃 양중복 ◇국장 △교권지원 이헌구 △정책기획 문권국 △정책지원 이재곤 △조직강화 겸 정보화전략실장 신현욱 △조직지원 이서구 △교원복지 신정기 △운영지원 겸 기획평가국장 신연숙 △세종본부 사무 하석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경영관리 파견 신형수 <승진>△교권본부장 겸 교권강화국장 이선영 △정책〃 김무성 ◇한국교육신문사 <전보> △한국교육신문사 사장 겸 인실련 조직본부장 김종식 △복지관리본부 겸 대외홍보특보 서혜정 △편집출판본부장 겸 언론기획〃 이낙진 ◇국장 △편집 조성철 △출판사업 박병길 △경영지원 겸 복지관리본부장 권영백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보>△교육정책연구소장 조학규 △새교육포럼 추진단장 최오규 △ 사무국장 파견 박우식 <br/><br/>⊙ 세계닷컴 △기획위원 오홍근<br/><br/>⊙ 서울대 △생활과학대학장 여정성　<br/><br/>⊙ 한국교원대 △교학처장 송기상 △기획〃 양일호 △대학원장 민찬규 △교육연구〃 강성주 ◇대학장 △제1대 이남재 △제2대 박성수 △제3대 경재복 △제4대 이철화 △도서관장 이성도 △교육박물관〃 이병인 △산학협력단장 엄안흠 △입학관리본부장 박종률 △국제교류〃 강남화 ◇부장 △교육연구원 연구기획 김영훈 △사도교육원 생활교육 김학성 △사도교육원 학생상담 정여주 △신문방송사 주간 신현철 <br/><br/>⊙ 부산대 △도서관장 겸 기록관장 김기혁 △박물〃 김두철 ◇대학장 △인문대 권연진 △공과대 겸 산업대학원장 겸 환경대학원장 강범수 △약학대 겸 실험동물센터장 겸 신약개발연구소장 김남득 △나노과학기술대 정세영 △생명자원과학대 손병구 △간호대 전성숙 △법학전문대학원장 민영성 △스포츠과학부장 신상근 △의생명과학도서관 분관장 이일우 △산학협력단 밀양교정 산학협력본부장 신범주 △미래인재개발원 양산교정 분원장 김영혜 △생명자원과학대 부속농장장 김선태 △〃 부설농업과학교육원장 최영환 △〃 부속학술림장 조재우 ◇센터장 △국제언어교육원 외국어교육 이선진 △부산대학교-바텍차세대의료기술연구 한명철 △부산대-ETRI Open R&D 권혁철 ◇연구소장 △원자력안전 및 방재 정재준 △극한물리 이주연 △유전체물성 정일경<br/><br/>⊙ 삼육대 ◇대학원장 △일반대학원 이경순 △신학대학원 이종근 △경영대학원 박철주 △보건복지대학원 천성수 ◇대학장 △신학대 김은배 △인문사회대 오덕신 △보건복지대 정동근 △과학기술대 신숙 △문화예술대 고태영 △약학대 김경제 ◇관장 △중앙도서관 유광욱 △박물관 김용선 △체육관 이재구 △비전드림센터장 김신섭 ◇원장 △정보전산원 김희완 △국제문화교육원 장용선 △사회교육원 임형준 △유치원 신지연 △E.G 화잇연구센터원 도현석 ◇부장 △교목 봉원영 △교무 류병열 △연구 이완희 △입학관리본부장 박완성　<br/><br/>⊙ 서울여대 ◇대학장 △사회과학대 겸 사회과학연구소장 김유숙 △미술대 겸 조형〃 장문걸 △정보미디어대 겸 컴퓨터과학〃 겸 IT국제교육인증센터장 정민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사업추진단장 김명△아동연구원장 조은진 △교양학부/자율전공학부/기초교육원/글로벌의사소통센터장 이재성 <br/><br/>⊙ 숭실대 ◇팀장 △법인사무국 법인사무 겸 숭실120주년기념사업 최현관 △비서실 비서 윤형흔 △총무 겸 인사 정진수 △총무처장 김비호 △관리〃 이철우 △출판국장 박영철 △창업교육센터장 최자영 △상담〃 허준수 ◇원장 △국제교육원 강기두 △사회복지대학원 노혜련 △기독교학대학원 이철 <br/><br/>⊙ 국민대 △평가기획단장 조현진 △창업지원〃 김도현 △교무부처장 손영준 ◇대학장 △건축대 최왕돈 △자동차융합대 허승진 △교양대 이자원 <br/><br/>⊙ 경주대 △보건진료실장 조영숙 △산학협력단장 김경원 ◇처장 △발전기획 이태종 △입학 황재호 △국제교류 정두환 △입학부 김재원 ◇원장 △문화관광산업연구원 변우희 △신라음식문화연구원 이연정 △그린에너지자원연구원 배해룡 △학술정보원 최상태 △취업능력개발원 정영철<br/><br/>⊙ 한서대 △항공정보산업대학원장 성시철 △건강증진〃 김숙향 △인재개발본부장 김정구 △연암도서관 대통령자료실장 고정원 △학생처장 장원권 △행정〃 직무대리 김용석 △정보화담당관 구윤회 △산학협력단장 김현성 △인재개발본부 창업교육센터장 정창화 ◇부장 △대학원 교학 안외순 △기획예산 양애경 △입학관리 정관수 △대학원 행정부장대우 최명환<br/><br/>⊙ 초당대 △대학원장 양진영 ◇처장 △교무 이승주 △기획연구 박윤창 △학생복지 김혜숙 △대외협력 정동옥 △입학 김경조 △사무 채수철 △교무부 서지근<br/><br/>⊙ 경남대 △대외부총장 이종붕 △극동문제연구소장 윤대규 △대학원장 겸 미래기획단장 손진우 △총장특별보좌역 김성열 이관세 △언론출판국장 정일근 ◇원장 △교육대학 이원수 △교양기초교육 이은진 △평생교육 홍정효 ◇대학장 △문과대 강인순 △자연과학대 이동선 △사범대 최호성 △경상대 박철민 △법정대 강문구 △공과대 한상보 <br/><br/>⊙ 혜천대 △사무처장 변상록 △교무〃 직무대리 배형준 △건설본부장 나경천 <br/><br/>⊙ 군산대] △대학원장 이점숙 △국제교류교육〃 표세만 △해양과학대학장 이상호 △취업지원본부장 김명준 △산학협력단장 김동익 ◇처장 △교무 김재선 △학생 최상훈 △기획 이성룡 △기획부 박학래 ◇관장 △도서관 김윤수 △박물관 김종수 △공동실험실습관 김동희 ◇원장 △교육개발원 유경현 △평생교육원 유수창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이호근 ◇센터장 △장애학생지원 이지수 △창업교육 공미란 △현장실습지원 송석기 △기업지원 송형수 ◇소장 △해양개발연구소 이기영 △수산과학〃 김용태 △공학〃 김영철 △현대음악〃 조장남 △기술혁신센터 최규재 △창업보육〃 김공수 ◇팀장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교육지원 장민석 △〃 사업기획 구성회 △〃 후진학지원 이종길 <br/><br/>⊙ 충북대 ◇대학장 △전자정보대 이인성 △생활과학대 최종명 △수의과대 정의배<br/><br/>⊙ 영남대 △입학처장 김병주 △산학연구부〃 한주환 △외국어교육원장 박선주 △총무부장 윤주일 △시설관리〃 이범재 ◇연구소장 △사회과학 김창수 △산경 김기수 △스포츠과학 류호상 △방재 안영호 △생활과학 서정숙 △통일문제 김영수 ◇팀장 △법무감사 조경래 △LINC사업단 행정지원 최호영 △교원인사 이우원 △수업학적 박외숙 △체육지원 한정일 △종합봉사센터 임서규 △산학연구관리1 박선주 △〃2 이청호 △중앙기기센터 행정지원 최상득 △캠퍼스관리 백기수 △여대생커리어개발 홍오영 △정보전산원 정보화지원 김진호 ◇행정실장 △문과대 박동섭 △법과대 김철봉 △상경대 권성호 △의과대 안종현 △약학대 최정석 △생활과학대 서정규 △건강관리센터 정종탁 △외국어교육원 이재일 △공학교육혁신센터 강옥희　<br/><br/>⊙ 한림대] △대외협력처장 윤태일 △학생〃 성시일 △박물관장 노혁진 △보건진료소장 박용순 △지역혁신센터소장 이재용 ◇연구소장 △융합문화콘텐츠 송창근 △경제 한영욱 △BIT융합 김종대 △사회의학 배상수 △일송생명과학 김용선 △천연의약 서홍원 <br/><br/>⊙ 동국대 경주교정 ◇학장 △파라미타칼리지 박상신 △인문과학계열 고창택 △자연과학계열 우흥식 △사회과학계열 이영기 △사회과학대학원장 박병식 △경영대〃 겸 경영계열학장 박상범 ◇센터장 △교무처 교수학습개발 김인홍 △학부교육선진화사업단 교육역량개발 최정자 △참사람재능나눔 겸 인재개발처 학생서비스팀장 김종규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윤영해 △동국대부속유치〃 직대 김세곤 ◇실장 △입학관리 김영기 △경영대학원 경영계열 학사운영 박치만 △의과대 학사운영 이강석 △사회과학대학원 사회대 학사운영 김영부 △한의과대 학사운영 최현익 △파라미타칼리지 학사운영 이진형 ◇팀장 △시설관리 김경호 △전략예산 김성규 △경영관리실 전략홍보 권영섭 △산학협력 성채용 △학부교육선진화사업단 사업추진 김경표 △재무회계 겸 산학협력단 회계감사 노동영 △국제교류 최수호 △교무 구경덕<br/><br/>⊙ 한양사이버대 △입학처장 김영갑 △총무〃 양재모 △학습지원센터장 최성호<br/><br/>⊙ 계명대 동산의료원 △병원장 이세엽 △대외협력처장 임정근 △간호부장 나인재 △감사실장 이호규 △의과대학행정실장 최삼희 ◇팀장 △복지증진 신수우 △관리 임순호 △재무 이영준 △의료산학협력지원 조현규 △응급의료지원 최동철 △홍보 권병철 △국제의료 권찬이△간호교육행정 최연숙 △외래간호 심경태 △병동간호2 조미옥 △〃3 조영애 △암센터운영지원 정혜경 △고객만족 박숙진 △직업환경의학업무지원 임학재 <br/><br/>⊙ 연세대의료원 <의료원> △어린이병원장 한상원 △안이비인후과〃 이성철 △의학도서관장 이우정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장 지선하 <의과대> △의예과 부장 박용범 ◇연구소장 △유전과학 김경섭 △내분비 이은직 △폐질환 김형중 △장기이식 김명수 △뇌 장진우 △시기능개발 김찬윤 △희귀난치성 신경근육병 재활 강성웅 △비뇨의과학 한상원 △면역질환 이광훈 △재활의학 신지철 △방사선의과학 최병욱 △의학행동과학 송동호 △에이즈 최준용 △마취통증의학 신증수 △각막이상증 김응권 <치과대> △치의예과 부장 문석준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소장 김경남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장 김광만 △구강종양〃 김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소장 송영구 △호흡재활〃 강성웅 △내과부장 이관식 △사무국장 권규삼 ◇암병원 센터장 △갑상선암센터 장항석 △유방암센터 정 준 △<암병원 팀장>△위식도암클리닉 최승호 △대장암〃 이강영 △간암〃 이관식 △췌담도암〃 윤동섭 △비뇨기암〃 정병하 △부인암〃 김재훈 △뇌종양〃 이규성 ◇강남세브란스체크업 △소장 박효진 <용인세브란스병원> △진료부장 김형식 △교육수련〃 정수윤 <어린이병원> △진료부장 이준수 <br/><br/>⊙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진료부장 고광현 △교육수련〃 김인재 ◇센터장 △심혈관 문병주 △폐식도 이두연 △국제진료 김민영 △임상시험 겸 세포치료실장 이상혁 △건진사업본부장 임창영 <br/><br/>⊙ 농협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남승우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01.txt

제목: 29살 아버지가 그리운 64살 아들…방치된 유해, 예산은 ‘0원’  
날짜: 2014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2810013611079  
본문: ▶ 25일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고개 유해발굴 현장에 근처 산청군의 ‘간디학교’ 학생 5명이 찾아왔습니다. 산청군 외공리 민간인 학살 위령제에도 참여하며 선생님께 슬픈 역사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김도현군은 베이지색 바지가 지저분해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흙을 날랐습니다. “<span class='quot0'>유골을 보면 그때가 상상되면서 화가 나요.</span>” 전쟁이 낳은 비극, 묻어두지 말고 알리는 것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이 아닐까요.<br/><br/><br/><br/>주름이 깊게 파인 64살 아들 강병현씨는 29살 아버지가 여전히 그립다. 한 번도 본 적 없기에 더 그립다. 어머니가 삶던 국수를 “잠시 다녀와서 먹겠다”며 떠난 아버지는 다시는 국수를 먹지 못했다. 아버지는 뱃속에 있던 아들도 영영 보지 못했다. 생사를 몰라 사망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소식을 반세기가 훌쩍 넘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알려왔다. 조사 결과 진주 국민보도연맹원이었던 아버지 강상준(사망 당시 29살)씨는 1950년 7월15일 금산지서로 소집됐다. 진주경찰서에 구금된 뒤 7월21일께 학살됐다.<br/><br/> ‘좌익사상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의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20일 결성됐다. 본래 목적은 해방 이후 늘어나는 ‘좌익정치범’ 계도였으나 실제 지역에서는 할당을 채우기 위해 사상과 관련없는 이들까지 가입시켰다.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보도연맹원 명단은 그대로 학살 명단이 됐다.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군과 경찰은 남한 모든 지역에서 군마다 100~1000여명씩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집단 학살했다. <br/><br/><br/><br/><br/>진주시 명석면 용산고개에서는 <br/>보도연맹원·진주형무소 재소자 <br/>718명이 학살당했다고 알려졌다 <br/>국가가 유해발굴 손 놓은 사이 <br/>시민단체들의 힘으로 땅을 팠다 <br/> <br/>두개골, 팔다리 뼈, 허리띠 버클… <br/>하나둘씩 모습 드러내지만 <br/>세상에 나와도 갈 곳이 없다 <br/>“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br/>찾아가 볼 곳 있으면 좋겠습니다” <br/><br/><br/> <br/><br/> 아버지 부르다 울어버린 64살 아들<br/><br/> 죽음의 의문은 풀렸지만 아버지는 주검으로라도 돌아오지 못했다. 정부는 진실화해위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했으나 유해까지 찾아주지는 않았다. 2007년부터 진실화해위는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인 학살지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다만 3년간 고작 열 곳, 1617구를 찾는 데 그쳤다. 당시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진성고개에서도 유해를 발굴하긴 했으나 유전자(DNA) 검사를 하지 않아 가족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는 지금도 진주 어딘가의 차가운 땅에 누워 있다. “<span class='quot0'>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만 있다면 발굴하여 양지바른 곳에 모시어 매일 찾아가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은 게… 마지막 소원입니다.</span>” 지난 24일 진주시 명석면사무소에서 열린 개토제에서 한국전쟁유족회 진주유족회장으로서 호소문을 읽던 ‘늙은’ 아들은 이 한 문장을 읽다 두 번 울음을 터트렸다.<br/><br/> 마이크를 타고 들리는 울음소리에 김형자(66)씨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span class='quot0'>아버지와, 혼자 살아온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자꾸 나네요.</span>” 1950년 7월 어느 날 잠깐 나간다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할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3일을 꼬박 걸어간 진주경찰서에서 “트럭 한 대가 사람을 이빠이 싣고 나갔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 트럭에 실려 나간 날로부터 하루 전인 음력 6월6일은 아버지의 제삿날이 되었다. 너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당시 두 살이었던 김씨는 기억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부를 때마다 그렇게 슬프데요. 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산소가 없으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절할 데도 없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가 볼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br/><br/>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241-1번지와 425-2번지. 일명 ‘용산고개’라고 불리는 이 일대에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718명 이상이 군경에게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에 묻힌 유해가 64년 만에 햇빛을 본다. 한국전쟁유족회, 민족문제연구소, 4·9통일평화재단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공동조사단)이 시민의 힘을 모아 유해를 발굴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민간인 학살 책임이 경찰, 군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게 있다며 ‘사건 가해자는 국가’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유해발굴도 국가의 몫이었지만, 2010년 12월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뒤 국가 차원의 유해발굴도 함께 멈췄다. 지난 24일부터 일주일간 그 유해발굴이 시민들의 손을 빌려 다시 시작됐지만, 첫 삽을 뜨는 ‘개토제’ 행사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보다 지난 세월의 한을 담은 눈물이 더 많았다.<br/><br/> 강원도 철원군부터 경남 남해군을 가로지르는 3번 국도 진주~사천 구간을 앞만 보고 달려서는 용산고개를 볼 수 없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매장지입니다’라는 펼침막은 작고 낡아 알고 보지 않는 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정수장 앞으로 이어지는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 오른편엔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는 계곡 너머로 칡넝쿨이 덮여 있는 땅이 보인다. 평범해 보이는 이 작은 고개에 한국전쟁 당시 진주에서 민간인 학살 희생자가 가장 많았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br/><br/> 국군 전사자처럼 학살 피해자도 책임져야<br/><br/> 당시 16살이었던 주민 심아무개씨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골짜기에 포승줄에 묶인 채로 총 맞은 시신들이 엎어져 있었다. 구덩이를 파지 않고 그냥 죽였고 주민들을 동원해 골짜기에다 장작더미처럼 쌓은 뒤 흙을 덮어 놓았다”고 증언했다. 아버지를 잃은 정연조(64)씨도 삼촌에게 들은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피가 쏟아져 나와 잔디도 까맣게 되고 개울에 핏물이 넘쳤다고 했어요. 옷이 보일 정도로만 흙으로 살짝 덮었는데, 이미 부패가 많이 돼서 아버지를 찾기가 힘들었대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곳을 포함한 진주 일대에서 국민보도연맹원뿐 아니라 근처의 진주형무소에 수감된 정치범들까지 최소 1210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br/><br/> 본격적인 유해발굴은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무작정 땅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가로 3m, 세로 3m 정도의 면적에 한정해 유해가 나올 때까지는 골고루 판다. 유해가 발견되면 그곳을 중심으로 조금씩 주변을 넓혀간다. 유해를 찾는 것은 시간, 체력과의 싸움이다. 나올 때까지 삽질, 호미질의 무한 반복이다. 묻힌 장소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흙의 색깔은 가장 중요한 나침반 중 하나다. “자연스럽게 쌓인 토양이 아니면 색깔부터 달라요. 새로 덮었다거나, 한 번 뒤집은 적이 있으면 공기랑 만나니까 색이 더 진해지죠. 사람이 손을 댔다는 뜻이에요. 색이 다른 곳에 유해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용석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인문한국(HK)연구교수가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의 호미질을 바라보며 말했다.<br/><br/> 2011년 경남대학교 박물관이 진주지역 민간인 집단학살 유해 매장지 탐색조사를 했을 때 유해가 나온 곳이라 기대가 컸지만, 생각보다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산성도가 높으면 뼈가 쉽게 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흙들은 산성도가 높아서 뼈가 잘 남아 있지 않죠. 게다가 여기는 습기도 많아서 얼마나 잘 보존돼 있을지….” 공동조사단장인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고고미술사학과)가 말했다. 한마음으로 유해를 기다리고 있을 무렵, 오전 10시30분 긴 뼈가 모습을 드러냈다. 뼈는 하얘서 흙 색과 쉽게 구분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 뼈는 나뭇가지와 구분되지 않았다.<br/><br/> 용산고개에서 유해를 찾는 10여명은 모두 유해발굴이 낳은 인연들이었다. 노용석 교수는 진실화해위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집단희생자 유해발굴팀장을 맡았다.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학부·대학원생들은 노 교수와 함께 2005년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에 참여했던 인연을 고리로 모였다. 박선주 교수는 1997년 일본 홋카이도 강제징용 조선인 유해발굴 참여를 시작으로 2000~2007년 국방부 전사자 유해발굴, 2007~2009년 진실화해위 민간인 유해학살,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 등 다양한 유해발굴의 경험이 있다. 발굴 ‘에이스’로 활약한 김영환·윤정구씨도 박 교수와 함께 여러차례 일본 홋카이도에서 유해를 발굴해왔다. 용산고개 현장에 한국의 유해발굴 역사가 집대성된 셈이다.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하다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전향했냐’고 묻더군요. 국가는 국민에게 병역과 세금을 요구하는 대신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건 국군 전사자나 민간인 학살 피해자나 모두 같은 거예요.” 박선주 교수가 말했다.<br/><br/> <br/><br/> 남한 군경이 썼다는 카빈 소총 탄피와 탄두<br/><br/> 유해발굴의 노하우도 세월의 무게 앞에선 기를 못 폈다. 64년간 쌓인 흙, 훼손된 땅, 산산이 부서진 유해…. 유일한 답은 기다림뿐이었다. 26일 같은 방식으로 이어진 유해발굴에서도 3~4개의 두개골과 그 옆의 이빨 조각들, 켜켜이 쌓이고 엉켜 주인이 몇 명인지도 모를 뼈 조각조각들, 낡아빠진 허리띠 버클, 한국전쟁 당시 남한의 군경이 썼다는 미국제 카빈 소총 탄피와 탄두, 하얀 단추 몇 개를 찾는 데 그쳤다. 많든 적든 유해발굴은 학살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학살 피해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유일하게 알릴 길은 뼈만 남은 몸을 드러내 대신 말하게 하는 것뿐이다. “3개 이상의 두개골과 정강이뼈들이 넓은 지역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탄피·탄두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뼈가 겹쳐 있고 지표면에서 10~20㎝ 아래에서 발견됐으니 파지도 않고 대충 묻어놓은 것 같네요.” 유해가 남긴 학살의 현장을 박선주 교수가 풀어냈다.<br/><br/> 유해는 발굴돼도 바로 파내지 않는다. 학살지 전체에 대한 인류학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해가 어떻게, 어디서 발견됐는지 전체적인 모습을 보아야 죽은 상황과 죽은 이들을 분석해낼 수 있다. 뼈를 찾기까지는 거친 호미나 삽이 동원되지만 찾고 나서는 조각칼, 대나무 칼, 붓 등이 동원돼 흙을 아주 조금씩 털어낸다. 조각칼을 들고 몇 겹으로 겹쳐 있는 뼈들에 붙은 흙을 조심스레 거둬내 보았다. 한 번 삐끗하면 삭을 대로 삭은 뼈들이 뚝 떨어져 나간다. 아무리 집중해도 상처 하나 없이 뼈들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다. 문득 화가 났다. 이름 모를 유해가 세상에 드러나기까지의 시간도 슬펐지만, 이렇게 어렵게 찾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갈 곳이 없다.<br/><br/>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려면 유해와 유가족들의 유전자를 검사해 대조하는 작업을 벌여야 해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국가 예산은 ‘0’원이다.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관련 법이 있는 것과 달리 민간인 학살자 유해발굴은 관련 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들을 안치할 곳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진실화해위가 발굴한 유해도 충북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2015년까지 임시로 보관돼 있다. 발굴을 계획할 때만 하더라도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뒤 과거사 재단을 세워 유해를 제대로 보관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활동이 축소되면서 재단 설립 논의는 사라졌다. 용산고개에서 발굴한 유해들은 마산 진전면 여양리에서 발굴됐으나 진주 출신으로 확인돼 지난 19일 이곳에 세워진 컨테이너 박스로 옮겨진 유해 163구 곁에 보관될 예정이다. 온도와 습기 조절 장치가 없어 163구의 유해에는 벌써 파란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다. 노용석 교수는 “<span class='quot1'>법적 토대가 없는 한 유해발굴뿐 아니라 발굴한 유해도 계속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span>”라고 말했다.<br/><br/> 그럼에도 유가족들의 가장 큰 소원은 생이별해야 했던 가족을 자신들의 곁으로 모셔오는 것이다. 24일 경주유족회에서 온 네 사람이 용산고개를 찾았다. 이들은 용산고개 유해발굴 현장을 부지런히 휴대전화와 수첩에 담았다. 김하종(80)씨는 4·19 민주화운동 이후인 1960년 9월5일께 ‘경주지구 양민피학살자 유족회’를 만들어 유해발굴을 하려 했으나, 5·16 군사 쿠데타 뒤 단지 유족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때 못다 한 일을 죽기 전에 하는 것이 김씨의 남은 꿈이다. “우리 회원인 신경시(79)씨가 암으로 시한부 인생이에요. 저도 나이가 만만치 않고. 죽기 전에 유해발굴, 아니 집단학살과 매장이 일어난 곳에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우고 싶어요.”<br/><br/>진주/글·사진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02.txt

제목: 당신이 아는 바로 그 청소노동자  
날짜: 2014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2310013546801  
본문: 양춘단 대학 탐방기 <br/>박지리 지음 <br/>사계절·1만2800원<br/><br/>이런 사람 도무지 현실에선 있을 것 같지 않다. 암 선고를 받은 남편 병을 고치러 서울 아들네 집에 얹혀살게 된 양춘단 할머니는 대학에서 청소일을 해보겠냐는 제의에 감읍한다. 어릴 적 오빠들과 어린 동생에 밀려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꿈도 꾸지 못했던 대학에 (청소하러) 가게 됐다는 소식을 어머니 아버지 영정에 먼저 고하고 형제들에게도 “나 대학 가게 되었노라”고 전화 돌린다. 그곳이 햇살 넘치는 교정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4평짜리 지하 컨테이너 휴게실이라는 사실은 쏙 빼고. <br/><br/> <합체> <맨홀> 같은 청소년 소설을 썼던 작가가 이번엔 어른들의 이야기로 풍속소설을 냈다. 대학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양춘단 할머니의 가족사를 얼기설기 빗질하고 사람들의 비루하고 속악한 면모를 말끔히 훔쳐내어 할머니가 결국 세상과 한판 붙는 이야기로 만들었다. 양춘단 할머니는 복도를 날래게 걸레질하고 다니면서도 강의실을 훔쳐보고, 폐지 속에서도 대학 먹물들 냄새를 맡는다. 일찍이 새댁일 적 자기 몸만한 돌로 마을 비석을 세웠고, 늙어서는 억울한 죽음에 망치 들고 맞서는 이런 할머닌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대학 넓은 벽에 푸른 얼룩처럼 살아가는 청소노동자, 분명 살아 있는데 다들 밟고 다니는 할머니, 혼자 떨어진 내가 아니라 ‘사람들’로 거듭난 이는 어딘가 있음에 틀림없다. 작가는 말미에 “이 책 등장인물은 모두 실제 인물이다. 당신은 본 적이 있을 거다”라고 적었다. <br/><br/>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03.txt

제목: “어머니의 나라 한국 밴드 세계적 수준”  
날짜: 20140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2010013530834  
본문: “<span class='quot0'>이젠 우리 동네처럼 친숙해진 이곳이 많이 그리울 거예요.</span>”<br/><br/> 13일 오후 서울 홍대 앞의 한 카페 2층 테라스에서 제프 슈로더(40)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 온 지 어느덧 여섯달. 이틀 뒤인 15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그였다. ‘1979’, ‘투데이’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밴드 스매싱 펌프킨스가 곧 시카고에서 새 앨범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스매싱 펌프킨스는 1990년대 중반 너바나, 펄 잼 등과 함께 세계 음악 시장에 얼터너티브 록 열풍을 일으킨 거물 밴드다. 그는 이 밴드의 기타리스트다. <br/> <br/><br/><br/><br/><br/>스매싱 펌프킨스 기타리스트 <br/>2년 전 타계한 어머니 성 넣어 <br/>홍대 앞 자취하며 공연 즐겨 <br/>아시안체어샷 앨범 PD도 맡아 <br/>내년엔 리더인 빌리와 함께 와 <br/>한국밴드와 협업 앨범 낼 계획 <br/> <br/><br/><br/><br/><br/> 전북 익산이 고향인 어머니는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온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를 낳았다. 어머니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고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다. 그는 언젠가 어머니 나라에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이름 중간에 어머니 성을 넣어 전체 이름이 제프리 ‘김’ 슈로더가 됐다.<br/><br/> 어린 시절부터 기타를 치긴 했지만, 처음부터 전업 음악인이 될 생각은 아니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재학 시절 밴드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의 꿈은 문학 교수였다. 비교문학 박사과정을 밟던 2006년 지인의 소개로 로스앤젤레스에 새 앨범을 녹음하러 온 스매싱 펌프킨스의 리더 빌리 코갠을 만났고, 이듬해 새 앨범 공연 투어 때부터 기타리스트로 합류하게 됐다.<br/><br/> 그는 대학생이던 2002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스매싱 펌프킨스 멤버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공연을 위해 한국을 찾기도 했다. 그에게 한국은 어머니처럼 포근했다. 지난해 8월 스매싱 펌프킨스 말레이시아 공연을 마치고 긴 휴가를 얻은 그는 곧장 한국으로 날아왔다. 서울 홍대 앞에 방 두 개짜리 연립주택을 얻어 자취생활을 시작했다.<br/><br/> 대중음악평론가 박은석씨를 알게 되면서 함께 홍대 앞 밴드들의 공연을 보러 다녔다. 그는 로큰롤라디오, 이디오테잎, 잠비나이, 갤럭시 익스프레스, 아시안 체어샷, 코어매거진 등의 공연을 특히 인상깊게 봤다고 했다. “아시안 체어샷은 일렉트릭 기타 리프 중심의 묵직한 사운드에 한국적 감성을 담아 독특한 ‘하이브리드 사운드’를 만들어내요. 일렉트로닉 음악에 라이브 드럼을 결합한 이디오테잎도 인상적이고요, 로큰롤라디오는 기타만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운드가 마음에 들어요.”<br/><br/> 그는 한국 밴드들로부터 많은 음악적 영감을 얻었다고 했다. “실력을 갖춘 한국 밴드들은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음악을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한데, 외국 페스티벌에 한번 참가하고 마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공연 투어를 통해 팬층을 쌓아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br/><br/>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직접 음악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국제뮤직페어(뮤콘) 콘퍼런스에 대담자로 나서는가 하면, 홍대 앞 인디 밴드들의 자발적인 음악축제 ‘잔다리 페스타’에서 코어매거진과 함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추모 무대에 올라 기타를 연주하기도 했다. 노브레인, 브라이언 등이 참여한 캐럴 앨범 <이츠 크리스마스 타임 인 서울>에도 동참했고, 연말에는 노브레인 공연 무대에 올라 협연도 했다. “노브레인과 함께한 무대가 특히 즐거웠어요. 공연 경험도 많고 엄청나게 에너지 넘치는 밴드예요.”<br/><br/> 그는 아시안 체어샷의 새 앨범 프로듀서를 맡기까지 했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땐 예산도 부족하고 일도 너무 많을 것 같아 거절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밴드의 간절한 부탁을 끝까지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스매싱 펌프킨스와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를 시카고에서 불러들여 작업했어요. 결과물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시안 체어샷의 새 앨범은 현재 미국에서 마무리 믹싱 작업중이다.<br/><br/> 한국에서 음악인들하고만 교류한 게 아니다. 그는 미국에서 황석영 작가의 소설 <오래된 정원> 영문판 표지에 소개글을 쓴 적이 있다. 홍대 앞을 걷다가 우연히 황 작가와 마주쳐 인사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후 몇 차례 더 만나 술잔을 부딪혔다. 홍대 앞에서 활동하는 문인, 미술가 등과도 종종 어울렸다. “<span class='quot0'>이곳 홍대 앞에선 여러 장르 예술가들이 함께 어울려서 더욱 마음에 든다</span>”고 그는 말했다.<br/><br/>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 밤늦게까지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며 즐기는 문화가 특히 좋았어요. 미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거든요. 밴드 문화도 그래요. 미국 밴드들은 멤버들이 서로 경쟁도 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밴드들은 멤버들끼리는 물론 다른 밴드와도 친구나 가족처럼 지내는 것 같아 좋아 보여요. 그런 관계가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하는 데 자양분이 되거든요.”<br/><br/> 한국 음식 중 뭘 좋아하냐고 물으니 그는 “<span class='quot0'>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맛있는 걸 많이 먹어 살쪄서 걱정</span>”이라고 했다. 삼겹살, 민물장어, 간장게장, 심지어 외국인들이 꺼리는 산낙지까지 웬만한 한국 음식은 다 먹어봤단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햄버거만 먹을 생각 하니 끔찍해요. 아시안 체어샷 작업을 위해 한국 왔다가 돌아간 엔지니어는 스튜디오 근처 한인마트에서 소주를 사다 먹는대요. 저도 그러려고요.”<br/><br/>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주말을 제주도에서 보냈다. “한국에 있으면서 베트남 할롱베이에 다녀왔는데 그곳보다 제주도가 훨씬 더 좋았어요. 내 인생에서 가본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성산일출봉 절벽에서 사진을 찍어 그 자리에서 빌리(스매싱 펌프킨스 리더)에게 메일로 보냈어요. ‘다음에 한국 공연 오면 이 섬에 꼭 같이 오자’고요.”<br/><br/> 이제 돌아가면 언제 또 한국에서 볼 수 있을까? “당장은 스매싱 펌프킨스 새 앨범 작업에 전념할 거예요. 올해 안에 완성하는 게 목표죠. 새 앨범 월드투어 들어가면 한국에 꼭 오고 싶어요. 빌리도 가장 좋아하는 공연 장소로 꼽거든요. 빠르면 내년쯤 오지 않을까 해요.”<br/><br/> “<span class='quot0'>돌아가서도 이 동네가 계속 생각날 것</span>”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렇게 여러 분야 예술가들이 넘쳐나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곳이 또 있을까요? 다음에 밴드 공연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오게 되면 개인 음악 작업도 하고 한국 밴드와 컬래버레이션(협업) 앨범도 만들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나에게 많은 영감과 에너지를 주거든요.”<br/><br/>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04.txt

제목: 필요때 특정 단백질 채취할수 있는 기술 개발 당뇨병·고혈압 신약 대량생산 길터  
날짜: 2014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1910013520231  
본문: 충북대 동물바이오신약장기개발사업단(단장 김남형 축산학과 교수·55)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형질 전환 복제 돼지를 통해 특정 단백질 유전자가 나타나는 시기를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이나 고혈압 등의 치료에 필요한 혈액활성인자 등 치료용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br/><br/> 이 연구는 현상환(43)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 김태완(59) 대구가톨릭대 의대교수 등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지난 1월 과학전문지 <플로스 원>에 ‘테트라사이클린 유도 시스템 제어 아래에서 특정 유전자가 나타나는 돼지의 생산’이란 보고서를 실었다.<br/><br/> 현 교수는 “체세포 복제로 생산된 형질 전환 돼지에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을 투약했더니 특정 단백질 발현(나타나는 것)이 조절됐다. 유전자 발현 디엔에이가 핵(아르엔에이)을 거쳐 단백질로 전사될 때 이 유도 시스템을 접목했다. 지금까지 테트라사이클린 유도 유전자 발현 시스템으로 형질 전환 복제된 동물은 쥐(1995년), 개(2011년) 등이 있었으며, 돼지는 2012년 독일 연구팀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라고 밝혔다. <br/><br/> 연구팀은 체세포 복제 방법으로 형질 전환 복제 수정란 4101개를 생산한 뒤 대리모 돼지 33마리에 이식해 형질 전환 복제 돼지 38마리를 생산했다. 연구팀은 이 돼지에 ‘온-오프 형질 전환 돼지’라는 별명을 붙였다. 필요할 때 스위치를 켰다가(온), 필요가 없으면 꺼두는(오프) 것처럼 단백질 도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 교수는 “지금까지 치료용 단백질은 체외에서 미생물·동물 세포를 배양해 극소량만 생산했지만 이 기술을 도입하면 특정 단백질을 얻고 싶을 때 얻을 수 있다. 젖을 짜는 것처럼 쉽게 바이오 신약을 짜낼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br/><br/> 이 연구는 바이오 신약 연구·생산에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남형 단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유전자 발현 관찰을 위해 녹색 형광 유전자를 활용했지만, 앞으로 당뇨·궤양·암·파킨슨병 등에 쓰일 수 있는 어떠한 단백질 기능성 유전자도 발현시킬 수 있다. 바이오 신약을 대량 생산하고 실용화하는 기반 기술”이라고 밝혔다.<br/><br/>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05.txt

제목: 의료용 방사선 진단시스템 ‘독립 선언’ 초석  
날짜: 20140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1810013507873  
본문: 암 진단에 쓰이는 양전자단층촬영(PET·펫)의 이용횟수는 2008년 16만7000회에서 2012년 31만5000회로 거의 두배가 늘어났다. 전국 병원의 진단장비도 113대에서 191대로 61%가 늘었다. 같은 기간 자기공명영상(MRI) 장치가 37.5%, 컴퓨터단층촬영(CT) 장치가 3.8%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폭이 크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이 2007년 873억여원에서 2012년 2227억원으로 2.5배가 늘어날 정도로 펫을 이용한 암 진단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펫에 필수적인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사이클로트론(가속기)은 39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것은 8대뿐이다. 진단에 쓰이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반감기(특정 핵종의 원자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짧아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병원에 가속기가 설치돼 있거나 가까워야 한다. 그러나 설치와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가속기를 병원마다 설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br/><br/> 전북 정읍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최근 방사성 동위원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선형가속기인 30MeV(100만전자볼트)급 중형 사이클로트론 ‘아르에프티(RFT)-30’을 우리 기술로 완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RFT-30은 2008년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개발해 이곳에 설치해왔다. 허민구 첨단방사선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암 등 각종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할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와 양성자 빔을 활용하는 연구를 위해서는 중형 사이클로트론이 필수적인데 우리 기술로 완결된 제품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은 사이클로트론을 기반으로 한 중입자 가속기를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r/><br/><br/><br/> 가속기는 전자 등 입자를 가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보통은 작은 전자를 가속하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전자보다 1800배 무거운 양성자나 중성자에서부터 탄소, 우라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입자를 가속한다. RFT-30이 골프공을 가속하는 정도라면 2019년 완공 예정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중이온 가속기는 애드벌룬만한 쇳덩어리를 가속하는 장치다. 가속을 하려면 입자가 음성이든 양성이든 전기적 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사이클로트론은 ‘디’(D)자 모양으로 생긴 전극에 입자를 넣어주면 입자가 음극과 양극 사이에서 밀고 당겨지면서 가속을 하는 동시에 나선형으로 운동을 하도록 만든 장치로, 1932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어니스트 로런스가 고안해냈다.<br/><br/> 가속된 입자는 에너지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전하 1개의 전위차를 1전자볼트(eV)라고 하는데, 1케브(KeV)의 에너지를 지닌 입자는 물질표면의 원자를 낱개로 분리해 박막가공에 쓰인다. 10케브 정도 되면 물질 표면에 원하는 원자를 투여할 수 있다. 면도날의 쇠 속에 질소를 심어넣어 날만 강하게 만드는 등의 표면 개질이나 반도체 도핑에 쓰인다. 1~100메브(MeV)의 입자는 조사되는 물질의 원자핵과 반응해 새로운 원소를 생성한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이 이 범위다. 10게브(GeV)급은 무거운 원자핵을 쪼개 가벼운 원자를 만드는 데, 100게브 이상급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세른)의 거대강입자가속기(LHC)처럼 원자핵 속의 양성자나 중성자를 쪼개 소립자를 생성하는 데 쓰인다.<br/><br/> 원자력의학원은 13메브급인 ‘키람스(KIRAMS)-13’을 개발해 서울대 등 전국 8개 기관에 보급했지만 키람스-13은 액체나 기체 상태의 동위원소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펫에 쓰이는 동위원소 가운데 반감기가 가장 긴 불소 동위원소(F-18)조차 110분밖에 되지 않는다. 펫으로 뇌를 진단할 때 쓰는 탄소 동위원소(C-11)는 20분에 불과하다. RFT-30으로는 반감기가 1년이나 되는 금속성 동위원소 저마늄(Ge·게르마늄)-68 등을 생산할 수 있다.<br/><br/> 허민구 책임연구원은 “3년 전부터 금속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의료진단용 동위원소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이 장치가 완성되면 많은 의료기관에서 가속기 없이 안정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위원소 발생 장치는 금속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생기는 딸핵종을 이용하는,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의 작은 장치로 지금은 3000만원 하는 외국 제품을 수입해 쓰고 있다. 저마늄을 필터에 묻혀놓고 염산용액을 통과시키면 저마늄은 남겨두고 갈륨(Ga)으로 바뀐 것만 달고 나온다. 이 용액을 화학처리해 필요한 의약품 행태로 만드는 원리다. 저마늄-68의 딸핵종으로는 갈륨-68이 나오는데 반감기가 60분에 불과한 이 동위원소는 뇌 및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 ‘단일광자 단층촬영’(SPECT·스펙트)에 사용된다.<br/><br/><br/><br/> 첨단방사선연구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으로부터 RFT-30을 1년 동안 연구용 목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상태다. 내년에는 동위원소 판매 인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동위원소 생산에 나서는 한편 동위원소 생산 전문기업을 유치해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또 펫이나 스펙트의 핵심기술인 방사선 센서 소재와 센서 기술을 확보해 현재 전량 수입하고 있는 의료용 방사선 영상기기를 내년까지는 완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br/><br/> RFT-30의 가동이 갖는 또다른 의미는 중성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RFT-30을 실질적으로 설계·제작한 채종서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전기전공 및 자연과학부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원자로에서 만드는 중성자는 에너지가 수메브 이하인 데 비해 RFT-30으로는 28메브까지 만들 수 있다. 중성자는 방사광과 마찬가지로 물질 내부 탐색에 사용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불모지대인 고속 중성자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 중성자는 한국형핵융합연구로(K-STAR)에 들어갈 장치의 실험에 쓰일 수 있다. 향후 우라늄원자로를 대체할 토륨원자로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가속기는 이온 가속장치로 70메브급 사이클로트론을 사용할 계획으로, RFT-30의 설계를 토대로 쓸 수 있다.<br/><br/> 30메브급 가속기 기술의 확보는 세계에서 5번째이지만 제작비가 기존 장치의 절반 수준이라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있는 벨기에 아이비에이(IBA)의 ‘사이클론-30’ 가격이 70억~80억원인 데 비해 RFT-30을 개발하는 데는 인건비를 포함해 38억원 정도가 들었다. 채 교수는 “사이클로트론은 발명된 지 80년이 됐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국민소득 4만~5만달러의 나라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진 기술이기도 하다. 2만~3만달러 수준인 우리가 할 수 있고 가격경쟁력에서도 유리한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 경쟁 입찰 과정에 구매자들이 IBA의 사이클론-30을 싸게 사려 우리 RFT-30을 경쟁제품으로 이용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채 교수는 “<span class='quot0'>타이 방사선연구소가 도입하는 가속기 입찰에 참여하려 준비 중인데 타이 정국 때문에 다소 늦춰지고 있다</span>”고 했다. 채 교수팀은 RFT-30을 기반으로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 크기는 30메브급보다 작으면서도 에너지는 8배 큰 230메브급의 양성자 치료기를 개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br/><br/> 정읍/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06.txt

제목: 극단 ‘새벽’ 30돌 연극학교 개설  
날짜: 2014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1710013496977  
본문: 부산의 극단 새벽이 창단 30돌을 맞아 연극학교를 개설했다.<br/><br/> 극단 새벽은 ‘효로 연극학교’를 17일 개설했다고 밝혔다.<br/><br/> 1기 수강생은 이날부터 6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 7시30분 연극 개론과 연극사 등 이론 교육과 호흡·발성·발음·훈련·연기실습 등을 한다. 수강생들은 연극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과 23살 이상의 배우 지망생이다. 극단 새벽은 창단 때부터 꾸준히 진행한 연극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할 계획이다.<br/><br/> ‘효로 연극학교’의 ‘효로’는 해가 뜨면 사라지는 새벽이슬을 뜻하는 것으로, 1984년 21살 때 극단 새벽 창단 구성원으로 입단해 부산 연극계를 지켜오다 43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난 윤명숙 배우의 별호이다.<br/><br/> 극단 새벽은 상품성을 잣대로 연극을 평가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삶의 연극화, 역사의 연극화’를 내걸고 창단됐으며, 모든 단원이 극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는 동인제 방식의 연극집단이다. <br/><br/>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07.txt

제목: ‘한방병원 폐원 반대’ 원광대생 “동맹휴학”  
날짜: 2014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1710013497836  
본문: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대학 안 10개 병원의 구조조정에 착수하자 한의대생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br/><br/> ‘원광대 한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학생총회를 열어 동맹휴학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총회에는 전체 재학생 436명 중에서 352명이 참석해 331명(94%)이 동맹휴학에 찬성했고, 반대 19명, 기권 2명이 나왔다. 비대위는 이런 결과를 학교 쪽에 전달할 방침이다. 추홍민 공동비대위원장은 “<span class='quot0'>학번별로 18일까지 휴학계를 받고 있으며, 20일 졸업식 행사장에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을 벌일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비대위는 “이사회가 지난달 한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원광대 익산·산본 한방병원의 폐원을 결정했다. 임상과목 수업과 현장실습, 수련의 양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해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교육권을 침해받을 것이다. 이번 결정은 양방·한방의 흡수식 상하관계가 될 허울뿐인 통합으로, 무책임한 원광학원의 처사에 분노한다”고 밝혔다.<br/><br/> 원광대 의과대학병원 노조 등도 반발했다. 김태철 노조위원장은 “병원의 합병·분할이 있으면 노조와 60일 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 법리 검토를 거쳐 이번주 안으로 무효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애 익산시의회 의원도 “1978년 설립된 익산한방병원은 수많은 한의학도를 배출해 한의학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를 이끌었다. 단순 경영논리를 앞세워 폐원 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br/><br/> 원광학원 쪽은 “미래 발전을 위한 최적화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학생과 임직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br/><br/> 원광학원은 지난달 암 치료에 한방의학을 결합하기 위해 원광대 의과대학병원과 익산한방병원, 산본의대병원과 산본한방병원을 합친 ‘통합 암병원’을 설립하기로 한 바 있다. 원광학원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3개 대학을 갖추고, 한방병원 5곳을 포함해 전국에 계열 병원 10곳을 현재 운영 중이다. <br/><br/>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08.txt

제목: 2월 17일 교양 새책  
날짜: 2014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1610013485391  
본문: 사전론 아시아 사서학회 회장인 황지엔화 중국 광둥 외어외무대학 교수가 쓴 사전에 관한 기본서다. 사전학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거시·미시 구조를 분석해 바람직한 사전의 기준을 제시하며 사전 편찬의 실제 문제까지 다뤘다. 또 동서양 사전학자 사이의 사전에 관한 견해차와 쟁점도 소개했다. 박형익 외 옮김/부키·2만원. <br/><br/>행복의 사회학 워킹 푸어, 재벌 독식, 경제 민주화, 비정규직, 학벌 대물림, 실업, 저출산, 고령화, 결혼과 이혼, 녹색 성장 등 2014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지표들을 통해 행복을 방해하는 사회적 현실을 분석하고 성찰한다. 사회학자인 정태석 전북대 교수의 첫 대중사회학 책이다. /책읽는수요일·1만5000원. <br/><br/>댄디, 오늘을 살다 패션 큐레이터 김홍기씨가 한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댄디’처럼 사는 법을 소개한다. 그가 말하는 ‘댄디’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적으로 귀족이 되는 사람들로, ‘우아함’을 무기로 한다. 지은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내 안의 댄디를 깨우라”고 강조한다. /아트북스·1만5000원. <br/><br/>철학 한 스푼 ‘오래전에 느닷없이 철학이 뭐냐고 물었던’ 케이(K)에게 보내는 일곱 통의 편지를 통해 유헌식 단국대 교수가 철학 이야기를 건넨다. 타자와 만나는 법, 보이지 않는 것의 힘, 이성에 대한 자각, 계급과 허위의식, 감정과 도덕 등 일상에서 숨쉬고 있는 철학 이야기를 통해 ‘정신의 양분’을 제공한다. /이숲·1만5000원. <br/><br/>구본형의 마지막 수업 변화경영론을 펼쳤던 구본형의 유작으로 그가 암 투병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방송했던 <이비에스>(EBS)의 라디오 프로그램 ‘고전읽기’를 엮은 책이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까지 그에게 변화경영의 화두를 안겨준 동서양 문학과 철학 고전 17편을 소개한다. /생각정원·1만8000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09.txt

제목: [편집국에서] ‘빨갱이 사냥꾼’의 민낯 / 여현호  
날짜: 2014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1610013484888  
본문: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선 한숨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보였다. 정작 강기훈씨는 웃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지난 23년간 그는 유서 대필로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죄로 징역을 살았고, 누명 속에 어머니를 잃고, 건강을 잃었다. 남은 건 암으로 수척해진 쉰 살의 병든 몸이다. 재심 재판부는 1991년 당시의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이제야 밝혔지만, 검찰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br/><br/> 비슷한 시간 이웃 법정에선 1976년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의 9명에게 60대가 된 3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날 부산에선 50대 중반이 된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모두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가 무죄 이유였지만,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는 되레 “좌경화된 사법부”를 탓했다.<br/><br/> 서른세 살의 유우성씨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하마터면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살 뻔했다. 그나마 1심에서 국가정보원의 수사 결과가 믿을 수 없는 증거로 판명돼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중국 공문서들을 증거로 내놓아 반전을 시도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 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혀왔다. 조작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유씨 역시 훗날 눈물조차 마른 채 재심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br/><br/> 이제 일은 커졌다. 문서 위조 경위를 수사하겠다는 중국과의 문제도 간단치 않거니와, 증거 조작을 의심받는 검찰과 국정원은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됐다.<br/><br/> 검찰은 “국정원이 준 문서”라고 변명했다. 몰랐다는 얘기다. 정말 몰랐을까. 부림사건의 한 피해자는, 검사들이 수사 현장에도 왔었다고 증언한다. 그는 “<span class='quot0'>시멘트 바닥에 군복을 입은 아이들이 초췌한 몰골로 있는데, 그것을 보면 고문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고작 스물서너 살 안팎인 시국사건 대학생들의 겁먹은 얼굴과 불편한 몸에서 고문의 흔적을 눈치채지 못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1980년대 한 시국사건의 피해자는 “검사에게 멍든 자국을 보여주며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검사는 ‘증거가 되냐’며 무시했다”고 말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못 본 척한 것이다.<br/><br/> 따지자면 고문 수사나 서류 위조나 증거 조작이긴 마찬가지다. 공안 사건에선 대개 국정원과 검찰이 긴밀히 협의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다. 만약 검찰이 위조를 알면서도 ‘아귀 안 맞는 것 수정하는 일쯤이야…’라는 생각에, 혹은 그런 의심을 애써 밀쳐둔 채 증거로 냈다면 그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다. 2010년 일본 오사카에선 기소 내용에 맞춰 압수물의 날짜를 바꾼 검사는 물론, 이를 묵인하고 허위 보고한 부장·부부장 검사까지 구속 기소됐다.<br/><br/> 중세의 마녀사냥이 광포하게 번진 데는 돈이 큰 이유가 됐다. 마녀로 지목되면 고문 도구 사용료, 고문 기술자와 마녀 재판관의 수당, 처형 비용까지 모두 내야 했다. 화형 뒤에는 전 재산이 몰수돼 나눠졌다. 마녀재판의 관계자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고문 기술자 가운데는 바늘 끝이 뒤로 밀려나는 장치를 써서 ‘아파하지 않으니까 마녀’라고 억지 마녀를 여럿 만들어 한 재산 모은 자도 있었다고 한다.<br/><br/> 억지 빨갱이 만들기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국정원이 유씨를 조사하던 지난해 초는 대선 개입 댓글 사건과 국정원 개혁 문제로 들썩이던 때다. 어떻게든 국정원의 존재 가치, 대공수사의 필요성을 입증해 위기를 돌파하려 한 이들은 없었을까. 과거 공안사건 가운데도 권력의 필요에 공교롭게 때맞춘 듯한 사건이 여럿이다.<br/><br/> 이런 일이 반복되도록 둘 순 없다. 젊은 강기훈들이 중늙은이가 되어서야 조작의 굴레에서 풀려나는 일이야말로 다시 있어선 안 될 ‘비정상’이다. 국정원이나 검찰이 이런 일을 일상처럼 해왔다면 대수술을 서두르는 게 마땅하다. 개혁 방안이랍시고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 따위에 만족할 일이 결코 아니다. <br/><br/>여현호 사회부 선임기자yeop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10.txt

제목: 초파리도 차이면 술을 찾는다  
날짜: 2014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1410013478865  
본문: ▶ 비루한 나의 인생에도 한때 생의 에너지를 채워주던 사랑이 있었습니다. 홀연히 그가 떠나간 자리, 눈물만이 남았네요. 시간이 지나고 또록또록 흐르는 눈물은 멎어가지만 황무지같이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 없네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술을 마십니다. 드라마에서 외계인인 김수현도 전지현을 잃고 울다가 술을 마시더니, 초파리도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을 술로 달랜다네요. 사랑을 잃고 알코올을 찾는 몸의 이야기입니다.<br/><br/><br/><br/>몬터규가(家)의 아들 로미오는 대대로 원수 사이였던 캐풀렛 집안의 딸 줄리엣에게 첫눈에 반하고,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담을 넘어 그녀를 찾아간다. 그러고는 말한다. “<span class='quot0'>당신의 사랑 없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들의 검에 죽겠어요</span>”라고. 첫사랑의 달콤함과 강렬함에 달떴던 어린 연인들은 결국 사랑 없는 세상 대신 그들 없는 세상을 남긴 채 죽음을 선택한다.<br/><br/>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이의 심금을 울렸던 사랑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이토록이나 오랜 힘을 가지고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죽음으로써 사랑을 끝맺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그들의 사랑은 결코 변질되거나 퇴색되지 않고 영원할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살아남아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갔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십중팔구 그들의 사랑이 500년 동안이나 반짝거리진 않았을 것이다. 어른들은 안다. 처음에는 ‘너를 하루라도 안 보면 죽을 것 같아’가 ‘너랑 하루라도 더 같이 살면 죽을 거 같아’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사실을. <br/> <br/><br/><br/><br/><br/>수컷을 원치 않는 암컷에게 <br/>12번이나 차인 A그룹 초파리는 <br/>짝짓기를 원하는 암컷과 <br/>행복한 시간 보낸 B그룹보다 <br/>알코올 섞인 먹이를 선호했다 <br/> <br/>‘술독’에 빠졌던 초파리는 <br/>고대하던 짝짓기 뒤에 <br/>알코올 섭취를 딱 끊었다 <br/>당신의 몸을 아낀다면 <br/>술 대신 사랑을 찾아라 <br/> <br/><br/><br/><br/><br/> 상사병으로 정말 죽을 수 있다<br/><br/> 실제로 동물들의 경우, 종종 ‘상대와 함께하는 것’ 혹은 ‘상대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몸에 영향을 미쳐 수명을 단축시키는 데 일조하곤 한다. 미국 미시간대 유전학과의 스콧 플레처 교수팀은 유전학의 단골 소재인 초파리를 이용해 흥미로운 실험을 한 바 있다. 그들은 유전자 변형을 통해 암컷의 페로몬을 분비하는 수컷 초파리, 즉 일종의 ‘여장 초파리’(she-males)를 만들어내 이들을 보통의 수컷 초파리 무리에 섞어 보았다. 그러자 암컷의 페로몬에 흥분한 수컷 초파리들은 짝짓기를 하려고 했지만, ‘여장 초파리’들 역시 본질적으로는 수컷이었기 때문에 이들과는 교미를 할 수가 없었고, 이는 결국 수컷들의 수명 단축으로 이어졌다. ‘이루어질 수 없는 갈망’으로 인한 수명 단축은 수컷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마초녀’(macho-female, 수컷의 페로몬을 내뿜도록 유전자 변형이 된 암컷 초파리)와 함께 살게 하자 정상 암컷 초파리의 수명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br/><br/> 무엇이 이들을 요절하게 했을까? 연구진은 죽은 초파리들을 분석한 결과, 체내 지방량이 감소했고 뉴로펩타이드 F(neuropeptide F)의 수치가 매우 상승한 것을 발견했다. 뉴로펩타이드 F는 원래 진화적으로 유리한 행동-짝짓기-에 성공한 경우에 분비되는 물질로, 유전자 확산에 성공했으니 자축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일종의 달콤한 화학적 보상물이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 짝짓기에 성공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짝짓기를 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음에도 뉴로펩타이드 F의 수치는 매우 올라간 것이 관찰된 것이다. 결국 연구진은 이 현상을 두고 짝짓기에 대한 열망과 실망스러운 결과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욕구불만’(frustrated)으로 인해 초파리의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결론내렸다. 결국 상대를 안고 싶고 짝짓기를 하고 싶은 신체적 욕구의 좌절이 호르몬 체계에 교란을 일으켰고, 이는 결국 몸의 균형마저도 깨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사람을 비롯한 포유류의 체내에도 초파리의 뉴로펩타이드 F와 비슷한 구실을 하는 뉴로펩타이드 Y가 존재한다고 하니 황진이를 짝사랑하다 죽었다는 양반집 도령이나 나르키소스를 사랑하다가 목소리만 남은 에코의 슬픈 전설에는 생물학적 근원이 있는 셈이다.<br/><br/> 그렇다면 충분한 짝짓기는 생명 연장의 디딤돌이 될 것인가? 물론 이에 대한 연구도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 유전학과의 앤 브루넷 교수팀은 선충(nematode)을 이용한 수명 연구에서 ‘수컷의 존재는 선충의 생명 유지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선충의 경우 99%는 자웅동체로, 자연적으로 완전한 수컷은 1% 정도만 태어난다. 그런데 이 수컷 선충을 일반 선충-자웅동체-과 같이 배양하면 일반 선충들에게는 근육과 장기가 퇴화되는 ‘노화’ 현상이 일찍 나타나고 결국 빨리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수컷의 존재가 이들에게 조로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수컷 없이도 알을 낳아 번식할 수 있는 자웅동체와는 달리 상대가 알을 낳아주어야만 번식할 수 있는 수컷 선충의 경우, 자신과 짝짓기한 상대가 내 유전자가 섞인 알이 아닌 다른 알을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를 일찍 늙어 죽게 만드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는 비뚤어진 소유 의식의 선충 버전인 셈이다. <br/><br/> 어제는 음력으로는 정월 대보름인 동시에 크리스마스와 함께 커플들의 2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히는 밸런타인데이였다. 거리마다 화려하게 치장한 초콜릿 바구니를 들고 짝지어 다니는 커플들이 홍수를 이뤘고, 극장이건 레스토랑이건 마치 원래 하나인 듯 꼭 붙어앉은 커플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당신이 솔로부대의 일원이었다면 이런 현상은 당신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였을 것이다. 아마도 커플들이 달콤한 초콜릿을 나눠 먹는 동안, 쌉쌀한 알코올 음료와 함께 허전한 옆구리를 위로했겠지.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술로 달랬다고 해서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다. 사랑에 좌절한 이가 알코올을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물학적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이니까.<br/><br/><br/><br/> ‘쾌락 대체재’인 술<br/><br/> 미국 하워드휴스 의학연구소 연구진은 언제든 짝짓기를 할 준비를 마친 혈기왕성한 수컷 초파리를 두 그룹으로 나눠 A그룹은 이미 짝짓기를 끝내 더 이상 수컷을 원치 않는 암컷과 하루 3번 각각 1시간씩 4일간 맞선을 보게 했고, 반대로 B그룹은 짝짓기를 원하는 암컷 초파리들과 하루 6시간씩 4일간 대면하게 했다. B그룹의 수컷들이 꿈결같이 행복한 4일을 보내는 동안, A그룹의 수컷들은 1시간 내내 암컷의 꽁무니를 쫓아다녔지만 매몰차게 퇴짜 맞는 잔인한 경험을 무려 12번이나 반복해야만 했다. 아무리 초파리지만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때쯤, 이들에게 보통의 먹이와 알코올이 15% 함유된 먹이를 주어 보았다. 그랬더니 B그룹의 수컷들이 보통의 먹이를 찾아간 데 비해, A그룹의 수컷들은 알코올에 대해 확실한 선호 양상을 보였다. 심지어 ‘퇴짜 맞은 수컷’들은 자신의 몸무게에 2배에 이르는 알코올을 섭취하기도 할 정도로 알코올 의존성을 심하게 보였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가여운 수컷들에게 5일째 되는 날 드디어 진짜로 짝짓기를 할 기회를 주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알코올 섭취를 뚝 끊었다는 것이다. 초파리의 이러한 행동은 마치 실연한 뒤에는 술독에 빠져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듯 괴로워하던 이들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술 대신 연인에게 빠져들어 자연스레 술잔을 기울이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br/><br/> 이때 초파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생화학적 기반에 의한 행동이었다. 초파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진화적으로 유리한 특정 행동을 하게 되면 일종의 ‘쾌락 물질’이 분비되어 이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연달아 암컷에게 퇴짜 맞은 수컷의 경우, 이 물질의 농도가 매우 저하되어 있었고 그 반대급부로 인해 술을 찾게 된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뇌에 작용하여 우울해지고 씁쓸해진 기분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좌절한 경험을 한 초파리가 술에 탐닉하다가도 욕구가 충족되면 더는 알코올을 찾지 않는 이유 역시도 충분히 만족한 기분이 되면 일종의 ‘쾌락 보조제’였던 술은 존재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어제 하루 초콜릿이 아닌 술과 함께 보냈다면, 당신은 하루치의 위안을 술로 대체해 얻은 셈이다. 기억해 둬야 하는 것은 술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와 당신에게 유익한 행동이 주는 좋은 느낌이 상실되었을 때 일시적인 위로를 제공하는 대체재라는 사실이다. 술 대신 당신에게 행복감과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대상을 찾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몸을 진정으로 아끼고 위하는 길일 것이다. <br/><br/>이은희 과학칼럼니스트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11.txt

제목: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한다  
날짜: 2014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1310013465623  
본문: 눈밭을 뒹굴며 눈싸움을 하는 연인의 모습은 영화 ‘러브스토리(미국, 1970년 작)’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영화 ‘러브레터(일본 1995년 작)’의 메인포스터는 설원을 배경으로 여자주인공이 죽은 남자주인공을 그리워하며 ‘오겡끼데스까(잘 지내나요?)’를 외치는 장면이다. 수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개봉되며 관객을 찾는 두 영화의 공통점은 하얀 눈을 배경으로 가슴시린 사랑 이야기를 펼쳐낸다는 것. 흰 눈은 영화를 낭만적으로 그려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한다.<br/><br/><br/><br/>하지만 이도 옛말. 요즘은 연인들은 눈이 오면 우산을 편다.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다. 지난 1월 20일 내린 함박눈의 산성도는 pH 4.2로 신김치 수준. 깨끗한 눈보다 산성도가 25배 높았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섞인 탓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고농도 횟수가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희뿌연 하늘도 이제 일상이 됐다.<br/><br/><br/><br/>∎중국발 미세먼지의 습격<br/><br/><br/><br/>희뿌연 하늘의 정체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성분이 대부분이고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이 섞여 있다. 이것은 자동차 매연, 난방기구, 공장 가동을 통해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탈 때 나온다. 공장이 생기고 자동차를 탄 게 한 두해가 아닌데 왜 최근 1~2년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을까.<br/><br/><br/><br/>중국 탓이다. 중국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석탄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국통계연보(2011)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 의존율은 70%를 넘어섰다. 게다가 겨울이 되면서 석탄 사용량이 더 늘었고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졌다. 실제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 1월에는 993㎍/㎥(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 10월에는 407㎍/㎥에 달했다. WHO 권고 기준인 25㎍/㎥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농도로 연료사용이 많은 겨울에 특히 높았다.<br/><br/><br/><br/>이것이 서풍이나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 오염물질과 합쳐지고 축척되면서 뿌연 하늘을 만든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풍이나 북서풍이 불 때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4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br/><br/>∎폐를 타고 온 몸으로 침투하는 미세먼지<br/><br/><br/><br/>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 배출된다. 하지만 미세먼지'(PM10)는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10정도인 10㎛로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에 축척된다. (여기서 PM이란 Particulate Matter(입자상물질)의 약어이며 숫자 10은 앞에서 언급된 지름 10㎛를 나타낸다.) 기관지에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진다. 또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진다.<br/><br/><br/><br/>실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할 때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수는 1.06%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8.84%나 급증했다. 특히 지름이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미세먼지의 크기가 작은 탓에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면서 협심증,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span>”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 교환을 어렵게 만들어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한다</span>”고 덧붙였다.<br/><br/><br/><br/>실제 대기오염 측정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심혈관질환 발생 건수 등을 종합해 보면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 증가할 때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수가 전체연령에서 1.18% 늘고, 65세 이상에서는 2.19% 증가했다. 미국암학회의 자료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10㎍ 증가하면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자의 사망률이 1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br/><br/>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연구 결과도 많다. 지난 8월,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는 유럽 9개국 30만 명의 건강자료와 2095건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암 발병률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18% 증가했다. 미세먼지도 10㎍/㎥ 늘어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22% 증가했다.<br/><br/><br/><br/>조기사망위험도 커졌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 롭 비렌 박사팀이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Lancet)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증가할 때마다 조기사망 확률이 7%씩 증가하였다. 서유럽 13개국 36만 7000명의 건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br/><br/><br/><br/>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가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유발하고 피부를 자극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가 코 점막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킨다. 또한 두피에 미세먼지가 섞인 눈을 맞으면 모낭 세포의 활동력을 떨어뜨려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쉽게 부러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빠진다.<br/><br/><br/><br/>∎물은 자주 마시고 외출 뒤에는 씻는 것이 우선<br/><br/><br/><br/>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외출을 해야 한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이 올 때는 우산이나 모자를 써 직접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어야 한다. 몸은 물론 두피에도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머리도 바로 감는 것이 좋다. 눈이 가려울 때는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로 씻어내고 목이 칼칼하다고 느끼면 가글을 통해 미세먼지를 뱉어내야 한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해 체내 흡수되는데 호흡기가 촉촉하면 미세먼지가 체내로 들어가지 않고 남아 있다가 가래나 코딱지 등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br/><br/><br/><br/>Tip. 초미세먼지도 막는 마스크 제대로 쓰기<br/><br/><br/><br/>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스크 사용은 필수! 하지만 모든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것은 아니다. 황사용 마스크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능이 있다. 마스크를 쓸 때는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대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피부와 마스크 사이가 떠 차단기능이 떨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증받은 황사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분야별 정보→바이오→의약외품 정보→‘황사방지용마스크’ 허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br/><br/><br/><br/>글 : 이화영 과학칼럼니스트<br/><br/><br/><br/>\*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있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12.txt

제목: 23년 걸린 “무죄”…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날짜: 2014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1310013469438  
본문: 켜켜이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너무 무거웠던 탓일까. “<span class='quot0'>피고인의 자살방조 혐의는 <span class='quot0'>무죄</span>입니다.</span>” 이 한마디에 밝아질 법도 한 표정이 그대로였다.<br/><br/> 13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고법 서관 505호 법정에서는 “<span class='quot0'>무죄</span>”라는 재판장의 말에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방청객 일부는 눈물도 흘렸다. 정작 강기훈(50)씨만은 덤덤했다. 변호인의 감격스런 포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이 나는 듯 웃음지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에 <span class='quot0'>무죄</span>를 선고했다. 23년 만에 찾아온 진실이었다. <br/><br/> 1991년 봄,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면서 노태우 정권의 실정과 공권력의 폭력에 항의하는 대학생·노동자들의 분신이 잇따랐다. 그중 한명인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의 자살 열흘 뒤인 5월18일 <국민일보> 사회면에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는 K모씨에 의해 대필되었다”는 검찰 관계자 말을 인용한 기사가 실렸다. 강씨의 험난한 운명을 알리는 예고편이었다. <br/><br/> 김기설씨의 동료였던 강씨는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 앞에서 팬티를 내리고 항문 검사를 받고, 비둘기장(유치감)에 갇혔다. “영감님(검사) 나오신다”는 말이 들리더니 한 사람이 등장했다. “나, 신상규 검사다. 니들은 뽕쟁이(마약사범)나 똑같은 놈들이여.”(강씨의 재심 재판 최후진술서) 이후 잠을 재우지 않고 반복질문과 욕설이 계속됐다. 수사관들은 짜증을 냈다. “나도 퇴근 좀 하자. 이제 그만 자백하고 끝내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도 필적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썼다”고 밝혔다. 그해 7월13일 강씨는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br/><br/> 그때까지만 해도 강씨는 순진했다. 이성적 판단을 하는 재판부가 있다면 금방 석방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1·2·3심 판사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2년 7월 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전교도소 독방에서 배식구를 통해 받은 대법원 판결문 뭉치를 읽던 강씨는 판결문을 집어던졌다.<br/><br/> 3년의 감옥살이를 마친 뒤에는 체념했다. 눈앞의 권력은 거대했고, 그 권력에 의해 겪었던 고통은 망령처럼 떠돌며 강씨를 괴롭혔다. 가정을 꾸리고 번역·학원관리직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일상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세상은 그를 품어주지 않았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유서대필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으로 자살방조 사건 판례를 공부한다는 말을 듣고는 처참한 심정이었다. 버스에서 강씨를 알아본 노인은 “저런 새끼는 죽어야 한다”고 욕했다. 직장을 다니며 업무로 만난 사람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유서는 왜 써주신 건가요?”라고 묻기도 했다. 강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도 고통스러웠다.<br/><br/> 악몽의 나날을 보내던 강씨를 위해 시민사회가 나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펼친 끝에,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span class='quot1'>유서는 김기설씨가 작성한 것</span>”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며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2009년 9월 서울고법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재항고로 재심 개시는 늦어졌다. 2012년 4월 강씨는 간암 판정을 받아 힘든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몸이 지쳐가면서 싸울 힘도 사라졌다. 대법원은 2012년 10월에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br/><br/> 그리고 1년2개월 동안 뜨거운 공방이 다시 이어진 끝에 이날 <span class='quot0'>무죄</span> 판결이 내려졌다. 정치권력이 진실을 조작하면서까지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려 한 어두운 역사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강씨의 상처투성이 삶과, 암 투병에 지친 육신 앞에 ‘피고인은 <span class='quot0'>무죄</span>’라는 말은 너무 늦게 찾아온 정의였다. <br/><br/>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br/><br/><br/><br/>강기훈과 ‘시간’ [한겨레포커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13.txt

제목: 갑상선암 무분별 검사가 암 환자 양산  
날짜: 2014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1110013445422  
본문: 최근 국내에서 갑상선암의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국가암통계에서도 가장 최근 자료인 2010~2011년 1년 동안 갑상선암의 발생은 무려 23%나 증가했다. 게다가 이런 증가폭은 거의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관련 전문의들은 국내에서 갑상선암이 최근 크게 증가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갑상선암을 찾기 위한 검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려대의대 종양내과와 예방의학교실 교수들이 이를 자세히 설명한 글을 보내와 싣는다.<br/><br/> 보통 암은 발생률이 해마다 1~2%만 증감이 있어도 그 이유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그런데 갑상선암은 국내에서 매년 20% 넘게 그것도 10여년 동안 증가하고 있어, 이는 당연히 세계 신기록일 뿐만 아니라 아예 세계 의학회에서도 정상적인 통계로 인정되지 않는 지경이다. 설사 한반도에서 원자력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br/><br/> 우선 갑자기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특별한 원인이 생긴 것은 아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국민들의 완벽한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다. 즉 우리 몸에서 모든 암세포는 철저히 박멸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이런 열망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기형적인 건강검진 체계의 환상적인 작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들은 갑상선암 진단과 치료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모든 대형병원에서 검진 때에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일부 친절한(?) 병원에서는 이 검사를 무료로 해 준다. 여기에 모든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는 갑상선암 전문치료센터가 있고, 이곳에서는 최첨단의 기술을 이용해 1~2㎜의 극소 암마저 샅샅이 잡아내고 있다.<br/><br/><br/><br/>10년 동안 매년 20% 환자수 증가 <br/>건강 집착과 기형적 검진 합작품 <br/>조기진단 필요없는 ‘거북이 암’ <br/>멍울 생긴 뒤에도 10년 생존율 95% <br/>수술 뒤 악화하는 삶의 질 고려해야 <br/><br/>그렇다면 이처럼 특별한 진단과 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할 만큼 갑상선암은 무서운 병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의학적인 판단이다. 물론 갑상선암은 그냥 놔둬도 되는 암은 아니다. 누군가 ‘거북이 암’이라고 말했듯이 암치고는 대단히 천천히 진행하는 순한 암이다. 결국 이 암은 목에 멍울이 생긴 다음에 진단해 치료해도 10년 생존율이 95% 이상인 그야말로 순한 암이다. 보통 암은 치료 뒤 5년 이상만 살아도 완치됐다고 하는데, 갑상선암은 10년 생존율을 쓰고 있을 정도다.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암 가운데 가장 순한 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br/><br/> 이런 이유로 의학적으로 갑상선암은 조기 진단이 필요한 암이 아니다. 당연히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갑상선암 전문가도, 갑상선암을 조기 검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 공개적으로 국가기관 병원에서까지 갑상선암에 대해 조기 진단을 내놓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발생률 세계 1위, 5년 생존율 100%, 여성암 발생 1위의 성적은 그다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면 앞으로 수년 안에 수십만명의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을 받고, 일생 동안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날 것이다. 갑상선암 치료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암 환자가 됐다는 것 자체로 평생을 괴롭게 살아야 하는 환자들의 망가진 삶도 문제다. 물론 발견된 갑상선암을 모두 다 수술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나, 발견된 갑상선암은 모두 수술해야 된다는 것도 억지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갑상선암도 각 환자의 상황과 암의 크기 및 종류 등을 고려해 담당 의료진과 신중하게 상담해 결정해야 한다.<br/><br/>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 몸은 완벽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반복된 건강검진으로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피부에는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은 희게 변하듯, 모든 근육과 뼈, 장기가 변한다. 이 변화를 이 잡듯 뒤져서 모든 병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헛된 망상이다. 하물며 조금 늦게 진단해도 완치율이 높고 천천히 진행하는 갑상선암을 조기에 진단하고자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초음파를 들이대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른 모든 의료 행위가 그렇듯 건강검진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건강검진에 집착하기보다는 공해 없는 환경, 적절한 식사와 운동, 충분한 수면,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부작용 없는 건강 유지의 지름길이다.<br/><br/>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무분별한 갑상선암 선별 검사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갑상선암 환자를 양산하는 기형적인 의료 행위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형병원뿐 아니라 모든 건강 검진센터에서 증상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br/><br/> 신상원(종양내과)ㆍ안형식(예방의학교실) 고려대의대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14.txt

제목: ‘세포 타이머’ 되돌린다고 불멸의 삶이 올까  
날짜: 2014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1110013445438  
본문: 얼마 전 시내 지하철역에서 눈에 띄는 광고를 보았다. ‘노벨의학상이 찾아낸 불로장생의 비밀’이라는 부제를 달고, 염색체(게놈)의 한 부분인 ‘텔로미어’를 다룬 대중서적의 광고였다. 실제로 텔로미어 연구자인 엘리자베스 블랙번, 캐럴 그라이더, 잭 쇼스택 교수는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은 바 있다. 정말 이 연구자들이 진시황제의 못다 한 숙원인 ‘불로초’를 찾아냈다는 말인가?<br/><br/> 그날 저녁에 불로초의 비밀을 놓칠 수 없다는 부푼 기대를 품고서 책장을 넘겼다. 그런데 책은 기대와 달리 다른 보통의 관련 서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텔로미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노벨상의 권위를 빌려 자신들의 방법을 좀 더 과학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데 있었다. 텔로미어가 대체 무엇이기에 현대의 불로초로 묘사되고 상품 광고에도 떠들썩하게 등장하는 걸까?<br/><br/><br/><br/> 텔로미어는 ‘세포 타이머’<br/><br/> 텔로미어는 아직 일반인한테 낯설기는 하지만 생명과학계에선 최근 10여년 동안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떠오르면서 그 존재가 점차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흔히 불로장생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얘기되는 텔로미어는 사실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독특한 구조로, 생체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담기지 않은 특정 염기서열의 단순반복으로 이뤄져 있다.<br/><br/> 사람의 경우에는 여섯 개의 염기서열(‘TTAGGC’)이 1000번 이상 반복되는 구조다. 어찌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 서열이 모든 생물체의 염색체 끝부분에 붙어 있는 이유는 뭘까? 그건 디엔에이(DNA) 복제가 지닌 결함 때문으로 설명된다. 세포분열 때에 디엔에이는 복제되는데, 복제를 거듭할수록 염색체 끝은 조금씩 닳아 없어진다.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요한 유전정보가 손실될 수 있다. 다행히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유전정보를 대신해 자신이 줄어들면서 일종의 방어막 구실을 한다.<br/><br/> 이런 기능 때문에 텔로미어는 종종 ‘신발끈 끝에 붙은 플라스틱 마개’로 비유되곤 한다. 하지만 신발끈 끝에 달린 플라스틱 조각도 시간이 흐를수록 닳듯이 텔로미어도 세포분열이 진행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결국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전정보의 손실이 생기는 건 아닐까? 텔로미어가 더 는 방어막 구실을 못해 손상된 유전자가 복제되면 생물체에 큰 혼란이 생기진 않을까?<br/><br/> 이런 문제에 대비해 세포는 텔로미어에 중요한 임무를 하나 더 부여했다. 그것은 텔로미어가 일정 길이보다 짧아질 때에는 세포분열을 멈추게 하는 임무다. 즉, 텔로미어는 마치 남은 세포분열 횟수를 기록하다가 0에 가까워지면 알람을 울려 세포분열을 멈추게 하는 ‘타이머’처럼 작동한다는 것이다. <br/><br/> 세포의 타이머를 초기화하면 어떻게 될까? 세포가 무한 분열을 할까? 1998년 미국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의 우드링 라이트 교수 연구팀은 체외에서 배양한 피부세포의 타이머를 초기화하면 무한 분열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제리 샤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가 노화를 치료해줄 것으로 생각했지</span>”라고 회상한 바 있다.<br/><br/><br/><br/>염색체 끝부분 단순반복 염기서열 <br/>세포분열 때 유전정보 보호 구실 <br/>노화·수명과의 연관성 밝혀 노벨상 <br/>‘불로장생 비밀 지녔다’ 관심 쏠려 <br/>상업적 과장…개체 수준 암 유발도 <br/>장수 비결은 한 가지로 환원 안돼<br/><br/> 개체의 타이머라 부를 수 있을까? <br/><br/>얼핏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무한 분열과 불멸이 단세포 생물에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포의 노화 과정은 기계의 마모 과정과 비슷하다. 기계가 작동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과 이물질로 인해 점점 낡을 수밖에 없듯이, 세포에서도 효소 반응이 지닌 한계와 오류로 인해 갖가지 찌꺼기들이 생겨 세포 기능을 저해하고 늙게 한다.<br/><br/> 똑같은 유전정보를 다음 세대에 그대로 물려줘 무한한 ‘나’를 만들어내는 단세포 생물은 ‘영원히 산다’고도 얘기된다. 이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내 찌꺼기를 희석하거나 한쪽 세포에 몰아주는 식으로 세포 하나의 건강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한히 분열하는 단세포 생물은 텔로미어 타이머를 지속적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br/><br/> 단세포 생물과 달리, 다세포 생물은 여러 기능으로 분화한 다종다양한 세포들이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 이 세포들 간에는 중요한 분업 계약이 존재한다. 그것은 ‘유전정보를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하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생식세포에 일임하는 것과 같다. 이런 분업 덕분에 생식세포는 단세포처럼 지속적으로 분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자원을 들여 보호된다. <br/><br/> 반면, 체세포는 단세포 시절에 지녔던 자유로운 분열 능력이 통제되고 생식세포의 안녕을 위해 일한다. 그 결과 체세포는 분열을 통해 찌꺼기를 희석하는 전략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낡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br/><br/> 만일 체세포에게 자유로운 분열 능력을 되돌려준다면 우리는 불멸을 누릴 수 있을까? ‘텔로미어 타이머를 초기화할 수 있는 능력은 생식세포만 가진다’는 분업 계약이 체세포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면 불멸의 삶이 펼쳐질까? <br/><br/> 스페인 국립암연구소의 블라스코 교수 연구팀은 그런 쥐를 실제로 만들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 쥐는 온몸이 암세포로 뒤덮인 상태가 됐다. 암세포 각자는 무한 분열하며 불멸을 누릴 수야 있겠지만, 이 세포로 이뤄진 유기체는 치명적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br/><br/> 이렇듯 다세포 생물에서 텔로미어 타이머는 분업이 지켜지도록 통제하는 경찰과 같다. 텔로미어는 자유롭게 분열하려는 세포의 욕망을 억제해 유기체의 질서를 유지한다. 모든 세포가 자유롭게 분열하는 세상은 죽음이 사라진 유토피아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세포들의 욕망이 충돌하는 혼돈일 수 있다. <br/><br/><br/><br/> 불로의 약 드시겠습니까?<br/><br/> “<span class='quot1'>400유로의 검진이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지 알려준다.</span>” 이 문구는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게 아니라 2011년 영국 일간신문 <인디펜던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는 텔로미어를 측정해 건강검진 보고서를 제공하는 어느 생명공학 기업을 소개하는 보도였다. <br/><br/> 다세포 생물에서 텔로미어는 무한한 생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암 발생 없이 텔로미어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현저하게 수명이 증가한다. 실제로 암에 강한 저항성을 지닌 쥐의 텔로미어 타이머를 초기화하면 수명이 40%가량 증가하고, 일시적으로 텔로미어 타이머를 끈 경우에도 수명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br/><br/>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이 텔로미어를 닳지 않게 유지하는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품들이 수명을 늘리는지, 늘린다면 세포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가진 텔로미어 타이머의 남은 숫자가 점점 작아진다고 주장하는 논문에서도 다수 사람이 그런 경향성에서 예외로 벗어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긴 텔로미어를 지니는 것도 아니다. <br/><br/> 노화 연구 결과가 쌓일수록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노화의 원인을 한 가지 요소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활성산소, 적게 먹기 등등이 노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하나의 요소만을 조절하는 것으로 노화를 멈출 수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텔로미어가 수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텔로미어 하나로 불로장생의 비밀을 풀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과학을 오용하는 것이다. 과학은 상품에 권위를 부여하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과학은 잘못 부여된 권위를 깨는 방식으로 존재한다.<br/><br/> 김천아 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사과정<br/><br/>※사이언스온 연재 ‘엘레강스 펜클럽’에 실린 글을 필자가 줄이고 다듬어 다시 썼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15.txt

제목: 어머니의 마지막 몇달  
날짜: 2014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1110013445533  
본문: 형님께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연세가 높아 수술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노모에게 “제가 사는 암자는 공기도 좋고 꽃도 많으니 잠시 소풍 간다고 생각하고 저를 따라가십시다”며 암자로 모시고 왔다.<br/><br/> 암자에서 내 딴엔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자연요법 치료를 하게 한 것이 알게 모르게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렸다. 절집 반찬이 원래 그렇듯이 대부분 채소 반찬에, 넘기기 힘들어하시는 현미밥만 드렸다. 또 이런저런 민간요법과 운동을 하셔야 한다고 아침낮으로 산책하게 했다. 어머니는 힘든 내색도 않고, 하자는 대로 했다.<br/><br/> 그러나 어머니로선 아무리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아들이라 해도, 속가 식구가 절집에 얹혀산다는 것은 여간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절집이라도 살림은 살림인지라 이것저것 눈에 밟히는 것이 좀 많았을까. 어머니는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 없이 채마밭을 일구고, 이곳저곳을 알게 모르게 윤이 나게 쓸고 닦았다. 심지어는 음식 찌꺼기를 가져가는 까치도 어머니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탁발을 해 가곤 했다. 어머니의 정성으로 암자에 사는 다른 식구들의 얼굴들이 전에 없이 밝아졌다. 야단치고 바른말 잘하는 주지보다는 어머님이 법력이 훨씬 높은 셈이었다. 시봉을 하려고 모셨지만 결국 시봉받은 꼴이 되었다. <br/><br/> 촛불이 꺼지기 전에 잠깐 동안 더 밝은 빛을 내고 사라지듯이, 어머니도 그러셨다. 아들을 위해서 짧은 몇달 온 힘을 다했다. 당신은 “이만하면 되었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면서도, 아들스님 좋아하라고 애써 기운을 내셨다. 어머니는 스님이 되었어도 아직 공부가 모자라는 아들을 걱정하며 “나는 괜찮으니 일 보라”는 한마디 말씀 남기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설을 막 지나서였다. <br/><br/>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여드렸다. 특히 출가할 때는 어머니의 눈물을 많이 뺐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힘든 어머니 앞에서 출가를 선언했다. 나이가 어린 탓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입장보다는 출가를 하고 싶은 내 욕심만 앞세웠다. 출가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어머니 앞에서 ‘세상 이치가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떠들었다. 어머니는 철부지 아들의 고집을 꾸짖지도 못하고 쓰린 가슴으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중에야 들었다. 그러면서 이왕지사 출가했으니 큰 발심으로 대도를 성취하기를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한다. 아직도 부모의 깊은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br/><br/> 일감 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16.txt

제목: [세상 읽기] 반올림, 또 하나의 가족 / 정정훈  
날짜: 2014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1110013444954  
본문: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의미있는 흥행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대기업 외압설이 제기되는 등의 불리한 상영 조건에 대해 시민들이 단체관람을 하며 영화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 더욱 반갑다. <또 하나의 약속>이 이만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작품 자체의 높은 완성도 이외에도 영화가 배경으로 하는 직업병 피해자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br/><br/> <또 하나의 약속>은 국내 최초로 백혈병에 대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고 황유미씨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발병한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문제는 당시만 해도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힘든 문제였다. 게다가 상대가 ‘초일류기업’ 삼성전자임을 고려하면, 영화가 배경으로 하는 현실은 피해자 가족들만이 절규하는 메아리 없는 호소로 그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br/><br/>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사건으로, 사회적 이야기로 만든 데에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라는 단체와 그 활동가들이 있었다.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인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를 비롯하여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은 ‘반올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다. 지난 7년간 반올림 활동가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삼성과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현장에 늘 함께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또 하나의 가족’이었던 것이다.<br/><br/> “사람이 죽는 문제인데 어쩜 이렇게 세상이 단단한 벽 같을까. 절망까지는 아닌데 때로는 자괴감도 느꼈다.”(<서울대저널> 2013년 9월4일치) 그동안의 반올림 활동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이종란 노무사의 대답이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서 난주(김규리) 역의 실제 모델인 이종란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인정률이 0.1% 미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싸움을 해야죠.”<br/><br/>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당장은 ‘지는 싸움’에 의미를 걸고, 희망의 주사위를 던져야 한다. 그 ‘지는 싸움’이 끝내 세상을 바꿀 변화의 균열을 만들어낼 것임을 믿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반올림은 수년간의 ‘지는 싸움’을 통해 국내 최초로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을 만들어냈고, 2013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범위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br/><br/> 이종란 노무사 이외에도 반올림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기억해야 할 이름이 많다. 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다는 황상기씨의 손을 처음으로 맞잡고 함께 문제를 제기한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 ‘삼성 직업병 통역사’를 자처하며 산업재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직업의학과 전문의 공유정옥,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다 반올림 상임활동가로 결합한 권영은 활동가,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바로 반올림에서 상근활동을 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 그리고 직업성 백혈병으로 남편을 잃은 피해자 가족이자 스스로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반올림에 결합하여 활동해온 정애정씨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반올림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br/><br/> 영화 <변호인>을 보고 인권변호사로 변모해가는 ‘인간 노무현’을 떠올렸듯이, <또 하나의 약속>을 본 관객들이 이 활동가들의 존재와 이름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영화가 당시에 ‘지는 싸움’을 함께 한 ‘또 하나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로 오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 <br/><br/>정정훈 변호사 <br/><br/><br/><br/>[관련영상] [한겨레 캐스트 #238] "삼성이 응답하라",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17.txt

제목: “선택진료비 올해말 35% 축소 4인 병실료도 건강보험 적용”  
날짜: 2014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1110013445997  
본문: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 온 선택진료비가 2016년까지 상당 부분 줄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실상 존치되는데다, 축소된 선택진료비만큼 병원의 전문적 수술 등에 대한 진료비를 인상하기로 해 환자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br/><br/> 보건복지부는 11일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가산 비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선택진료를 받으면 수술·검사 등에 따라 진료비의 20~100%를 가산한 금액을 환자가 선택진료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15~5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전체 선택진료비 규모인 1조3000억원이 올해 말에는 35%가량(약 46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br/><br/> 또 현재 병원 전체 의사의 80%까지로 제한된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내년에는 65%, 2016년에는 30%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9900명에 이르는 선택진료 의사가 2016년에는 3300명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2017년에는 선택진료 대신 전문진료라는 제도로 바꾸고, 가산되는 진료비의 절반을 건강보험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선택진료비 부담은 현재의 36% 정도로 감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다.<br/><br/> 3대 비급여 가운데 하나인 상급병실료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병실(현재 6인실)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원은 해야 하지만 기준 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 병실이 4인실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실 의무 비율을 현재 전체 병상의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이른바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실을 고려해, 4인실의 기본 입원료 가운데 환자 부담 비율을 현재 6인실의 20%보다는 높은 30%로 정할 방침이다.<br/><br/> 간병비 대책으로는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br/><br/>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4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현재 약 8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이 있어 건강보험료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br/><br/>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3대 비급여 대책에 대해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완전 폐지를 건의한 선택진료가 말만 전문진료로 바뀐 채 살아남아 여전히 중증질환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선택진료는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입 보전을 위해 탄생한 기형적인 제도로, 기획단이 의견을 모은 것처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암 등 중증질환자들은 선택진료 혹은 전문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여전히 의료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br/><br/>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논평을 내어 선택진료의 잔존 형태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도입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택진료비 1조3000억원은 의료 공급자 쪽에서 기형적으로 선택진료를 남용한 결과인데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을 이용해 줄어든 선택진료비만큼 병원에 보상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진료비 인상 조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18.txt

제목: 돌직구로 부를밖에요, 미사여구가 어울리지 않는 세상  
날짜: 2014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0910013422861  
본문: ‘영원한 악동’ 크라잉넛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span class='quot0'>환갑 맞아서도 계속 펑크록을 하고 싶어요.</span>”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올해 환갑을 맞은 ‘할아버지 펑크로커’ 정형근이다.<br/><br/> 그가 처음부터 펑크록을 한 건 아니다. 1979년 데뷔 이후 포크 음악을 해온 그는 ‘지하 5층 언더 가수’로 불렸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는 “<span class='quot1'>우리가 지하 1층이면 형은 지하 5층</span>”이라고 했고, 고 김현식은 “언더그라운드의 재야”라고 했다. 2009년에 칼릴 지브란의 잠언서 <예언자>를 음반으로 만드는 평생 숙원 프로젝트를 이루면서 30년 음악인생을 일단락지었다고 그는 말했다.<br/><br/> 그러나 이후 다시 기타를 들었다. 2011년 포크가 아니라 펑크록을 기반으로 한 6집 <효도탕>을 발표했다. “<span class='quot0'>이명박 정부가 하는 짓을 그냥 볼 수가 있어야지.</span>” 그는 ‘까꿍!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미친소 안전하다는 미친놈을 보았습니다. 원자력 안전하다는 미친놈을 보았습니다. … 강바닥 파헤치는 설치류들, 국민을 때리는 공권력들 … 까꿍! 대한민국.”<br/><br/>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말 그는 7집 <바닷물 먹지 마>를 발표했다. 역시 펑크록이다. “수구세력이 자기네 틀로 사회를 끌고 가는 행태에 본능적으로 맞서고 해체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펑크록을 하게 만들었어요. 펑크록을 새롭게 발견하게 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감사라도 해야 할까요? 허허허.”<br/><br/>포크송 언더그라운드 30년 <br/>펑크록으로 음악인생 2막 <br/>“이명박·박근혜 정부 행태 보며 <br/>자연스럽게 반항정신 일어<br/><br/>4대강부터 삼성공화국까지 <br/>내 마음 그대로 악보에 뿌려봤죠” <br/><br/><br/> 그는 “<span class='quot0'>포크가 지적이지만 다소 위선적인 면도 갖고 있다면, 펑크록이야말로 지적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음악</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지적이라고 하면 체계적이고 학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펑크록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솔직하고 아름다워서 지적인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br/> 7집 수록곡을 들어보면, 낯설고 파격적이기까지 하다. ‘멘붕 마이 웨이’, ‘개 조심’ 같은 제목의 노래가 있는가 하면, 저잣거리 뒷골목 비속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노랫말로 쓰인다. 노랫말 의미도 단번에 파악하기 힘들다. 그는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록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앨범 작업을 했다고 했다.<br/><br/> “잭슨 폴록은 관념과 개념을 배제하고 캔버스에 페인트를 죽죽 부어요. 회화를 넘어서서 자기 마음속의 색깔들, 상처, 낙서를 뿌려버리는 거죠. 문득 언어로 기승전결을 갖춰 세상을 규정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낙서를 캔버스 대신 음악에 뿌려보자 해서 만든 게 이번 앨범입니다.”<br/><br/> 타이틀곡 ‘바닷물 먹지 마’는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위안이자 경종이다. “최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대체로 너무 소극적이고 순응적이에요. 예전에 전함이 침몰해 보트 타고 표류하는 영화를 봤는데, 함장이 ‘목말라도 절대 바닷물 먹지 말라’고 해도 어린 수병이 바닷물 먹고 끝내 죽더라고요. 아이들이 절망하니까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br/><br/> 그래서 그는 노래한다. “세상을 바꿔 평화롭게. 미워하지 마. 출발할 수 없어. 증오하지 마. 돌아올 수 없어. 겁먹지 마. 100% 성공한다. 우리들의 인생은 생리얼이야. 평화를 위해 아름다운 꽃을 들어. 바닷물 먹지 마. 겁먹지 마.”<br/><br/>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도 벼린다. ‘진실을 알릴 방법이 없네’에선 “뭐가 괜찮냐고 하면서 쌍용자동차 보여줬잖아. 진실이 뭐냐고 하면서 에버랜드 보여줬잖아. 개발이 뭐냐고 질문하니까 용산참사 보여줬잖아. 발전이 뭐냐고 질문하니까 강바닥 파는 거 보여줬잖아”라고 노래하고, ‘이거니’에선 검사 1600명도 대적 못하는 ‘삼성공화국’을 비꼰다. “1600 대 1로 싸워도 지는 거니, 이거니. 1억 받았니 2억 받고 봐준 거니, 이거니. 거니 돈 먹으면 거니 개 되는 거니, 이거니. 생선가게 건이한테 맡긴 거니, 이거니.”<br/><br/> 그는 이번 앨범을 두고 “<span class='quot0'>밥 딜런의 생각으로 너바나처럼 노래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수술한 신장암이 2012년 재발해 다시 수술 받았어요. 4대강 파는 거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나봐요. 암 수술 두번 받으니 사람이 바뀌더라고. 형용사, 부사, 미사여구 없이 그냥 직구로 가게 되더라고요.”<br/><br/> 그는 오는 24일 저녁 7시30분 서울 대학로 스타시티 티엠(TM)스테이지에서 <바람이 분다. 돛이 펄럭거린다> 공연을 한다. 지난해에 이은 <예언자> 공연 시리즈 두번째 무대다. <예언자> 앨범에 담긴 28곡 중 후반부 14곡을 노래한다. <br/><br/> “<예언자> 공연 마치고 나면 <바닷물 먹지 마>로 공연을 또 준비해야죠. 난 몇살까지 노래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젊을 때에 비해 근력이 떨어져 노래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언제까지고 노래하려고요.” 공연 문의 010-3272-5349.<br/><br/>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19.txt

제목: 두 달을 못 버티고 요양원을 찾았다  
날짜: 2014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0710013414518  
본문: ▶ 얼마 전 한 아이돌 가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할머니가 함께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수의 아버지는 치매에 걸린 자신의 아버지와 암에 걸린 어머니를 더이상 부양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지요. 사건을 본 우리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살을 두고 흔히 하는 ‘목숨이 그리 가볍냐’는 비판도, ‘안쓰러워 어쩌누’라는 위로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조금은 알기 때문입니다.<br/><br/><br/><br/>“언니, 어딜 나가? 어제랑 그제도 내가 할머니 당번했잖아.”<br/><br/> “미안해. 남자친구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알잖아. 한번만 봐줘.”<br/><br/> “진짜 이기적이다. 나도 오늘 약속 있다고. 할머니보다 남자친구가 더 중요해?”<br/><br/> “카드 줄 테니까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려. 나 갈게.”<br/><br/>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언니! 야!”<br/><br/>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할머니를 모신 지 두달 만에 우리는 지쳐 있었다.<br/><br/> 효자라면 효자였다. 아버지를 비롯한 6남매는 부모에게 자주 찾아가는 편이었고 용돈도 적지 않게 드렸다. 입만 열면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없다’는 말을 하고 하루 한 번 전화도 빼먹지 않았다. 할머니가 동네로 찾아오는 장사꾼들에게 속아 가짜 건강식품이나 게르마늄 옥매트, 불량 청소기 따위를 사들였을 때도 자식들은 그저 웃었다.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뵈었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반성이 먼저 나왔으니까.<br/><br/> 그런데도 할머니는 끝내 자식들의 효성을 시험해보고 싶으셨나 보다. 87살이 되던 해 치매가 찾아왔다. 초기에는 잘 몰랐다. 그저 노인이니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압력밥솥에 불을 올렸다가 솥을 통째로 태워먹자 자식들의 걱정은 커졌다. 얼마 뒤 할머니는 부엌을 통째로 태웠다. 불이 안방으로 번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자식들은 마을에서 가까운 식당을 찾아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앞으로 하루 세끼 도시락을 배달시켰다. 6가지 찬에 따끈한 밥과 국이 포장된 정갈한 도시락을 보면서 자식들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분간은 안전하시겠지.’<br/><br/>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됐다. 할머니는 사람을 점점 못 알아봤다. 누가 가도 손자의 이름만 불렀다. 내면의 한도 터져 나왔다. 7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할아버지한테 푸념 한번 하지 않던 할머니는 미워 죽겠다는 듯 할아버지를 때렸다. 할머니의 한풀이에 90살을 넘긴 할아버지는 몸에 멍이 들도록 맞으며 평생의 죄를 갚고 있었다. 더이상은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정신이 온전한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맡기고 할머니는 삼남매가 나눠서 돌보기로 했다. 큰아들네 두달, 작은아들네 두달, 셋째네 두달. 딸 둘과 외국 사는 막내아들은 순번에서 제외됐다.<br/><br/> 우리 집이 첫번째였다. 아버지가 큰아들이다. 아버지는 소똥 냄새 나는 고향과 참기름 향을 풍기는 할머니를 사랑했지만, 치매 걸린 노인을 돌보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잠시 눈을 떼면 사고가 났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이 사라져 있고, 때론 무선전화기가 냉장고 안에 있었다. 책상 위에는 흙 묻은 아버지 신발이, 옷장에서는 반찬통이 튀어나왔다. 할머니는 입만 열면 ‘집에 가서 니 아버지 밥해줘야지’라고 소릴 지르며 신발을 신었다. 서울의 아들집은 할머니에겐 그저 남의 집이었다.<br/><br/> 식사도 문제였다. 평소에는 반찬이 없어도 그럭저럭 버티던 아빠가 예민해졌다.<br/><br/>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모시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노인네가 이걸 어떻게 씹어!” 워킹맘인 엄마도 지지 않았다. “열두시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밤새 만든 건데, 싫으면 당신이 직접 하든가.” “그게 지금 말이야?” “말이 아닐 건 뭐야. 그렇게 어머니, 어머니 하더니 한달을 못 참고 나한테 짜증 내잖아.”<br/><br/>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다. 아빠는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고 할머니 수발에 나섰지만 본래 간호에는 소질이 없는 사람이다. 할머니와 있으면서도 그저 주무시길 바랄 뿐 달리 간병인 구실을 하지 못했다. <br/> <br/><br/><br/><br/><br/>사라진 할머니를 찾고 나서 <br/>우리는 주저앉아 울었다 <br/>부모를 고작 두 달 모시고 <br/>피폐해진 게 부끄러웠다 <br/> <br/>고집불통 할매는 요양원에서 <br/>생기도 사라지고 얌전해졌다 <br/>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다 <br/>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다 <br/> <br/><br/><br/><br/><br/>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사라졌다. 덥다고 문을 열어둔 게 화근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사색이 된 아빠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20층도 넘는 아파트에서 노인이 어떻게 내려갔을까’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길도 모르고 자식도 못 알아보는 양반이 어딜 갔나’ ‘못 찾으면 어떡하지…’. 안 좋은 생각이 꼬리를 물자 우리는 모두 정신줄을 놓아 버렸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파트와 집 주변을 나눠 샅샅이 뒤졌다.<br/><br/> 그렇게 네 식구가 소리를 지르며 찾은 지 한시간 만에 할머니를 아파트 2층 계단에서 발견했다. 아빠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가긴 어딜 간다고 나갔어. 자식도 못 알아보는 양반이 왜 자꾸 간다고….” 아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엄마도, 나도 울었다. 우리는 그저 복도에 주저앉았다. 평생 길러준 부모를 고작 두달 모시고서 피폐해진 것이 부끄러워서다.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집에 갈라고’를 연발했다. 밤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던 그날 밤 우리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창문까지 닫고 누웠다. 치매 앞에서 네 식구는 무력해졌다.<br/><br/> 그렇게 생채기를 남기고 난 뒤에야 지방에 있는 한 치매노인 요양원을 구할 수 있었다. 허름한 요양원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왔다. 요양원비에 기저귀, 간식비 등을 포함해 한달에 한분당 150만원이 들었다. 이 역시 6남매가 나눠 내기로 했다. 돈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감사해야 했다.<br/><br/>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할머니는 허리까지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잘랐다. 늘 은비녀로 곱게 정돈한 머리의 할머니는 사내아이처럼 짧은 머리가 됐다. 그런 머리가 감기기 쉽기 때문이었다.<br/><br/> 오랜만에 찾아간 할머니는 유난히 조용했다. 목욕은 일주일에 두번, 밥도 잘 나오고 간식도 드신단다. 한데 생기가 사라졌다. 꼭 호되게 혼난 어린이집의 아이 같았다. ‘집에 가서 니 아버지 밥해야제’를 연발하던 고집불통 할매는 없고 얌전한 요양원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밤에 잠을 안 주무셔서 약을 좀 먹였다는 얘기도 있고, 집에 가겠다고 하도 고집을 부려서 안정제를 투여했다는 말도 들려왔다.<br/><br/> 그래도 우린 할 말이 없었다. 고작 두달 만에 두손 두발 다 들어버린 것들이 자식이라고 와서 ‘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느냐’고 말하는 건 자기기만이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기도 했다. 엄마와 아빠는 그저 요양원 보호사 선생에게 용돈을 쥐여주며 “잘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했다. 나는 “할머니 미안해”만 반복했다.<br/><br/> 쓸쓸하게 돌아섰다. 자주 오겠다고 말했지만 요양원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저마다 지고 있던 삶의 짐을 다시 떠올렸다. 할머니에게 느꼈던 미안함은 내일 출근, 모레의 실적 마감, 다음주에 있을 시험에 대한 걱정으로 곧 사라졌다. 잠시나마 효자이고 싶었던 우린 그렇게 또 불효자로 살아가고 있다. <br/><br/>할머니 뒤에서 우는 불효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20.txt

제목: 건강보험 보장률 3년째 하락…2012년 7년만에 최저  
날짜: 2014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0710013409848  
본문: 2012년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62.5%로 최근 7년(2006~2012년) 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이후 3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져 건강보험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br/><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등 1181개 의료기관에서 2012년 12월에 외래 혹은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6∼12월 이뤄졌다. 이를 보면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였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전체 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건강보험이 62만50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7만5000원을 낸다는 이야기다. <br/><br/> 이는 2011년보다는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 2009년 65%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또 2006~2012년 7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 2007년 65%, 2008년 62.6%, 2009년 65%, 2010년 63.6%, 2011년 63% 등이었다.<br/><br/>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약 80%)보다 크게 낮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최근 들어 오히려 이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영역인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폭이 크게 늘어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 전체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외래 진료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br/><br/>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다보니 환자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중의 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감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현재 8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이 있다고 하니 이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면서 획기적으로 보장률을 높여서 신뢰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질병별로 구분해서 보면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인 암ㆍ심혈관질환ㆍ뇌혈관질환ㆍ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2012년 77.8%로 나타나 2011년(76.1%)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또 환자 1인당 진료비가 많은 상위 30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2012년 기준 77.4%로 이전해보다 1.9%포인트 올랐다. 공단 관계자는 “2012년도는 다른 해에 견줘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확대 정책의 규모가 작아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4대 중증질환 등의 보장성이 개선된 만큼 2013년 이후의 보장률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21.txt

제목: 아버지는 숨진 딸의 유품을 들고 영화를 봤다  
날짜: 2014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0610013404847  
본문: 영화 개봉일인데도 극장 안에는 포스터 하나 없었다. 6일 서울 구로씨지브이(CGV) 안에는 각종 영화 광고물들이 휘황찬란했지만 이날 개봉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작은 전단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대신 영화 제작과 개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시민들이 평일 아침의 극장을 메웠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 황유미(당시 23살)씨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보러 온 이들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 7관에서 상영된 이 영화의 객석 147석 가운데 열에 여덟 이상은 관객이 앉았다.<br/><br/> 이 가운데 20석은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를 비롯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장하나 민주당 의원,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등 그동안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싸워온 이들의 것이었다.<br/><br/> 영화에서 상구(박철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황상기씨는 극중 황유미씨 역의 윤미(박희정)가 진성반도체에 취직한 뒤 아버지가 권한 소주잔을 한번에 비우는 장면이 나오자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에 다니다 백혈병에 걸린 윤미가 아버지가 모는 택시 뒷좌석에 탄 채 고향 속초로 돌아오는 길에 영동고속도로 위에서 숨을 거두는 장면에서 황씨는 끝내 눈시울을 붉히고야 말았다. 황씨는 영화가 끝난 뒤 “실제로 제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을 하던 중 뒷자리에 있던 유미가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길옆에 차를 세워놓고 뒷문을 열어 보니까 이미 유미가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아무래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라고 말했다.<br/><br/> 영화를 관람할 때 그의 옆엔 작은 종이가방이 있었다. 종이가방 안에는 아이돌그룹 신화의 사진이 빼곡했다. “유미랑 같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유품을 가져왔어요. 유미가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신화를 좋아하는 팬들도 영화를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흰머리를 짧게 깎은 황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br/><br/> <br/><br/> 삼성서 2년여 근무했다는 관객 <br/>“<span class='quot0'>3교대·억압적 분위기…공감 커</span>” <br/>이종란 노무사 “<span class='quot1'>3년째 항소심</span>” <br/>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보도 <br/> <br/><br/><br/><br/><br/>황씨와 함께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암 등 희귀병에 걸린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이종란 노무사도 영화에서 난주(김규리) 역으로 등장한다. 이 노무사는 “산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span class='quot1'>3년째 항소심</span>이 진행중인데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 영화를 본 장하나 의원은 ‘정치는 표면이고 경제가 본질이죠’라는 극중 진성반도체 인사관리팀 담당자의 대사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며 “부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일해 보니 실제로 기업인들을 국회에 세우기 어렵다. 국가를 움직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질서 위에 자본이 있다는 점을 꼬집는 대사 같았다”고 말했다.<br/><br/> 서울 신림동에서 영화를 보러 온 관객 이아무개(29·여)씨는 “2002년부터 2년6개월 동안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에서 일했다. 3교대 근무나 회사의 억압적인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다”고 소감을 말했다.<br/><br/>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에 다니다 노동환경의 부당함을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최종범씨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span class='quot2'>삼성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고발하여 삼성을 새롭게 세워 나가는 범사회적인 대책기구를 제안한다</span>”며 “<span class='quot2'><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관람 및 대관 운동부터 시작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 한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을 앞두고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실제 인물인 황상기씨가 딸이 공장의 유독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탓에 백혈병에 걸린 점을 입증하기 위해 초국적기업인 삼성뿐 아니라 삼성과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으려 발뺌하는 한국 언론들과도 투쟁해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0년 동안 진실을 찾아 헤맨 황씨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가 전국적으로 상영되는 것은 삼성을 둘러싼 ‘침묵’을 깬 것이라고 평가했다. <br/><br/>박수지 이유주현 기자 suji@hani.co.kr <br/><br/><br/><br/>[관련영상] [한겨레 캐스트 #238] 삼성 백혈병 노동자 문제 이제는 해결할 때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22.txt

제목: 건강보험 보장률 최근 7년동안 최저…3년 연속감소  
날짜: 2014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0610013405331  
본문: 2012년 기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62.5%로 최근 7년(2006~2012년) 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이후 3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져 건강보험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br/><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등 1181개 의료기관에서 2012년 12월에 외래 혹은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6∼12월 이뤄졌다. 이를 보면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전체 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건강보험이 62만50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7만5000원을 낸다는 이야기다. 이 수치는 2011년보다는 0.5%포인트 하락했으며, 지난 2009년 65%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또 2006~2012년 7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참고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 2007년 65%, 2008년 62.6%, 2009년 65%, 2010년 63.6%, 2011년 63% 등이었다. <br/><br/>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오이시디ㆍOECD) 회원국의 평균이 약 80%인 것에 견줘 크게 낮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최근 들어 오히려 이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영역인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폭이 크게 늘어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 전체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외래 진료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다보니 환자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중의 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감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현재 8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이 있다고 하니 이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면서 획기적으로 보장률을 높여서 신뢰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br/><br/>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질병별로 구분해서 보면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인 암ㆍ심혈관질환ㆍ뇌혈관질환ㆍ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기준 77.8%로 나타나, 2011년의 76.1%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또 환자 1인당 진료비가 큰 상위 30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2012년 기준 77.4%로 이전해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2012년도는 다른 해에 견줘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확대 정책의 규모가 작아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4대 중증질환 등의 보장성이 개선된만큼 2013년 이후의 보장률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23.txt

제목: 묵살당한 ‘선택진료 폐지’…사회적논의기구 결국 들러리?  
날짜: 2014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0510013393267  
본문: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간병비·상급병실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의료기획단)이 선택진료의 완전 폐지를 제안했으나, 정부는 폐지 대신 선택진료 대상 의사의 비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암 등 4대 중증질환의 전체 진료비를 정부와 건강보험이 100% 보장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br/><br/> 5일 보건복지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가운데 선택진료비의 경우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의 비율을 현재 병원 소속 의사의 8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2017년까지 30%로 조정하는 안을 중심으로 추진중이다. 또 환자가 현재 100% 부담하는 선택진료비의 절반가량은 건강보험이 보장해 나머지 절반만 환자 본인이 내도록 하는 안도 검토중이다.<br/><br/> 현재보다 선택진료 비중을 크게 줄이되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선택진료비 규모는 2012년 기준 한 해 1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환자들이 내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 가운데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획단에서 소수 의견으로 논의된 바 있는 선택진료 축소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의가 된 뒤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와 이제 막 전문의가 된 이가 같은 진료비를 받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들어오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10월 말 완전 폐지를 우선으로 하는 의료기획단의 선택진료비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을 때 ‘의료 공급자와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br/><br/> 하지만 이런 정부 방안은 지난 4월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기획단이 여러차례 회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모아낸 의견과는 거리가 멀다. 의료기획단에 참여한 신현호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획단 발족 뒤 위원들이 합의를 모아가는 회의를 10여차례 열어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매번 축소 안을 들고 나왔는데, 결국 소수 의견인 정부 안이 채택돼 기획단이 들러리를 선 꼴이 됐다. 선택진료비가 유지돼 박 대통령의 공약도 사실상 후퇴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br/><br/>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만약 축소안으로 발표된다면 기획단 논의는 헛고생이 되는 것이다. 완전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병원들의 요구로 선택진료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다.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는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br/><br/> 3대 비급여 항목 가운데 나머지 2개를 놓고는 정부의 안과 의료기획단 사이에 큰 의견 차이가 없다. 상급병실료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의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일부 2~3인실까지도 적용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간병비의 경우 현재 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해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안이 유력하다. <br/><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24.txt

제목: ‘흡연이 암 유발’ 입증하라는데…공공기관이 나서니 통할까  
날짜: 2014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0310013370944  
본문: 국내 처음으로 공공기관과 담배회사 사이의 ‘담배 전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달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이 이사회를 열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의결하면서다. 이전에 흡연자 개인이 낸 소송들에서는 흡연과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담배회사가 승리했지만, 건보는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친다.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흡연자의 자유 의지에 달린 문제인데 왜 담배회사가 책임을 지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담배 소송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br/><br/> ■왜 건보가 담배소송 내나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면 환자의 진료비와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급여로 지출하는 건보가 원인 제공자인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건보는 우선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폐암과 후두암을 들어 케이티앤지(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130억∼3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소송을 내되, 소송 결과를 본 뒤 다른 질환에 대한 소송 등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br/><br/> 건보는 지난해 8월 흡연 때문에 지출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한해 약 1조7000억원(2011년 기준)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근거로 삼은 지선하 연세대 교수팀의 ‘흡연 관련 진료비 분석 연구’는 1992~1995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이들의 피부양자 가운데 건강보험 건강검진에 참여한 130만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길게는 19년 동안 추적조사한 연구결과다.<br/><br/> 담배회사들을 대변하는 한국담배협회는 이 조사가 일부 공무원과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해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데다, 식사습관이나 다른 질병, 공해 노출 등 다른 질병 위험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br/><br/> 하지만 지 교수팀과 공단은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는 연구는 역대 아시아 최대 규모로, 표본 수가 많은데다 추적조사 기간도 매우 길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반박한다. 이 연구결과에서 흡연 관련 질병은 폐암이나 후두암 등 35개 질환에 이르며, 이로 인해 드는 비용은 한해 1조7000억원의 직접 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기 위해 쓴 시간이나 노동력 손실, 교통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br/><br/> ■주요 쟁점 담배회사는 지금까지 흡연자들이 자유의지로 담배를 피웠는데 뒤늦게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흡연 피해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담배는 제조 과정에서의 결함도 없다고 주장한다. <br/><br/>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흡연이 폐암이나 후두암 등 각종 암과 폐질환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고 이를 잘 아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고 싶어하지만 담배의 고도의 중독성 때문에 금연에 실패한다고 지적한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금연클리닉 책임의사)은 “담배 중독, 다시 말해 담배를 피움으로써 흡수되는 니코틴 중독은 대마초 등 마약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게다가 담배회사는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담배 중독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담배의 해로움은 감추고 있다”고 말했다. 흡연은 국제질병분류에서도 ‘담배로 인한 정신적·행동적 장애’로 분류되며, 미국정신과학회도 니코틴(담배) 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로 제시된다.<br/><br/> 또 담배협회는 이미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에 건강증진기금 명목이 들어 있어 해마다 1조5000억원가량을 건보에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1조7000억원과 거의 맞먹는 액수인데 또 소송을 내는 것은 일종의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br/><br/> 하지만 이는 억지주장이라는 것이 건보와 금연운동 단체의 입장이다. 담배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은 고스란히 흡연자가 담배를 살 때 내는 것인데 이를 마치 담배회사가 내는 것처럼 속이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담당하는 안선영 변호사는 “<span class='quot0'>건강증진기금은 흡연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담배회사가 대신 걷어 납부하는 것인데도, 담배회사가 이를 내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담배 소비자가 건강증진기금을 내듯이 담배회사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일으키는 당사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br/><br/> ■이번에도 담배회사가 이길까? 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진 담배 소송은 모두 4건인데,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담배회사가 전부 이겼다. 현재 대법원에 2건, 고등법원에 1건이 계류 중이다. 나머지 1건은 원고로 나선 흡연자가 항소를 포기했다. <br/><br/> 담배 소송에서 원고가 이기기 어려운 것은 흡연 관련 질환이 반드시 담배 때문에 발병했다는 관련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탓이다. 담배협회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폐암이나 후두암 등이 흡연 관련 질환이라고 주장했으나, 판결 내용을 보면 흡연자의 생활 습관, 직업, 식사 습관, 가정 환경,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질병 발생이 달라지는 등 인과관계가 모호하다”고 밝혔다. 담배협회는 이번 소송도 이길 것으로 자신하면서, 건보가 소송 비용만 쓰게 돼 결국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낭비할 것이라고 되레 공격한다.<br/><br/> 건보도 인과관계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안다. 하지만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정부나 공공기관의 승소 가능성은 미국 등에서 이미 증명된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어 건보 쪽이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흡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미 정부나 건보 통계 자료에서도 2012년 기준 한해 5만8000여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고, 흡연은 각종 암의 발병 가능성을 2.9~6.5배까지 높인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br/><br/> 글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br/><br/> 사진 곽윤섭 기자 kwak1027@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25.txt

제목: ‘힐링의 쌍두마차’ 혜민 vs 법륜, 숨은 차이는 이것?  
날짜: 2014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20110013356263  
본문: ▷ 사람매거진 나·들 기사 더보기<br/><br/><br/><br/>요새 출판계에서는 스님들이 약진하고 있다. 자기계발과 힐링, 인생상담의 영역에서 단연 독보적이다. 이런 현상은 2010년대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우선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쌤앤파커스·2013)의 정목 스님과 도쿄대 출신의 훈남 작가로 잘 알려진 고이케 류노스케 스님을 떠올릴 수 있겠다. 특히 고이케 스님은 다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요새 항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인생수업>(휴·2013)의 법륜 스님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쌤앤파커스·2012)의 혜민 스님을 들 수 있다. <br/><br/>다시 생각해보면 불교계의 강세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미지일 게다. ‘산사’(山寺)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다시피 불교에는 탈속적인 분위기가 있다. 속세의 욕망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갈 것 같아 보이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치유와 위무를 찾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불교의 고유한 종교적 성격을 희석시키고, 대중의 감성에 다가오는 유연한 접근을 취한다는 데 있다. 가령 고이케 스님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혜민 스님은 트위터를 통해 평이하고 감미로운 속세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br/><br/>이제 힐링시장은 멘토 스님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게다. 그중에서도 법륜과 혜민은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책 판매 기록이 말해준다. 법륜 스님의 <스님의 주례사>는 2012년 종교 분야 1위이며, <인생수업>은 1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2012년과 2013년 연속 종합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종합베스트셀러 2년 연속 정상 수성의 기록은 <시크릿> 이후 처음이다. 실로 ‘진격의 스님들’이라고 할 수 있다. <br/><br/>이 책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스님들의 모습은 위로자이며 치유자이다. 비록 서로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들은 동일하게 작가로서나 멘토로서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다. 대중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한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는 한결같다. 바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목받는 멘토가 된 것에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서, 또한 이들의 저작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br/><br/>　 <br/><br/>엘리트 혜민, 달달한 국민 멘토 <br/><br/><br/><br/>우선 혜민 스님부터 살펴보자. 그는 이른바 ‘엄친아’다. 영화 공부를 위해 미국 UC버클리로 진학하고, 하버드대학 비교종교학 석사 학위와 프린스턴대학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그는 미국 동부에 있는 햄프셔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다. 또한 그는 스님이다. 하버드대 재학 중 출가를 결정하고 2000년 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아 조계종의 승려가 되었다(조계종은 한국의 최대 종단이다). 의문의 여지 없이 정석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다. 현재 그의 입지는 <시사저널> 조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연속 불교 분야 차세대 리더 1위이며(불교계에서는 그 설문조사가 엉터리라는 논란이 있다), 2013년 종교 분야 차세대 리더 1위이다. <br/><br/>혜민의 영향력은 단적으로 말해서 대중과의 소통에 기초한다. 그의 일차적 소통의 매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를 통해 그가 쏟아놓은 트윗(트위터에 올리는 글)이다. 혜민은 대표적인 파워 트위터러이다. 그의 팔로어 수는 무려 68만2507명에 달한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실은 그의 트윗들을 책으로 묶어낸 것이다. 2년 연속 종합베스트셀러 1위일 뿐만 아니라 비소설 단행본 중 최단기간 내 200만 부 판매를 달성했다(출간 13개월 만이라고 한다). <br/><br/>혜민의 트위터 활용의 발단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었다. “<span class='quot0'>미국에서 영어를 사용하다 생긴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span>”(8쪽)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 대학교수로서 하루 종일 영어로 수업하고, 대화하며, 글을 써야 하기에 때때로 그리움이 밀려올 “<span class='quot1'>때마다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트위터에 기록했고, 모국의 언어로 대화해주는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큰 위안을 얻곤 했다.</span>”(8쪽) 이렇듯 스스로 위안받고자 시작한 것이 점차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긍정적 평가가 누적됐다. <br/><br/>자신의 글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확인한 그는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맑은 글, 따뜻한 글들을 올려보자고</span> 마음먹게 되었다.</span>”(9쪽) 온라인에서의 반응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맞춰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중의 반응이 그의 글쓰기 준거가 된 셈이다. 그가 주목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9쪽)이었다. 이렇게 대중의 필요가 힐링에 있다고 판단되자, 그는 치유 상품 판매에 주력하기로 결정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br/><br/>“부족한 ‘나’라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해주세요.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분투하는 내가 때때로 가엽지 않은가요?”(19쪽)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20쪽) “내 마음이 쉬면 세상도 쉬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합니다.”(37쪽) “나를 낮추면 세상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높이면 세상이 나를 낮춥니다.”(57쪽) “외로워하지 말고 내 어깨 위의 천사에게도 그동안 나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세요.”(64쪽) “복수는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81쪽) <br/><br/>혜민의 메시지는 달달하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약간의 충고를 토핑한 달달한 위로이다. 그의 손은 우리를 “토닥토닥”(20쪽)한다. 토닥토닥이라니! 이건 애초에 우리가 책망하는 꼰대가 아니라 공감하는 멘토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남자이나 여자에게, 독신이나 아기엄마에게, 불자이나 기독교인에게 말을 건넨다. 트위터상에 “<span class='quot1'>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맑은 글, 따뜻한 글들을 올려보자고</span>”(9쪽) 결심했을 때, 혜민은 사실상 판매할 상품을 선택한 것이다. <br/><br/>가끔 의욕이 과할 때도 있다. 직장인이 “<span class='quot2'>내 자유를 돈 받고 팔지 마세요</span>”(119쪽)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책 출간 이후의 트윗이지만 “엄마가 어린애들 일어나는 새벽 6시45분 정도 같이 놀아주는 것이에요. 새벽에 놀아주세요”와 같은 조언은 여러 엄마들을 ‘열폭’하게 했다. 심지어 종종 불법(佛法)의 기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된다. 종교학 교수이자 조계종 소속의 승려인 그가 불법을 몰라서 그럴 리는 없다. 교재의 의미를 분석하던 그의 두뇌가 이제 대중의 욕망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br/><br/>아마도 혜민의 (어쩌면 그 자신은 모르고 있을) 비전은 국민멘토가 되는 것일 게다. 앞서 언급한 <시사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이제 그의 바람은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그의 성공은 정확한 시장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심오한 영성가로서의 혜민이 아니라 성공한 1인 기업으로서의 혜민이다. 삶의 지혜란 “편안한 멈춤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간단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10쪽)던 혜민의 성공이 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br/><br/>　 <br/><br/>행동파 법륜, 명쾌한 상담가 <br/><br/><br/><br/>혜민 스님과 달리 법륜 스님은 행동가라고 할 수 있다. 평화재단 이사장이며 정토회 지도법사이다. 비록 교계의 핍박을 비롯해 여러 이유로 정식 승적이 없지만, 어느덧 불교계 안팎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사회지도 인사다. 사회를 바라보는 커다란 시야와 이에 따른 적극적인 발언으로 인해 진보적 인사로 분류될뿐더러 보수 진영으로부터 부당한 공격도 종종 받고 있다고 한다.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기자와 함께한 30여 시간의 대담 기록을 묶어낸 <새로운 100년>(오마이북)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호방한 안목이 담겨 있다. <br/><br/>무엇보다 법륜은 통일 한국을 내다본다. 독자를 위해 매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말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span class='quot0'>가장 소극적으로는 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고, 두 번째로는 선거에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정치세력을 선출하며, 세 번째로는 정당,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코리아를 건설하는 세력을 형성하자는 것입니다.</span>”(328쪽) 이러한 전망은 의문의 여지 없이 그의 삶으로 증명돼왔다. <br/><br/>필자는 법륜의 이러한 시야와 균형감각을 주목해왔다. 따라서 법륜의 즉문즉설로서의 설법 또한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인생수업>을 보면서 다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프롤로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해맑게 말한다. “10대는 공부에만 매진하면 됩니다. (중략) 20대가 되면 연애하면서 설렘도 맛보고 가슴앓이도 합니다. 이것은 청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10쪽) 이건 다른 자기계발서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결여된 언급이 아닌가. 우리 현실을 아우르는 사회적 행동가가 난데없이 여기에서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자기계발 강사로 돌변하고 말았다. <br/><br/>본문의 기조 또한 다를 바가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17쪽) 또한 그는 “일어나버린 일은 항상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할 것을 조언한다. 암에 걸린 이에게 “이제부터는 덤이다”라고 생각하란다. 사별 후에는 “딱 3일만 슬퍼하고 정을 끊어라”(105쪽)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참으로 명쾌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되새겨볼 부분이 있기는 하나, 도대체 자기계발서와 다를 바가 없다. 석 달간 종합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할 수 있던 이유가 아닐까? <br/><br/><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에 따르면, 그의 즉문즉설의 근간에 금강경이 놓여 있다고 한다. 하나 정작 그의 법문 대부분을 살펴보면 심리학이 떠오른다. 다이아몬드처럼 우리의 아상(我相)을 박살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착실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험신호를 발견하게 된다. 누구보다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발언하는 그조차 정작 법회 혹은 토크 콘서트에서는 결국 멘토나 카운슬러를 자처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br/><br/>물론 법륜 스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토록 치열한 삶을 살고, 자신을 시대의 격랑 속에 내던지는 분이 아니던가. 외려 <인생수업>은 용기 있는 투사조차 말랑말랑한 멘토로 만들어버리는 어떠한 사회적 압력을 보여준다. 즉, <인생수업>의 흥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를 반영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사회(팔꿈치사회), 승자독식사회, 위험사회, 불안사회로 규정되는 현대사회는 법륜조차 대중을 상대할 때는 온건한 멘토로 만들어버린다(혜민처럼 말랑말랑하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br/><br/>　 <br/><br/>대중이 선택한 힐링시장의 큰손들 <br/><br/><br/><br/>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법륜과 혜민은 그 성향부터 매우 다르다. 법륜이 예언자라면, 혜민은 치유자이다. 법륜이 바라보는 전망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이라면, 혜민이 바라보는 시야는 내면적이고 감성적이다. 법륜이 아직까지도 승적이 없는 반면, 혜민은 비교적 일찍 승적을 받았다. 법륜이 현실사회에 깊숙이 발을 디디고 있다면(그는 현재 사실상 진보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혜민은 현직 대학교수로 지식의 상아탑 안에 자리하고 있다. 하나 그 차이가 어떠하든 지금 두 스님은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br/><br/>스님의 약진은 곧 대중의 선택이다. 지금의 대중은 스님을 통해 멘토 혹은 힐러를 찾고 있다. 대중의 선택은 또한 시장의 선택이다. 다시 말해 멘토 스님들에게 대중의 처지에 대한 해법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시장은 종교시장이 아니라 힐링시장이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던 소비자학과 교수보다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순백색 이미지의 스님들에게 귀를 열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 스님의 약진은 대중의 현실에 기인한다. <br/><br/>그러므로 법륜과 혜민이 보여주는 것은 대중의 현실과 그들의 욕망이다. 이들의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은 종교시장이 아니라 힐링시장이다. 이들은 영성을 설법하는 스님이기 전에 힐링을 제공하는 멘토이다. 이들을 멘토로 소비하는 대중이 살아가는 현실은 바로 영혼마저 노동하는 피로사회이다. 그러므로 스님이 약진하는 지금 현실은 잘못된 것이다. 행동가 법륜과 지식인 혜민을 우리가 힐링과 자기계발의 맥락에서 소비하는 지금의 방식 또한 문제가 있다. <br/><br/><br/><br/> <br/><br/>글 이원석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문화이론 전공으로 박사논문을 준비 중이다. 연세대 언더우드 학원선교센터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개독교 현상’이 주요 연구 대상이다. 종교적 본능에서 말초신경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며 강의하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26.txt

제목: 존엄한 죽음 선택한 선생님  
날짜: 20140130  
기자: 박영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30100000007  
본문: 28일은 인천지역 정형외과 의사였던 홍성훈 선생님의 2주기였다. 두해 전 겨울, 홍 선생님 부부와 소백산 자락의 사과농장을 찾았다. 선생님은 대상포진이 재발한 것 같다며 불편해했다. 며칠 뒤 전화를 했다. “영대야, 나 암 말기란다. 내가 돌팔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한 거지.”<br/>　그를 처음 만난 건 천주교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던 1980년대 중반이었다. 정형외과 병원인데도 큰 수입원인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입원시설이 아예 없었다. 양심상 환자 유치를 위해 영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병원 단골은 노인들이었다. 그는 노인들의 끝없는 하소연을 정성껏 들어주었다. 그래도 환자가 많지 않은 탓에 낡은 녹음기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고 있을 때가 많았다. <br/>　이렇게 환자가 별로 많지 않아도 투명한 세무 신고로 개인병원 가운데 가장 세금을 많이 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골프채를 손에 잡아본 적도 없었다. 오히려 환경단체 대표까지 맡아 골프장 건설 반대에 앞장섰다. 선생님의 취미는 등산, 여행, 판소리였다. 틈만 나면 산에 오르고 여행을 떠났고, 한주에 한번 인천지역 지인들과 판소리를 배웠다. 아직도 네팔의 안나푸르나를 오르며 목청껏 판소리를 하던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번호표 기기를 설치해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아졌을 때도 한달에 절반은 동료 의사에게 병원을 맡기고 훌쩍 여행을 떠났다. <br/>　선생님 부부는 죽을병이 걸리더라도 억지로 살리려고 애쓰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다고 한다. 그 말씀 그대로 선생님은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당신 집에서 돌아가셨다. 부고를 듣고 달려가 환히 웃고 있는 선생님의 영정을 대하니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다. 나뿐이 아니었다. 그만큼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고 어른이었다. 지난가을, 홍 선생님과 두번 다녀온 네팔의 안나푸르나에 오르며 몇 자 적어보았다.<br/>　‘선생님과 올랐던 안나푸르나 산길을 홀로 올랐어요/ 산을 높이 오를수록 당신께 대한 그리움이 깊어져 눈물났습니다// 오늘 아침 하얀 눈 덮인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박영석 추모비 옆 바위에 오색 기도 깃발 룽따를 걸고/ 당신 좋아하시던 쇠주 한 잔 가득 붓고 큰절 올렸습니다/ 안주도 없는 깡소주 달게 드셨는지요?// 죽음 앞에서도 자유인이셨던 선생님/ 당신 영혼의 한 자락 깃든 여신의 땅에는/ 당신만큼 자유로운 영혼이 밤하늘 별만큼 많을 테니/ 술동무 얘기동무 많아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데도 당신 그리운 마음에 당신께 꾸중 들을 괜한 짓을 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눈보다 더 환한 선생님 웃음이’ <br/> 박영대 행복공장 이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27.txt

제목: 40대, 욕망해도 괜찮아  
날짜: 20140130  
기자: 홍석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30100000056  
본문: 30대에 뜨겁던 열정이 몇살 차이로 ‘40대’ 꼬리표가 붙자마자 갑자기 식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들의 욕망은 흔히 자연스런 ‘욕구’가 아니라 ‘욕심’으로 취급된다. 또래 남성이나 더 어린 여성들과 달리 ‘나이 든 여성’의 욕망은 넘봐선 안될 것을 바라는 노욕처럼 비치는 경우가 많다.<br/>　영화 (2월13일 개봉)에서 중년의 세 친구 해영(조민수), 미영(문소리), 신혜(엄정화)가 “우리 나이에 무슨…”이란 말을 수시로 내뱉는 것도 이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식어 같은 것이다. 그러나 40대가 강렬한 로맨스를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것을, 오히려 이 나이대가 아니면 지닐 수 없는 관능적인 매력도 지니고 있다고 영화는 말한다. 세 친구는 “그래도 우리가 우아한 맛은 있지”, “맞아, 우린 농염해”라고 맞장구를 주고받는다.<br/>　다 큰 딸을 둔 해영은 늦깎이 연애를 시작한 싱글맘이다. 소녀처럼 수줍어하지만 “내 혀도 음식 간 보는 것 말고 다른 것 좀 맛보고 살면 안 되냐”며 남자친구 성재(이경영)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 미영은 남편 재호(이성민)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거침없이 해소하는 도발적인 주부다. 몰래 비아그라를 먹는 남편한테 “인삼으로 깍두기를 담아서라도 잘하게 해 줄게”라며 다독이거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약한 마음을 버리라”며 사랑받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잘나가는 방송사 부장 프로듀서인 신혜는 외주 제작사의 조카뻘 신참 프로듀서 현승(이재윤)과 사랑에 빠진다. “어린애 아니냐”는 주변의 비아냥에 신혜는 “<span class='quot0'>애는 맞지만 내가 낳은 애는 아니지 않냐</span>”며 당당히 맞선다.<br/>　영화는 뜨거운 사랑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40대 싱글맘, 주부, 골드미스의 모습을 유쾌하고 거침없이 보여준다. 국내 최고의 40대 여배우 세 명이 벌이는 연기 대결이 볼 만하다. 이들은 “우리 나이는 오르가슴보다 암이 더 어울리는 나이잖아”, “이제는 누가 따라오면 좋다고 오는 게 아니라 퍽치기라니까”라는 걸쭉한 입담도 쏟아낸다. 영화가 성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진행되는 만큼 각 커플들이 벌이는 목욕탕 마사지, 사무실 정사, 발기부전 부부 치료 등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장면들도 곳곳에 배치됐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의 노출이 부담스럽지 않은 재미를 준다. 여배우들과 짝을 이룬 이경영, 이성민, 이재윤의 연기도 일품이다.<br/>　이수아 작가가 쓴 시나리오는 2012년 ‘1400 대 1’ 경쟁률을 뚫고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을 받았다. 이 작가는 “나이가 들어도 열정과 로맨스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건 똑같다고 생각한다. 추억만 하지 말고, 지금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30대 싱글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2003)로 여성 심리를 경쾌한 방식으로 다뤄온 권칠인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br/>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28.txt

제목: 존엄한 죽음 선택한 선생님  
날짜: 2014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2910013350524  
본문: 28일은 인천지역 정형외과 의사였던 홍성훈 선생님의 2주기였다. 두해 전 겨울, 홍 선생님 부부와 소백산 자락의 사과농장을 찾았다. 선생님은 대상포진이 재발한 것 같다며 불편해했다. 며칠 뒤 전화를 했다. “영대야, 나 암 말기란다. 내가 돌팔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한 거지.”<br/><br/> 그를 처음 만난 건 천주교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던 1980년대 중반이었다. 정형외과 병원인데도 큰 수입원인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입원시설이 아예 없었다. 양심상 환자 유치를 위해 영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병원 단골은 노인들이었다. 그는 노인들의 끝없는 하소연을 정성껏 들어주었다. 그래도 환자가 많지 않은 탓에 낡은 녹음기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고 있을 때가 많았다. <br/><br/> 이렇게 환자가 별로 많지 않아도 투명한 세무 신고로 개인병원 가운데 가장 세금을 많이 냈다. 하지만 선생님은 골프채를 손에 잡아본 적도 없었다. 오히려 환경단체 대표까지 맡아 골프장 건설 반대에 앞장섰다. 선생님의 취미는 등산, 여행, 판소리였다. 틈만 나면 산에 오르고 여행을 떠났고, 한주에 한번 인천지역 지인들과 판소리를 배웠다. 아직도 네팔의 안나푸르나를 오르며 목청껏 판소리를 하던 선생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번호표 기기를 설치해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아졌을 때도 한달에 절반은 동료 의사에게 병원을 맡기고 훌쩍 여행을 떠났다. <br/><br/> 선생님 부부는 죽을병이 걸리더라도 억지로 살리려고 애쓰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다고 한다. 그 말씀 그대로 선생님은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당신 집에서 돌아가셨다. 부고를 듣고 달려가 환히 웃고 있는 선생님의 영정을 대하니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다. 나뿐이 아니었다. 그만큼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스승이고 어른이었다. 지난가을, 홍 선생님과 두번 다녀온 네팔의 안나푸르나에 오르며 몇 자 적어보았다.<br/><br/> ‘선생님과 올랐던 안나푸르나 산길을 홀로 올랐어요/ 산을 높이 오를수록 당신께 대한 그리움이 깊어져 눈물났습니다// 오늘 아침 하얀 눈 덮인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박영석 추모비 옆 바위에 오색 기도 깃발 룽따를 걸고/ 당신 좋아하시던 쇠주 한 잔 가득 붓고 큰절 올렸습니다/ 안주도 없는 깡소주 달게 드셨는지요?// 죽음 앞에서도 자유인이셨던 선생님/ 당신 영혼의 한 자락 깃든 여신의 땅에는/ 당신만큼 자유로운 영혼이 밤하늘 별만큼 많을 테니/ 술동무 얘기동무 많아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데도 당신 그리운 마음에 당신께 꾸중 들을 괜한 짓을 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눈보다 더 환한 선생님 웃음이’ <br/><br/>박영대 행복공장 이사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29.txt

제목: 40대, 욕망해도 괜찮아  
날짜: 2014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2910013350651  
본문: 30대에 뜨겁던 열정이 몇살 차이로 ‘40대’ 꼬리표가 붙자마자 갑자기 식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들의 욕망은 흔히 자연스런 ‘욕구’가 아니라 ‘욕심’으로 취급된다. 또래 남성이나 더 어린 여성들과 달리 ‘나이 든 여성’의 욕망은 넘봐선 안될 것을 바라는 노욕처럼 비치는 경우가 많다.<br/><br/> 영화 <관능의 법칙>(2월13일 개봉)에서 중년의 세 친구 해영(조민수), 미영(문소리), 신혜(엄정화)가 “우리 나이에 무슨…”이란 말을 수시로 내뱉는 것도 이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식어 같은 것이다. 그러나 40대가 강렬한 로맨스를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것을, 오히려 이 나이대가 아니면 지닐 수 없는 관능적인 매력도 지니고 있다고 영화는 말한다. 세 친구는 “그래도 우리가 우아한 맛은 있지”, “맞아, 우린 농염해”라고 맞장구를 주고받는다.<br/><br/> 다 큰 딸을 둔 해영은 늦깎이 연애를 시작한 싱글맘이다. 소녀처럼 수줍어하지만 “내 혀도 음식 간 보는 것 말고 다른 것 좀 맛보고 살면 안되냐”며 남자친구 성재(이경영)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 미영은 남편 재호(이성민)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거침없이 해소하는 도발적인 주부다. 몰래 비아그라를 먹는 남편한테 “인삼으로 깍두기를 담아서라도 잘하게 해 줄게”라며 다독이거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약한 마음을 버리라”며 사랑받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잘 나가는 방송사 부장 프로듀서인 신혜는 외주 제작사의 조카뻘 신참 프로듀서 현승(이재윤)과 사랑에 빠진다. “어린애 아니냐”는 주변의 비아냥에 신혜는 “<span class='quot0'>애는 맞지만 내가 낳은 애는 아니지 않냐</span>”며 당당히 맞선다.<br/><br/> 영화는 뜨거운 사랑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40대 싱글맘, 주부, 골드미스의 모습을 유쾌하고 거침없이 보여준다. 국내 최고의 40대 여배우 세 명이 벌이는 연기 대결이 볼 만하다. 이들은 “우리 나이는 오르가슴보다 암이 더 어울리는 나이잖아”, “이제는 누가 따라오면 좋다고 오는 게 아니라 퍽치기라니까”라는 걸쭉한 입담도 쏟아낸다. 영화가 성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진행되는 만큼 각 커플들이 벌이는 목욕탕 마사지, 사무실 정사, 발기 부전 부부 치료 등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장면들도 곳곳에 배치됐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의 노출이 부담스럽지 않은 재미를 준다. 여배우들과 짝을 이룬 이경영, 이성민, 이재윤의 연기도 일품이다.<br/><br/> 이수아 작가가 쓴 시나리오는 지난 2012년 ‘1400대 1’ 경쟁률을 뚫고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을 받았다. 이 작가는 “나이가 들어도 열정과 로맨스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건 똑같다고 생각한다. 추억만 하지 말고, 지금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30대 싱글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싱글즈>(2003)로 여성 심리를 경쾌한 방식으로 다뤄온 권칠인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br/><br/>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30.txt

제목: 61~80살도 무배당실버암보험 가입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24100000034  
본문: 라이나생명보험은 61~80살 어르신도 ‘라이나무배당실버암보험’(갱신형)에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혈압, 골다공증, 백내장, 천식, 알레르기, 협심증, 부정맥, 퇴행성 관절염, 척추협착증, 녹내장, 고지혈증, 노인성 난청, 노인성 황반변성, 추간판 탈출증 같은 14가지 노인성 질환이 있어도, 심사를 받으면 가입할 수 있다고 라이나생명은 덧붙엿다.<br/>　라이나생명은 계약 보장 내용에 위암, 폐암, 대장암과 백혈병, 뇌암, 골수암이 들어가고, 특약에 가입하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배당실버암사망특약(갱신형)에 가입하면 암 사망 보험금도 지급된다고 밝혔다. 10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되는데, 최대 100살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라이나생명은 덧붙였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31.txt

제목: 건강보험공단, 담배 회사에 소송 제기한다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2410013312113  
본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대로 지체없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송이 시작될 전망이다.<br/><br/>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이 표결을 거친 끝에 과반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쪽 이사 2명은 소송 제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사회 뒤 기자회견을 열어 “흡연 때문에 생명을 해치거나 삶이 질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이 막대하게 새어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나서 소송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송 방법이나 대상·규모·시기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위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 전문가들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기준 한해 1조7천억원이 폐암 등 흡연 관련 질병으로 쓰이고 있다며, 흡연과 관련이 확실히 증명된 후두암 등 질병 수에 따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00억원 가량의 소송 규모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br/><br/> 하지만 이번 소송에는 난관이 없지 않다. 당장 정부 쪽이 신중함을 강조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흡연 피해 소송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송의 승소 가능성,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에 소송 안을 당장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말고 보고만 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의결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담배회사의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국담배협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피해 추적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진료비 산정 오류까지 발견된다. 앞으로 10년이 걸릴 지 모르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 현재 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배세제를 개편하는 편이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결에 더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br/><br/> 앞서 1999년부터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에 걸렸다며 흡연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3건 가량이 있었는데, 모두 패소했으며 현재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소송도 패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안선영 건강보험공단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1954년부터 1992년까지 800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나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1994년부터 미국의 주 정부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 돈으로 모두 260조원의 배상금을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및 흡연 자료를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이 각종 암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킨다는 인과성을 증명하면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br/><br/>♣H6s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32.txt

제목: 애국가와 난지도  
날짜: 20140124  
기자: 김의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24100000090  
본문: 정말 애국가 노랫말을 쓴 이가 친일파 윤치호일까. 어느 시민단체가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이달 말 미국 에머리대를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의심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아직은 갑론을박 단계라고 하지만 걱정이 쉬 가시지는 않는다. 작곡가 안익태가 이미 에 오른 판에 작사자마저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애국가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br/>　첫째는 부정이다. 애국가를 국가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는 거다. 우리의 순정이 배신당했으니, 냉정하게 돌아서면 그만이다.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것도 이런 정서를 깔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짐작해 본다. 둘째는 타협이다. 박지향 서울대 교수처럼 나라 잃은 지식인 윤치호의 고뇌를 감싸주는 거다. “<span class='quot0'>대일협력에 이르는 길은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온 것보다 훨씬 복잡했고, 그 동기는 일신상의 영화보다 훨씬 다양했다</span>”고 인정해주는 거다.<br/>　둘 다 내키지 않는다. 전자는 너무 단순하고, 후자는 너무 혼돈스럽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문득 난지도가 떠오른다. 쓰레기 더미 위에 흙을 갖다 붓고, 나무를 심고, 물길을 냈다. 철 따라 꽃이 피고 새가 깃들이기 시작했다. 고였던 악취는 쏟아부은 땀으로, 스며나오던 침출수는 수고로운 눈물로 씻겨나갔다. 난지도를 덮어버린 억새풀 군락에서 생명의 위대함을 느꼈다면, 그건 쓰레기 위이기에 더 각별했을 게다.<br/>　애국가도 마찬가지다. 설사 작사자의 훼절이 당혹스럽더라도 우리는 압도적인 기억을 축적했다. 1919년 3월1일 일제의 총칼에 도륙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백성은 애국가를 불렀다. 임시정부 국무원들은 매일 아침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합창한 뒤 일을 시작했다.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신촌에서 시청까지 백만 인파가 목이 터져라 부르고 또 불렀던 노래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윤치호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의 변절에 아파할 필요도 없다.<br/>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다. 친일과 독재라는 생채기가 있지만, 아픔을 다독거리며 새살을 돋게 했다. 오히려 지금의 자긍심은 과거의 남루함이 있었기에 더 빛이 난다. 초라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곤궁함을 ‘부정’하거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고쳐나가려는 용기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주는 법이다. 시인 김수영이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고 노래한 것도 그런 까닭일 게다.<br/>　반면, 북한은 정통성을 자랑하며 국가의 기틀을 세웠건만, 나무 한 그루 서 있기 힘겨운 민둥산이 돼버렸다. 김일성이 겨우 나이 스물에 친구 아버지가 사준 총 40자루를 들고 항일유격대를 만들었을 때(김명호 교수의 북-중 교류 60년) 그보다 빛나는 청춘이 어디 있었겠는가. 지금의 초라한 성적표는 인민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백두혈통의 울타리 안에 가둬버린 결과라고 생각한다.<br/>　그래도 경계해야 할 것은 과거의 뒤틀린 역사에서 연유하는 독소다. 난지도 곳곳에는 파이프가 묻혀 있다. 새나오는 메탄가스를 모아 발전소로 보내기 위한 시설이다. 그걸 덮어버리면 고이고 썩어서 성냥불 하나로도 폭발하기 마련이다. 우리도 역사의 환부를 정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치료해 나가야 한다. 아픈 곳을 덮어버리는 건 말기 암 환자에게나 하는 법이다. 설사 윤치호 작사가 확인되더라도 애국가는 ‘마르고 닳도록’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김수영 시처럼 우리에겐 ‘놋주발보다도 더 쨍쨍 울리는 추억’이 있고,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br/>김의겸<br/>　 kyummy@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33.txt

제목: [아침 햇발] 애국가와 난지도 / 김의겸  
날짜: 2014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2310013302451  
본문: 정말 애국가 노랫말을 쓴 이가 친일파 윤치호일까. 어느 시민단체가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이달 말 미국 에머리대를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의심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아직은 갑론을박 단계라고 하지만 걱정이 쉬 가시지는 않는다. 작곡가 안익태가 이미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판에 작사자마저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애국가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br/><br/> 첫째는 부정이다. 애국가를 국가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는 거다. 우리의 순정이 배신당했으니, 냉정하게 돌아서면 그만이다. 이석기 의원이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것도 이런 정서를 깔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짐작해 본다. 둘째는 타협이다. 박지향 서울대 교수처럼 나라 잃은 지식인 윤치호의 고뇌를 감싸주는 거다. “<span class='quot0'>대일협력에 이르는 길은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온 것보다 훨씬 복잡했고, 그 동기는 일신상의 영화보다 훨씬 다양했다</span>”고 인정해주는 거다.<br/><br/> 둘 다 내키지 않는다. 전자는 너무 단순하고, 후자는 너무 혼돈스럽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문득 난지도가 떠오른다. 쓰레기 더미 위에 흙을 갖다 붓고, 나무를 심고, 물길을 냈다. 철 따라 꽃이 피고 새가 깃들이기 시작했다. 고였던 악취는 쏟아부은 땀으로, 스며나오던 침출수는 수고로운 눈물로 씻겨나갔다. 난지도를 덮어버린 억새풀 군락에서 생명의 위대함을 느꼈다면, 그건 쓰레기 위이기에 더 각별했을 게다.<br/><br/> 애국가도 마찬가지다. 설사 작사자의 훼절이 당혹스럽더라도 우리는 압도적인 기억을 축적했다. 1919년 3월1일 일제의 총칼에 도륙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백성은 애국가를 불렀다. 임시정부 국무원들은 매일 아침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합창한 뒤 일을 시작했다.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신촌에서 시청까지 백만 인파가 목이 터져라 부르고 또 불렀던 노래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윤치호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의 변절에 아파할 필요도 없다.<br/><br/>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다. 친일과 독재라는 생채기가 있지만, 아픔을 다독거리며 새살을 돋게 했다. 오히려 지금의 자긍심은 과거의 남루함이 있었기에 더 빛이 난다. 초라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곤궁함을 ‘부정’하거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고쳐나가려는 용기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주는 법이다. 시인 김수영이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거대한 뿌리>)고 노래한 것도 그런 까닭일 게다.<br/><br/> 반면, 북한은 정통성을 자랑하며 국가의 기틀을 세웠건만, 나무 한 그루 서 있기 힘겨운 민둥산이 돼버렸다. 김일성이 겨우 나이 스물에 친구 아버지가 사준 총 40자루를 들고 항일유격대를 만들었을 때(김명호 교수의 북-중 교류 60년) 그보다 빛나는 청춘이 어디 있었겠는가. 지금의 초라한 성적표는 인민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백두혈통의 울타리 안에 가둬버린 결과라고 생각한다.<br/><br/> 그래도 경계해야 할 것은 과거의 뒤틀린 역사에서 연유하는 독소다. 난지도 곳곳에는 파이프가 묻혀 있다. 새나오는 메탄가스를 모아 발전소로 보내기 위한 시설이다. 그걸 덮어버리면 고이고 썩어서 성냥불 하나로도 폭발하기 마련이다. 우리도 역사의 환부를 정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치료해 나가야 한다. 아픈 곳을 덮어버리는 건 말기 암 환자에게나 하는 법이다. 설사 윤치호 작사가 확인되더라도 애국가는 ‘마르고 닳도록’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김수영 시처럼 우리에겐 ‘놋주발보다도 더 쨍쨍 울리는 추억’이 있고,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br/><br/>김의겸 논설위원 kyummy@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34.txt

제목: 급증하는 자궁내막암 원인은  
날짜: 2014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22100000118  
본문: 생로병사의 비밀(한국방송1 밤 10시) ‘자궁이 보내는 적색 경고’ 편. 자궁내막증과 서구형 질환인 자궁내막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심한 생리통을 겪는 젊은 여성 4명에게 초음파 검진을 받게 하니 3명에게서 자궁선근증과 자궁내막증이 확인됐다. 한 달에 한 번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자궁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30~40대 여성 70%에서 발견되는 자궁내막증의 원인을 알아본다. 20년 새 발병률이 10배 이상 증가한 자궁내막암도 살펴본다. 자궁내막암은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게 치명적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대표적 증상과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자궁 질환 예방에 좋은 콩의 효능과 조리법도 일러준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35.txt

제목: 카톡 읽다 웹툰 보다 앗차차…‘사고 유발폰’  
날짜: 20140122  
기자: 권오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22100000088  
본문: #1. 직장인 김선준(가명·34)씨는 지난해 가을 출근길의 아찔한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다. 차를 몰고 경기도 양평역 앞을 지나던 중, 스마트폰의 ‘카톡’ 알림음에 여자친구의 메시지를 잠깐 확인하던 찰나 자동차가 인도 쪽으로 쏠린 것이었다. 급정거를 했지만 차의 오른쪽 모퉁이가 이미 갓돌(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가 되는 돌)을 타고 넘어간 뒤였다. 서행하던 중이어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행인들은 깜짝 놀라 질린 표정이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이후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을 안 하기로 굳게 결심했지만, 순간적으로 울리는 알림음에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곤 한다</span>”고 말했다.<br/>　#2. 황재준(가명·35)씨는 지난달 여러 차례 저질렀던 실수를 또 반복했다.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은 황씨는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으로 웹툰에 빠져들었다. 서울 종로3가역에서 환승을 위해 걷던 중에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코앞까지 다가온 맞은편 인기척에 급히 몸을 틀었다. 마주 오던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칠 뻔했던 것이다. 황씨는 “<span class='quot1'>놀라 상대를 보니 역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span>”라고 말했다.<br/>　<br/>　스마트폰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과다사용으로 인한 신체 곳곳의 새로운 질환, 운동 부족에 따른 근육량 감퇴와 비만뿐이 아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절제한 사용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의력을 떨어뜨려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된다.<br/>　특히 위험한 게 김씨처럼 운전중에 문자 등을 확인하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다. 2012년 5월1일 25t 트럭이 훈련중이던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대표적이다. 사고 운전자가 운전중 디지털멀티미디어(DMB) 방송을 보던 게 화근이었다.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 조사를 보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 실험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로 운전할 때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은 72.0%였는데, 운전중 휴대폰 디엠비를 시청하는 경우 전방 주시율은 60.6%에 불과해 더 낮았다. 지난해 3월 한국도로공사가 밝힌 최근 1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을 보면 전방주시 태만이 18%로 졸음운전(30%)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br/>　■ ‘운전중’ 못지않게 위험한 ‘보행중 사용’ 위험성이 비교적 널리 알려진 운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비해, 걸으면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위험성에는 이용자들이 둔감하기 쉽다. 강북삼성병원의 신헌규 정형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스마트폰을 쓰고 걸으면서 주변 사람과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히 현저히 떨어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역시 치명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사고가 가장 잦은 곳으로, 전체 차 대 사람 사고의 38.9%를 차지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 동안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횡단보도 10곳에서 보행자들의 행태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 등을 보면서 건너는 경우가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과 잡담을 하면서 건너는 경우(13.2%)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주의 부족 원인이다. 휴대폰 통화(2.4%)보다도 많은데, 이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 생겨난 위험이다. 2012년 기준 차 대 사람 사고 치사율(3.94%)은 차 대 차 사고 치사율(1.32%)보다 훨씬 높다.<br/>　특히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관련 사고는 빠르게 늘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09~2012년 이 회사의 차 대 사람 사고 77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는 1.1배 증가한 반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1.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섯 가운데 한 명(21.7%)은 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br/>　연구소의 이수일 박사는 “<span class='quot3'>자동차 경적 소리에 반응하는 인지거리 실험 결과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 보통에 비해 38%로 짧아지고, 문자·게임을 하는 경우도 절반으로 짧아졌다</span>”고 말했다. 보행중 사고가 심각해지자 외국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미국 뉴저지주 등)이나, 걸을 때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일본 통신사업자 NTT도코모)을 내놓기도 했다.<br/>　■ 수시로 울리는 알림, 잠자리 사용도 건강 위협 스마트폰 사용자 다수가 늘 겪는 일이라는 점에서 생활 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은 광범위하다. 손에 들고 눕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늘면서 물리적 운동량도 예전에 비해 줄기 마련이다. 특히 휴대가 편리해 잠자리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쓰는 이들이 많은데, 수면 부족은 비만과 관련이 깊다. 잠이 줄면 식욕과 관계되는 그렐린이나 렙틴과 같은 체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데 이는 과식 위험을 높인다. <br/>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아직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암연구기구(IARC)의 권고를 바탕으로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장기간(10년 이상) 인체에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다. 또 음식점·사무실 같은 다중이용시설부터 개인공간인 화장실·침실까지 늘 들고 다니면서 얼굴에 갖다대는 스마트폰은 세균의 온상이다. 겨울철 유행성 독감 등을 옮기는 매개체로 기능하기도 한다. 종종 천에 알코올을 묻혀 화면을 닦는 소독 습관도 필요하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36.txt

제목: 담배소송, 정부는 뭘 하고 있나  
날짜: 20140121  
기자: 김자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21100000018  
본문: 정부는 ‘전매청’이란 기구를 통해 담배의 생산·유통·판매까지 주도하다가 현재의 ‘케이티앤지’(KT&G)로 민영화시켰다.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케이티앤지는 담뱃갑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경고문을 쓴다. 그러곤 끝이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내지만, 케이티앤지 스스로가 경고문을 통해 인정했듯이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의 당사자이지만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기업윤리도 저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br/>　정부는 어떤가?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해 10월10일 ‘담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기획재정부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을 거쳐 국제협약인 에프시티시(FCTC), 곧 ‘담배 규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본 협약은 “담배 소비 및 담배연기의 노출로 인한 파괴적인 사회 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 가입국인 정부는 금연단체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며 흡연의 유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어떤 반박을 했다는 소식도 없다.<br/>　이런 현실에서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의 집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의지를 공식화했다. 마른하늘의 단비같이 반갑다. 공단은 지난해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한 자료를 분석하여, 남성의 경우 후두암 79%, 폐암 71% 등의 영향 등 흡연과 암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발표했다. 그 질병으로 공단은 2011년에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했다.<br/>　우리의 경우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사회적 공감대도 못 얻은 채 패소했다. 담배회사라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개인의 패소는 예정된 것이다. 하지만 공단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과 반전을 의미하며, 보험재정의 책임자인 공단이 담배회사들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br/>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채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 근거자료만으로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만들어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접 나서지 못하겠다면 공단의 담배소송이라도 도와주라.<br/>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37.txt

제목: 1월 22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4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2110013279208  
본문: 급증하는 자궁내막암 원인은<br/><br/>생로병사의 비밀(한국방송1 밤 10시) ‘자궁이 보내는 적색 경고’ 편. 자궁내막증과 서구형 질환인 자궁내막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심한 생리통을 겪는 젊은 여성 4명에게 초음파 검진을 받게 하니 3명에게서 자궁선근증과 자궁내막증이 확인됐다. 한 달에 한 번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자궁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30~40대 여성 70%에서 발견되는 자궁내막증의 원인을 알아본다. 20년 새 발병률이 10배 이상 증가한 자궁내막암도 살펴본다. 자궁내막암은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게 치명적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대표적 증상과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자궁 질환 예방에 좋은 콩의 효능과 조리법도 일러준다.<br/><br/><br/><br/>울릉도 바다가 주는 선물<br/><br/>한국기행 ‘울릉도로 갈거나’(교육방송 밤 9시30분) 울릉도를 돌아보는 5부작 가운데 3부 ‘겨울 바다의 선물’ 편. 전복과 소라, 돌김은 울릉도의 청정한 자연이 전해주는 선물로 손꼽힌다. 제주도에서 울릉도로 시집온 홍복신씨는 남편과 함께 겨울 바다로 나가 깊은 바닷속에 있는 해산물을 건진다. 사업에 실패해 울릉도에 들어온 우화수씨는 바다 일 경력이 10여년밖에 안 되지만 요새 돌김 채취의 재미에 흠뻑 빠져 있다. 파도가 물러나고 나면 돌에 붙어 있는 김을 하나하나 긁어 잘게 부순 다음 채에 걸러 바람에 말리는 일을 한다. 우씨는 이렇게 바다와 함께 살면서 사업 실패의 좌절감을 잊고 새로운 행복감을 찾았다고 한다. 바다가 전해준 선물과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만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38.txt

제목: 카톡 읽다 웹툰 보다 앗차차…‘사고 유발폰’  
날짜: 2014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2110013279503  
본문: #1. 직장인 김선준(가명·34)씨는 지난해 가을 출근길의 아찔한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다. 차를 몰고 경기도 양평역 앞을 지나던 중, 스마트폰의 ‘카톡’ 알림음에 여자친구의 메시지를 잠깐 확인하던 찰나 자동차가 인도 쪽으로 쏠린 것이었다. 급정거를 했지만 차의 오른쪽 모퉁이가 이미 갓돌(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가 되는 돌)을 타고 넘어간 뒤였다. 서행하던 중이어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행인들은 깜짝 놀라 질린 표정이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이후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을 안 하기로 굳게 결심했지만, 순간적으로 울리는 알림음에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곤 한다</span>”고 말했다.<br/><br/> #2. 황재준(가명·35)씨는 지난달 여러 차례 저질렀던 실수를 또 반복했다.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은 황씨는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으로 웹툰에 빠져들었다. 서울 종로3가역에서 환승을 위해 걷던 중에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코앞까지 다가온 맞은편 인기척에 급히 몸을 틀었다. 마주 오던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칠 뻔했던 것이다. 황씨는 “<span class='quot1'>놀라 상대를 보니 역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span>”라고 말했다.<br/><br/> <br/><br/> 스마트폰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과다사용으로 인한 신체 곳곳의 새로운 질환, 운동 부족에 따른 근육량 감퇴와 비만뿐이 아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절제한 사용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의력을 떨어뜨려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된다.<br/><br/> 특히 위험한 게 김씨처럼 운전중에 문자 등을 확인하는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다. 2012년 5월1일 25t 트럭이 훈련중이던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대표적이다. 사고 운전자가 운전중 디지털멀티미디어(DMB) 방송을 보던 게 화근이었다.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 조사를 보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 실험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로 운전할 때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은 72.0%였는데, 운전중 휴대폰 디엠비를 시청하는 경우 전방 주시율은 60.6%에 불과해 더 낮았다. 지난해 3월 한국도로공사가 밝힌 최근 1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을 보면 전방주시 태만이 18%로 졸음운전(30%)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br/><br/> ■ ‘운전중’ 못지않게 위험한 ‘보행중 사용’ 위험성이 비교적 널리 알려진 운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비해, 걸으면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위험성에는 이용자들이 둔감하기 쉽다. 강북삼성병원의 신헌규 정형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스마트폰을 쓰고 걸으면서 주변 사람과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히 현저히 떨어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역시 치명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사고가 가장 잦은 곳으로, 전체 차 대 사람 사고의 38.9%를 차지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 동안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횡단보도 10곳에서 보행자들의 행태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 등을 보면서 건너는 경우가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과 잡담을 하면서 건너는 경우(13.2%)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주의 부족 원인이다. 휴대폰 통화(2.4%)보다도 많은데, 이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 생겨난 위험이다. 2012년 기준 차 대 사람 사고 치사율(3.94%)은 차 대 차 사고 치사율(1.32%)보다 훨씬 높다.<br/><br/> 특히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관련 사고는 빠르게 늘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09~2012년 이 회사의 차 대 사람 사고 77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는 1.1배 증가한 반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1.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섯 가운데 한 명(21.7%)은 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br/><br/> 연구소의 이수일 박사는 “<span class='quot3'>자동차 경적 소리에 반응하는 인지거리 실험 결과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 보통에 비해 38%로 짧아지고, 문자·게임을 하는 경우도 절반으로 짧아졌다</span>”고 말했다. 보행중 사고가 심각해지자 외국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미국 뉴저지주 등)이나, 걸을 때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일본 통신사업자 NTT도코모)을 내놓기도 했다.<br/><br/> ■ 수시로 울리는 알림, 잠자리 사용도 건강 위협 스마트폰 사용자 다수가 늘 겪는 일이라는 점에서 생활 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은 광범위하다. 손에 들고 눕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늘면서 물리적 운동량도 예전에 비해 줄기 마련이다. 특히 휴대가 편리해 잠자리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쓰는 이들이 많은데, 수면 부족은 비만과 관련이 깊다. 잠이 줄면 식욕과 관계되는 그렐린이나 렙틴과 같은 체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데 이는 과식 위험을 높인다. <br/><br/>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아직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암연구기구(IARC)의 권고를 바탕으로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장기간(10년 이상) 인체에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다. 또 음식점·사무실 같은 다중이용시설부터 개인공간인 화장실·침실까지 늘 들고 다니면서 얼굴에 갖다대는 스마트폰은 세균의 온상이다. 겨울철 유행성 독감 등을 옮기는 매개체로 기능하기도 한다. 종종 천에 알코올을 묻혀 화면을 닦는 소독 습관도 필요하다. <br/><br/>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39.txt

제목: 엄마를 잃은, 언젠가 엄마를 잃을 당신에게  
날짜: 20140120  
기자: 김지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20100000075  
본문: 상속의 법칙<br/>클레어 비드웰 스미스 지음<br/>최하나 옮김/새움·1만4800원　<br/>열여덟살 소녀는 암으로 죽어가는 엄마를 떠올리며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본다. 엄마가 죽었다. 엄마가 죽었다. 엄마가 죽었다. 뱉어낸 말의 이물감에 온몸을 웅크리며 이기심을 자책한다. 투병중인 엄마의 갈라진 입술과 각질로 뒤덮인 발을 보며 역겨움을 느끼고 ‘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엄마가 죽던 날, 병원으로 달려가는 대신 짝사랑하는 남자애의 집으로 간다. 그 기억은 수년간 그를 괴롭힌다.<br/>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에 대한 에세이다. 지은이는 철강업체를 소유한 사업가 아빠와, 누구나 한번쯤 돌아볼 법한 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었다. 행복하던 시절은 열네살이 되던 해 엄마 아빠가 연달아 암 진단을 받으며 기울어 갔다. 늦둥이로 태어나 각별했던 사랑만큼 부모의 죽음은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부정하고, 분노했으며, 절망하고, 무너졌다. 지은이는 이 과정을 흑백사진처럼 담담하고 섬세하며 놀랍도록 솔직하게 써내려간다. “상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뿐이다.” 이제 호스피스 상담사이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지은이는 슬픔에 갇히지 않고 슬픔을 ‘지나는’ 법을 이야기한다. “<span class='quot0'>단 한명이라도 슬픔 속에서 덜 외롭게 걸어나올 수 있기를</span>” 바라는 지은이가 건네는 위로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40.txt

제목: [왜냐면] 담배소송, 정부는 뭘 하고 있나 / 김자혜  
날짜: 2014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2010013268212  
본문: 정부는 ‘전매청’이란 기구를 통해 담배의 생산·유통·판매까지 주도하다가 현재의 ‘케이티앤지’(KT&G)로 민영화시켰다.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케이티앤지는 담뱃갑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경고문을 쓴다. 그러곤 끝이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내지만, 케이티앤지 스스로가 경고문을 통해 인정했듯이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의 당사자이지만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기업윤리도 저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br/><br/> 정부는 어떤가?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해 10월10일 ‘담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기획재정부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을 거쳐 국제협약인 에프시티시(FCTC), 곧 ‘담배 규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본협약은 “담배 소비 및 담배연기의 노출로 인한 파괴적인 사회 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 가입국인 정부는 금연단체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며 흡연의 유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어떤 반박을 했다는 소식도 없다.<br/><br/> 이런 현실에서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의 집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의지를 공식화했다. 마른하늘의 단비같이 반갑다. 공단은 지난해 8월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한 자료를 분석하여, 남성의 경우 후두암 79%, 폐암 71% 등의 영향 등 흡연과 암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발표했다. 그 질병으로 공단은 2011년에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했다.<br/><br/> 우리의 경우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사회적 공감대도 못 얻은 채 패소했다. 담배회사라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개인의 패소는 예정된 것이다. 하지만 공단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과 반전을 의미하며, 보험재정의 책임자인 공단이 담배회사들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br/><br/>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채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 근거자료만으로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만들어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접 나서지 못하겠다면 공단의 담배소송이라도 도와주라. <br/><br/>김자혜 ㈔소비자 시민모임 회장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41.txt

제목: ‘질병 정복’ 꿈꾸지만… /병을 만들어내는 인간  
날짜: 20140120  
기자: 한승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20100000056  
본문: ▶ 질병의 탄생<br/>홍윤철 지음/사이 펴냄<br/>과학기술의 눈부신 진보에 힘입어 현대의학은 몇몇 난치병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가고 있다. 21세기에 인간은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br/>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주임교수가 쓴 은 인간은 지금 질병을 정복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질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질병 대부분은 인간이 초래한 환경적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고, 문명은 질병을 만들어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진단과 치료 기술 중심의 전략으로는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고 얘기한다. ▶관련기사 22면<br/>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상 만성적인 질병들이 오늘날처럼 만연한 시대도 없었다. 독감이나 말라리아 등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전염병과 비만,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알레르기 질환, 암, 그리고 우울증…. 홍 교수는 수백만년에 걸친 인류의 진화역사 가운데 1만여년 전 마지막 빙하기 이후 농경·목축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농업혁명 전까지는 이런 질병들 대다수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많은 질병이 정착생활과 단작 곡물생산, 개발과 생산성 증대, 인구 증가와 교환 및 접촉 확대, 계급 형성, 전쟁 등과 함께 출현했으며, 산업혁명 이후 증폭됐다는 것이다.<br/>　홍 교수는 수백만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온 인간의 유전자가 1만여년간 진행된 문명화가 초래한 생활 및 자연환경의 엄청난 변화의 폭과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바로 그 부적응 때문에 지금의 질병들이 생겨났다고 본다. 현대문명의 방향과 속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질병이 어디서 시작돼 어디로 가고 있는지부터 이해하는 것, 그것이 홍 교수가 생각하는 질병 극복의 첫걸음이다. <br/> 한승동 기자 sdha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42.txt

제목: 엄마를 잃은, 언젠가 엄마를 잃을 당신에게  
날짜: 2014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910013257601  
본문: 열여덟살 소녀는 암으로 죽어가는 엄마를 떠올리며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본다. 엄마가 죽었다. 엄마가 죽었다. 엄마가 죽었다. 뱉어낸 말의 이물감에 온몸을 웅크리며 이기심을 자책한다. 투병중인 엄마의 갈라진 입술과 각질로 뒤덮인 발을 보며 역겨움을 느끼고 ‘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엄마가 죽던 날, 병원으로 달려가는 대신 짝사랑하는 남자애의 집으로 간다. 그 기억은 수년간 그를 괴롭힌다.<br/><br/>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에 대한 에세이다. 지은이는 철강업체를 소유한 사업가 아빠와, 누구나 한번쯤 돌아볼 법한 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었다. 행복하던 시절은 열네살이 되던 해 엄마 아빠가 연달아 암 진단을 받으며 기울어 갔다. 늦둥이로 태어나 각별했던 사랑만큼 부모의 죽음은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부정하고, 분노했으며, 절망하고, 무너졌다. 지은이는 이 과정을 흑백사진처럼 담담하고 섬세하며 놀랍도록 솔직하게 써내려간다. “상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뿐이다.” 이제 호스피스 상담사이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지은이는 슬픔에 갇히지 않고 슬픔을 ‘지나는’ 법을 이야기한다. “<span class='quot0'>단 한명이라도 슬픔 속에서 덜 외롭게 걸어나올 수 있기를</span>” 바라는 지은이가 건네는 위로다. <br/><br/>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43.txt

제목: ‘질병 정복’ 꿈꾸지만…병을 만들어내는 인간  
날짜: 2014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910013257675  
본문: 질병의 탄생 <br/>홍윤철 지음 <br/>사이 펴냄<br/><br/><br/><br/>과학기술의 눈부신 진보에 힘입어 현대의학은 몇몇 난치병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가고 있다. 21세기에 인간은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br/><br/>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주임교수가 쓴 <질병의 탄생>은 인간은 지금 질병을 정복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질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질병 대부분은 인간이 초래한 환경적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고, 문명은 질병을 만들어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진단과 치료 기술 중심의 전략으로는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고 얘기한다. <br/><br/>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상 만성적인 질병들이 오늘날처럼 만연한 시대도 없었다. 독감이나 말라리아 등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전염병과 비만,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알레르기 질환, 암, 그리고 우울증…. 홍 교수는 수백만년에 걸친 인류의 진화역사 가운데 1만여년 전 마지막 빙하기 이후 농경·목축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농업혁명 전까지는 이런 질병들 대다수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많은 질병이 정착생활과 단작 곡물생산, 개발과 생산성 증대, 인구 증가와 교환 및 접촉 확대, 계급 형성, 전쟁 등과 함께 출현했으며, 산업혁명 이후 증폭됐다는 것이다.<br/><br/> 홍 교수는 수백만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온 인간의 유전자가 1만여년간 진행된 문명화가 초래한 생활 및 자연환경의 엄청난 변화의 폭과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바로 그 부적응 때문에 지금의 질병들이 생겨났다고 본다. 현대문명의 방향과 속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질병이 어디서 시작돼 어디로 가고 있는지부터 이해하는 것, 그것이 홍 교수가 생각하는 질병 극복의 첫걸음이다. <br/><br/>한승동 기자 sdhan@hani.co.kr<br/><br/><br/><br/> 인간은 문명을, 문명은 질병을 만들었다<br/><br/>지금과 같은 진단과 치료 기술 중심 전략으론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 문명이 촉발하는 너무 빠른 환경변화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 몸 유전자의 적응속도간 차이를 줄이는 것, 질병 예방의 해법은 이것이다.<br/><br/><br/><br/>1만여년 전 농업혁명 이전의 선행인류에게도 전염병이 있었을까?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의 <질병의 탄생>은 나병 같은 몇가지를 빼면 오늘날 유행하는 대부분의 전염병은 농업혁명 이전에는 없었다고 본다.<br/><br/> 부자 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엔 개발도상국에서도 급속도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비만이라는 신종 질환. 상대적 풍요사회가 가져다준 과잉영양과 운동부족의 불균형이 그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백인이나 아시아계보다 흑인이나 태평양 섬들의 폴리네시아인들에게 비만으로 인한 유병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제한된 자원에 대비해 에너지 축적 효율이 높은 쪽으로 진화한 몸이 갑자기 조우하게 된 먹을거리 풍성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재조정(적응)할 새도 없이 고효율의 에너지 축적 메커니즘을 계속 가동시킨 결과다.<br/><br/> 인공 화학물질이 비만을 촉발한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살충제로 사용된 다이옥신이나 유기염소제 화합물인 비페닐염소계 화합물이 지방 친화성이 있어서 지방조직에 쌓여 대사작용을 방해함으로써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실을 하는 환경호르몬(내분비교란 화학물질)이 비만이나 당뇨의 급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br/><br/> 홍 교수는 한국인의 비만 유병률은 미국인의 10분의 1 수준인데도 한국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미국인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화학물질 남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지난 수십년간 당뇨병 유병률 변화와 화학물질 생산량 증가는 거의 일치한다. 아시아지역 당뇨병 발생 증가속도가 미국·유럽보다 빠른데, 최근 25년간 아시아의 화학물질 생산과 사용 증가율 또한 미국·유럽보다 높았다. 인류는 지금 해마다 2000종 이상의 새로운 화학물질, 이제껏 본 적도 없는 위험물질들을 양산하고 있다.<br/><br/> 당뇨병의 원인물질인 당은 원래 인체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췌장에 베타세포가 있고 그 표면에 글루트(GLUT) 같은 당을 인식하는 수용체(감지기)가 있다. 이를 통해 당이 혈액 내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 베타세포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인슐린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골격근이나 심장, 간과 지방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신호를 보내 당을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용하게 하거나 글리코겐이나 지방으로 저장하게 만든다. <br/><br/> 인간은 수백만년 진화 기간 내내 늘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이 체내에 들어올 경우 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베타세포 글루트 수용체를 많이 만들었다. 이 ‘혈당─베타세포 글루트 수용체─인슐린─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로 이어지는 시스템은 오랜 세월 정교하게 작동해왔으나, 최근 당이 넘치도록 공급되는 상황에서 교란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너무 많은 당이 들어오면 세포들이 이를 차단하고, 그러면 세포 내로 흡수되지 못하는 당 때문에 혈당치는 더욱 높아지며, 이는 또한 췌장의 베타세포 글루트 수용체를 자극해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든다. 인슐린이 너무 많아지면 세포는 인슐린 신호를 완전히 차단하게 되고 그러면 혈액 내 당의 농도는 높은데도 세포들은 에너지 부족으로 기아상태에 빠지고 인슐린 생산을 다그치던 베타세포도 지쳐서 망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인슐린 생산마저 불가능해지는 중증 당뇨병으로 진행된다. <br/><br/><br/><br/>오늘날 대부분의 전염병은 <br/>농업혁명 이전엔 없었다 <br/>문명이 초래한 환경 변화에 <br/>인간의 몸은 적응하지 못했다 <br/>질병 극복을 위한 첫걸음은 <br/>환경·생활을 자연시대로 돌리고 <br/>공동체 지향의 삶을 사는 것이다<br/><br/><br/><br/> 고혈압 발생 증가도 변화된 환경에 대한 부적응 탓이 크다. 우리 몸 안의 수분을 유지하고, 직립 보행으로 약해지기 쉬운 몸 위쪽 뇌나 심장·신장 등의 장기로 가는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 속에 염분이 일정량 있어야 한다. 수백만년 동안 염분 부족에 시달린 인류는 몸 안에 들어온 염분이 콩팥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기 위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레닌앤지오텐신 시스템을 가동해 왔다. 그런데 역시 문명화 이후 염분 과다 상태가 됐는데도 주로 혈압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이 시스템 가동의 경직성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br/><br/>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망 원인의 10%도 안 되던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관질환이 주요국 사망 원인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도 오랜 세월 건강에 유리하게 작동했던 유전자가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과거의 작동관행을 계속하는 데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 예컨대 혈액 응고를 촉진했던 대립유전자가 적이나 동물들과 혈투를 벌여야 했던 선사시대에는 지혈을 촉진해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지금도 그대로 작동한다면 그러잖아도 넘치는 콜레스테롤이나 당 등으로 생기기 쉬운 혈전 형성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br/><br/>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천식 창궐은 아이들이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탓이라는 ‘위생 가설’도 있다. 인간은 오랜 세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수 10조개보다 10배나 많은 100조개에 이르는 몸 안의 미생물, 그리고 우리 주변환경의 미생물들과 서로 적응하며 공존해 왔는데 항균제·세정제 등의 약품과 농약 등으로 그 공생관계를 깨뜨린 결과라는 것이다. 우울증도 복잡하고 위험한 주변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기분을 가라앉혀 주어진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오래된 보호기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최근 급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역시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지나친 경쟁환경이 빚어낸 정신적 소진의 결과라고 본다. <br/><br/> 홍 교수가 제시하는 질병 예방전략 3가지는 이렇다. 문제는 유전자가 적절히 대응하고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른 변화 속도. 따라서 시간 차이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첫째, 환경과 생활습관을 유전자가 최적으로 적응했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식습관을 수렵채집 시기나 산업혁명 이전 시기의 것으로 돌릴 것. 즉, 다양한 채소, 과일, 견과류, 어류와 오메가3이 많은 불포화지방산 섭취를 늘리고 포화지방산이 많은 육류와 염분, 가공식품 섭취를 줄일 것, 쌀 등 곡물도 정제가 덜 된 상태로 섭취하고 운동 등 신체활동을 늘릴 것, 흡연·음주도 중단하거나 줄일 것, 친밀한 공동체, 연대하는 사회문화를 만들 것. 둘째, 지구환경을 보존할 것. 셋째, 수천년이 걸리는 유전자 구조 변화가 아니라 몇 세대 안에도 가능한 유전자 발현 변경을 통한 유전자 적응을 촉진할 것. 그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공동체 지향의 친환경 사고와 실천, 슬로 라이프다. <br/><br/>한승동 기자 sdha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44.txt

제목: <변호인>의 양우석 감독 /“우리는 찌질한 게 아니라 피곤한 거다”  
날짜: 20140118  
기자: 이진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8100000008  
본문: 영화는 영화다. 영화를 보는 두 시간 동안 달달한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기도,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다. 영화가 끝나고 어둡던 상영관에 불이 켜지면, 큰 통 수북이 아직 남아 있는 팝콘과 콜라를 미련 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우린 그 가상의 세계를 지체 없이 떠난다. 주차권의 무료주차 시간을 확인하고 저녁은 뭘 먹을까 궁리하며 총총히 흩어진다. 자정을 넘긴 신데렐라처럼, 허겁지겁 돌아간 우리를 맞는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구차한 현실이다. 언제나 일상은 영화보다 무겁고 집요하다.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극장을 찾는다. 울고 싶을 땐 우는 영화를, 웃고 싶을 땐 웃는 영화를 골라 잠시나마 자기 위안의 시간을 구한다.<br/>　개봉 이후 연 5주째 폭발적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에서 관객들은 과연 무얼 구하고 싶었을까. 천만 관객의 뇌관을 건드린 공명의 코드를, 감독은 어떻게 찾아냈을까. 지난 8일, 서울숲이 내려다보이는 한 찻집에서 양우석(45) 감독을 만났다. 그는 약속시간보다 15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짧은 머리에 사각의 안경테,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점잖은 회사 중역이나 공무원 같은 인상이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건네자 그가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숫기 없고 나지막한 음성이었다. 차를 주문하며 영화 흥행에 대한 소감부터 물었다.<br/>　 충격으로 문사철 관심<br/> -곧 천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요즘 기분이 어떤가?<br/>　“<span class='quot0'>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담담했는데… 관객들한테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지만 개인적으론 성격이 워낙 둔해 그런지 그저 담담하고….</span>”<br/>　-그럴 리가? 흥행에 신경을 별로 안 썼단 얘긴가?<br/>　“그렇다.”<br/>　-흥행에 신경을 안 쓰는 감독도 있나? 더구나 첫 작품인데?<br/>　“처음부터 영화로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초기엔 독립영화 스타일도 각오를 했던 터라 상업적으로 큰 기대를 안 했다. 송강호 선배가 출연 결정을 하면서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했지만 영화의 규모가 어떻게 되든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뿐이었다.”<br/>　많이 알려진 대로 은 양우석이 쓴 웹툰용 시나리오에서 출발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위더스의 최재원 대표와 우연히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다음달부터 포털에 연재한다”고 웹툰 얘기를 꺼내자 최 대표가 “웹툰 말고 영화로 만들자”고 전격 제안한 것. 처음엔 “중량감 있는 감독”이 맡아 주기를 바랐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어, 결국 시나리오를 쓴 양우석이 직접 메가폰을 잡게 되었다. 40대 중반에 조연출 경험 한 번 없이 최고의 배우와 첫 작품을 한 것만도 꿈같은 일인데 그렇게 만든 데뷔작이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초대박 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입이 귀에 걸릴 만하건만, 그는 정말로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천성이 묵직한 사람인 듯했다. 1969년생. 2형제의 맏이, 미혼이다.<br/>　-생각보다 키가 크시다. 무대인사 사진으로 볼 땐 몰랐는데.<br/>　“워낙 다들 체격이 크셔서. 송강호 선배나 곽도원씨나….”<br/>　-어려선 우량아 소리 들으셨겠다.(웃음)<br/>　“아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성장이 더뎠다. 이빨도 굉장히 늦게 나서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다는데 이가 나면서부터 이유식도 안 하고 육식으로 바로 건너뛰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거의 육식으로 몇 년을 살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래서 또 걱정을 하셨다고 한다. 애가 자꾸만 커지니까….(웃음)”<br/>　아버지가 교육공무원이어서 양우석은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 서울에서 났지만 어려선 주로 천안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때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이공계열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서 고려대 문과대에 입학했다. 대학에선 철학과 영문학을 전공했다.<br/>　-철학을 하면서 영문학을 복수전공한 이유가 뭔가? 취직 안 될까 봐?<br/>　“아니, 문사철(문학-역사-철학)을 두루 공부하고 싶었다. 20세기 문학은 영어권이 세니까. 역사책 읽는 건 원래 좋아했고.”<br/>　-문사철에 왜 관심을 가졌나?<br/>　“중학생 때 우연히 교육방송(EBS)에서 방영한 란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때까지는 주로 서부영화만 봤었는데…. 브라질의 빈민층인데 가난에 찌들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얘기. 영화에 흑인들만 나오는데 내용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Orpheus & Euridice)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차용해온 것이고…. 나한테는 거의 혁명이었다. 그 뒤부터 지리와 역사를 좋아하게 되고 영화광이 됐다. 영화를 하려면 대학에서 문사철(인문학)을 꿰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br/>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학생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영화광이었지만 영화를 전공하거나 영화동아리에 들지도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뒤 엠비시(MBC)프로덕션 영화기획실과 에스케이(SK) 계열의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을 했다. 현재도 그는 ‘로커스’라는 컴퓨터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의 이사로 일한다. 남들이 볼 때는 갈지자 행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양우석은 삼십년 전 자신이 정한 바대로 영화를 향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을 뿐이다. 인문학을 기초로, 기술을 알고, 시나리오와 콘티를 짜는 것.<br/>　-그런데 왜 영화 쪽 일을 안 하고 웹툰 작가가 되었나?<br/>　“그건 오해다. 웹툰은 진짜 취미로 한 거다. 내가 쓴 웹툰 시나리오들은 길이가 항상 영화 길이였다. 영사되는 방식도 영화랑 똑같다. 필름이 지금은 디지털 방식이지만 옛날 필름은 웹툰처럼 아래로 내려간다. 영화와 유사성이 아주 높은 게 웹툰이다. 나로선 영화를 하기 위한 과정상의 일이다.”<br/>　대구에서의 무대인사, 깜짝 놀랄 만큼 뜨거워<br/>　-지금까지 발표한 웹툰들을 봤다. 의 속편 격인 ,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 환자와 호스피스의 사랑을 그린 , 김정일 사후 남북한 전쟁 위기를 그린 등이 있는데 다 다른 색깔의 작품들이다. 그냥 보면 전혀 다른 작가들이 한 것처럼 느껴진다. 원래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나?<br/>　“나는 주제보다는 이야기 자체로 대중과 소통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 난 모든 이야기가 언론적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카프카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작가의 역할은 ‘얼음호수를 내려찍는 얼음도끼’와 같다. 쩍 내려치면 얼음바다가 깨지지는 않지만 안에 있는 고기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건 뭐지?’ 하고 쳐다볼 것이다.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작가의 임무다.”<br/>　-그럼 을 통해서 환기시키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나?<br/>　“대한민국 현대사만큼 격동적인 역사가 없다. 건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불과 60여년 전인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조로(早老)했다. 60년 만에 이렇게 조로하다니….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던 80년대의 치열함을 한 인물을 통해 얘기하고 싶었다.”<br/>　-그런데 영화를 81년도 부림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말미에 87년 상황을 덧붙였다. 이건 뭔가? 묵직한 분노로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관객들 스트레스 덜 받게 하려고 대중적, 상업적 배려를 한 건가?<br/>　“송 선배(송강호)랑 농담 삼아 나눈 얘기가 있다. ‘만약 우리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도 으?X으?X 하는 마음에 일시적으로 분노할 수 있었을지는 모른다. 부당한 사건을 보면 오천만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은 분노하고,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 문제는 ‘그게 7년이나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br/>　-7년이라면, 81년에서 87년?<br/>　“그렇다. 누구든지 잠깐은, 며칠은, 몇 달은 분노할 수 있다. 근데 그 분노를 냉철한 이성으로 단련하고 제련해서 시대를 끌고 나가는 힘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우리 같은 사람은 분노는 쉽게 된다. 근데 그 분노가 명백한 목표점을 향해 변하지 못하면 그냥 분노다. 영화의 주인공 송우석은 7년 뒤에도 변함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어떻게 그 분노가 신념으로 바뀌고 그 신념을 전파하기 위해 자기가 치러야 할 희생을 어떻게 기꺼이 치렀는지. 그런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br/>　-이 영화의 형식은 상당히 독특하다. 역사적 인물을 다룬, 이나 같은 영화들을 보면 보통 연대기적인 사실이나 사건은 실제 고증에 따라 하고 사료에 드러나지 않은 인물의 고뇌나 갈등은 허구적으로 창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은 서로 다른 역사적 사건들을 한 사건처럼 조합한다거나 여러 인물을 한 인물로 재구성하고 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했나?<br/>　“송우석이란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건 맞지만 누차 밝혔듯이 이 영화는 실화적 요소를 차용하고 각색한 픽션이다. 아주 정밀한 실증적 고증을 쫓아가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 난 이 시대를 광각(廣角)적으로 프리즘처럼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런 면에서 젊은 시절의 노무현은 그 시대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축약해서 드러내는 인물이라 생각했다. 80년대를 한 이야기 속에, 기승전결에 맞춰 보여드리려고 만든 픽션적 구성이다.”<br/>　-빠른 속도로 천만 관객 돌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영화의 소비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가? 지역적으로 관객 수의 차이가 있나? 이를테면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경북 지역 같은 경우….<br/>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무대인사를 다닌 곳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곳 중 하나가 대구였다. 개봉도 하기 전이었는데 상영관에도 못 들어갈 만큼 인파가 모였다.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br/>　민주화운동 세대 자격론, 난 다르게 생각한다<br/>　- 임시완 때문 아닌가?(웃음)<br/>　“<span class='quot0'>시완이는 그때 가지도 않았는데….</span>”<br/>　-그랬나?<br/>　“대구에 있는 지인들로부터도 문자도 종종 받는데 ‘오늘 매진’이라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편견과 몰이해가 오히려 문제인 것 같다.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이해를 높일 수 있게끔 서로 설득하고 소통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내 얘기가 순진하고 나이브(naive)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방법이 있겠나? 헬렌 켈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그게 헬렌 켈러의 잘못일까. 누군가는 설리번이 돼야 한다.”<br/> 영화 속 주인공의 이름대로 송우석의 일부는 양우석의 것이다. 순진하고 우직하고 낙관적인…. 아니, 그런 양우석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렌즈 삼아 80년대를 그리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br/>　-그간 여러 차례 무대인사를 통해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평범한 우리</span></span>도 좀 더 <span class='quot1'>용기</span>를 가지고 상식을 지키며 <span class='quot1'>치열하게</span> 살면 좋겠다</span>”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다. 근데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평범한 우리</span></span>”는 “<span class='quot1'>용기</span>”를 내기도 어렵고, “<span class='quot1'>치열하게</span>” 살 만큼 과감하지도 않다. 사실 송우석이 평범한가?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평범한 우리</span></span>”는 대개 찌질하게 산다.<br/>　“내가 볼 때, 우린 찌질한 게 아니라 피곤한 거다.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보통 사람과 영웅의 차이는 5분’이라고 했다. 보통 사람이 5분 더 용감하면 영웅이 된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는, 한번 삐끗해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구조다. 그러다 보니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느라 피곤에 지쳐버린다. 비겁해서 외면한다기보다는 피곤해서 더 이상 어떻게 반응하기가 힘든 거다. 피곤이 가져온 마비라고나 할까. 마비만 풀어내면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본다. 5분 차이다.”<br/>↗<br/>↘<br/>-요즘 사람들이 희망을 못 갖는 결정적 이유는, 리더가 없다는 거다. 송우석처럼 숙련되지는 못해도 바탕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믿고 의지하고 만들어가겠다는 마음들이 있다. 겉으론 다들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정말 마음으로 신뢰할 만한 리더가 없는 현실, 그게 사람들을 절망케 한다.<br/>　“기업경영론에 나오는 얘긴데 ‘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는 기업 내부에 있다.’ 근데 그 사람을 못 찾는 거다. 효종 북벌운동이 일어났을 때 실록의 역사를 보면 ‘왜 우리는 청나라에 졌을까?’ 답이 심플하다. ‘이순신이 없어서.’ 난센스 아닌가? 이순신은 하늘에서 내렸나? 우린 자꾸 어떤 리더를 신격화하고 영웅화하려는 습성이 있다. 회사를 혁신할 리더는 분명 회사 내부에 있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다. 시이오(CEO)가 게을러터지고 무능해서 못 찾는 것뿐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왜 국민이 리더를 못 찾고 있을까. 노무현이라는 한 개인을 대선후보로 만든 게 누군가? 그 사람이 엄청난 영웅이어서가 아니다. 그때 그를 리더로 만든 건 국민이었다. 리더가 없다는 건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주인 된 마음으로 찾지 못한 탓이 아닐까.”<br/>-영화에서 오달수가 ‘오늘부터 니 편한 인생 니 발로 찬기다’ 하니까 송강호가 말한다. ‘내 아들딸들은 이런 세상에 살게 하지 않으려고 이런다.’ 이 말이 80년대 집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모가 돼서, 나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80년대적 진정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뒤 30년을 어떻게 살았나. 아파트에 목숨 걸고 증권에 목숨 걸고 사교육에 목숨 걸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스스로 마모되었다. 과거 치열성에 대한 향수로 관객을 위로하면 안 되지 않나? 그들이 자식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줄 자격이 있을까?<br/>　“80년대를 살아온 분들한테는 순결에 대한 묘한 정서가 있는 것 같다. ‘네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난 거꾸로 생각한다. 우리가 욕할 때 ‘걸레’라는 말을 쓰는데, 걸레만큼 좋은 게 없다. 더러워지면 다시 깨끗하게 빨아서 쓰고 또 더러운 걸 닦는다. 목욕은 좋은 단어라고 하면서 걸레를 빠는 건 왜 나쁘게 생각하나. 중광 스님은 본인을 걸레로 불러 달라고 하지 않나. 예를 들어 아버지가 80년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사는 게 바빠서 잠깐 잊었어, 하지만 다시 영화를 보고 깨끗해지셨다면 다시 빨고 아들딸이랑 얘기해볼 수 있는 거지…. 빨 <span class='quot1'>용기</span>가 없는 건지? 오히려 그게 문제다. 방바닥을 닦아 더러워졌다면 화장실로 빨리 가서 빨고 다시 오셔야지. 또 닦아야지. 그래서 문제는 찌질함이 아니라 피곤함이라는 거다. 닦지 않는 거, 빨지 않는 거. 결국 우리는 피곤과 싸우는 거다. 어떤 이념의 순수성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치지 않는 삶의 태도.”<br/>　황지우 시 떠올린 “이라믄 안되는 거잖아요!”<br/>-당신이 그려낸 송우석은 누군가?<br/>　“송강호 선배에게 한 초년병 기자가 물었단다. ‘배우란 무엇인가?’ 그 대답이 이랬다고 한다. 배우란 ‘우리가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는 직업’이다. 송우석 변호사는, 그 모티프가 되는 노무현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잃어버린 얼굴이기도 하다. 내가 웃고 슬퍼하고 화내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피곤에 찌들면서 잊어버린 거다. 배우는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해 준 거고. 타자의 얼굴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언젠가 잃어버린 얼굴, 그게 송우석이다.”<br/>　그의 말처럼 우리를 울린 건 송강호도, 노무현도 아닌,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얼굴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꼽는 의 여러 명대사들이 있지만 내가 그중 하나를 꼽는다면 “이라믄 안 되는 거잖아요!”였다 말하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양우석은 이 대사를 쓸 때 황지우의 시가 떠올랐다고 했다.<br/>　“<span class='quot0'>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영하 이십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span class='quot0'>무방비의 나목</span>으로 서서 …(중략)/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하략)</span>”(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br/>　찻집 유리창 너머로 앙상한 나무들의 숲이 보였다. 아직 여기는 겨울이지만 “<span class='quot0'>무방비의 나목</span>”들은 죽은 게 아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뜨거운 외침을 품고 찬바람에 부대끼고 있을 뿐. 녹취 김혜영(단비뉴스 기자)<br/><br/>1983년 흑인 오르페<br/>중학생 때 우연히 교육방송(EBS)에서 본 라는 영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인생관을 배웠고, 영화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br/>2009년 웹툰 작가<br/>다음(Daum)에서 연재한 입니다. 영화용 시나리오 하려던 중 우연히 웹툰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웹툰 작가가 제 직업이었죠.<br/>2011년 김정일 사망 예견?<br/>북한 급변사태를 소재로 한 웹툰 을 작가 김태건(오른쪽, 그림 담당)씨와 함께 연재했습니다. 실제 김정일이 사망해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죠.<br/>2013년 영화감독 데뷔<br/>웹툰용으로 쓴 의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게 됐고, 우연한 계기로 직접 감독을 맡았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극적으로 영화감독 데뷔를 했습니다.<br/>2014년 상식의 힘<br/>배우들과 참석한 무대인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흥행하리라곤 예상치 못했습니다. 상식에 대한 공감이 관객을 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요.<br/>▶ 이진순 언론학 박사. 희망제작소 부소장. 살림하고 애 키우는 오십대 아줌마이자 공부하고 글 쓰는 열혈시민이다. 미국 올드도미니언대학 조교수로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을 강의하다가 사직하고 귀국해 시민운동 현장에 합류했다. 경험과 논리에 갇히지 않고 즐겁게 소통하고 진화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열린 사람들과의 어울림’(열림)을 격주로 전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45.txt

제목: “우리는 찌질한 게 아니라 피곤한 거다”  
날짜: 2014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51222153840503  
본문: 영화는 영화다. 영화를 보는 두 시간 동안 달달한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기도,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다. 영화가 끝나고 어둡던 상영관에 불이 켜지면, 큰 통 수북이 아직 남아 있는 팝콘과 콜라를 미련 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우린 그 가상의 세계를 지체 없이 떠난다. 주차권의 무료주차 시간을 확인하고 저녁은 뭘 먹을까 궁리하며 총총히 흩어진다. 자정을 넘긴 신데렐라처럼, 허겁지겁 돌아간 우리를 맞는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구차한 현실이다. 언제나 일상은 영화보다 무겁고 집요하다.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극장을 찾는다. 울고 싶을 땐 우는 영화를, 웃고 싶을 땐 웃는 영화를 골라 잠시나마 자기 위안의 시간을 구한다.<br/><br/> 개봉 이후 연 5주째 폭발적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변호인>에서 관객들은 과연 무얼 구하고 싶었을까. 천만 관객의 뇌관을 건드린 공명의 코드를, 감독은 어떻게 찾아냈을까. 지난 8일, 서울숲이 내려다보이는 한 찻집에서 양우석(45) 감독을 만났다. 그는 약속시간보다 15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짧은 머리에 사각의 안경테,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점잖은 회사 중역이나 공무원 같은 인상이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건네자 그가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숫기 없고 나지막한 음성이었다. 차를 주문하며 영화 흥행에 대한 소감부터 물었다.<br/><br/><br/><br/> <흑인 오르페> 충격으로 문사철 관심 <br/><br/><br/>-곧 천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요즘 기분이 어떤가?<br/><br/> “<span class='quot0'>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담담했는데… 관객들한테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지만 개인적으론 성격이 워낙 둔해 그런지 그저 담담하고….</span>”<br/><br/> -그럴 리가? 흥행에 신경을 별로 안 썼단 얘긴가?<br/><br/> “그렇다.”<br/><br/> -흥행에 신경을 안 쓰는 감독도 있나? 더구나 첫 작품인데?<br/><br/> “처음부터 영화로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초기엔 독립영화 스타일도 각오를 했던 터라 상업적으로 큰 기대를 안 했다. 송강호 선배가 출연 결정을 하면서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했지만 영화의 규모가 어떻게 되든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뿐이었다.”<br/><br/> 많이 알려진 대로 <변호인>은 양우석이 쓴 웹툰용 시나리오에서 출발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위더스의 최재원 대표와 우연히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다음달부터 포털에 연재한다”고 웹툰 얘기를 꺼내자 최 대표가 “웹툰 말고 영화로 만들자”고 전격 제안한 것. 처음엔 “중량감 있는 감독”이 맡아 주기를 바랐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어, 결국 시나리오를 쓴 양우석이 직접 메가폰을 잡게 되었다. 40대 중반에 조연출 경험 한 번 없이 최고의 배우와 첫 작품을 한 것만도 꿈같은 일인데 그렇게 만든 데뷔작이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초대박 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입이 귀에 걸릴 만하건만, 그는 정말로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천성이 묵직한 사람인 듯했다. 1969년생. 2형제의 맏이, 미혼이다.<br/><br/> -생각보다 키가 크시다. 무대인사 사진으로 볼 땐 몰랐는데.<br/><br/> “워낙 다들 체격이 크셔서. 송강호 선배나 곽도원씨나….”<br/><br/> -어려선 우량아 소리 들으셨겠다.(웃음)<br/><br/> “아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성장이 더뎠다. 이빨도 굉장히 늦게 나서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다는데 이가 나면서부터 이유식도 안 하고 육식으로 바로 건너뛰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거의 육식으로 몇 년을 살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래서 또 걱정을 하셨다고 한다. 애가 자꾸만 커지니까….(웃음)”<br/><br/> 아버지가 교육공무원이어서 양우석은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 서울에서 났지만 어려선 주로 천안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때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이공계열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서 고려대 문과대에 입학했다. 대학에선 철학과 영문학을 전공했다.<br/><br/> -철학을 하면서 영문학을 복수전공한 이유가 뭔가? 취직 안 될까 봐?<br/><br/> “아니, 문사철(문학-역사-철학)을 두루 공부하고 싶었다. 20세기 문학은 영어권이 세니까. 역사책 읽는 건 원래 좋아했고.”<br/><br/> -문사철에 왜 관심을 가졌나?<br/><br/> “중학생 때 우연히 교육방송(EBS)에서 방영한 <흑인 오르페>란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때까지는 주로 서부영화만 봤었는데…. 브라질의 빈민층인데 가난에 찌들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얘기. 영화에 흑인들만 나오는데 내용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Orpheus & Euridice)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차용해온 것이고…. 나한테는 거의 혁명이었다. 그 뒤부터 지리와 역사를 좋아하게 되고 영화광이 됐다. 영화를 하려면 대학에서 문사철(인문학)을 꿰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br/><br/>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학생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영화광이었지만 영화를 전공하거나 영화동아리에 들지도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뒤 엠비시(MBC)프로덕션 영화기획실과 에스케이(SK) 계열의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을 했다. 현재도 그는 ‘로커스’라는 컴퓨터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의 이사로 일한다. 남들이 볼 때는 갈지자 행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양우석은 삼십년 전 자신이 정한 바대로 영화를 향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을 뿐이다. 인문학을 기초로, 기술을 알고, 시나리오와 콘티를 짜는 것.<br/><br/> -그런데 왜 영화 쪽 일을 안 하고 웹툰 작가가 되었나?<br/><br/> “그건 오해다. 웹툰은 진짜 취미로 한 거다. 내가 쓴 웹툰 시나리오들은 길이가 항상 영화 길이였다. 영사되는 방식도 영화랑 똑같다. 필름이 지금은 디지털 방식이지만 옛날 필름은 웹툰처럼 아래로 내려간다. 영화와 유사성이 아주 높은 게 웹툰이다. 나로선 영화를 하기 위한 과정상의 일이다.” <br/> <br/>누구든 분노는 쉽게 한다 <br/><br/><br/>그 분노가 명백한 목표점 향해 <br/>변하지 못하면 그냥 분노일 뿐 <br/>송우석은 7년 뒤인 87년에도 <br/>변함없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br/><br/><br/><br/>빨 <span class='quot1'>용기</span>가 없는 게 문제다 <br/>방바닥 닦아 더러워졌다면 <br/>화장실 가서 빨고 다시 와야지 <br/>닦지 않는 거, 빨지 않는 거 <br/>결국 우린 피곤과 싸우는 거다 <br/> <br/>대구에서의 무대인사, 깜짝 놀랄 만큼 뜨거워 <br/><br/><br/>-지금까지 발표한 웹툰들을 봤다. <로보트 태권브이>의 속편 격인 <브이(V)>,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 환자와 호스피스의 사랑을 그린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김정일 사후 남북한 전쟁 위기를 그린 <스틸레인> 등이 있는데 다 다른 색깔의 작품들이다. 그냥 보면 전혀 다른 작가들이 한 것처럼 느껴진다. 원래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나?<br/><br/>　“나는 주제보다는 이야기 자체로 대중과 소통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 난 모든 이야기가 언론적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카프카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작가의 역할은 ‘얼음호수를 내려찍는 얼음도끼’와 같다. 쩍 내려치면 얼음바다가 깨지지는 않지만 안에 있는 고기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건 뭐지?’ 하고 쳐다볼 것이다.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작가의 임무다.”<br/><br/>　-그럼 <변호인>을 통해서 환기시키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나?<br/><br/>　“대한민국 현대사만큼 격동적인 역사가 없다. 건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불과 60여년 전인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조로(早老)했다. 60년 만에 이렇게 조로하다니….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던 80년대의 치열함을 한 인물을 통해 얘기하고 싶었다.”<br/><br/>　-그런데 영화를 81년도 부림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말미에 87년 상황을 덧붙였다. 이건 뭔가? 묵직한 분노로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관객들 스트레스 덜 받게 하려고 대중적, 상업적 배려를 한 건가?<br/><br/>　“송 선배(송강호)랑 농담 삼아 나눈 얘기가 있다. ‘만약 우리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도 으�X으�X 하는 마음에 일시적으로 분노할 수 있었을지는 모른다. 부당한 사건을 보면 오천만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은 분노하고,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 문제는 ‘그게 7년이나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br/><br/>　-7년이라면, 81년에서 87년?<br/><br/>　“그렇다. 누구든지 잠깐은, 며칠은, 몇 달은 분노할 수 있다. 근데 그 분노를 냉철한 이성으로 단련하고 제련해서 시대를 끌고 나가는 힘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우리 같은 사람은 분노는 쉽게 된다. 근데 그 분노가 명백한 목표점을 향해 변하지 못하면 그냥 분노다. 송우석은 7년 뒤에도 변함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어떻게 그 분노가 신념으로 바뀌고 그 신념을 전파하기 위해 자기가 치러야 할 희생을 어떻게 기꺼이 치렀는지. 그런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br/><br/>　-이 영화의 형식은 상당히 독특하다. 역사적 인물을 다룬, <닉슨>이나 <링컨> 같은 영화들을 보면 보통 연대기적인 사실이나 사건은 실제 고증에 따라 하고 사료에 드러나지 않은 인물의 고뇌나 갈등은 허구적으로 창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변호인>은 서로 다른 역사적 사건들을 한 사건처럼 조합한다거나 여러 인물을 한 인물로 재구성하고 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했나?<br/><br/>　“송우석이란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건 맞지만 누차 밝혔듯이 이 영화는 실화적 요소를 차용하고 각색한 픽션이다. 아주 정밀한 실증적 고증을 쫓아가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 난 이 시대를 광각(廣角)적으로 프리즘처럼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런 면에서 젊은 시절의 노무현은 그 시대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축약해서 드러내는 인물이라 생각했다. 80년대를 한 이야기 속에, 기승전결에 맞춰 보여드리려고 만든 픽션적 구성이다.”<br/><br/>　-빠른 속도로 천만 관객 돌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영화의 소비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가? 지역적으로 관객 수의 차이가 있나? 이를테면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경북 지역 같은 경우….<br/><br/>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무대인사를 다닌 곳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곳 중 하나가 대구였다. 개봉도 하기 전이었는데 상영관에도 못 들어갈 만큼 인파가 모였다.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br/><br/>민주화운동 세대 자격론, 난 다르게 생각한다 <br/><br/><br/>- 임시완 때문 아닌가?(웃음)<br/><br/>　“<span class='quot0'>시완이는 그때 가지도 않았는데….</span>”<br/><br/>　-그랬나?<br/><br/>　“대구에 있는 지인들로부터도 문자도 종종 받는데 ‘오늘 매진’이라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편견과 몰이해가 오히려 문제인 것 같다.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이해를 높일 수 있게끔 서로 설득하고 소통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내 얘기가 순진하고 나이브(naive)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방법이 있겠나? 헬렌 켈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그게 헬렌 켈러의 잘못일까. 누군가는 설리번이 돼야 한다.”<br/><br/>　영화 속 주인공의 이름대로 송우석의 일부는 양우석의 것이다. 순진하고 우직하고 낙관적인…. 아니, 그런 양우석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렌즈 삼아 80년대를 그리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br/><br/>　-그간 여러 차례 무대인사를 통해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평범한 우리</span></span>도 좀 더 <span class='quot1'>용기</span>를 가지고 상식을 지키며 <span class='quot1'>치열하게</span> 살면 좋겠다</span>”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다. 근데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평범한 우리</span></span>”는 “<span class='quot1'>용기</span>”를 내기도 어렵고, “<span class='quot1'>치열하게</span>” 살 만큼 과감하지도 않다. 사실 송우석이 평범한가?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평범한 우리</span></span>”는 대개 찌질하게 산다.<br/><br/>　“내가 볼 때, 우린 찌질한 게 아니라 피곤한 거다.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보통 사람과 영웅의 차이는 5분’이라고 했다. 보통 사람이 5분 더 용감하면 영웅이 된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는, 한번 삐끗해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구조다. 그러다 보니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느라 피곤에 지쳐버린다. 비겁해서 외면한다기보다는 피곤해서 더 이상 어떻게 반응하기가 힘든 거다. 피곤이 가져온 마비라고나 할까. 마비만 풀어내면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본다. 5분 차이다.”<br/><br/>　-요즘 사람들이 희망을 못 갖는 결정적 이유는, 리더가 없다는 거다. 송우석처럼 숙련되지는 못해도 바탕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믿고 의지하고 만들어가겠다는 마음들이 있다. 겉으론 다들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정말 마음으로 신뢰할 만한 리더가 없는 현실, 그게 사람들을 절망케 한다.<br/><br/>　“기업경영론에 나오는 얘긴데 ‘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는 기업 내부에 있다.’ 근데 그 사람을 못 찾은 거다. 효종 북벌운동이 일어났을 때 실록의 역사를 보면 ‘왜 우리는 청나라에 졌을까?’ 답이 심플하다. ‘이순신이 없어서.’ 난센스 아닌가? 이순신은 하늘에서 내렸나? 우린 자꾸 어떤 리더를 신격화하고 영웅화하려는 습성이 있다. 회사를 혁신할 리더는 분명 회사 내부에 있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다. 시이오(CEO)가 게을러터지고 무능해서 못 찾는 것뿐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왜 국민이 리더를 못 찾고 있을까. 노무현이라는 한 개인을 대선후보로 만든 게 누군가? 그 사람이 엄청난 영웅이어서가 아니다. 그때 그를 리더로 만든 건 국민이었다. 리더가 없다는 건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주인 된 마음으로 찾지 못한 탓이 아닐까.”<br/><br/>　-영화에서 오달수가 ‘오늘부터 니 편한 인생 니 발로 찬기다’ 하니까 송강호가 말한다. ‘내 아들딸들은 이런 세상에 살게 하지 않으려고 이런다.’ 이 말이 80년대 집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모가 돼서, 나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80년대적 진정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뒤 30년을 어떻게 살았나. 아파트에 목숨 걸고 증권에 목숨 걸고 사교육에 목숨 걸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스스로 마모되었다. 과거 치열성에 대한 향수로 관객을 위로하면 안 되지 않나? 그들이 자식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줄 자격이 있을까?<br/><br/>　“80년대를 살아온 분들한테는 순결에 대한 묘한 정서가 있는 것 같다. ‘네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난 거꾸로 생각한다. 우리가 욕할 때 ‘걸레’라는 말을 쓰는데, 걸레만큼 좋은 게 없다. 더러워지면 다시 깨끗하게 빨아서 쓰고 또 더러운 걸 닦는다. 목욕은 좋은 단어라고 하면서 걸레를 빠는 건 왜 나쁘게 생각하나. 중광 스님은 본인을 걸레로 불러 달라고 하지 않나. 예를 들어 아버지가 80년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사는 게 바빠서 잠깐 잊었어, 하지만 다시 영화를 보고 깨끗해지셨다면 다시 빨고 아들딸이랑 얘기해볼 수 있는 거지…. 빨 <span class='quot1'>용기</span>가 없는 건지? 오히려 그게 문제다. 방바닥을 닦아 더러워졌다면 화장실로 빨리 가서 빨고 다시 오셔야지. 또 닦아야지. 그래서 문제는 찌질함이 아니라 피곤함이라는 거다. 닦지 않는 거, 빨지 않는 거. 결국 우리는 피곤과 싸우는 거다. 어떤 이념의 순수성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치지 않는 삶의 태도.”<br/><br/><br/><br/>황지우 시 떠올린 “이라믄 안되는 거잖아요!” <br/>　<br/><br/>-당신이 그려낸 송우석은 누군가?<br/><br/>　“송강호 선배에게 한 초년병 기자가 물었단다. ‘배우란 무엇인가?’ 그 대답이 이랬다고 한다. 배우란 ‘우리가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는 직업’이다. 송우석 변호사는, 그 모티프가 되는 노무현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잃어버린 얼굴이기도 하다. 내가 웃고 슬퍼하고 화내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피곤에 찌들면서 잊어버린 거다. 배우는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해 준 거고. 타자의 얼굴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언젠가 잃어버린 얼굴, 그게 송우석이다.”<br/><br/>　그의 말처럼 우리를 울린 건 송강호도, 노무현도 아닌,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얼굴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꼽는 <변호인>의 여러 명대사들이 있지만 내가 그중 하나를 꼽는다면 “이라믄 안 되는 거잖아요!”였다 말하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양우석은 이 대사를 쓸 때 황지우의 시가 떠올랐다고 했다.<br/><br/>　“<span class='quot0'>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영하 이십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span class='quot0'>무방비의 나목</span>으로 서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span>”<br/><br/>(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br/><br/>찻집 유리창 너머로 앙상한 나무들의 숲이 보였다. 아직 여기는 겨울이지만 “<span class='quot0'>무방비의 나목</span>”들은 죽은 게 아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뜨거운 외침을 품고 찬바람에 부대끼고 있을 뿐. <br/><br/><br/><br/>녹취 김혜영(단비뉴스 기자)<br/><br/> [관련영상]〈변호인〉, 송강호·노무현의 ‘투톱 멜로’ (잉여싸롱)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46.txt

제목: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소송’ 불댕긴다  
날짜: 20140117  
기자: 김양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7100000044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하는 폐암 등 각종 중증 질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을 본다며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구제 소송을 낼지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할 계획이다. <br/>　건보공단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24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 담배 피해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흡연자들이 폐암 등에 걸려 흡연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봤다며 담배 회사를 상대로 피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질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거의 모두가 가입해 있는 국가기관이 나선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br/>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 때문에 생기는 폐암 등 각종 암과 뇌졸중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여러 중증 질환으로 한해 최소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쓰이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단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묻는 담배 소송에 대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조7000억원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금을 뺀 나머지 대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 <br/>　건보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이사 5명을 비롯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인 노동·시민·소비자·농어업 단체와 경영인단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br/>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국은 1990년대 후반 주 정부가 직접 나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60조원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한 질병에 대해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부가 이에 앞장서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47.txt

제목: “우리는 찌질한 게 아니라 피곤한 거다”  
날짜: 2014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710013250764  
본문: 영화는 영화다. 영화를 보는 두 시간 동안 달달한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기도, 지구를 구하는 슈퍼맨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다. 영화가 끝나고 어둡던 상영관에 불이 켜지면, 큰 통 수북이 아직 남아 있는 팝콘과 콜라를 미련 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우린 그 가상의 세계를 지체 없이 떠난다. 주차권의 무료주차 시간을 확인하고 저녁은 뭘 먹을까 궁리하며 총총히 흩어진다. 자정을 넘긴 신데렐라처럼, 허겁지겁 돌아간 우리를 맞는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구차한 현실이다. 언제나 일상은 영화보다 무겁고 집요하다.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극장을 찾는다. 울고 싶을 땐 우는 영화를, 웃고 싶을 땐 웃는 영화를 골라 잠시나마 자기 위안의 시간을 구한다.<br/><br/> 개봉 이후 연 5주째 폭발적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변호인>에서 관객들은 과연 무얼 구하고 싶었을까. 천만 관객의 뇌관을 건드린 공명의 코드를, 감독은 어떻게 찾아냈을까. 지난 8일, 서울숲이 내려다보이는 한 찻집에서 양우석(45) 감독을 만났다. 그는 약속시간보다 15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짧은 머리에 사각의 안경테, 영화감독이라기보다는 점잖은 회사 중역이나 공무원 같은 인상이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건네자 그가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숫기 없고 나지막한 음성이었다. 차를 주문하며 영화 흥행에 대한 소감부터 물었다.<br/><br/><br/><br/> <흑인 오르페> 충격으로 문사철 관심 <br/><br/><br/>-곧 천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요즘 기분이 어떤가?<br/><br/> “<span class='quot0'>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담담했는데… 관객들한테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지만 개인적으론 성격이 워낙 둔해 그런지 그저 담담하고….</span>”<br/><br/> -그럴 리가? 흥행에 신경을 별로 안 썼단 얘긴가?<br/><br/> “그렇다.”<br/><br/> -흥행에 신경을 안 쓰는 감독도 있나? 더구나 첫 작품인데?<br/><br/> “처음부터 영화로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초기엔 독립영화 스타일도 각오를 했던 터라 상업적으로 큰 기대를 안 했다. 송강호 선배가 출연 결정을 하면서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했지만 영화의 규모가 어떻게 되든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뿐이었다.”<br/><br/> 많이 알려진 대로 <변호인>은 양우석이 쓴 웹툰용 시나리오에서 출발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위더스의 최재원 대표와 우연히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다음달부터 포털에 연재한다”고 웹툰 얘기를 꺼내자 최 대표가 “웹툰 말고 영화로 만들자”고 전격 제안한 것. 처음엔 “중량감 있는 감독”이 맡아 주기를 바랐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어, 결국 시나리오를 쓴 양우석이 직접 메가폰을 잡게 되었다. 40대 중반에 조연출 경험 한 번 없이 최고의 배우와 첫 작품을 한 것만도 꿈같은 일인데 그렇게 만든 데뷔작이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초대박 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입이 귀에 걸릴 만하건만, 그는 정말로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천성이 묵직한 사람인 듯했다. 1969년생. 2형제의 맏이, 미혼이다.<br/><br/> -생각보다 키가 크시다. 무대인사 사진으로 볼 땐 몰랐는데.<br/><br/> “워낙 다들 체격이 크셔서. 송강호 선배나 곽도원씨나….”<br/><br/> -어려선 우량아 소리 들으셨겠다.(웃음)<br/><br/> “아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성장이 더뎠다. 이빨도 굉장히 늦게 나서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다는데 이가 나면서부터 이유식도 안 하고 육식으로 바로 건너뛰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거의 육식으로 몇 년을 살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래서 또 걱정을 하셨다고 한다. 애가 자꾸만 커지니까….(웃음)”<br/><br/> 아버지가 교육공무원이어서 양우석은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 서울에서 났지만 어려선 주로 천안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때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이공계열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서 고려대 문과대에 입학했다. 대학에선 철학과 영문학을 전공했다.<br/><br/> -철학을 하면서 영문학을 복수전공한 이유가 뭔가? 취직 안 될까 봐?<br/><br/> “아니, 문사철(문학-역사-철학)을 두루 공부하고 싶었다. 20세기 문학은 영어권이 세니까. 역사책 읽는 건 원래 좋아했고.”<br/><br/> -문사철에 왜 관심을 가졌나?<br/><br/> “중학생 때 우연히 교육방송(EBS)에서 방영한 <흑인 오르페>란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때까지는 주로 서부영화만 봤었는데…. 브라질의 빈민층인데 가난에 찌들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얘기. 영화에 흑인들만 나오는데 내용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Orpheus & Euridice)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차용해온 것이고…. 나한테는 거의 혁명이었다. 그 뒤부터 지리와 역사를 좋아하게 되고 영화광이 됐다. 영화를 하려면 대학에서 문사철(인문학)을 꿰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br/><br/>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학생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영화광이었지만 영화를 전공하거나 영화동아리에 들지도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뒤 엠비시(MBC)프로덕션 영화기획실과 에스케이(SK) 계열의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을 했다. 현재도 그는 ‘로커스’라는 컴퓨터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의 이사로 일한다. 남들이 볼 때는 갈지자 행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양우석은 삼십년 전 자신이 정한 바대로 영화를 향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을 뿐이다. 인문학을 기초로, 기술을 알고, 시나리오와 콘티를 짜는 것.<br/><br/> -그런데 왜 영화 쪽 일을 안 하고 웹툰 작가가 되었나?<br/><br/> “그건 오해다. 웹툰은 진짜 취미로 한 거다. 내가 쓴 웹툰 시나리오들은 길이가 항상 영화 길이였다. 영사되는 방식도 영화랑 똑같다. 필름이 지금은 디지털 방식이지만 옛날 필름은 웹툰처럼 아래로 내려간다. 영화와 유사성이 아주 높은 게 웹툰이다. 나로선 영화를 하기 위한 과정상의 일이다.” <br/> <br/>누구든 분노는 쉽게 한다 <br/><br/><br/>그 분노가 명백한 목표점 향해 <br/>변하지 못하면 그냥 분노일 뿐 <br/>송우석은 7년 뒤인 87년에도 <br/>변함없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br/><br/><br/><br/>빨 <span class='quot1'>용기</span>가 없는 게 문제다 <br/>방바닥 닦아 더러워졌다면 <br/>화장실 가서 빨고 다시 와야지 <br/>닦지 않는 거, 빨지 않는 거 <br/>결국 우린 피곤과 싸우는 거다 <br/> <br/>대구에서의 무대인사, 깜짝 놀랄 만큼 뜨거워 <br/><br/><br/>-지금까지 발표한 웹툰들을 봤다. <로보트 태권브이>의 속편 격인 <브이(V)>,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 암 환자와 호스피스의 사랑을 그린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김정일 사후 남북한 전쟁 위기를 그린 <스틸레인> 등이 있는데 다 다른 색깔의 작품들이다. 그냥 보면 전혀 다른 작가들이 한 것처럼 느껴진다. 원래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나?<br/><br/>　“나는 주제보다는 이야기 자체로 대중과 소통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 난 모든 이야기가 언론적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카프카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작가의 역할은 ‘얼음호수를 내려찍는 얼음도끼’와 같다. 쩍 내려치면 얼음바다가 깨지지는 않지만 안에 있는 고기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건 뭐지?’ 하고 쳐다볼 것이다.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작가의 임무다.”<br/><br/>　-그럼 <변호인>을 통해서 환기시키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나?<br/><br/>　“대한민국 현대사만큼 격동적인 역사가 없다. 건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불과 60여년 전인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조로(早老)했다. 60년 만에 이렇게 조로하다니….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던 80년대의 치열함을 한 인물을 통해 얘기하고 싶었다.”<br/><br/>　-그런데 영화를 81년도 부림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말미에 87년 상황을 덧붙였다. 이건 뭔가? 묵직한 분노로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관객들 스트레스 덜 받게 하려고 대중적, 상업적 배려를 한 건가?<br/><br/>　“송 선배(송강호)랑 농담 삼아 나눈 얘기가 있다. ‘만약 우리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도 으쌰으쌰 하는 마음에 일시적으로 분노할 수 있었을지는 모른다. 부당한 사건을 보면 오천만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은 분노하고,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 문제는 ‘그게 7년이나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br/><br/>　-7년이라면, 81년에서 87년?<br/><br/>　“그렇다. 누구든지 잠깐은, 며칠은, 몇 달은 분노할 수 있다. 근데 그 분노를 냉철한 이성으로 단련하고 제련해서 시대를 끌고 나가는 힘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우리 같은 사람은 분노는 쉽게 된다. 근데 그 분노가 명백한 목표점을 향해 변하지 못하면 그냥 분노다. 송우석은 7년 뒤에도 변함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어떻게 그 분노가 신념으로 바뀌고 그 신념을 전파하기 위해 자기가 치러야 할 희생을 어떻게 기꺼이 치렀는지. 그런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br/><br/>　-이 영화의 형식은 상당히 독특하다. 역사적 인물을 다룬, <닉슨>이나 <링컨> 같은 영화들을 보면 보통 연대기적인 사실이나 사건은 실제 고증에 따라 하고 사료에 드러나지 않은 인물의 고뇌나 갈등은 허구적으로 창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변호인>은 서로 다른 역사적 사건들을 한 사건처럼 조합한다거나 여러 인물을 한 인물로 재구성하고 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했나?<br/><br/>　“송우석이란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건 맞지만 누차 밝혔듯이 이 영화는 실화적 요소를 차용하고 각색한 픽션이다. 아주 정밀한 실증적 고증을 쫓아가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 난 이 시대를 광각(廣角)적으로 프리즘처럼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런 면에서 젊은 시절의 노무현은 그 시대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축약해서 드러내는 인물이라 생각했다. 80년대를 한 이야기 속에, 기승전결에 맞춰 보여드리려고 만든 픽션적 구성이다.”<br/><br/>　-빠른 속도로 천만 관객 돌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영화의 소비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가? 지역적으로 관객 수의 차이가 있나? 이를테면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경북 지역 같은 경우….<br/><br/>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무대인사를 다닌 곳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곳 중 하나가 대구였다. 개봉도 하기 전이었는데 상영관에도 못 들어갈 만큼 인파가 모였다. 우리도 깜짝 놀랄 만큼.”<br/><br/>민주화운동 세대 자격론, 난 다르게 생각한다 <br/><br/><br/>- 임시완 때문 아닌가?(웃음)<br/><br/>　“<span class='quot0'>시완이는 그때 가지도 않았는데….</span>”<br/><br/>　-그랬나?<br/><br/>　“대구에 있는 지인들로부터도 문자도 종종 받는데 ‘오늘 매진’이라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편견과 몰이해가 오히려 문제인 것 같다.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이해를 높일 수 있게끔 서로 설득하고 소통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내 얘기가 순진하고 나이브(naive)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방법이 있겠나? 헬렌 켈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그게 헬렌 켈러의 잘못일까. 누군가는 설리번이 돼야 한다.”<br/><br/>　영화 속 주인공의 이름대로 송우석의 일부는 양우석의 것이다. 순진하고 우직하고 낙관적인…. 아니, 그런 양우석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렌즈 삼아 80년대를 그리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br/><br/>　-그간 여러 차례 무대인사를 통해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평범한 우리</span></span>도 좀 더 <span class='quot1'>용기</span>를 가지고 상식을 지키며 <span class='quot1'>치열하게</span> 살면 좋겠다</span>”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다. 근데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평범한 우리</span></span>”는 “<span class='quot1'>용기</span>”를 내기도 어렵고, “<span class='quot1'>치열하게</span>” 살 만큼 과감하지도 않다. 사실 송우석이 평범한가? “<span class='quot1'><span class='quot1'>평범한 우리</span></span>”는 대개 찌질하게 산다.<br/><br/>　“내가 볼 때, 우린 찌질한 게 아니라 피곤한 거다.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보통 사람과 영웅의 차이는 5분’이라고 했다. 보통 사람이 5분 더 용감하면 영웅이 된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는, 한번 삐끗해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구조다. 그러다 보니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느라 피곤에 지쳐버린다. 비겁해서 외면한다기보다는 피곤해서 더 이상 어떻게 반응하기가 힘든 거다. 피곤이 가져온 마비라고나 할까. 마비만 풀어내면 다시 달릴 수 있다고 본다. 5분 차이다.”<br/><br/>　-요즘 사람들이 희망을 못 갖는 결정적 이유는, 리더가 없다는 거다. 송우석처럼 숙련되지는 못해도 바탕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믿고 의지하고 만들어가겠다는 마음들이 있다. 겉으론 다들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정말 마음으로 신뢰할 만한 리더가 없는 현실, 그게 사람들을 절망케 한다.<br/><br/>　“기업경영론에 나오는 얘긴데 ‘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는 기업 내부에 있다.’ 근데 그 사람을 못 찾은 거다. 효종 북벌운동이 일어났을 때 실록의 역사를 보면 ‘왜 우리는 청나라에 졌을까?’ 답이 심플하다. ‘이순신이 없어서.’ 난센스 아닌가? 이순신은 하늘에서 내렸나? 우린 자꾸 어떤 리더를 신격화하고 영웅화하려는 습성이 있다. 회사를 혁신할 리더는 분명 회사 내부에 있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다. 시이오(CEO)가 게을러터지고 무능해서 못 찾는 것뿐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왜 국민이 리더를 못 찾고 있을까. 노무현이라는 한 개인을 대선후보로 만든 게 누군가? 그 사람이 엄청난 영웅이어서가 아니다. 그때 그를 리더로 만든 건 국민이었다. 리더가 없다는 건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주인 된 마음으로 찾지 못한 탓이 아닐까.”<br/><br/>　-영화에서 오달수가 ‘오늘부터 니 편한 인생 니 발로 찬기다’ 하니까 송강호가 말한다. ‘내 아들딸들은 이런 세상에 살게 하지 않으려고 이런다.’ 이 말이 80년대 집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모가 돼서, 나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80년대적 진정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뒤 30년을 어떻게 살았나. 아파트에 목숨 걸고 증권에 목숨 걸고 사교육에 목숨 걸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스스로 마모되었다. 과거 치열성에 대한 향수로 관객을 위로하면 안 되지 않나? 그들이 자식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줄 자격이 있을까?<br/><br/>　“80년대를 살아온 분들한테는 순결에 대한 묘한 정서가 있는 것 같다. ‘네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난 거꾸로 생각한다. 우리가 욕할 때 ‘걸레’라는 말을 쓰는데, 걸레만큼 좋은 게 없다. 더러워지면 다시 깨끗하게 빨아서 쓰고 또 더러운 걸 닦는다. 목욕은 좋은 단어라고 하면서 걸레를 빠는 건 왜 나쁘게 생각하나. 중광 스님은 본인을 걸레로 불러 달라고 하지 않나. 예를 들어 아버지가 80년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가 사는 게 바빠서 잠깐 잊었어, 하지만 다시 영화를 보고 깨끗해지셨다면 다시 빨고 아들딸이랑 얘기해볼 수 있는 거지…. 빨 <span class='quot1'>용기</span>가 없는 건지? 오히려 그게 문제다. 방바닥을 닦아 더러워졌다면 화장실로 빨리 가서 빨고 다시 오셔야지. 또 닦아야지. 그래서 문제는 찌질함이 아니라 피곤함이라는 거다. 닦지 않는 거, 빨지 않는 거. 결국 우리는 피곤과 싸우는 거다. 어떤 이념의 순수성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치지 않는 삶의 태도.”<br/><br/><br/><br/>황지우 시 떠올린 “이라믄 안되는 거잖아요!” <br/>　<br/><br/>-당신이 그려낸 송우석은 누군가?<br/><br/>　“송강호 선배에게 한 초년병 기자가 물었단다. ‘배우란 무엇인가?’ 그 대답이 이랬다고 한다. 배우란 ‘우리가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는 직업’이다. 송우석 변호사는, 그 모티프가 되는 노무현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잃어버린 얼굴이기도 하다. 내가 웃고 슬퍼하고 화내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피곤에 찌들면서 잊어버린 거다. 배우는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해 준 거고. 타자의 얼굴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언젠가 잃어버린 얼굴, 그게 송우석이다.”<br/><br/>　그의 말처럼 우리를 울린 건 송강호도, 노무현도 아닌,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얼굴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꼽는 <변호인>의 여러 명대사들이 있지만 내가 그중 하나를 꼽는다면 “이라믄 안 되는 거잖아요!”였다 말하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양우석은 이 대사를 쓸 때 황지우의 시가 떠올랐다고 했다.<br/><br/>　“<span class='quot0'>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영하 이십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span class='quot0'>무방비의 나목</span>으로 서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span>”<br/><br/>(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br/><br/>찻집 유리창 너머로 앙상한 나무들의 숲이 보였다. 아직 여기는 겨울이지만 “<span class='quot0'>무방비의 나목</span>”들은 죽은 게 아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뜨거운 외침을 품고 찬바람에 부대끼고 있을 뿐. <br/><br/><br/><br/>녹취 김혜영(단비뉴스 기자)<br/><br/> [관련영상]〈변호인〉, 송강호·노무현의 ‘투톱 멜로’ (잉여싸롱)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48.txt

제목: 30대 장애 아들과 동반자살 시도한 60대 집행유예  
날짜: 2014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610013240227  
본문: 30대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67)씨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br/><br/>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강열)는 16일 “<span class='quot0'>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span>”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암으로 아내와 사별하고 정년퇴직한 뒤 지적장애 아들을 혼자 부양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하고 우울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br/><br/>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유죄를 평결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br/><br/> 김씨는 지난해 8월11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장남(32)과 함께 목을 매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둘째 아들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br/><br/>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49.txt

제목: “이빨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다”  
날짜: 20140116  
기자: 박지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6100000065  
본문: 어금니 아파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치통은 견디기 가장 힘든 고통이라더니, 아주 그냥 영혼을 파괴하더만. 소금 물어라 우엉 발라라 마늘 물어라 귀 지압하라 등등 처방들, 전혀 보람 없음. 다음날 치과 가서 잇몸 까뒤집어 빡빡 긁어내고서야 깨끗해졌다. 왜 이리 갑자기 심하게 곪았나 모르겠네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이 꼴이냐 따지길래 어제 곱창 씹어 먹었다고 정직하게 답하니 쯧쯧 혀 차며 막 뭐라뭐라 야단이라, 며칠 전부터 아팠지만 곱창집 도착 한 시간 전에 미리 진통제 먹었으니까 괜찮지 않으냐는 정당한 변명은 차마 꺼내지도 못했네. 억울했지만 그래도, 치과 만세!<br/>　건강한 이는 오복 중 하나. 식사 뒤 이틈에 남은 찌꺼기가 세균과 어울려 치태 되고 곧 치석으로 발전해 충치와 잇몸병 일으킨다. 잇몸병은 잇몸만의 병이 아니다. 치주질환 만성인 자는 아닌 자에 비해 암 사망률 2.4배, 치매 발병률 1.7배 더 높다는 실험 결과도 있으니, 이 잘 닦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하라는 흔한 잔소리는 정말 살벌한 서바이벌 행동강령 아닌가. 그리고 건강한 저작운동은 뇌에 혈액 공급하고 대뇌피질 자극해 뇌신경 활성도와 인지와 기억 능력 높이는 효과도 있으니, 평소 꼭꼭 잘 씹어 먹자. 근데 잘 씹기, 그리 만만한 일 아니다. 사람의 이는 퇴화되어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인간은 진화했고 치의학도 이만큼 발전했는데 웬 퇴화? 질병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빨로 자르고 찢고 으깨는 힘을 따진다면 인간의 치아는 분명 퇴화했다. 식생활 때문. 굽고 삶고 찌기, 요리란 대개 음식물, 특히 고기를 씹기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니 그만큼 덜 쓰게 된 이빨은 약해질 수밖에. 그러니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찾지 말고 씹는 재미 적당한 걸 씹어 버릇하자. 그래야 이, 특히 어금니가 튼튼해진다. ‘어금니 꽉 물어라, 옥수수 튄다’는 전통적 공갈을 명심. 과격한 운동 즐긴다면 마우스피스, 업계 용어로는 스플린트 사용도 고려해 보고. 격투기 중 부상 막기 위한 물건으로만 알려졌지만 운동 능력 향상 효과도 크다. 결정적 순간에 힘쓰려 어금니 악물고 버틴다. 특히 야구선수들이 애용, 박찬호 선수도 어금니 모두 닳아 턱뼈 통증 심각해 온종일 끼고 생활했다. 공 던질 때마다 어금니 하나에 가해지는 압력은 80㎏ 이상, 타자는 100㎏이 넘는다지만 힘쓰는 횟수만 보더라도 투수에 견줄 바는 아니니.<br/>　리처드 매시슨의 멸망기 의 주인공 네빌 주변에는 치과의사가 없다. 당연하지, 네빌은 지상 최후의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는 늘 정성껏 칫솔질하고 치실로 마무리, 치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 최선을 다한다. “<span class='quot0'>언젠가는 죽겠지만 이빨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다.</span>” 내공 웬만해서는 떠올리지 못할 명문장. 몇 차례 영화로 만들었지만 모두 원작을 뛰어넘지 못했다. 하긴, 작가 스스로도 그러했으니. 전설까지는 아니지만 꽤 멋진 표류기 의 척 놀랜드도 잇몸병으로 고생한다. 의사들은 급성 화농성 치수염으로 추정하던데, 내 병이 바로 그거. 결국 스케이트 날로 이 뽑고, 아니 깨부수고 그대로 기절한다. 그 고통, 안다. 정말 기절할 정도로 아프다. 그러니 평소 이 잘 닦고 종종 스케일링하고 꼭꼭 씹어 먹자. 치통 앞에 생존 없다. 이 아프면 진짜, 지옥을 보게 된다.<br/>박지훈<br/>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50.txt

제목: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소송’ 불댕긴다  
날짜: 2014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610013242029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하는 폐암 등 각종 중질질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큰 손실을 본다며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구제 소송을 낼지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할 계획이다.<br/><br/> 건보공단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24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 담배 피해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흡연자들이 폐암 등에 걸려 흡연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봤다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질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거의 모두가 가입해 있는 국가기관이 나선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br/><br/>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 때문에 생기는 폐암 등 각종 암과 뇌졸중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여러 중증 질환으로 한해 최소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쓰이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단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묻는 담배 소송에 대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1조7000억원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금을 뺀 나머지 대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 <br/><br/> 건보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이사 5명을 비롯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인 노동·시민·소비자·농어업 단체와 경영인단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br/><br/> 건보공단은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해 1조7000억원가량의 전체 진료비만 아껴도 거의 모든 암환자를 본인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보고, 미국 등의 담배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br/><br/>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국은 1990년대 후반 주 정부가 직접 나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60조원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한 질병에 대해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부가 이에 앞장서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br/><br/><br/><br/>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51.txt

제목: [나를 울린 이 사람]헌신하다 떠난 그의 마지막 눈빛  
날짜: 20140115  
기자: 이정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5100000078  
본문: 그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사람이다. 3년 가까이 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9월 훌쩍 하늘나라로 떠난 것이다.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와 자신을 꼭 닮은 사랑하는 딸을 남겨둔 채로 말이다. <br/> 내가 정정오씨 부부를 알게 된 것은 평신도 교회인 겨자씨교회에서 첫 설교를 한 7년 전 어느 주일을 바로 지나서였다. 옳은 신앙을 지녔으나 함께하고 싶은 교회를 찾지 못해 숱한 세월 방황하다 마음을 정해 그곳에 안착한 참 신실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br/>　그는 유능한 과학자였다. 유수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동료들과 장영실상을 수상할 정도로 브라운관 혁명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업무에 지쳐 낙오하는 동료나 부하직원을 한번도 내친 적 없었으며 그들이 남긴 궂은일까지 홀로 감당하다 쓰러졌다는 회고담이 이어졌다. 그가 간 뒤에 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일까. 장례식장은 평소 그의 말없는 헌신을 기리며 흐느끼는 동료들의 고백으로 슬픔의 곡조가 가득했다.<br/>　교회에서도 그랬다. 그의 기도는 항시 시골 중학생처럼 단순하고 소박했다. 누가 묻는 말 이외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본 적도 없었다. 그에게 맡겨진 소임은 설교자가 단에 설 때 말씀을 잊지 않고 녹음하는 일이었다. 췌장암으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병원에 실려 갈 때까지 그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고통으로 아내와 가족들이 괴로워할 것을 생각하며 그 아픔을 소리 죽여 참아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살 것을 끝까지 믿었고, 그런 그를 하늘이 소생시킬 것을 나 또한 그리 확신했다. <br/>　사실 그의 암 발병은 그의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고 치료하던 중 일어난 설상가상의 일이었다. 신학자로 살아온 나에겐 신정론(神正論·신이 선하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지)의 물음이 이론이 아닌 절실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다행히도 아내는 건강해졌고 딸아이 역시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였으니 하늘이 다른 한쪽 문을 열어준 것 같아 참 고마웠다. 하지만 힘겨워하는 아내를 염려했고 끝까지 살기를 바랐던 그에게 목사로서 마지막을 받아들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했고, 순간 그와 마주친 물먹은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원망과 체념, 안도와 감사, 그 모든 것을 담은 그의 눈빛이 주는 무게를 견디기 어려웠다. 하나 그 중압감을 피하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둘 것이다. <br/> 그의 마지막을 인도한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늘이 이렇듯 선한 사람을 곁에 두셨던 것을 사는 동안 감사하면서 말이다.<br/>　 이정배 감리교신학대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52.txt

제목: “이빨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다”  
날짜: 2014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510013230828  
본문: 어금니 아파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치통은 견디기 가장 힘든 고통이라더니, 아주 그냥 영혼을 파괴하더만. 소금 물어라 우엉 발라라 마늘 물어라 귀 지압하라 등등 처방들, 전혀 보람 없음. 다음날 치과 가서 잇몸 까뒤집어 빡빡 긁어내고서야 깨끗해졌다. 왜 이리 갑자기 심하게 곪았나 모르겠네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이 꼴이냐 따지길래 어제 곱창 씹어 먹었다고 정직하게 답하니 쯧쯧 혀 차며 막 뭐라뭐라 야단이라, 며칠 전부터 아팠지만 곱창집 도착 한 시간 전에 미리 진통제 먹었으니까 괜찮지 않으냐는 정당한 변명은 차마 꺼내지도 못했네. 억울했지만 그래도, 치과 만세!<br/><br/> 건강한 이는 오복 중 하나. 식사 뒤 이틈에 남은 찌꺼기가 세균과 어울려 치태 되고 곧 치석으로 발전해 충치와 잇몸병 일으킨다. 잇몸병은 잇몸만의 병이 아니다. 치주질환 만성인 자는 아닌 자에 비해 암 사망률 2.4배, 치매 발병률 1.7배 더 높다는 실험 결과도 있으니, 이 잘 닦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하라는 흔한 잔소리는 정말 살벌한 서바이벌 행동강령 아닌가. 그리고 건강한 저작운동은 뇌에 혈액 공급하고 대뇌피질 자극해 뇌신경 활성도와 인지와 기억 능력 높이는 효과도 있으니, 평소 꼭꼭 잘 씹어 먹자. 근데 잘 씹기, 그리 만만한 일 아니다. 사람의 이는 퇴화되어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인간은 진화했고 치의학도 이만큼 발전했는데 웬 퇴화? 질병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빨로 자르고 찢고 으깨는 힘을 따진다면 인간의 치아는 분명 퇴화했다. 식생활 때문. 굽고 삶고 찌기, 요리란 대개 음식물, 특히 고기를 씹기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니 그만큼 덜 쓰게 된 이빨은 약해질 수밖에. 그러니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찾지 말고 씹는 재미 적당한 걸 씹어 버릇하자. 그래야 이, 특히 어금니가 튼튼해진다. ‘어금니 꽉 물어라, 옥수수 튄다’는 전통적 공갈을 명심. 과격한 운동 즐긴다면 마우스피스, 업계 용어로는 스플린트 사용도 고려해 보고. 격투기 중 부상 막기 위한 물건으로만 알려졌지만 운동 능력 향상 효과도 크다. 결정적 순간에 힘쓰려 어금니 악물고 버틴다. 특히 야구선수들이 애용, 박찬호 선수도 어금니 모두 닳아 턱뼈 통증 심각해 온종일 끼고 생활했다. 공 던질 때마다 어금니 하나에 가해지는 압력은 80㎏ 이상, 타자는 100㎏이 넘는다지만 힘쓰는 횟수만 보더라도 투수에 견줄 바는 아니니.<br/><br/> 리처드 매시슨의 멸망기 <나는 전설이다>의 주인공 네빌 주변에는 치과의사가 없다. 당연하지, 네빌은 지상 최후의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는 늘 정성껏 칫솔질하고 치실로 마무리, 치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 최선을 다한다. “<span class='quot0'>언젠가는 죽겠지만 이빨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다.</span>” 내공 웬만해서는 떠올리지 못할 명문장. 몇 차례 영화로 만들었지만 모두 원작을 뛰어넘지 못했다. 하긴, 작가 스스로도 그러했으니. 전설까지는 아니지만 꽤 멋진 표류기 <캐스트 어웨이>의 척 놀랜드도 잇몸병으로 고생한다. 의사들은 급성 화농성 치수염으로 추정하던데, 내 병이 바로 그거. 결국 스케이트 날로 이 뽑고, 아니 깨부수고 그대로 기절한다. 그 고통, 안다. 정말 기절할 정도로 아프다. 그러니 평소 이 잘 닦고 종종 스케일링하고 꼭꼭 씹어 먹자. 치통 앞에 생존 없다. 이 아프면 진짜, 지옥을 보게 된다. <br/><br/><br/><br/>박지훈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53.txt

제목: 군산의료원-전북대병원 상생안 만든다  
날짜: 20140115  
기자: 박임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5100000141  
본문: 전북대병원이 4년 뒤 군산에 분원 개설을 추진하면서 군산의료원을 직영체제로 전환한 전북도가 상생안 마련에 들어갔다. 군산에 전북대병원이 들어서면 2㎞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군산의료원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br/>　도는 공공의료서비스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대병원이 군산의료원을 매입해 운영하는 방안 △암·심혈관센터 등 특성화 병원으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계획 변경 등 군산의료원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14일 밝혔다.<br/>　박철웅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사업인 국립병원 설립 여부에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에 국립병원과 도립병원이 있으면 서로 힘들 것이라는 점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공급과 수요가 중복되는 것을 고려해서 교육부가 준공 여부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　그는 ‘군산의료원을 매각하면 공공의료서비스가 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병원을 폐쇄한 진주의료원과는 사례가 다르다. 전북대병원으로 가면 도립이 국립이 되는 것으로 모든 규모가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br/>　2018년에 개원할 군산 전북대병원은 옥산면 당북리 일대 터 9만8850㎡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500병상)로 신축할 예정이다.<br/>　전북도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430병상)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위탁 운영됐으나 후임자가 없어 올해 1월부터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24억원의 적자를 냈다. 박임근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54.txt

제목: 과거장(科擧場)과 선불장(選佛場) /탄탄대로도 좋지만 울퉁불퉁한 산길은 어떠한가  
날짜: 20140115  
기자: 원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5100000080  
본문: 꼭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작년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험의 신’을 모셔놓은 규슈에 위치한 덴만구를 참배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일년에 수백만명이 찾는다는 가장 유명한 시험기도 전문 신사이다. 경내 뜨락에 설치된 긴 탁자 양쪽에는 귀밑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소년과 소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소원지에 합격하게 해달라거나 원하는 점수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또박또박 한 글자씩 정성을 다해 열심히 적고 있었다. <br/>　본전 앞에 있는 매화만큼 유명한 청동으로 만든 소가 앉은 자세로 입구를 지키고 있다. 스가와라노 미치자네(845~903·뒷날 시험의 신으로 추앙됨)가 죽자 그 시신을 끌던 소가 이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할 수 없이 그를 여기에 묻었고 그 위에 신전이 지어지면서 비로소 신사의 역사는 시작된다. ‘영험 있는 소’를 만지고 문지르면 무난히 합격한다는 전설이 함께 전해져 온다. 이미 사람들의 손길을 탈 대로 탄 뿔과 코 부분은 유독 더욱 반질거렸다. <br/>　출가자에게도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승가고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는 고시인데 관리를 뽑는 과거가 아니라 ‘붓다 후보’를 뽑는 과거장, 즉 ‘선불장’(選佛場)이다. 선불장이란 말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마조(709~788) 선사로부터 유래했다. 스님은 당시 과거장으로 가던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선불장으로 향하도록 만든 일등 공신이다. 과거에 합격하여 출세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자기수행으로 인류의 정신적 스승이 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변에 널리 설파한 까닭이다. <br/>　그것이 주효했던지 언제부턴가 젊은이들은 과거장이 아니라 선불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때는 관리를 뽑는 장소보다 부처를 뽑는 장소가 더 인기가 있을 정도였다. 물론 당시의 부패한 과거제도도 선불장 융성에 한몫했다. 시험을 치더라도 그것은 형식일 뿐 합격자는 이미 내정된 까닭이었다. 좌절한 과거 지망생들은 과감하게 발길을 돌렸다. 청년 수재(秀才: 뒷날 단하천연 선사)와 방온(龐蘊: 흔히 방거사로 불림)은 함께 과거길에 오른 ‘절친’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주막에서 만난 한 스님으로부터 선불장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마조 선사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br/>　당나라의 선불장은 조선시대에는 승과평으로 불리기도 했다. 승과평이란 지명이 남아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 코엑스 자리와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입구 과수원 자리(현재는 공원)다. 조선 개국 이후 없어진 승과고시를 조선 명종 6년(1551)에 부활시킨 조선불교 중흥의 성지다. 이 시험에서 발굴된 대표적인 인재가 서산(1520~1604)과 사명(1544~1610) 대사다. 승과고시가 임진란의 구국 영웅을 발탁한 것이다. 봉은사의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에는 ‘선불당’이란 편액이 걸려 있고, 경남 합천 해인사 궁현당 역시 ‘선불장’ 현판을 달고 있다. 선불장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들이다.<br/>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는 시험에 수십번 떨어진 낙방거자였다. 그는 십년 이상 계속된 낙방 스트레스로 늘 주눅이 들어 있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남들은 이르면 10대 후반, 늦어도 20대가 되면 벼슬길에 올랐는데 30대가 되어도 계속 학생 신분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고시 폐인’이었다. 그가 ‘마지막 응시’란 마음으로 과거길에 올라 경기도 안성 칠장사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다.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다 말고 문득 마음에 섬광처럼 짚이는 것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교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괴나리봇짐 속에 든 간식거리인 유과를 꺼내 법당에 공양물로 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정성 기도를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그날 밤 꿈에 선신이 나타나 과거 답안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시험 제목은 ‘해질 무렵’(낙조)이었다. 잠에서 깬 뒤 꿈과 시험 제목의 일치 여부가 궁금하기 그지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 모든 것이 꿈 그대로였다. 뒷날 사람들은 이를 몽중등과시(夢中登科詩)라고 이름 붙였다. 시험 합격도 개인의 인생사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후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조선 사회를 맑히는 일에 일조를 더한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br/>　시험이란 개인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회를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던가. 인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시험이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불편한 것이지만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필요악(?)이 된 것이다. 결국 시험을 친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말이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 입시를 마쳤다 하더라도 결코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작게는 운전면허부터 각종 자격시험, 크게는 입사시험과 승진시험, 심지어 노인대학 시험까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다. 더 이상 시험 칠 일이 없다는 것은 알고 보면 ‘완전한 퇴물(?)’이 됐다는 말과 동일하다. 따라서 시험 칠 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하는 증거인 것이다. <br/>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시험도 다양화되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을 따라가는 교과서적인 삶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자기 길은 자기가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건 더 좋은 일이다.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그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또다른 희열을 만들어준다. 잘 닦여 있는 출세를 위한 시험장의 탄탄대로를 가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산길처럼 울퉁불퉁한 선불장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 역시 아름다운 여정이다. ‘싱글’이 문화현상이 된 시대에 또 하나의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서 출가 세계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이 또한 괜찮은 일 아니겠는가. <br/> 　원철 스님(가야산 문수암 암주)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55.txt

제목: 헌신하다 떠난 그의 마지막 눈빛  
날짜: 2014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410013219473  
본문: 그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사람이다. 3년 가까이 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9월 훌쩍 하늘나라로 떠난 것이다.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와 자신을 꼭 닮은 사랑하는 딸을 남겨둔 채로 말이다.<br/><br/> 내가 정정오씨 부부를 알게 된 것은 평신도 교회인 겨자씨교회에서 첫 설교를 한 7년 전 어느 주일을 바로 지나서였다. 옳은 신앙을 지녔으나 함께하고 싶은 교회를 찾지 못해 숱한 세월 방황하다 마음을 정해 그곳에 안착한 참 신실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br/><br/> 그는 유능한 과학자였다. 유수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동료들과 장영실상을 수상할 정도로 브라운관 혁명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업무에 지쳐 낙오하는 동료나 부하직원을 한번도 내친 적 없었으며 그들이 남긴 궂은일까지 홀로 감당하다 쓰러졌다는 회고담이 이어졌다. 그가 간 뒤에 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일까. 장례식장은 평소 그의 말없는 헌신을 기리며 흐느끼는 동료들의 고백으로 슬픔의 곡조가 가득했다.<br/><br/> 교회에서도 그랬다. 그의 기도는 항시 시골 중학생처럼 단순하고 소박했다. 누가 묻는 말 이외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본 적도 없었다. 그에게 맡겨진 소임은 설교자가 단에 설 때 말씀을 잊지 않고 녹음하는 일이었다. 췌장암으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병원에 실려 갈 때까지 그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고통으로 아내와 가족들이 괴로워할 것을 생각하며 그 아픔을 소리 죽여 참아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살 것을 끝까지 믿었고, 그런 그를 하늘이 소생시킬 것을 나 또한 그리 확신했다. <br/><br/> 사실 그의 암 발병은 그의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고 치료하던 중 일어난 설상가상의 일이었다. 신학자로 살아온 나에겐 신정론(神正論·신이 선하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지)의 물음이 이론이 아닌 절실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다행히도 아내는 건강해졌고 딸아이 역시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였으니 하늘이 다른 한쪽 문을 열어준 것 같아 참 고마웠다. 하지만 힘겨워하는 아내를 염려했고 끝까지 살기를 바랐던 그에게 목사로서 마지막을 받아들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했고, 순간 그와 마주친 물먹은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원망과 체념, 안도와 감사, 그 모든 것을 담은 그의 눈빛이 주는 무게를 견디기 어려웠다. 하나 그 중압감을 피하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둘 것이다. <br/><br/> 그의 마지막을 인도한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늘이 이렇듯 선한 사람을 곁에 두셨던 것을 사는 동안 감사하면서 말이다.<br/><br/>이정배 감리교신학대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56.txt

제목: 군산의료원-전북대병원 상생안 만든다  
날짜: 2014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410013219625  
본문: 전북대병원이 4년 뒤 군산에 분원 개설을 추진하면서 군산의료원을 직영체제로 전환한 전북도가 상생안 마련에 들어갔다. 군산에 전북대병원이 들어서면 2㎞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군산의료원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br/><br/> 도는 공공의료서비스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대병원이 군산의료원을 매입해 운영하는 방안 △암·심혈관센터 등 특성화 병원으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계획 변경 등 군산의료원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14일 밝혔다.<br/><br/> 박철웅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사업인 국립병원 설립 여부를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에 국립병원과 도립병원이 있으면 서로 힘들 것이라는 점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공급과 수요가 중복되는 것을 고려해서 교육부가 준공 여부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 그는 ‘군산의료원을 매각하면 공공의료서비스가 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병원을 폐쇄한 진주의료원과는 사례가 다르다. 전북대병원으로 가면 도립이 국립이 되는 것으로 모든 규모가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br/><br/> 2018년에 개원할 군산 전북대병원은 옥산면 당북리 일대 터 9만8850㎡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500병상)로 신축할 예정이다.<br/><br/> 전북도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430병상)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 위탁 운영됐으나 후임자가 없어 올해 1월부터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24억원의 적자를 냈다. <br/><br/> 박임근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57.txt

제목: 평화로운 마지막 숨을 위해  
날짜: 20140113  
기자: 남은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3100000133  
본문: 삶을 위한 죽음 오디세이<br/>리샤르 벨리보, 드니 쟁그라 지음<br/>양영란 옮김/궁리·2만5000원<br/><br/>“<span class='quot0'>우리가 언젠가 죽는 것은 매일 죽기 때문이다.</span>” 매일 우리 몸속에서는 쓸모없어진 100억개의 세포가 죽는다. 세포 자살, 아포토시스 과정을 통해 기관은 발달하고 생명은 유지된다. 책은 뉴런의 발달에 관여하는 수백억 세포의 죽음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을 보면서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 경탄한다. <br/>　암 예방·치료 권위자 리샤르 벨리보와 혈액종양학 전문연구원 드니 쟁그라는 종양과 싸우면서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매혹됐다. 그런데 무엇이 죽음일까? 예전엔 심장이 멈추는 것 아니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이라고 했지만 인공호흡기 발명으로 이 기준은 무효다. 책은 “죽음은 곧 우리 각자의 정체성의 표시인 뇌라고 하는 영혼의 죽음”이라는 정의를 내린다. <br/>　죽음에 대한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예술·철학적 통찰을 아우르는, 죽음에 대한 ‘가정용 대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누가 죽음에 대해 참고하고 싶어한단 말인가. 책은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해해야 하며 삶과 죽음의 모호한 경계선 위에서 일상적으로 줄을 타보아야 한다”고 했다. 암과 바이러스 감염과 변사, 공자, 하이데거를 넘나들며 죽음을 여행한 책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그렇다고 최종 결론이 달라지진 않는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먼지로 되돌아간다. 그래야만 지구에서 생명모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자들을 지구 생태계에 제공할 수 있다.”<br/>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58.txt

제목: 평화로운 마지막 숨을 위해  
날짜: 2014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210013197797  
본문: “<span class='quot0'>우리가 언젠가 죽는 것은 매일 죽기 때문이다.</span>” 매일 우리 몸속에서는 쓸모없어진 100억개의 세포가 죽는다. 세포 자살, 아포토시스 과정을 통해 기관은 발달하고 생명은 유지된다. 책은 뉴런의 발달에 관여하는 수백억 세포의 죽음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을 보면서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 경탄한다.<br/><br/> 암 예방·치료 권위자 리샤르 벨리보와 혈액종양학 전문연구원 드니 쟁그라는 종양과 싸우면서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매혹됐다. 그런데 무엇이 죽음일까? 예전엔 심장이 멈추는 것 아니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이라고 했지만 인공호흡기 발명으로 이 기준은 무효다. 책은 “죽음은 곧 우리 각자의 정체성의 표시인 뇌라고 하는 영혼의 죽음”이라는 정의를 내린다. <br/><br/> 죽음에 대한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예술·철학적 통찰을 아우르는, 죽음에 대한 ‘가정용 대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누가 죽음에 대해 참고하고 싶어한단 말인가. 책은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해해야 하며 삶과 죽음의 모호한 경계선 위에서 일상적으로 줄을 타보아야 한다”고 했다. 암과 바이러스 감염과 변사, 공자, 하이데거를 넘나들며 죽음을 여행한 책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그렇다고 최종 결론이 달라지진 않는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먼지로 되돌아간다. 그래야만 지구에서 생명모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자들을 지구 생태계에 제공할 수 있다.”<br/><br/>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59.txt

제목: 암을 부르는 교대근무 /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날짜: 20140111  
기자: 윤신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1100000004  
본문: 지금 독자가 이 기사를 언제, 어디에서 읽고 있을까 궁금하다. 토요판 기사니까 여유롭게 ‘아점’이라도 먹으면서 신문을 펼쳐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로 밤을 꼬박 지새우고 불편한 잠을 청하기 직전에 이부자리에서 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예 야밤에 근무처에서 잠시 쉬는 동안 휴대전화를 통해 보거나.<br/>　몇 명이나 그러겠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면 안 된다. 전체 노동자 5명 중 한 명 이상은 실제로 깊은 밤을 꼬박 일하면서 보낸다. 2011년 6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한 교대근무 현황을 보면, 조사 대상이 된 10인 이상 기업 전체의 15.2%, 제조업의 22%가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은 43.7%로 거의 절반이 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 군인이나 경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교대근무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나 파견 등의 고용 형태도 대부분 빠졌다.<br/>　교대근무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br/>　“<span class='quot0'>의학적으로 보면 오전 7시 이전, 오후 7시 이후의 작업이 포함된 근무는 모두 교대근무로 봐야 합니다.</span>”<br/>　김인아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실장(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의 설명이다. 교대근무는 일반적인 근무 시간 외에도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택하는 근무 형태다. 일반적이지 않은 근무 시간이란 저녁과 야간으로, 이 시간대의 주기적인 작업을 위해 노동시간을 변형해 배치하면 다 넓은 의미의 교대근무다. 교대근무는 적지 않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야간근무가 꼽힌다. 교대근무의 문제는 야간근무의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br/>　<br/>　간호사의 야근과 유방암의 함수관계<br/>　교대근무가 몸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야간근무 자체의 부담이다. 밤에 졸음을 참고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사고 위험도 높다. 문제는 밤샘을 일상적으로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금속노조가 2011년 펴낸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에 사례가 잘 나와 있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누리집에 가면 볼 수 있다). 주야 맞교대 근무를 14년째 하는 금속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span class='quot1'>교대근무는 절대 익숙해질 수 없다</span>”고 분명히 말한다. “야간근무는 절대 적응이라는 게 없어요. 야간근무 한 지 20년 됐다고 해서, 야간근무 할 때 팔팔하고 쌩쌩하고 잠도 안 자도 된다거나, 아침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푹 잘 수 있고 하는 건 없어요. 야간 1년차든, 10년차든, 30년차든 적응이라는 것을 절대 할 수 없어요.”(보고서 10쪽)<br/>　교대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또 하나의 영향은 불규칙한 근무 시간이 불러일으키는 신체 리듬의 파괴다. 과학에서는 생물의 ‘하루주기리듬’ 연구가 활발하다. 하루주기리듬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낮과 밤의 주기적인 변화에 몸이 반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체내 호르몬과 기관의 대사 활동이 이 주기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생물학과 의학 연구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하루주기리듬이 파괴되면 건강도 무시 못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br/>　대표적인 게 암이다. 이미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2007년 교대근무를 발암물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2A에 올렸다. ‘아직은 인체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원인으로는 야간 작업 중에 쬔 빛이 하루주기리듬을 깨뜨린다는 점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한다는 점이 꼽혔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는 등 연쇄적인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예가 유방암이다.<br/>　2011년 6월 미국역학회지에는 노르웨이 간호사 4만9402명을 17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간호사들은 야간조 근무를 연달아 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 결과 야간근무를 연속으로 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5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야간근무를 4일 연달아 한 사람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다른 사람보다 1.4배 높았는데, 6일 연달아 야간근무를 한 경우엔 1.8배로 크게 치솟았다.<br/>　심혈관계 질환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다. 흔히 ‘과로사’라고 불리는 갑작스러운 사망 중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의 혈관성 질환이 많다. 이들 질환이 근무 시간이나 형태와 관련이 많다는 뜻이다. 현대차 노조가 2004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주야 맞교대를 하는 노동자는 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해 고혈압과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비율이 2~3배 높았다. 황승식 인하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span class='quot2'>밤에 깨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고, 결국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겨 심혈관 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　<br/>　24시간 서비스업도 위험하다<br/>　더 무서운 것은 만성피로와 수면부족일지 모른다. 생활을 서서히 파괴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극심한 불면과 피로를 호소한다. ‘밝은 낮에 자려니 잠이 좀체 오지 않아 차라리 야간근무를 녹초가 될 정도로 바쁘게 하는 게 낫다’는 말이나, ‘주말 낮에 피로 때문에 자꾸만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해 고통스럽다’는 유의 진술도 있다. 가족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일인 줄 알면서도 기약 없는 기간 동안 반복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시시포스’인 교대근무자들이 겪는 최악의 고통이 아닐까.<br/>　다행히 최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작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표됐다. 야간작업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가 매년 직업환경의학전문의를 만나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수면장애나 심혈관계질환, 유방암, 소화기질환 등 교대근무의 대표적인 건강 문제를 문진과 진찰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은 물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3년에 걸쳐 점차 확대한다.<br/>　교대근무를 최대한 야간근무가 포함되지 않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주야 2교대를 하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두원정공은 2010년 9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 형태를 바꿨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 조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는 두 조가 번갈아 근무하는 형태다. 저녁부터 자정까지의 근무가 배제되지는 않았고 팍팍한 맞교대 형태도 여전하지만, 그래도 한밤과 새벽 근무는 피한 차선책이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3'>사회학자와 의사 등이 주축이 돼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가족 생활이나 행복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span>”고 말했다.<br/>　황 교수는 “<span class='quot4'>공장도 문제지만, 이제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span>”라며 “<span class='quot4'>부득이하게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3일 이상 연속으로는 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시간을 역행하는(밤, 저녁, 오후, 오전 순) 순환교대제보다는 시간순을 따르는 교대제를 택해 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영화 의 유명한 장면에서, 채플린은 거대한 톱니바퀴를 고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바퀴에 쓸려 들어간다. 기계를 장악하고자 했던 인간이 오히려 기계에 사로잡히고, 산업을 마음대로 부리려 했던 현대인이 반대로 산업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비유였다. 빙글빙글 도는 톱니바퀴는 시계를 환기하기도 한다. 인류는 시간마저 마법사처럼 길들이고자 했고, 결국 전기기술과 정교한 교대제를 발명하며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인류가 잊은 게 있다. 밤을 굴복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작 그 밤을 사는 우리의 몸은 전혀 길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도 밤을 지새우며 일하는 당신은, 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밤의 어둠에 조금씩 몸을 잠식당한다. 묵직한 이 톱니바퀴에서 벗어날 방법을 다 같이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윤신영 과학동아 기자<br/>▶ 별이 빛나는 밤에 나홀로 일해보신 적 있으시죠? 24시간 돌아가는 첨단공장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밤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해가 떠 있지 않은 시각에 일을 하거나 깨어 있으면 몸이 알아서 반응한다는군요. 암, 심혈관계 질환, 만성피로와 과로사…. 모두 아는 이야기지만 실천하기 어렵지요. 자자, 그러니 이제 밤에는 일하지 말고 잠을 자게 해주세요.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60.txt

제목: 송전탑 밑 땅에 꽂으니…불 켜진 형광등  
날짜: 2014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0100000055  
본문: 송전탑 밑 땅에 꽂으니…불 켜진 형광등 충남 당진군 왜목마을 765㎸ 초고압 송전탑 아래에서 7일 오후 전자파의 영향을 알아보려 설치한 형광등에 불이 켜져 있다. 형광등은 전구 안에 들어 있는 수은 증기와 아르곤 가스가 양쪽 전극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를 받아 방전하면서 빛을 내는데,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전기장의 형태로도 전달될 수 있다. 형광등 전구 양쪽의 전극에 전기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주위에 강한 전기장만 있으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전기장이 암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전력은 부인하고 있다. 글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사진 오마이뉴스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61.txt

제목: 밤을 잊은 몸, 서서히 부서지는 몸  
날짜: 2014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1010013191629  
본문: ▶ 별이 빛나는 밤에 나홀로 일해보신 적 있으시죠? 24시간 돌아가는 첨단공장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밤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해가 떠 있지 않은 시각에 일을 하거나 깨어 있으면 몸이 알아서 반응한다는군요. 암, 심혈관계 질환, 만성피로와 과로사…. 모두 아는 이야기지만 실천하기 어렵지요. 자자, 그러니 이제 밤에는 일하지 말고 잠을 자게 해주세요. <br/><br/><br/><br/>지금 독자가 이 기사를 언제, 어디에서 읽고 있을까 궁금하다. 토요판 기사니까 여유롭게 ‘아점’이라도 먹으면서 신문을 펼쳐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로 밤을 꼬박 지새우고 불편한 잠을 청하기 직전에 이부자리에서 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예 야밤에 근무처에서 잠시 쉬는 동안 휴대전화를 통해 보거나.<br/><br/> 몇 명이나 그러겠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면 안 된다. 전체 노동자 5명 중 한 명 이상은 실제로 깊은 밤을 꼬박 일하면서 보낸다. 2011년 6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한 교대근무 현황을 보면, 조사 대상이 된 10인 이상 기업 전체의 15.2%, 제조업의 22%가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은 43.7%로 거의 절반이 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 군인이나 경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교대근무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나 파견 등의 고용 형태도 대부분 빠졌다.<br/><br/> 교대근무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br/><br/> “<span class='quot0'>의학적으로 보면 오전 7시 이전, 오후 7시 이후의 작업이 포함된 근무는 모두 교대근무로 봐야 합니다.</span>”<br/><br/> 김인아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실장(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의 설명이다. 교대근무는 일반적인 근무 시간 외에도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택하는 근무 형태다. 일반적이지 않은 근무 시간이란 저녁과 야간으로, 이 시간대의 주기적인 작업을 위해 노동시간을 변형해 배치하면 다 넓은 의미의 교대근무다. 교대근무는 적지 않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야간근무가 꼽힌다. 교대근무의 문제는 야간근무의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br/><br/> <br/><br/> 간호사의 야근과 유방암의 함수관계<br/><br/> 교대근무가 몸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야간근무 자체의 부담이다. 밤에 졸음을 참고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사고 위험도 높다. 문제는 밤샘을 일상적으로 해도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전국금속노조가 2011년 펴낸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에 사례가 잘 나와 있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누리집에 가면 볼 수 있다). 주야 맞교대 근무를 14년째 하는 금속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span class='quot1'>교대근무는 절대 익숙해질 수 없다</span>”고 분명히 말한다. “야간근무는 절대 적응이라는 게 없어요. 야간근무 한 지 20년 됐다고 해서, 야간근무 할 때 팔팔하고 쌩쌩하고 잠도 안 자도 된다거나, 아침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푹 잘 수 있고 하는 건 없어요. 야간 1년차든, 10년차든, 30년차든 적응이라는 것을 절대 할 수 없어요.”(보고서 10쪽)<br/><br/> 교대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또 하나의 영향은 불규칙한 근무 시간이 불러일으키는 신체 리듬의 파괴다. 과학에서는 생물의 ‘하루주기리듬’ 연구가 활발하다. 하루주기리듬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낮과 밤의 주기적인 변화에 몸이 반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체내 호르몬과 기관의 대사 활동이 이 주기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생물학과 의학 연구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하루주기리듬이 파괴되면 건강도 무시 못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br/><br/><br/><br/>전체 노동자 5명 중 1명이 <br/>깊은 밤 꼬박 일하며 보낸다 <br/>의학적으로 보면 오전 7시 전 <br/>오후 7시 뒤 작업 포함 근무는 <br/>모두 교대근무에 해당한다 <br/><br/><br/><br/>야간근무로 하루 주기 불규칙해 <br/>암·혈관성 질환에 노출되고 <br/>만성피로와 수면부족 시달려 <br/>“야근 1년차든 10년차든 <br/>적응 절대 할 수 없어요” <br/><br/><br/><br/> 대표적인 게 암이다. 이미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2007년 교대근무를 발암물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2A에 올렸다. ‘아직은 인체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원인으로는 야간 작업 중에 쬔 빛이 하루주기리듬을 깨뜨린다는 점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한다는 점이 꼽혔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는 등 연쇄적인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예가 유방암이다.<br/><br/> 2011년 6월 미국역학회지에는 노르웨이 간호사 4만9402명을 17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간호사들은 야간조 근무를 연달아 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 결과 야간근무를 연속으로 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5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야간근무를 4일 연달아 한 사람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다른 사람보다 1.4배 높았는데, 6일 연달아 야간근무를 한 경우엔 1.8배로 크게 치솟았다.<br/><br/> 심혈관계 질환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다. 흔히 ‘과로사’라고 불리는 갑작스러운 사망 중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의 혈관성 질환이 많다. 이들 질환이 근무 시간이나 형태와 관련이 많다는 뜻이다. 현대차 노조가 2004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주야 맞교대를 하는 노동자는 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에 비해 고혈압과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비율이 2~3배 높았다. 황승식 인하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span class='quot2'>밤에 깨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고, 결국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겨 심혈관 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br/> <br/><br/> 24시간 서비스업도 위험하다<br/><br/> 더 무서운 것은 만성피로와 수면부족일지 모른다. 생활을 서서히 파괴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수면장애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극심한 불면과 피로를 호소한다. ‘밝은 낮에 자려니 잠이 좀체 오지 않아 차라리 야간근무를 녹초가 될 정도로 바쁘게 하는 게 낫다’는 말이나, ‘주말 낮에 피로 때문에 자꾸만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해 고통스럽다’는 유의 진술도 있다. 가족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일인 줄 알면서도 기약 없는 기간 동안 반복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시시포스’인 교대근무자들이 겪는 최악의 고통이 아닐까.<br/><br/> 다행히 최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작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표됐다. 야간작업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가 매년 직업환경의학전문의를 만나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수면장애나 심혈관계질환, 유방암, 소화기질환 등 교대근무의 대표적인 건강 문제를 문진과 진찰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은 물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3년에 걸쳐 점차 확대한다.<br/><br/> 교대근무를 최대한 야간근무가 포함되지 않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주야 2교대를 하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두원정공은 2010년 9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 형태를 바꿨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 조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는 두 조가 번갈아 근무하는 형태다. 저녁부터 자정까지의 근무가 배제되지는 않았고 팍팍한 맞교대 형태도 여전하지만, 그래도 한밤과 새벽 근무는 피한 차선책이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3'>사회학자와 의사 등이 주축이 돼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가족 생활이나 행복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span>”고 말했다.<br/><br/> 황 교수는 “<span class='quot4'>공장도 문제지만, 이제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span>”라며 “<span class='quot4'>부득이하게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3일 이상 연속으로는 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시간을 역행하는(밤, 저녁, 오후, 오전 순) 순환교대제보다는 시간순을 따르는 교대제를 택해 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영화 <모던 타임즈>의 유명한 장면에서, 채플린은 거대한 톱니바퀴를 고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바퀴에 쓸려 들어간다. 기계를 장악하고자 했던 인간이 오히려 기계에 사로잡히고, 산업을 마음대로 부리려 했던 현대인이 반대로 산업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비유였다. 빙글빙글 도는 톱니바퀴는 시계를 환기하기도 한다. 인류는 시간마저 마법사처럼 길들이고자 했고, 결국 전기기술과 정교한 교대제를 발명하며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인류가 잊은 게 있다. 밤을 굴복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작 그 밤을 사는 우리의 몸은 전혀 길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도 밤을 지새우며 일하는 당신은, 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밤의 어둠에 조금씩 몸을 잠식당한다. 묵직한 이 톱니바퀴에서 벗어날 방법을 다 같이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br/><br/>윤신영 과학동아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62.txt

제목: 암 생존자들의 건강유지 생활법  
날짜: 2014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08100000086  
본문: 생로병사의 비밀 ‘암 치료 그 후… 생활을 바꿔야 산다’(한국방송1 밤 10시)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최근 조기 진단과 치료법의 발달로 5년 이상 장기 생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암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고기를 즐겨 먹고 야근을 자주 하는 등 불규칙한 생활을 해오던 홍헌표씨는 6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은 뒤 옛 습관을 모두 버렸다고 한다. 철저하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한편 남들보다 오래 걷고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고. 암은 완치가 되더라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만성질환이 될 수도 있는데, 제대로 먹고 운동하고 치료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63.txt

제목: 1월 8일 오늘의 하이라이트  
날짜: 20140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0710013160697  
본문: 시인과 떠난 멕시코 사막 여행<br/><br/>세계테마기행 ‘태양, 바람, 물의 땅 멕시코’(교육방송 저녁 8시50분) 시인이자 울산대 중남미학과 교수인 구광렬씨와 함께 뜨거운 사막과 선인장, 태양의 술 테킬라로 대표되는 멕시코를 여행한다. 북미 4대 사막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알타르 대사막에 가서 바람에 의해 날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모래언덕과 거대한 화산 분화구가 있는 독특한 풍경을 만나본다. ‘검고 냄새나는 딱정벌레’라는 뜻을 가진 피나카테 화산 분화구의 주변 풍경은 달의 표면과도 비슷해서 우주비행사들이 달 탐사를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받은 곳이다. 멕시코의 뜨거운 태양은 사막과 함께 세계적인 증류주 테킬라를 선물했다.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에 가서 테킬라를 마셔보고, 멕시코의 대중음악 마리아치를 함께 즐긴다.<br/><br/><br/><br/>암 생존자들의 건강유지 생활법 <br/><br/>생로병사의 비밀 ‘암 치료 그 후… 생활을 바꿔야 산다’(한국방송1 밤 10시)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최근 조기 진단과 치료법의 발달로 5년 이상 장기 생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암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고기를 즐겨 먹고 야근을 자주 하는 등 불규칙한 생활을 해오던 홍헌표씨는 6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은 뒤 옛 습관을 모두 버렸다고 한다. 철저하게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한편 남들보다 오래 걷고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고. 암은 완치가 되더라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만성질환이 될 수도 있는데, 제대로 먹고 운동하고 치료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64.txt

제목: 삼성 사업장 불법 과태료 건당 고작 8만3000원  
날짜: 20140107  
기자: 김동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07100000067  
본문: 정부의 공식 통계상 삼성의 노동자 산업재해율은 매우 낮다. 삼성의 몇몇 계열사는 과거 10여년간 무재해 달성으로 산재보험료를 환급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기록이 과연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일까?<br/>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삼성의 산업재해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와 관련해 한 연구원은 우선 삼성중공업 등 주요 12개 계열사가 지난 6년간 554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든다. 2013년 2월 고용노동부가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을 상대로 한 특별감독 결과에서도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몇 년간 삼성 사업장 곳곳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사고 또한 낮은 산재율을 무색하게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의 백혈병 등 암 및 희귀 질환 환자의 수치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에 접수된 것만 13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56명은 이미 숨졌다. 삼성에스디아이(SDI)에서도 백혈병과 간암으로 인한 사상자가 잇따랐다.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는 최근 4년간 세차례나 일어나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삼성정밀화학에서도 물탱크 붕괴로 대학생 등 3명이 숨졌다.<br/>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반올림에서 제보받은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가운데 90%가 암 환자이고, 5%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였다. 화학물질에 노출돼 20대, 많아야 30대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삼성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만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과 병원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br/>　그렇다면 왜 이런 산업재해가 되풀이되는 것일까? 산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두고선 삼성 쪽 주장과 피해자 쪽 주장이 크게 엇갈리지만, 삼성의 산재 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삼성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처리 방식’이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에서 △현행법 무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삼성의 로비력 △정부의 관리 부실 등 4가지를 문제로 꼽았다. 예컨대 6년간 55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단지 과태료 4644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8만3000원에 불과한 수치였다. 한 연구원은 “<span class='quot0'>노조가 있는 삼성 계열사에서 노조가 직접 조사를 하니, 13건 중 11건이 실제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 드러났다</span>”며 “<span class='quot0'>삼성의 오래된 무노조 전략은 산업재해 은폐 과정에서도 크게 한몫하고 있었다</span>”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삼성이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간다면 국민에게 존경받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향후 큰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삼성이 사회적 책임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인류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삼성의 목표가 성공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글·사진 김동훈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65.txt

제목: 삼성 반도체 공장 전직 여성노동자들 인터뷰 /“조별 속도경쟁 붙여 화장실에서 빵으로 끼니”  
날짜: 20140107  
기자: 김동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07100000016  
본문: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무노조 경영 전략을 고수해온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상황은 어떤가? 김진희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삼성전자 노동권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본다. <br/>김 교수는 만 17~18살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7~10년 넘게 일한 3명의 여성을 집중 인터뷰했다. 그 내용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삼성을 묻는다-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이란 제목의 두번째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권’이란 제목의 이 토론회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주관하고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등이 공동주최했다.<br/>■ 속도는 생명이다? “12인치 웨이퍼(반도체의 얇은 판)가 캐리어(운반체)에 25개 들어가면 무게가 8㎏ 정도인데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들고 뛰었어요. 특히 8인치 웨이퍼는 많이 들고 다녔죠. 하루 100박스까지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요즘은 수레가 도입됐지만, (제가 다닐 때는) 모두 손으로 옮겼죠.”<br/>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노동자 ㄱ씨의 증언이다. 그는 “조끼리 경쟁을 붙여서 조장이 다른 조는 10분 만에 가는데, 우리 조는 15분이나 걸린다고 다그치곤 했다”고 전했다. 전직 삼성전자 여성노동자 ㄴ씨는 “<span class='quot0'>반도체 메모리 생산에서 수율(투입량 대비 완성품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각 조마다 경쟁을 붙이거나 노동 성과를 바탕으로 인사고과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노동 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속도는 곧 생명’이었다</span>”고 폭로했다.<br/>　‘속도 경쟁’은 식사도 거르고 화장실 가는 것도 참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전직 삼성전자 여성노동자 ㄷ씨는 “<span class='quot0'>식사를 하러 가면 작업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을 때가 많았다</span>”고 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0'>옆사람이 식사를 하러 가면 한사람이 두사람 몫을 봐야 하고 자칫 실수하면 안 된다는 조바심 때문에 1시간이 2~3시간 일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다</span>”고 했다.<br/>　이들을 인터뷰한 김진희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하루에 몇 끼를 먹느냐’고 물었더니 ‘한끼나 두끼를 먹는다’고 하더라.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라 5년, 7년씩 이런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여성노동자들에게는 화장실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방진복을 갈아입고 다시 에어샤워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대략 10여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ㄱ씨는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다들 물을 적게 마신다”고 했다. ㄴ씨는 “식사와 화장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빵을 먹곤 했다”고 전했다.<br/>　■ 화학물질 공개는 영업비밀? 세 여성노동자는 “<span class='quot0'>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어떤 종류이고, 얼마나 사용되는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span>”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남성 엔지니어들에게는 ‘영업비밀’이라는 화학물질 목록이 적힌 ‘환경수첩’이 배포되고 있다. 환경수첩에 적힌 작업에 사용된 화학물질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 발암성 물질 6종, 불임과 유산을 유발하는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등이 포함됐다. ㄷ씨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있긴 하지만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피해를 방지하는 교육이 아니라 제품을 보호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과열된 생산성 경쟁으로 노동자들은 장갑 등 최소한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인터록(보호장치)을 해제하고 작업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한다”고 증언했다.<br/>　김진희 교수는 “<span class='quot1'>불규칙한 식사와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쌓여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방사선과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경악할 상황이 반복됐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삼성전자에 입사할 때 나이가 만 17~18살에 불과한데, 이 시기에는 면역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span>”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이런 분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등 암 질환 환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눈길을 끈다.<br/>　■ 사람 잡는 ‘유사가족주의’ 노조 없는 삼성전자에서 자리잡은 것이 ‘유사가족주의’다. ㄴ씨는 “여성노동자들의 입사일을 생일에 버금가게 중시해 애사심과 유사가족주의적 관계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ㄱ씨는 “회사는 분임조 활동을 권장하고 활동비까지 지원한다. 분임조에서는 ‘어떻게 하면 능률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금전적 보상까지 따른다”고 했다. 그러나 유사가족주의는 휴가조차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덫을 놓는다. ㄷ씨는 “몸이 아파도 휴가를 내면 내 언니, 내 동생에게 업무가 가중되니 눈치를 보게 된다”고 했다. ㄱ씨는 “휴가는 형제자매의 결혼식과 부모님 회갑뿐이다. 생리휴가는 상상도 못한다. 휴가를 내면 ‘제정신이냐’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ㄴ씨는 “한번은 선배 언니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다들 눈치를 줬는데 알고보니 급성맹장염이었다”고 말했다.<br/>　토론자로 나선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span class='quot2'>과거 삼성이 ‘또하나의 가족’이라는 기업 광고로 상까지 받았는데, 회사를 전근대적인 ‘가족이데올로기’로 접근해 봉사를 강요하고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br/>　삼성의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삼성에는 여전히 노조가 거의 없다. 여성노동자들은 “<span class='quot0'>감히 삼성에서 노조가 생길 수 있을까</span>”라며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ㄱ씨는 “관리자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회사 이야기 하는 것을 삼가라’,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경고한다”고 폭로했다. ㄴ씨는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순진한 농촌 출신들인데다 다들 피곤해서 다른 생각을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ㄷ씨는 “노사협의회가 있긴 하지만 작업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br/>　김진희 교수는 “<span class='quot1'>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부정되는 곳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1'>공장 안에서 거대한 폭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법 행위</span>”라고 강조했다.<br/>　■ 삼성식 노동 통제 삼성의 노동 통제는 비단 삼성전자의 여성노동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동자 통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삼성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와 인적 관계 및 심리 동향까지 회사에 의해 감시·포착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 속에서 감시 주체가 원하는 행동을 보이고 암묵적 지시까지 이행하는 철저한 자기검열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삼성의 노동 통제 방식을 △물리적 강제력 △물질적 보상 △조직 규범 △사회적 관계 등 4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물리적 강제력은 “신체적 폭력, 승진 및 고과 불이익, 징계와 해고 등 고통을 수반하는 신분상 불이익과 생존의 위협”이라고 했다.<br/>　물질적 보상은 “<span class='quot3'>임금과 인센티브 등 물질적 혜택을 제공해 노동자들의 순응을 유도하는 통제 방식</span>”이고, 조직 규범은 “<span class='quot3'>조직의 목표를 수용하고 조직의 규범을 준수해 조직적으로 순응하게 하는 통제 방식</span>”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는 “노동자들이 순응하지 않으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배제해 소외감을 주고 순응하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포용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통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span class='quot4'>일제강점기 양조장으로부터 세습한 삼성의 시대착오적 무노조 경영 전략의 결과물</span>”이라고 설명했다.<br/>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우선 삼성에 대해 “<span class='quot5'>국내법과 국제법, 국내 규제와 국제 규제를 지키고 자율적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span>”고 충고했다. 한 연구원은 당국에 대해서도 “<span class='quot6'>현행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선진국처럼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6'>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기업 감시도 필요하다</span>”고 덧붙였다.<br/> 김동훈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br/> cano@hani.co.kr<br/> >>> ‘다시, 삼성을 묻는다’ 3~6차 토론회 <br/>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주관하고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등이 공동주최하는 ‘다시, 삼성을 묻는다-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3차와 4차 토론회가 1월10일과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에서 잇따라 열린다.<br/>3차 토론회는 한양대 김정주 교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삼성 예외주의를 중심으로 발표되며, 4차 토론회에서는 경기대 류성민 교수의 삼성의 인사노무관리방식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br/>2월에 있을 5차와 6차 토론회는 7일과 21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개최된다. 5차에서는 삼성의 법조지배 사례와 대안을 김성진 변호사가 발표하고, 6차 토론회에서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가 삼성의 언론지배를, 박갑주 변호사가 삼성 엑스(X)파일 사건을 통해 본 삼성의 사회적 지배란 제목으로 발제를 한다. 마지막 토론회인 6차에서는 특히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66.txt

제목: 죽었거나 죽어가는 자를 향한 독백  
날짜: 2014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06100000093  
본문: 국수<br/>김숨 지음/창비·1만2000원<br/>김숨(사진)에게 2013년은 기억할 만한 한해였다. 연초에 제58회 현대문학상을 받은 데 이어 해가 이울 즈음에는 제21회 대산문학상까지 거머쥔 것이었다. 이 조용하고 성실한 작가의 개성과 깊이에 문단이 주목한 결과였다.<br/>　그의 네번째 소설집 에는 현대문학상 수상작 을 포함해 단편 아홉이 묶였다. 그중 상당수가 부부나 부모자식, 형제 같은 가족 사이 관계의 결을 다루고 있음이 우선 눈에 뜨인다. 표제작 는 죽음을 앞둔 의붓어미와 중년의 딸을 등장시킨다. 자식 딸린 남자의 후처로 들어온 의붓어미는 남편한테서나 의붓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식구 대접을 받지 못한 채 29년 세월을 살아왔다. 화자 ‘나’는 29년 전 의붓어미가 처음 해 주었던 음식인 국수를 반죽하고 만들면서 흘러간 세월을 돌이킨다. “<span class='quot0'>빚을 갚는 심정으로 반죽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span>”다는 화자의 말처럼 국수를 만드는 절차는 회한과 반성으로 지난 시간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화해의 과정과 포개진다.<br/>　에는 며느리가 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행 막차에 오른 노부부가 나온다. 소설은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통해 고부 사이 갈등의 내력을 알려주며 그 갈등 역시 소설이 진행되면서 대체로 해소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남편과 함께 탄 것으로 알았던 버스에 사실은 아내 혼자 탔던 것이라는 말미의 ‘반전’은 소설에 또다른 무늬를 새겨 넣는다.<br/>　에서는 초로의 자매가 아흔 넘어 운명한 어미의 주검과 함께 응급차에 타고 고향 옥천으로 향한다. 생전에 그토록 옥천에 가고 싶어했던 어미의 소망을 들어드리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보조금을 타내고자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야 했던 데 대한 회한은 끝내 자매의 통곡으로 마무리된다.<br/>　이미 발생했거나 임박한 죽음을 소재로 삼은 이 세 작품이 공통적으로 독백 형식을 취한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는 깊은 잠에 빠진 의붓어미 옆에서 국수를 만드는 딸의 독백으로 시종하며, 에서는 부재하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일방적인 대사가 소설을 지배하고, 에서도 딸들의 회한 어린 말은 이미 죽은 어미에게 가닿지 못한다.<br/>　현대문학상 수상작 과 같은 작품들이 현대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모호한 불안을 극적으로 묘사한다면, 은 그 불안의 바탕에 깔린 고독과 소외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장편 여섯을 합쳐 열번째 소설책을 낸 김숨은 “성실하게, 한결같이”라고 ‘작가의 말’에 썼다.<br/> 최재봉 기자, 사진 사진작가 라미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67.txt

제목: “조별 속도경쟁 붙여 화장실에서 빵으로 끼니”  
날짜: 2014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0610013150341  
본문: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무노조 경영 전략을 고수해온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상황은 어떤가? 김진희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삼성전자 노동권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본다.<br/><br/> 김 교수는 만 17~18살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7~10년 넘게 일한 3명의 여성을 집중 인터뷰했다. 그 내용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삼성을 묻는다-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이란 제목의 두번째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권’이란 제목의 이 토론회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주관하고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등이 공동주최했다.<br/><br/> <br/><br/><br/> ■ 속도는 생명이다? “12인치 웨이퍼(반도체의 얇은 판)가 캐리어(운반체)에 25개 들어가면 무게가 8㎏ 정도인데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들고 뛰었어요. 특히 8인치 웨이퍼는 많이 들고 다녔죠. 하루 100박스까지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요즘은 수레가 도입됐지만, (제가 다닐 때는) 모두 손으로 옮겼죠.”<br/><br/>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노동자 ㄱ씨의 증언이다. 그는 “조끼리 경쟁을 붙여서 조장이 다른 조는 10분 만에 가는데, 우리 조는 15분이나 걸린다고 다그치곤 했다”고 전했다. 전직 삼성전자 여성노동자 ㄴ씨는 “<span class='quot0'>반도체 메모리 생산에서 수율(투입량 대비 완성품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각 조마다 경쟁을 붙이거나 노동 성과를 바탕으로 인사고과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노동 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속도는 곧 생명’이었다</span>”고 폭로했다.<br/><br/> ‘속도 경쟁’은 식사도 거르고 화장실 가는 것도 참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전직 삼성전자 여성노동자 ㄷ씨는 “<span class='quot0'>식사를 하러 가면 작업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을 때가 많았다</span>”고 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0'>옆사람이 식사를 하러 가면 한사람이 두사람 몫을 봐야 하고 자칫 실수하면 안 된다는 조바심 때문에 1시간이 2~3시간 일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는다</span>”고 했다.<br/><br/> 이들을 인터뷰한 김진희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하루에 몇 끼를 먹느냐’고 물었더니 ‘한끼나 두끼를 먹는다’고 하더라.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라 5년, 7년씩 이런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여성노동자들에게는 화장실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방진복을 갈아입고 다시 에어샤워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대략 10여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ㄱ씨는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다들 물을 적게 마신다”고 했다. ㄴ씨는 “식사와 화장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빵을 먹곤 했다”고 전했다.식사 거르고 화장실도 참아야 <br/>가족주의 내세워 휴가도 눈치 <br/>안전교육은 노동자 아닌 <br/>제품 보호하기 위한 내용 <br/>방사선·화학약품 노출 빈발<br/><br/><br/><br/> ■ 화학물질 공개는 영업비밀? 세 여성노동자는 “<span class='quot0'>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어떤 종류이고, 얼마나 사용되는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span>”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남성 엔지니어들에게는 ‘영업비밀’이라는 화학물질 목록이 적힌 ‘환경수첩’이 배포되고 있다. 환경수첩에 적힌 작업에 사용된 화학물질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 발암성 물질 6종, 불임과 유산을 유발하는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등이 포함됐다. ㄷ씨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있긴 하지만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피해를 방지하는 교육이 아니라 제품을 보호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과열된 생산성 경쟁으로 노동자들은 장갑 등 최소한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인터록(보호장치)을 해제하고 작업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한다”고 증언했다.<br/><br/> 김진희 교수는 “<span class='quot1'>불규칙한 식사와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쌓여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방사선과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경악할 상황이 반복됐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삼성전자에 입사할 때 나이가 만 17~18살에 불과한데, 이 시기에는 면역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span>”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이런 분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 등 암 질환 환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눈길을 끈다.<br/><br/> ■ 사람 잡는 ‘유사가족주의’ 노조 없는 삼성전자에서 자리잡은 것이 ‘유사가족주의’다. ㄴ씨는 “여성노동자들의 입사일을 생일에 버금가게 중시해 애사심과 유사가족주의적 관계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ㄱ씨는 “회사는 분임조 활동을 권장하고 활동비까지 지원한다. 분임조에서는 ‘어떻게 하면 능률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금전적 보상까지 따른다”고 했다. 그러나 유사가족주의는 휴가조차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덫을 놓는다. ㄷ씨는 “몸이 아파도 휴가를 내면 내 언니, 내 동생에게 업무가 가중되니 눈치를 보게 된다”고 했다. ㄱ씨는 “휴가는 형제자매의 결혼식과 부모님 회갑뿐이다. 생리휴가는 상상도 못한다. 휴가를 내면 ‘제정신이냐’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ㄴ씨는 “한번은 선배 언니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다들 눈치를 줬는데 알고보니 급성맹장염이었다”고 말했다.<br/><br/> 토론자로 나선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span class='quot2'>과거 삼성이 ‘또하나의 가족’이라는 기업 광고로 상까지 받았는데, 회사를 전근대적인 ‘가족이데올로기’로 접근해 봉사를 강요하고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 삼성의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삼성에는 여전히 노조가 거의 없다. 여성노동자들은 “<span class='quot0'>감히 삼성에서 노조가 생길 수 있을까</span>”라며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ㄱ씨는 “관리자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회사 이야기 하는 것을 삼가라’,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경고한다”고 폭로했다. ㄴ씨는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순진한 농촌 출신들인데다 다들 피곤해서 다른 생각을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ㄷ씨는 “노사협의회가 있긴 하지만 작업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br/><br/> 김진희 교수는 “<span class='quot1'>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부정되는 곳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1'>공장 안에서 거대한 폭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법 행위</span>”라고 강조했다.<br/><br/> ■ 삼성식 노동 통제 삼성의 노동 통제는 비단 삼성전자의 여성노동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동자 통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삼성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와 인적 관계 및 심리 동향까지 회사에 의해 감시·포착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 속에서 감시 주체가 원하는 행동을 보이고 암묵적 지시까지 이행하는 철저한 자기검열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삼성의 노동 통제 방식을 △물리적 강제력 △물질적 보상 △조직 규범 △사회적 관계 등 4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물리적 강제력은 “신체적 폭력, 승진 및 고과 불이익, 징계와 해고 등 고통을 수반하는 신분상 불이익과 생존의 위협”이라고 했다.<br/><br/> 물질적 보상은 “<span class='quot3'>임금과 인센티브 등 물질적 혜택을 제공해 노동자들의 순응을 유도하는 통제 방식</span>”이고, 조직 규범은 “<span class='quot3'>조직의 목표를 수용하고 조직의 규범을 준수해 조직적으로 순응하게 하는 통제 방식</span>”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는 “노동자들이 순응하지 않으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배제해 소외감을 주고 순응하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포용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통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span class='quot4'>일제강점기 양조장으로부터 세습한 삼성의 시대착오적 무노조 경영 전략의 결과물</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우선 삼성에 대해 “<span class='quot5'>국내법과 국제법, 국내 규제와 국제 규제를 지키고 자율적 국내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span>”고 충고했다. 한 연구원은 당국에 대해서도 “<span class='quot6'>현행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선진국처럼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6'>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기업 감시도 필요하다</span>”고 덧붙였다.<br/><br/> 김동훈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cano@hani.co.kr >>> ‘다시, 삼성을 묻는다’ 3~6차 토론회<br/><br/>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주관하고 학술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등이 공동주최하는 ‘다시, 삼성을 묻는다-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3차와 4차 토론회가 1월10일과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에서 잇따라 열린다.<br/><br/>3차 토론회는 한양대 김정주 교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삼성 예외주의를 중심으로 발표되며, 4차 토론회에서는 경기대 류성민 교수의 삼성의 인사노무관리방식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br/><br/>2월에 있을 5차와 6차 토론회는 7일과 21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개최된다. 5차에서는 삼성의 법조지배 사례와 대안을 김성진 변호사가 발표하고, 6차 토론회에서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가 삼성의 언론지배를, 박갑주 변호사가 삼성 엑스(X)파일 사건을 통해 본 삼성의 사회적 지배란 제목으로 발제를 한다. 마지막 토론회인 6차에서는 특히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br/><br/><br/><br/><br/><br/> 삼성 사업장 불법 과태료 건당 고작 8만3000원<br/><br/><br/><br/>정부의 공식 통계상 삼성의 노동자 산업재해율은 매우 낮다. 삼성의 몇몇 계열사는 과거 10여년간 무재해 달성으로 산재보험료를 환급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기록이 과연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일까?<br/><br/>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삼성의 산업재해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와 관련해 한 연구원은 우선 삼성중공업 등 주요 12개 계열사가 지난 6년간 554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든다. 2013년 2월 고용노동부가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을 상대로 한 특별감독 결과에서도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몇 년간 삼성 사업장 곳곳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사고 또한 낮은 산재율을 무색하게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의 백혈병 등 암 및 희귀 질환 환자의 수치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에 접수된 것만 13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56명은 이미 숨졌다. 삼성에스디아이(SDI)에서도 백혈병과 간암으로 인한 사상자가 잇따랐다.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는 최근 4년간 세차례나 일어나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삼성정밀화학에서도 물탱크 붕괴로 대학생 등 3명이 숨졌다.<br/><br/>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반올림에서 제보받은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가운데 90%가 암 환자이고, 5%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였다. 화학물질에 노출돼 20대, 많아야 30대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삼성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만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과 병원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br/><br/> 그렇다면 왜 이런 산업재해가 되풀이되는 것일까? 산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두고선 삼성 쪽 주장과 피해자 쪽 주장이 크게 엇갈리지만, 삼성의 산재 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삼성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처리 방식’이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에서 △현행법 무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삼성의 로비력 △정부의 관리 부실 등 4가지를 문제로 꼽았다. 예컨대 6년간 55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단지 과태료 4644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8만3000원에 불과한 수치였다. 한 연구원은 “<span class='quot6'>노조가 있는 삼성 계열사에서 노조가 직접 조사를 하니, 13건 중 11건이 실제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 드러났다</span>”며 “<span class='quot6'>삼성의 오래된 무노조 전략은 산업재해 은폐 과정에서도 크게 한몫하고 있었다</span>”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 연구원은 “<span class='quot6'>삼성이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간다면 국민에게 존경받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향후 큰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6'>삼성이 사회적 책임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인류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삼성의 목표가 성공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글·사진 김동훈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68.txt

제목: 죽었거나 죽어가는 자를 향한 독백  
날짜: 2014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0510013139864  
본문: 국수 <br/>김숨 지음 <br/>창비·1만2000원 <br/><br/><br/><br/>김숨(사진)에게 2013년은 기억할 만한 한해였다. 연초에 제58회 현대문학상을 받은 데 이어 해가 이울 즈음에는 제21회 대산문학상까지 거머쥔 것이었다. 이 조용하고 성실한 작가의 개성과 깊이에 문단이 주목한 결과였다.<br/><br/> 그의 네번째 소설집 <국수>에는 현대문학상 수상작 <그 밤의 경숙>을 포함해 단편 아홉이 묶였다. 그중 상당수가 부부나 부모자식, 형제 같은 가족 사이 관계의 결을 다루고 있음이 우선 눈에 뜨인다. 표제작 <국수>는 죽음을 앞둔 의붓어미와 중년의 딸을 등장시킨다. 자식 딸린 남자의 후처로 들어온 의붓어미는 남편한테서나 의붓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식구 대접을 받지 못한 채 29년 세월을 살아왔다. 화자 ‘나’는 29년 전 의붓어미가 처음 해 주었던 음식인 국수를 반죽하고 만들면서 흘러간 세월을 돌이킨다. “<span class='quot0'>빚을 갚는 심정으로 반죽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span>”다는 화자의 말처럼 국수를 만드는 절차는 회한과 반성으로 지난 시간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화해의 과정과 포개진다.<br/><br/> <막차>에는 며느리가 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행 막차에 오른 노부부가 나온다. 소설은 주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통해 고부 사이 갈등의 내력을 알려주며 그 갈등 역시 소설이 진행되면서 대체로 해소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남편과 함께 탄 것으로 알았던 버스에 사실은 아내 혼자 탔던 것이라는 말미의 ‘반전’은 소설에 또다른 무늬를 새겨 넣는다.<br/><br/> <옥천 가는 길>에서는 초로의 자매가 아흔 넘어 운명한 어미의 주검과 함께 응급차에 타고 고향 옥천으로 향한다. 생전에 그토록 옥천에 가고 싶어했던 어미의 소망을 들어드리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보조금을 타내고자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야 했던 데 대한 회한은 끝내 자매의 통곡으로 마무리된다.<br/><br/> 이미 발생했거나 임박한 죽음을 소재로 삼은 이 세 작품이 공통적으로 독백 형식을 취한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국수>는 깊은 잠에 빠진 의붓어미 옆에서 국수를 만드는 딸의 독백으로 시종하며, <막차>에서는 부재하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일방적인 대사가 소설을 지배하고, <옥천 가는 길>에서도 딸들의 회한 어린 말은 이미 죽은 어미에게 가닿지 못한다.<br/><br/> 현대문학상 수상작 <그 밤의 경숙>과 <명당을 찾아서> 같은 작품들이 현대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모호한 불안을 극적으로 묘사한다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그 불안의 바탕에 깔린 고독과 소외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장편 여섯을 합쳐 열번째 소설책을 낸 김숨은 “성실하게, 한결같이”라고 ‘작가의 말’에 썼다.<br/><br/> 최재봉 기자, 사진 사진작가 라미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69.txt

제목: 수도권 미세먼지 10년안 36% 줄인다  
날짜: 20140102  
기자: 김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02100000073  
본문: 정부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도권 대기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서울 기준으로 2024년까지 2010년 대비 각각 36%와 26%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ｍ) 이하, 초미세먼지는 2.5㎛ 이하의 작은 먼지로, 기관지와 폐 등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과 암까지 일으키는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이다.<br/>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 관련 부처,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난 26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올해 끝나는 1차 기본계획의 적용 지역에서 빠져 있던 포천·안성·여주·광주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시행된다. <br/>　2차 기본계획은 2024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입해, 기본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전망치(BAU)에 견줘 미세먼지는 35%, 초미세먼지는 45%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 기준으로 2010년 1㎥에 47㎍(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ｇ)인 미세먼지 농도를 30㎍으로, 27㎍/㎥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출 계획이다. 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키는 이산화질소(NO₂) 농도도 34ppb에서 21ppb로 낮추기로 했다. <br/>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까지 수도권의 친환경차 등록 비율을 전체 등록 차량의 20% 수준인 200만대까지 늘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에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외부 차량에까지 확대해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교통 수요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자가용의 일일 평균 주행거리(VKT)가 현재 38.5㎞에서 2024년 27㎞로 30%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다. 세탁소와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br/>　환경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수도권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 사망자가 1만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줄고 연간 약 6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밝혔다.<br/>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70.txt

제목: 빙벽 등반 /얼음절벽 정상 코앞…두 팔 후들후들…온몸 방전돼…  
날짜: 20140102  
기자: 이길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02100000002  
본문: 스포츠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다. 익숙한 시공간을 벗어나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는 일반 독자들이 쉽게 경험하기 힘든 종목이나 스포츠의 숨어 있는 영역을 찾아내 체험의 감흥을 전달한다. 독자의 아이디어와 의견도 전자우편(fkcool@hani.co.kr)으로 받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br/>깊게 숨을 들이쉰다. 얼음의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이 함께 코앞에 바짝 다가서 있다.<br/>　고개를 쳐드니 아찔한 수직 빙벽이다. 높이 20m의 수직 벽은 저 멀리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위압적으로 존재한다. 먼저 올라가는 등반자가 찍어낸 얼음 파편이 가끔씩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 위로 쏟아진다. 허리에 매여 있는 구조용 로프가 추락을 막아주지만 수직 낙하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가시질 않는다.<br/>　지난달 24일 성탄절 이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얼어붙는다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도락산 가래비빙벽장은 전국에서 찾아온 동호인들로 붐볐다. 빙벽 등반의 매력에 빠진 이들이 경쟁적으로 절벽에 달라붙는다.<br/>　아이젠보다 발톱이 긴 크램폰을 채운 빙벽화를 신고 11자로 강하게 얼음바닥을 찍어야 한다. 얼음도끼로 불리는 아이스바일은 톱니가 있는 기역(ㄱ)자 모양의 쇠. 양손의 손목 스냅을 이용해 얼음을 찍어야 제구실을 한다. 빙벽에 오르기 전 빙벽화를 얼음에 수평으로 찍어 고정하는 요령과 아이스바일로 올라갈 방향의 얼음을 찍는 훈련을 한다. 대부분의 빙벽 등반 동호인들은 등산을 하다가 암벽에 빠져들고, 다시 빙벽의 매력에 심취하게 된다. 그러니 그들의 온몸 근육은 섬세하게 단련돼 있고, 중력에 저항해 수직 벽을 오르는 것에 별다른 두려움이 없다.<br/>　암벽과 빙벽 등반 전문가인 노스페이스의 이재용 과장(서울시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 이사)이 빙벽 한쪽에서 기자에게 기초훈련을 시킨 뒤 빙벽 등반을 권유한다. 1차 시도다. 물론 스트레칭으로 온몸의 근육을 풀어준 상태였다.<br/>　조심스럽게 빙벽을 타기 시작했다. 우선 오른발 쪽 빙벽을 보고 크램폰을 고정할 곳을 찾았다. 공을 차듯 힘차게 빙벽을 찍어 본다. 느낌이 좋다. 이번엔 고개를 들고, 왼손으로 아이스바일을 공중에 들어 올렸다가 얼음을 찍어 본다. 손목의 스냅과 힘이 정확하게 얼음을 파고들지 못해 튕겨난다.<br/>　다시 시도해 얼음에 꽂는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리며 발을 디딘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온다. 크램폰이 얼음에서 빠져 미끄러지는 것은 아닐까? 힘에 부쳐서 아이스바일을 놓치면 어쩌나? 두려움에 비례에 두 팔에 힘은 더 들어간다. 한발, 두발 오르다가 아래를 보니 내 보호 밧줄을 잡고 있는 보조자가 저 멀리 아래에 있다. 발을 디딜 곳과 아이스바일로 얼음을 찍을 곳을 찾지 못해 헤매는 기자에게 이 과장은 아래에서 큰 소리로 “오른발을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요. 왼쪽 움푹 파인 곳에 아이스바일을 찍어요”라고 조언한다. 간신히 15m가량 오르니 20분이 흘렀고, 전신에 힘이 남아 있지 않은 듯하다. 요령 없이 힘을 잔뜩 준 두 팔은 후들후들한다. 등반을 포기하고 일단 내려왔다.<br/>　이 과장은 헉헉대는 기자에게 ‘결정적인’ 빙벽 등반 요령을 가르쳐 준다. “두 발의 폭을 줄이세요. 줄인 상태에서 한쪽 발을 올려 자리 잡곤 다시 자리를 확보합니다. 몸의 중심이 실린 아이스바일과 양 다리는 항상 이등변삼각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몸이 쏠리거든 허리를 이용해 그쪽으로 몸의 중심을 옮깁니다. 크램폰을 찍은 다리의 무릎을 굽혔다가 펴며 올라가야 합니다. 팔힘으로 올라가면 누구나 중도에 포기해야 합니다.”<br/>　피워놓은 모닥불에 손과 발을 녹이고, 따뜻한 어묵 국물을 마신 뒤 2차 시도에 나섰다. 처음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하다. 두 팔에 힘을 빼고 다리에 힘을 줘서 오르는 것에 집중했다. 얼음절벽 곳곳에 존재하는 요철이 눈에 잘 들어온다. 다리도 쭉 뻗어 멀리 있는 곳에 크램폰을 고정시키기도 했다. 드디어 빙벽 정상이 눈앞에 보인다. 이제 2m만 오르면 된다. 그러나 역시 두 팔의 근육엔 젖산이 꽉 차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 정상 주변의 얼음이 불룩해 몸이 뒤로 떨어질 것만 같다. 아이스바일을 찍을 곳도 보이지 않는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포기하자니 완등의 기쁨이 아쉽기만 하다. 힘을 내 기합을 지르며 다시 얼음벽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의지만 있을 뿐 몸이 따르지 않는다. “완등”. 스스로 완등을 선언했다. 생명줄에 매달려 바닥에 내리자 이 과장이 한마디 한다.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30%의 힘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정신력의 힘입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 빙벽을 쳐다본다. 아찔하기만 했던 빙벽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또 달라붙고 싶어진다. <br/> 양주/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71.txt

제목: 수도권 미세먼지 10년안 36% 줄인다  
날짜: 2014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0110013116606  
본문: 정부가 건강을 위협하는 수도권 대기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서울 기준으로 2024년까지 2010년 대비 각각 36%와 26%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ㆍ100만분의1ｍ) 이하, 초미세먼지는 2.5㎛ 이하의 작은 먼지로, 기관지와 폐 등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과 암까지 일으키는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이다.<br/><br/>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 관련 부처,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난달 26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올해 끝나는 1차 기본계획의 적용 지역에서 빠져있던 포천·안성·여주·광주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시행된다. <br/><br/> 2차 기본계획은 2024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입해, 기본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전망치(BAU)에 견줘 미세먼지는 35%, 초미세먼지는 45%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 기준으로 2010년 1㎥에 47㎍(마이크로그램ㆍ100만분의1ｇ)인 미세먼지 농도를 30㎍으로, 27㎍/㎥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20㎍/㎥으로 낮출 계획이다. 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키는 이산화질소(NO₂) 농도도 34ppb에서 21ppb로 낮추기로 했다. <br/><br/>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까지 수도권의 친환경차 등록 비율을 전체 등록 차량의 20% 수준인 200만대까지 늘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외부 차량에게까지 확대해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교통 수요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자가용의 1일 평균 주행거리(VKT)가 현재 38.5㎞에서 2024년 27㎞로 30%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다. 세탁소와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br/><br/> 환경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수도권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자가 1만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줄고 연간 약 6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밝혔다.<br/><br/>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72.txt

제목: 의사의 양심을 시험하는 투자활성화대책  
날짜: 20140101  
기자: 김명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01100000028  
본문: 지난달 중순 정부는 의료기관이 영리법인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이 결코 ‘의료 민영화’나 의료서비스의 ‘영리화’ 방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의 말을 믿고 싶으나, 이전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정부의 설명이 오히려 의혹을 더 남긴다. <br/>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지난해 에 나온 것으로, 경제적 인센티브가 의사들의 진료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엡스타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팀은 미국의 암등록 자료와 약제비 청구 자료를 이용해, 1992~2002년 전이된 유방암을 진단받은 65살 이상 환자 4503명에 대한 항암제 처방 결과를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의약품의 처방과 투약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에서 얻는 직접적인 이득이 없다. 그런데 항암제는 예외다. 의사가 제약사 등에서 약을 도매가로 산 뒤, 이를 환자들에게 직접 처방 및 투약을 하고 나중에 이를 보험에 청구해 받는다. 의사의 항암제 선택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므로 처방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1997~2004년 미국의 공보험인 메디케어의 전체 약제비가 47% 증가한 데 견줘, 항암제 비용은 267%나 늘었다. 분석 결과 또 약값 마진이 큰 항암제일수록 의사의 선택 경향이 뚜렷해졌다. 약값 마진이 10% 증가할 때마다 최저 11%에서 최대 177%까지 특정 항암제에 대한 선택이 많아졌다. 대신 특허 만료로 약값이 떨어져 의사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줄면 처방이 39% 감소했다. 물론 학술적 근거가 풍부하거나 미국 식약청이 승인한 항암제에 대한 선택 경향도 뚜렷했다. 의사의 항암제 선택에는 임상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의사는 과학적 판단뿐 아니라 경제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다. <br/>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우리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한국의 의사들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윤리적 초인임에 틀림없다. 의사는 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불필요한 건강보조식품이나 의료보조기구를 환자에게 권하지 않을 것이다. 식당, 장례식장을 통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의사의 ‘양심’을 걸고 ‘착한 가게’로 운영할 것이며, 여기에서 생긴 수익은 한 푼도 남김없이 진료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할 것이다. 만일 영리법인 자회사를 통해 열성적으로 돈벌이에 몰두하는 병원이나 의사가 있다면, 이는 이들의 특별한 탐욕 탓이니 정부는 이런 비양심적인 의사들을 색출해 혼내주기만 하면 된다. <br/>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논문에서 보여주듯, 의사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한참 진행된 암에서의 항암제 처방에도 영향을 미쳤다. 덜 위중하거나 비필수적인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전 연구들이 반복해서 지적했듯, 의사들은 초인이 아니라 시민들 심지어 투자활성화 대책을 만든 관료와도 다르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 때문에 의사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양심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br/> 의사가 전문가의 자존감을 버리면서 돈벌이 경쟁에 나서고 환자들은 의사를 불신하며 미심쩍은 추가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정부가 왜 만들어내는지 한심하다는 말로는 차마 다 표현할 수가 없다. <br/>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health.re.kr) 연구원

언론사: 한겨레-2-1173.txt

제목: 얼음절벽 정상 코앞…두 팔 후들후들…온 몸 방전…  
날짜: 20140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001.2014010110013115375  
본문: 스포츠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다. 익숙한 시공간을 벗어나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한겨레>는 일반 독자들이 쉽게 경험하기 힘든 종목이나 스포츠의 숨어 있는 영역을 찾아내 체험의 감흥을 전달한다. 독자의 아이디어와 의견도 전자우편(fkcool@hani.co.kr)으로 받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깊게 숨을 들이쉰다. 얼음의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이 함께 코앞에 바짝 다가서 있다.<br/><br/> 고개를 쳐드니 아찔한 수직 빙벽이다. 높이 20m의 수직 벽은 저 멀리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위압적으로 존재한다. 먼저 올라가는 등반자가 찍어낸 얼음 파편이 가끔씩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 위로 쏟아진다. 허리에 매여 있는 구조용 로프가 추락을 막아주지만 수직 낙하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가시질 않는다.<br/><br/> 지난달 24일 성탄절 이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얼어붙는다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도락산 가래비빙벽장은 전국에서 찾아온 동호인들로 붐볐다. 빙벽 등반의 매력에 빠진 이들이 경쟁적으로 절벽에 달라붙는다.<br/><br/> 아이젠보다 발톱이 긴 크램폰을 채운 빙벽화를 신고 11자로 강하게 얼음바닥을 찍어야 한다. 얼음도끼로 불리는 아이스바일은 톱니가 있는 기역(ㄱ)자 모양의 쇠. 양손의 손목 스냅을 이용해 얼음을 찍어야 제구실을 한다. 빙벽에 오르기 전 빙벽화를 얼음에 수평으로 찍어 고정하는 요령과 아이스바일로 올라갈 방향의 얼음을 찍는 훈련을 한다. 대부분의 빙벽 등반 동호인들은 등산을 하다가 암벽에 빠져들고, 다시 빙벽의 매력에 심취하게 된다. 그러니 그들의 온몸 근육은 섬세하게 단련돼 있고, 중력에 저항해 수직 벽을 오르는 것에 대해 별다른 두려움이 없다.<br/><br/><br/><br/>높이 20m 수직빙벽에 파편 후두둑 <br/>퍽 퍽 얼음 찍어보지만 튕기기 일쑤<br/><br/>“<span class='quot0'>팔이 아니라 허리와 다리 활용해야</span>” <br/> 조언 듣고 다시 오르니 조금 편해져 <br/> 완등 2m 앞두고 힘빠져 아쉬운 포기 <br/><br/> <br/><br/>암벽과 빙벽 등반 전문가인 노스페이스의 이재용 과장(서울시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 이사)이 빙벽 한쪽에서 기자에게 기초훈련을 시킨 뒤 빙벽 등반을 권유한다. 1차 시도다. 물론 스트레칭으로 온몸의 근육을 풀어준 상태였다.<br/><br/>조심스럽게 빙벽을 타기 시작했다. 우선 오른발 쪽 빙벽을 보고 크램폰을 고정할 곳을 찾았다. 공을 차듯 힘차게 빙벽을 찍어 본다. 느낌이 좋다. 이번엔 고개를 들고, 왼손으로 아이스바일을 공중에 들어 올렸다가 얼음을 찍어 본다. 손목의 스냅과 힘이 정확하게 얼음을 파고들지 못해 튕겨난다.<br/><br/> 다시 시도해 얼음에 꽂는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리며 발을 디딘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온다. 크램폰이 얼음에서 빠져 미끄러지는 것은 아닐까? 힘에 부쳐서 아이스바일을 놓치면 어쩌나? 두려움에 비례에 두 팔에 힘은 더 들어간다. 한발, 두발 오르다가 아래를 보니 내 보호 밧줄을 잡고 있는 보조자가 저 멀리 아래에 있다. 발을 디딜 곳과 아이스바일로 얼음을 찍을 곳을 찾지 못해 헤매는 기자에게 이 과장은 아래에서 큰 소리로 “오른발을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요. 왼쪽 움푹 파인 곳에 아이스 바일을 찍어요”라고 조언한다. 간신히 15m가량 오르니 20분이 흘렀고, 전신에 힘이 남아 있지 않은 듯하다. 요령 없이 힘을 잔뜩 준 두 팔은 후들후들한다. 등반을 포기하고 일단 내려왔다.<br/><br/>이 과장은 헉헉대는 기자에게 ‘결정적인’ 빙벽 등반 요령을 가르쳐 준다. “두 발의 폭을 줄이세요. 줄인 상태에서 한쪽 발을 올려 자리 잡곤 다시 자리를 확보합니다. 몸의 중심이 실린 아이스바일과 양 다리는 항상 이등변삼각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몸이 쏠리거든 허리를 이용해 그쪽으로 몸의 중심을 옮깁니다. 크램폰을 찍은 다리의 무릎을 굽혔다가 펴며 올라가야 합니다. 팔힘으로 올라가면 누구나 중도에 포기해야 합니다.”<br/><br/><br/><br/> <br/><br/><br/><br/>피워놓은 모닥불에 손과 발을 녹이고, 따뜻한 어묵 국물을 마신 뒤 2차 시도에 나섰다. 첫번째보다는 휠씬 마음이 편하다. 두 팔에 힘을 빼고 다리에 힘을 줘서 오르는 것에 집중했다. 얼음절벽 곳곳에 존재하는 요철이 눈에 잘 들어온다. 다리도 쭉 뻗어 멀리 있는 곳에 크램폰을 고정시키기도 했다. 드디어 빙벽 정상이 눈앞에 보인다. 이제 2m만 오르면 된다. 그러나 역시 두 팔의 근육엔 젖산이 꽉 차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 정상 주변의 얼음이 불룩해 몸이 뒤로 떨어질 것만 같다. 아이스바일을 찍을 곳도 보이지 않는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포기하자니 완등의 기쁨이 아쉽기만 하다. 힘을 내 기합을 지르며 다시 얼음벽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의지만 있을 뿐 몸이 따르지 않는다. “완등”. 스스로 완등을 선언했다. 생명줄에 매달려 바닥에 내리자 이 과장이 한마디 한다.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30%의 힘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정신력의 힘입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 빙벽을 쳐다본다. 아찔하기만 했던 빙벽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또 달라붙고 싶어진다. <br/><br/> 양주/이길우 선임기자 nihao@hani.co.kr